

중국지역 한민족 농업인 네트워크 구축 및 대중국 농식품수출 · 농업투자 활성화 방안

김완배 · 송정환 · 리금

머리말

우리나라는 화교, 유태인에 이어 세계에서 3번째로 많은 670여만 명에 이르는 해외 동포를 세계 140여 국가에 보유한 교민대국이다. 이들 670여 만 재외동포는 우리 농산물에 대한 고정고객이 될 수 있으며, 나아가 이들이 거주하고 있는 국가에 우리 농식품과 식문화의 전파 및 수요 확대에도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1992년 한·중 수교 이후 한국기업들이 대거 중국에 진출하면서 현재 45만 명이 넘는 한국인들이 중국에서 장기 거주하고 있고 여기에 중국내 200여 만 조선족 동포를 합하면 현재 중국은 세계에서 가장 많은 동포들이 살고 있는 나라가 되었다.

중국은 우리나라와 역사적으로나 지리적으로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다. 최근 중국 경제는 빠른 속도로 성장하고 있고 이에 따라 고소득 계층 규모가 확대되고 있어 고품질 농식품 수요가 급격히 증가되고 있다.

또한 향후 한·중 FTA가 체결될 경우 우리 입장에서는 고품질화, 고부가가치화의 비교우위를 충분히 활용하여 중국의 농식품 틈새시장 진출을 적극적으로 도모할 필요가 있다. 250여 만 명의 중국내 동포조직과 연계하여 우리의 우수한 식문화를 홍보함과 동시에 적절한 농업투자가 이루어진다면 대중국 농식품 수출에 커다란 계기가 마련될 것이다.

이 보고서는 중국내 한민족농업인 네트워크 구축을 통해 대중국 농식품 수출을 획기적으로 증대시킬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함과 동시에 중국에 대한 농업분야 투자 타당성 분석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대산농촌문화재단은 ‘한민족 농업인 네트워크 구축연구’를 선정하여 2006년부터 연구보고시리즈를 발간해오고 있다. 2006년 몽골·중국 동북 3성·극동러시아의 한민족 농업인 네트워크 구축 및 농업투자방안 연구보고서 발간, 2007년 농식품 대일 수출 활성화방안 연구보고서 발간에 이어 금년에 대중국 농식품 수출 및 농업투자 활성화방안 연구보고서를 발간하게 되었다.

이번 ‘중국지역 한민족 농업인 네트워크 구축 및 대중국 농식품 수출·농업투자 활성화방안’ 연구와 보고서 집필을 위해 수고해주신 서울대학교 김완배 교수님께 감사드리며, ‘한민족 농업인 네트워크 연구보고시리즈’가 농식품 수출시장의 개척, 효과적인 해외농업투자를 위한 소중한 자료로 활용되기를 바란다.

2008. 11.

대산농촌문화재단 이사장 정 태 기

목 차

제1장 서론

1. 연구배경	1
2. 연구방법 및 내용	3
3. 결과 활용방안	5

제2장 중국의 농업현황

1. 농경지 및 농업개황	6
2. 농업GDP 및 농가소득	9
3. 농산물 부류별 수급동향	12
3.1. 곡물류	12
3.2. 채소류	14
3.3. 과일류	17
3.4. 화훼류	27
3.5. 축산물	30
4. 농산물 무역동향.....	33
4.1. 곡물 및 식용유	34
4.2. 채소류	36
4.3. 과일류	39
4.4. 축산물	45
4.5. 화훼류	49
5. 최근의 농업정책 동향	52
5.1. 일반적 동향.....	52
5.2. 곡물 수출제한 조치	54
5.3. 핵심 농정 방향	55

제3장 중국 조선조과 재중 한인

1. 조선족	58
1.1. 조선족의 형성	58
1.2. 조선족의 분포 및 인구이동 변화.....	65
1.3. 조선족 유동인구의 특징	67
2. 재중 한인.....	68
3. 재중 동포 조직	70
3.1. 조선족기업가협회	71
3.2. 한국인회	73
3.3. 한국상회	75

제4장 재중국 한민족 농식품 업체 사례

1. 농업 및 생산자재 분야	78
1.1. 21세기 한국배 농장	78
1.2. 산동성 한국배 협회	79
1.3. 흑룡강성 유기수도협회.....	80
1.4. 천수농장(유기농장)	80
1.5. 이화식품	81
1.6. 유기농장	82
1.7. 낙농농장	82
1.8. 유니베라(구 남양알로에)	83
1.9. 위해 송림무역유한공사.....	84
1.10. 세농종묘	85
1.11. 하얼빈 장일 양과연구소	87
1.12. 레서 CJ사료유한공사	88
1.13. 북경 증레이 사료유한공사.....	89
1.14. 청도 세원비료유한공사	90
1.15. 흑룡강성 달풍과기개발유한공사.....	90
2. 화훼 분야.....	91
2.1. 금호화훼(금호원예자재유한공사)	91

2.2. 금난원(운남 금난화훼유한공사)	93
2.3. 화중원예(운남 화중원예유한공사)	94
2.4. 경성화훼	95
2.5. 토화원 화훼(곤명 토화원화훼유한공사)	96
2.6. 한국화훼센터	97
3. 식품가공분야	98
3.1. CJ	98
3.2. 오리온	100
3.3. 롯데	101
3.4. 종가집 김치	102
3.5. 심양한전식품유한공사	103
3.6. 청도 경북궁김치유한공사	104
3.7. 흑룡강 쌍태식품유한공사	106
3.8. 하얼빈 신세기식품	107
3.9. 경성김치	108
3.10. 농심	110
3.11. 청도 농심식품유한공사	110
3.12. 연대 유미식품유한공사	112
3.13. 교주 스카이식품유한공사	113
3.14. 용정 녹전농특산품개발유한공사	115
3.15. 연길 세원식품유한공사	116
3.16. 연변 록미식품유한공사	117
4. 무역 및 유통분야	118
4.1. 농협 북경사무소	118
4.2. 대련 대관무역유한공사	118
4.3. 인터넷 무역업	120
4.4. 이마트	121
4.5. 갤러리아	122
4.6. 신거성	123
4.7. 설이네 가게	123

5. 외식분야	124
5.1. 서라벌	124
5.2. 본가	125
5.3. 대장금	125
5.4. 연길 롯데리아식품유한공사	125
5.5. 제이너스 그룹(BBQ)	127
5.6. 한나산	128
5.7. 연길 진달래반점유한책임공사	128

제5장 대중국 농식품 수출입 및 투자현황과 문제점

1. 중국산 농수산물 수입 현황	129
1.1. 개황	129
1.2. 농산물 부류별 수입 동향	130
1.3. 수산물 수입 추이	137
2. 대중국 농식품 수출 현황	138
2.1. 농식품 수출 현황	138
2.2. 대중국 농식품 수출 현황	141
2.3. 주요 품목별 수출현황	145
2.4. 대중국 농식품 수출상의 문제점	150
3. 대중국 농식품분야 투자현황	151
3.1. 대중국 투자 현황	151
3.2. 농식품분야 투자현황	154
3.3. 대중국 농식품분야 투자의 문제점	162

제6장 대중국 수출 및 투자 활성화 방안

1. 대중국 농식품 수출 및 투자의 SWOT 분석	164
2. 새로운 방향과 전략	166
3. 분야별 주요 과제	169
3.1. 품질경쟁력 제고 및 명확한 목표시장의 설정	169
3.2. 중국내 충분한 유통망 확보 및 포장의 개선	170

3.3. 한국 식문화의 전파와 관련한 마케팅 추진	171
3.4. 재중 한민족 네트워크 활용	172
3.5. 수출 및 투자정보 지원체계의 재정비	174
4. 수출 유망품목 및 투자 유망분야 검토	176
4.1. 주요 수출 유망품목별 보완사항	176
4.2. 투자 유망분야 및 지역	178
참고문헌	181

<부록>

1. 조선족기업가협회 주소 및 연락처	183
2. 재중한국인회 주소 및 연락처	184
3 재중 한국상회 주소 및 연락처	187
4 농산업관련 조선족기업가 주소 및 연락처	190
5 농산업관련 재중 한국투자기업 주소 및 연락처	195

표 목 차

〈표 2-1〉 지역순위별 경작지 및 농작물재배면적(2006)	7
〈표 2-2〉 농림축산업 생산액 추이 (1980~2006년)	8
〈표 2-3〉 농작물 재배면적 및 축산물 사육두수 변화추이(1980~2005)	9
〈표 2-4〉 식량작물별 재배면적 변화 추이(1990~2006)	13
〈표 2-5〉 식량작물 주산지별 재배면적 변화추이(2000~2006)	14
〈표 2-6〉 채소재배 주산지의 연도별 변화추이(2000~2006)	15
〈표 2-7〉 주요 채소류의 주산지 변화	16
〈표 2-8〉 과일품종별 재배면적 및 생산량 변화추이(1995~2006)	18
〈표 2-9〉 일인당 과일 소비량	19
〈표 2-10〉 감귤류 품종별 생산량(2001~2005)	24
〈표 2-11〉 중국의 화훼류 재배면적과 판매량 추이	28
〈표 2-12〉 지역별 시설화훼 재배면적 추이(2000~2005)	29
〈표 2-13〉 주요 축종별 사육두수 변화추이(1999~2006)	30
〈표 2-14〉 육류 생산량 변화추이(2001~2006)	30
〈표 2-15〉 육류별 생산량의 지역별 순위(2006)	31
〈표 2-16〉 도시와 농촌 가구 1인당 식품 소비량(1990~2006)	32
〈표 2-17〉 중국 농산물의 수출입 대상 지역별 현황(2006)	33
〈표 2-18〉 곡물 품목별 수출입 실적(2007)	34
〈표 2-19〉 중국 식량작물의 무역 상대국 분포 현황(2006)	35
〈표 2-20〉 곡물 제품별 수출시장과 수입시장(2006)	35
〈표 2-21〉 식용 유지·식물유 품목별 수출입 실적(2006)	36
〈표 2-22〉 채소류 수출 동향(2006~2007)	37
〈표 2-23〉 채소 제품별 수출동향(2006)	37
〈표 2-24〉 채소류 수입동향(2006)	38
〈표 2-25〉 과일류 수출동향(2006~2007)	40
〈표 2-26〉 과일류의 제품별 수출동향(2006)	40
〈표 2-27〉 과일류 수입동향(2006)	41

〈표 2-28〉 과일류의 제품별 수입동향(2006)	41
〈표 2-29〉 중국 과일 수출대상국 현황(2006)	42
〈표 2-30〉 중국 과일 수입대상국 현황(2006)	43
〈표 2-31〉 중국·아세안 과일무역 실적(2007.1~11)	44
〈표 2-32〉 주요 축산물의 수출 현황(2006)	46
〈표 2-33〉 주요 축산물의 수입 현황(2006)	47
〈표 2-34〉 축산제품 주요 수출시장(2006)	47
〈표 2-35〉 축산제품 주요 수입시장(2006)	48
〈표 2-36〉 중국의 화훼류 수출액 추이(1998~2005)	49
〈표 2-37〉 중국의 국가별 화훼류 수출 현황(2005~2006)	50
〈표 2-38〉 중국의 주요 지역별 화훼류 수출 현황(2005~2006)	51
〈표 3-1〉 국가별 재외동포 분포현황, 2007	57
〈표 3-2〉 조선족 자치지역 명목	62
〈표 3-3〉 조선족 향진 명목	63
〈표 3-4〉 조선족 인구의 지역분포 변화추이	65
〈표 3-5〉 한·중수교후 양국간 교류현황	69
〈표 3-6〉 주요 지역별 재중동포 수 및 기업체수	71
〈표 3-7〉 조선족기업가협회 현황(2007)	72
〈표 3-8〉 재중국 한국인회 설립지역 및 교민현황	73
〈표 3-9〉 재중 한국인회 현황(2007)	74
〈표 3-10〉 중국 한국상회 회원현황	75
〈표 5-1〉 중국산 농산물 수입추이(2003~2007)	129
〈표 5-2〉 중국산 수산물 수입추이(2003~2007)	129
〈표 5-3〉 곡류 주요 품목 수입추이(2003~2007)	130
〈표 5-4〉 서류류 주요 품목 수입추이(2003~2007)	131
〈표 5-5〉 두류류 주요 품목 수입추이(2003~2007)	131
〈표 5-6〉 전분류 주요 품목 수입추이(2003~2007)	132
〈표 5-7〉 과실류 주요 품목 수입추이(2003~2007)	133
〈표 5-8〉 채소류 주요 품목 수입추이(2003~2007)	134
〈표 5-9〉 버섯류 주요 품목 수입추이(2003~2007)	135

〈표 5-10〉 인삼류 주요 품목 수입추이(2003~2007)	135
〈표 5-11〉 소스류 주요 품목 수입추이(2003~2007)	136
〈표 5-12〉 화훼류 주요 품목 수입추이(2003~2007)	136
〈표 5-13〉 기타 주요 품목 수입추이(2003~2007)	137
〈표 5-14〉 수산물 주요 품목 수입추이	138
〈표 5-15〉 국가별 수출실적(2003~2007)	139
〈표 5-16〉 부류별 수출실적(2003~2007)	139
〈표 5-17〉 주요 품목별 수출 현황	140
〈표 5-18〉 부류별 대중국 농산물 수출현황(2003~2007)	143
〈표 5-19〉 부류별 대홍콩 농산물 수출현황(2003~2007)	144
〈표 5-20〉 연도별 대중국 농식품 수출액 상위 20개 품목(2004~2007)	145
〈표 5-21〉 대중국 해외직접투자 현황	152
〈표 5-22〉 지역별 대중국 투자 누적액 현황(2008. 3)	153
〈표 5-23〉 대중국 농식품 분야 직접투자 누적액 현황(2007)	154
〈표 5-24〉 연도별 대중국 농식품 분야 직접투자 현황(2003~2007)	154
〈표 5-25〉 농림업 투자 누적액 현황(2007)	155
〈표 5-26〉 농림업 연차별 투자액 현황(2003~2007)	156
〈표 5-27〉 지역별 농림업 직접투자액 현황(2003~2007)	157
〈표 5-28〉 식품제조업 투자 누적액 현황(2007)	158
〈표 5-29〉 식품제조업 연차별 투자현황(2003~2007)	159
〈표 5-30〉 도소매업 투자 누적액 현황(2007)	160
〈표 5-31〉 도소매업 연차별 투자현황(2003~2007)	161
〈표 5-32〉 음식점업 투자 누적액 현황(2007)	162
〈표 5-33〉 음식점업 연차별 투자현황(2003~2007)	163

그림 목차

〈그림 2-1〉 중국의 주요 도시별 지도	6
〈그림 2-2〉 중국의 국내GDP와 농업GDP 추이	9
〈그림 2-3〉 도시와 농촌주민 일인당 순소득 변화추이 비교(2001~2006)	10
〈그림 2-4〉 농가소득 비중의 변화추이(1995, 2006)	11
〈그림 2-5〉 경작지 및 식량작물 재배면적 변화추이(1990~2006)	12
〈그림 2-6〉 도시와 농촌지역의 채소 소비량 변화	16
〈그림 2-7〉 과일재배면적 및 과일생산량 변화추이(1990년~2006년)	17
〈그림 2-8〉 지역별 과일생산량(2006)	18
〈그림 2-9〉 식품소비지출 중 과일소비 비중 변화 추이(도시주민)	20
〈그림 2-10〉 사과 재배면적과 생산량 변화 추이(1990~2006)	21
〈그림 2-11〉 지역별 사과 재배면적 변화추이(1990~2006)	22
〈그림 2-12〉 감귤의 재배면적과 생산량 변화 추이(1991~2006)	23
〈그림 2-13〉 중국 감귤 재배지역 분포도	23
〈그림 2-14〉 지역별 감귤재배 현황(2006)	24
〈그림 2-15〉 배의 재배면적과 생산량 변화 추이(1991~2006)	25
〈그림 2-16〉 지역별 배 생산량 비중(2006)	25
〈그림 2-17〉 포도의 재배면적과 생산량 변화 추이(1991~2006)	26
〈그림 2-18〉 지역별 포도 재배면적 변화추이(1990~2006)	27
〈그림 2-19〉 화훼류 재배면적 및 생산액(1998~2005)	28
〈그림 2-20〉 지역별 채소류 수출 변화	38
〈그림 2-21〉 중국 채소 수출대상국별 수출 변화	39
〈그림 2-22〉 지역별 과일 수출입 추이	42
〈그림 2-23〉 수출대상국별 수출액 변화 추이	43
〈그림 2-24〉 수입대상국별 수입액 변화 추이	44
〈그림 2-25〉 중국·아세안 국가별 과일무역 실적(2007.1~11)	45
〈그림 2-26〉 축산제품 무역구조(2006)	45
〈그림 2-27〉 정부재정 중 농업지출 변화추이(1995~2006)	52

〈그림 5-1〉 대중국 수출비중	141
〈그림 5-2〉 대중국 수출액 변화 추이(2003~2007).....	142
〈그림 5-3〉 연도별 대중국 밤 수출현황	146
〈그림 5-4〉 연도별 대중국 화훼류 수출현황	147
〈그림 5-5〉 연도별 대중국 인삼 수출현황	147
〈그림 5-6〉 연도별 대중국 김치 수출현황	148
〈그림 5-7〉 연도별 대중국 장류 수출현황	149
〈그림 6-1〉 대중국 농식품 수출 및 투자의 SWOT 분석	166

사진 목차

〈사진 1〉 21세기 배농장 전경	78
〈사진 2〉 낙농농장 전경	83
〈사진 3〉 세농종묘 연구소 전경	86
〈사진 4〉 금호화훼 농장 전경	92
〈사진 5〉 곤명의 두남화훼도매시장의 내부	92
〈사진 6〉 금란원 온실 내부	93
〈사진 7〉 화중원에 온실 전경	94
〈사진 8〉 북경 여인가 화훼시장 내부	95
〈사진 9〉 토화원 온실 내부	97
〈사진 10〉 한국화훼센터 전경	98
〈사진 11〉 CJ의 북경소재 푸레쥬르와 시젠	99
〈사진 12〉 종가집김치 전경	103
〈사진 13〉 청도 경북궁김치유한공사 전경	105
〈사진 14〉 하얼빈 쌍태식품유한공사 전경	106
〈사진 15〉 하얼빈 신세기식품의 상품	108
〈사진 16〉 경성김치 임이철 사장	109
〈사진 17〉 청도 농심공장 전경	111
〈사진 18〉 연대 유미식품유한공사 전경	113
〈사진 19〉 교주 스카이식품유한공사	114
〈사진 20〉 용정 녹전농특산품개발유한공사 전경	116
〈사진 21〉 연변 녹미식품유한공사 절입시설	117
〈사진 22〉 중국 상해 이마트 본사 전경	121
〈사진 23〉 설이네 가게 전경	123
〈사진 24〉 연길 롯데리아 매장 전경	126

제1장. 서론

1. 연구배경

최근 우리나라 농업의 개방화는 자유무역협정(FTA)을 통해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데 2004년 한·칠레 FTA 발효, 2007년 한·미 FTA 타결 등으로 우리농업은 크나큰 환경 변화에 직면하고 있다. FTA 뿐만 아니라 2001년 중국의 WTO회원국 가입을 계기로 저가의 중국 농산물의 대량 유입은 우리 농민들에게 커다란 위기감을 주고 있다.

외국으로부터의 농산물 수입확대는 기존 국산 농산물의 소비기반을 잠식하고, 국내 농가들로 하여금 수입 농산물과 경쟁이 덜한 특정 작목으로 생산을 집중케 하여 이들 작목도 과잉 공급기저를 보임으로써 가격 폭락, 농가소득 감소 및 부채규모의 확대, 새로운 소득작목으로의 집중이라는 악순환의 고리로 이어지고 있다.

이러한 농산물 개방확대 물결에 대응하여 정부는 우리 농업 및 농산물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피해 보상과 피해의 최소화에만 집중된 수세적인 입장의 정책이 견지되고 있다. 이런 와중에 ‘한국농업불가론’으로 농업·농촌 부문에 대한 투자의 유용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도 커지면서 우리 농업·농촌의 미래에 대한 불안감은 증폭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농업·농촌의 미래에 대한 불안감을 불식시키기 위한 해결책이 빠른 시기에 제시되어야만 우리의 농업·농촌이 미래를 향해 나갈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계기를 마련할 수 있는 하나의 해결책으로 수비형 농업정책을 공세형으로 전환하여 우리농업의 대외지향성을 강화하고, 수출농업을 이루기 위한 방안의 하나로서 세계 각국에 진출해 있는 농업분야 재외동포들과 재외국민들과의 긴밀한 네트워크 구축의 중요성이 제기되고 있다(김완배, 2004; 김완배 외, 2006, 2007; 김성훈, 2004).

현재 우리나라는 세계 170여개 국가에 화교, 유태인에 이어 세계에서 3번째로 많은 700여만명에 이르는 해외동포를 보유한 교민대국이다. 더욱이 이들 중 많은 동포들이 농업생산 분야는 물론 유통 및 가공 등 농업관련산업 분야에 종사하여 성공적인 한국인

의 모습을 보이고 있다(김완배, 2004). 이와 같이 세계 170여개 국가에 퍼져있는 재외 동포와 우리 농업인들을 연결시킬 경우 우리 농업의 국제화와 공세적인 해외시장 개척에도 상당한 진전이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따라서 한반도를 비롯해 전 세계에 흩어져 각개 약진하고 있는 한민족의 농업을 한데 묶어 우리 농업의 활로를 여는 동시에 진정한 의미의 우리 농업의 국제화를 이루는 것이 시급한 과제라 하겠다. 이를 위한 첫걸음으로서 전세계 한민족 농업인 네트워크 구축의 필요성이 요구되고 있다.

우선 국내농업의 입장에서 보면, 우리 국민의 13%가 넘는 700만 재외동포는 우리 농식품에 대한 고고객이 될 수 있다. 나아가 이들이 거주하고 있는 국가의 주민들에 대한 우리 농식품 전파 및 수요 확대에도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하지만, 아직까지 우리의 농업은 현지 사정이나 여건에 밝은 해외동포 농업인들의 장점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한편 해외동포 농업인들의 입장에서 보면, 이들은 우리 농업이 갖고 있는 장점(시설 농업의 높은 기술력, 질 좋은 시설자재 등)에 쉽게 다가가서 이를 활용하는데 다양한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우리 농업의 높은 기술과 자본이 해외에서 농업관련 분야에 활동하고 있는 해외동포들에게 제공된다면, 해당 국가의 농식품시장 공략은 물론 농산물의 개발수입 형태로서 우리 국민의 식량안보 확보에 도움이 되는 동시에 해외동포들의 소득 증대와 위상 강화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중국은 우리나라와 역사적으로나 지리적으로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 1992년 한·중 수교 이후 한국기업들도 대거 중국에 진출하면서 현재 45만 명이 넘는 한국인들이 중국지역에서 장기 거주하고 있다. 또한 중국 200여만명의 동포를 합하면 현재 중국은 세계에서 가장 많은 동포들이 살고 있는 나라가 되었다. 중국 동포들은 기존에는 주로 동북 3성(흑룡강성, 길림성, 요녕성)에서 거주하다가 최근에는 중국 해안도시 및 대도시로 대거 진출하고 있으며, 이들 중 많은 동포들은 농업생산·유통·가공 등 농업관련 산업분야에 종사하고 있다. 이러한 동포조직과 연계하여 우리의 우수한 식문화를 홍보함과 동시에 적절한 농업투자가 이루어진다면 대중국 농식품 수출에 커다란 전환점이 될 것이다.

최근 중국의 경제는 빠른 속도로 성장하고 있고 이에 따라 고소득 계층 규모가 확대

되고 있어 고품질 농림수산물 및 식품 수요가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다. 또한 향후 한·중 FTA가 체결될 경우 양국간 농식품 무역장벽이 낮아질 것이므로 우리 입장에서는 고품질화, 고부가가치화 우위를 충분히 활용하여 중국의 농식품 틈새시장 진출을 적극적으로 도모할 필요가 있다.

중국산 농산물은 생산 및 가공기술이 미흡하여 품질경쟁력이 낮기 때문에 경제성장에 따른 식품안전성, 고품질 농식품에 대한 소비자들의 요구를 만족시키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해외농업투자방안의 일환으로서 우수한 종자 및 생산기자재, 가공식품 분야에 대한 투자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할 수 있다.

농식품의 해외 수출, 해외농업개발투자 등의 필요성을 주장하는 연구들은 많이 이루어져 왔다. 하지만 그동안 이들 연구들은 별개로 이루어져 왔으며, 현지 사정이나 여건에 밝은 해외동포 농업인들과의 네트워크를 통한 농식품 수출 및 해외농업개발투자를 이루기 위한 방법이나 그 타당성을 검토한 연구는 매우 미미한 실정이다.

본 연구의 주요 목적은 세계 한민족 농업인 네트워크 구축의 일환으로서 중국내 한민족농업인 네트워크 구축을 통해 대중국 농식품 수출을 증대시킬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함과 동시에 중국에 대한 농업분야 투자 타당성을 분석하는데 있다. 이를 위해 중국 한민족 농업인들의 주요 활동분야 및 내용을 구체적으로 파악하고, 대중국 수출 및 농업투자 현황과 문제점을 분석하여 개선방안을 모색하도록 한다.

2. 연구방법 및 내용

1) 연구방법

- 현지 전문가, 공관, 교포 단체 등을 활용하여 한민족으로서 농업 및 관련분야에 종사하고 있는 주요 농업인 목록 작성
- 농업인 중에서 여론을 주도하는 명망 있는 농업인들의 네트워크(약한 연결 네트워크, weak tie)와 농업인들이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받는 네트워크(강한 연결 네트워크, strong tie)등 중국내 한민족 농업관련 네트워크의 내용을 분석
- 한민족 농업인 네트워크, 농식품 수출 및 해외농업투자현황과 관련한 국내외 선행

연구와 통계자료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고,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는 인터넷, 국내 중국 전문가 등을 이용한 정보 수집

- 현지 출장과 중국 전문가를 활용하여 현지 농업관련산업 종사자 및 투자자에 대한 심층 면접 조사

2) 연구내용

- 중국 내 한민족 농업인 네트워크 데이터베이스 구축
 - 한민족 농업인 및 농업 관련 업종 종사자 파악
 - 한민족 농업인 간의 네트워크 현황 파악
 - 한민족 농업인 네트워크 분석
 - 한민족 농업인 데이터베이스 구축
 - 효과적인 한민족 농업인 네트워크 구축 방안 마련
- 대중국 농식품 수출활성화 방안 연구
 - 농식품 수출현황 분석
 - 중국내 농식품 틈새시장 및 농식품 수출가능성 분석
 - 대중국 농식품 수출전략 모색
 - 한민족 농업인 네트워크 활용한 농식품 수출활성화 방안
- 농업 투자 방안 연구
 - 농업 자원 현황과 무역 및 투자 여건 분석
 - 대중국 투자 실태 및 성공요인 분석
 - 농업투자 개선방안 연구
 - 한민족 농업인 네트워크 활용한 농업 투자 활성화 방안

3. 결과 활용방안

본 연구를 수행해나가는 과정에서 필수적으로 수집되는 자료인 중국의 농업 현황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와 이에 수반되는 데이터베이스의 구축은 향후 중국농업에 대한 사회·경제적 연구와 한·중 FTA 추진시 우리의 대응방안 마련에 많은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농업인 네트워크의 현황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중국내 한민족 간의 교류가 활성화되어, 한민족 네트워크 내 리더쉽을 형성하고, 네트워크를 강화시키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본 연구를 통해 구축되는 중국의 한민족 네트워크는 중국에 대한 농식품이나 농업생산자재, 가공기술의 수출 및 농업투자를 효과적으로 진행할 수 있는 인적자원 네트워크로 활용될 것이다.

본 연구의 방법론을 다른 지역에 확대 적용함으로써 전 세계 차원의 한민족 농업 네트워크를 구축할 수 있을 것이며, 이는 한국 농업의 또 다른 활로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중국에 대한 농업 생산현황, 농식품 틈새시장 현황에 대한 검토와 한국 농식품의 대 중국 수출경쟁력 분석 및 농업 투자 현황과 타당성에 대한 연구는 중국에 대한 농식품 수출과 농업투자에 있어서 가이드라인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제2장. 중국의 농업현황

1. 농경지 및 농업개황

중국의 국토면적은 960만Km²로 세계 3위의 면적이며 한반도의 44배에 이른다. 동쪽으로는 북한을 이웃하고, 남으로는 베트남, 라오스, 미얀마와 인접하고 있고, 서남과



4개 직할시: 북경(北京)시, 천진(天津)시, 상해(上海)시, 중경(重慶)시

5개 자치구: 내몽고(內蒙古)자치구, 서장(西藏)자치구, 광서(廣西) 좡족자치구, 신장(新疆) 위구르족 자치구, 닝하(寧夏) 회족자치구

22개 성(省): 하북(河北)성, 산서(山西)성, 요녕(遼寧)성, 길림(吉林)성, 흑룡강(黑龍江)성, 산둥(山東)성, 강소(江蘇)성, 절강(浙江)성, 안휘(安徽)성, 강서(江西)성, 복건(福建)성, 섬서(陝西)성, 감숙(甘肅)성, 청해(青海)성, 하남(河南)성, 호북(湖北)성, 호남(湖南)성, 광둥(廣東)성, 해남(海南)성, 사천(四川)성, 귀주(貴州)성, 운남(雲南)성

〈그림 2-1〉 중국의 주요 도시별 지도

서부는 인도, 부탄, 시킴, 네팔, 파키스탄, 아프카니스탄을 이웃하고 있다. 동북은 러시아, 북쪽으로는 몽고, 서북은 카자흐스탄, 키르기스탄, 타지크스탄과 이웃한다. 동쪽과 동남쪽에는 황해, 동해, 남해를 사이에 두고 일본, 한국, 필리핀,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및 브루네이 등과 마주하고 있다.

토지자원은 유형이 다양하지만 산지가 많고 평원이 적다. 경지의 지세는 서고동저형으로 지형이 복잡다양하며, 산지와 구릉이 비교적 험준한 고원이 전체면적의 2/3를 차지한다. 2006년 말 기준 경작지면적은 13,004만ha로 주로 동부 계절풍 지역의 평원과 분지지역에 집중되어 있다.

- 식량작물중 소맥과 옥수수는 주로 북방지역 각성에 분포되어 있고, 쌀은 주로 동북 3성과 남방지역 각성에 분포해 있다.
- 경제 작물은 주로 면, 마, 기름, 설탕 등이고 화북평원과 장강 중하류 평원이 주요 생산지이다.
- 서북지역 또한 큰 면적의 면화밭이 있다. 거대한 산지에서는 식량작물 이외 동유, 차잎, 명주, 백랍, 약재료 등이 생산되고 있다.

〈표 2-1〉 지역순위별 경작지 및 농작물재배면적(2006)

단위: 만ha, %

규모별 순위	경작지 면적			농작물 재배면적		
	지역	경작지 면적	전국 비중	지역	농작물 재배면적	전국비중
	전국	13,003.9		전국	15,702.1	
1	흑룡강성	1,177.3	9.1	하남성	,418.6	9.02
2	사천성	917.0	7.1	산둥성	1,072.8	6.8
3	내몽고	820.1	6.3	흑룡강성	1,046.8	6.7
4	하남성	811.0	6.2	사천성	966.5	6.2
5	산둥성	768.9	5.9	안휘성	914.5	5.8
6	하북성	688.3	5.3	하북성	877.7	5.6
7	운남성	642.1	4.9	호남성	807.4	5.1
8	안휘성	597.1	4.6	강소성	760.9	4.8
9	길림성	557.8	4.3	호북성	735.0	4.7
10	섬서성	514.1	4.0	광서성	646.0	4.1

자료: 중국 국가통계국, 중국농촌통계연감 2007.

중국 경제가 성장함에 따라 농림축산업 생산액도 빠르게 증가되고 있다. 농림축산업의 총생산액은 1980년의 1,900억 위안에서 1990년에는 4배인 7,600억 위안 정도로 성장하였고 2000년에는 3배가 넘는 24,900억 위안으로, 2006년에는 42,400억 위안 정도로 증가하였다. 그러나 농림축산업의 성장률은 1980년대 연평균 14.8%에서 1990년대 연평균 12.5%로 둔화되었으며, 2000년대에 들어서부터는 9.6%로 둔화되었다.

농림축산업 중 농업생산액 비중이 가장 커 50%를 차지한다. 농업 생산액 비중은 1980년에 1,400억 위안으로 농림축산업 총생산액 가운데서 75.6%를 차지하였으나 2006년에는 21,500억 위안으로 50.8%로 비중이 축소되었다. 임업의 생산액 비중에는 거의 변화가 없이 4% 정도를 유지하고 있으며, 축산업과 수산업의 생산액 비중은 농업이나 임업과는 달리 지속적으로 증가되고 있다. 중국 경제의 성장에 따라 곡물 등 농산물 소비는 줄어들고 축산물과 수산물의 소비는 늘어나는 추세를 반영하고 있다.

〈표 2-2〉 농림축산업 생산액 추이 (1980~2006년)

단위: 억 위안, %

연도	농림축산 총생산액	농업		임업		축산업		수산업	
		생산액	비중	생산액	비중	생산액	비중	생산액	비중
1980	1,922.6	1,454.14	75.6	81.38	4.2	354.23	18.4	32.85	1.7
1990	7,662.1	4,954.26	64.7	330.27	4.3	1,967.00	25.7	410.56	5.4
2000	24,915.8	13,873.59	55.7	936.52	3.8	7,393.08	29.7	2,712.57	10.8
2002	27,390.8	14,931.54	54.5	1,033.50	3.8	8,454.64	30.9	2,971.07	10.8
2004	36,239.0	18,138.36	50.1	1,327.12	3.7	12,173.80	33.6	3,605.60	9.9
2006	42,424.4	21,549.1	50.3	1,602.0	3.8	13,640.20	32.2	4,433.0	10.4

자료 : 중국 국가통계국, 통계연감, 2007.

농작물 재배면적에서 식량작물의 비중은 1990년의 76.5%에서 점차 감소 추세를 나타내고 있지만 여전히 가장 커 2006년말 기준으로 67.2%를 차지한다. 2006년 식량작물 재배면적은 10,538만ha로서, 전년대비 110만ha 증가하였고, 식량작물 생산량은 49,746만톤으로 전년대비 2.8% 증산되었다. 채소 재배면적은 1980년 310만ha에서 2005년 1,818만ha로 6배 가까이 늘어 전체면적의 11.6%를 차지한다.

〈표 2-3〉 농작물 재배면적 및 축산물 사육두수 변화추이(1980~2005)

단위: 천ha, 만두

연도	식량작물	채소	과일	축산
1980	117,234	3,163	1,783	9,524
1990	113,466	6,338	5,179	13,021
2000	108,463	15,237	8,932	15,152
2002	103,891	17,353	9,098	15,189
2004	101,606	17,560	9,768	15,738
2005	104,278	17,721	10,035	15,948
연평균 성장률(%)				
80~90	△0.3	7.2	11.3	4.6
90~00	△0.5	9.2	5.6	1.5
00~05	△0.8	3.1	2.4	1.0
80~05	△0.5	7.1	7.2	2.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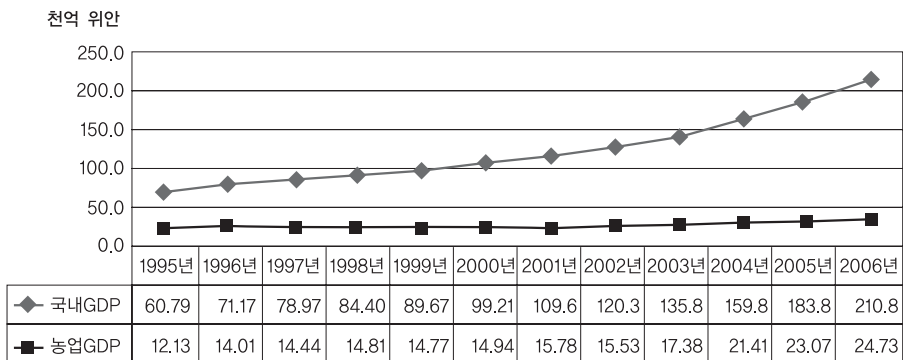
자료 : 중국 국가통계국, 중국농업통계자료편람, 2006.

1980년에서 2005년까지 식량작물 재배면적은 연간 0.5%씩 감소한 반면 같은 기간 중 채소는 연간 7.1%, 과일은 7.2%, 축산 사육두수는 2.1%씩 증가하였다.

2. 농업GDP 및 농가소득

중국의 GDP 성장률은 개혁개방이래 급속하게 성장하여 세계 평균 수준을 훨씬 상회

〈그림 2-2〉 중국의 국내GDP와 농업GDP 추이



자료: 중국 국가통계국, 중국농촌통계연감 200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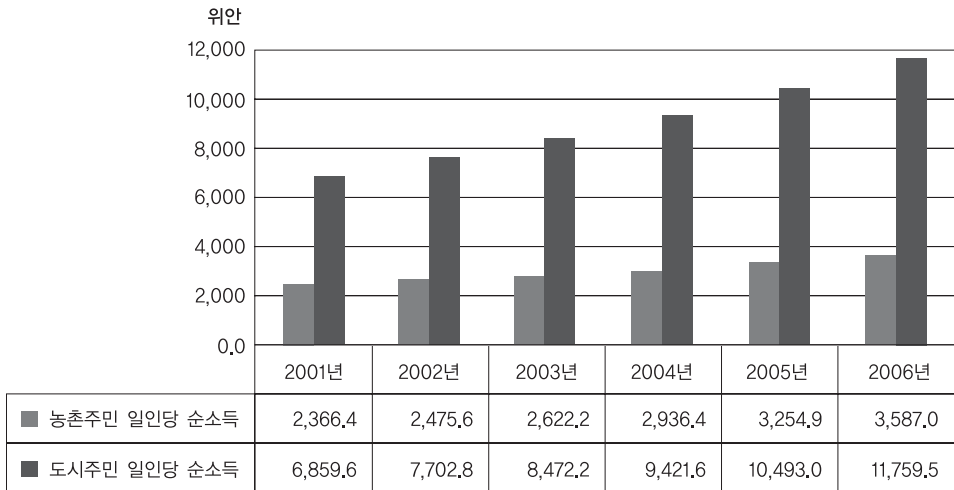
하고 있다. 1978년의 경우 세계 GDP 평균 성장률은 4.6%인 반면 중국은 11.7%였고, 2007년에는 11.4%까지 성장하여 90년대 이후 또 한차례 최고 수준을 기록하였다.

- 전체 GDP중 농업GDP 비중은 1995년 20.0%였으나 매년 감소하여 2006년에는 11.8% 수준을 보이고 있다.

중국은 인구수에 비해 농경지가 적은 국가다. 세계 전체의 7%에 달하는 농경지를 보유하고 있지만 세계 전체의 1/5에 달하는 인구를 포함하고 있다. 2006년말 기준 중국 인구는 131,448만명, 이 중 농촌인구는 73,742만명으로 56.1%를 차지한다. GDP의 연평균 성장률은 세계 평균수준을 훨씬 초과하고 있지만 1인당 GDP는 세계 평균 수준보다 상당히 뒤떨어져 있다. 2005년의 경우 1인당 GDP는 1,352달러로서 세계 1인당 GDP 순위로 보면 112위를 차지하고 있다(GDP는 세계에서 4위).

2006년 농촌주민의 1인당 연간 순소득은 3,587위안으로 전년 동기대비 7.4% 성장하였다. 반면 도시주민 1인당 연간 순소득은 농촌주민의 3배 정도가 되는데 점차 격차가 확대되고 있다.

〈그림 2-3〉 도시와 농촌주민 일인당 순소득 변화추이 비교(2001~200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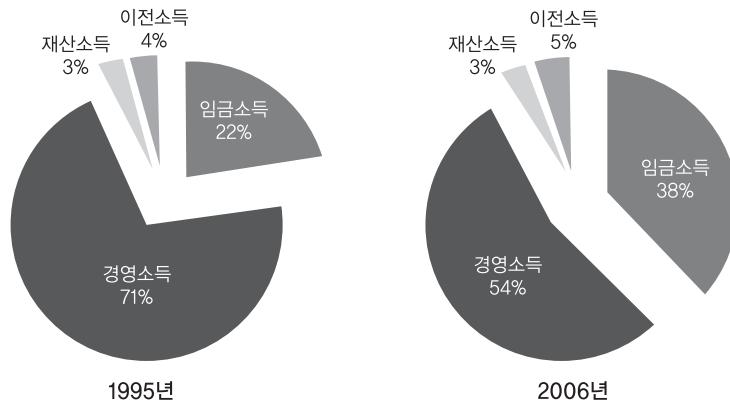


자료: 중국 국가통계국, 중국농촌통계연감 2007.

농가소득은 농업소득인 경영소득과 농외소득인 임금소득, 재산소득, 이전소득 등으

로 분류한다. 중국의 경우 농가의 경영소득 비중이 점차 감소하는 추세이지만 아직도 농가소득 중 경영소득이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여 2006년 기준으로 54% 수준을 보이고 있다.

〈그림 2-4〉 농가소득 비중의 변화추이(1995, 2006)



자료: 중국 국가통계국, 중국농촌통계연감 2007.

- 경영소득 증가속도는 점차 하락하고 있다. 2006년 농촌주민 1인당 연간 순소득 중 경영소득은 1,931위안으로 전년대비 88위안 증가하여 4.8% 증가하였으나 증가율은 전년대비 0.9% 하락한 수준이다.
- 임금소득은 전년대비 17% 증가하였다. 임금소득에는 의무노동소득, 본 지역 취업소득, 타 지역 취업소득 등이 있다. 농촌주민들의 취직비중이 증가하고 농촌노동력의 인건비 상승 등에 따라 임금소득은 크게 증가하고 있다. 2006년 농촌의 상주주민 중 타지역 취업 노동자수는 전체 농촌 노동력의 21%를 차지하였다. 농촌노동력 중 70%는 동부지역(주로 연해지역)에 취업하였고, 제조업과 건축업 종사자 비중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농촌노동력의 월 소득은 평균 946위안으로 전년대비 9.9% 증가하였다.
- 2006년 이전소득은 일인당 181위안으로 전년대비 22.5% 증가하였다. 이전소득 중 정부보조, 비상주인의 송금소득 등이 큰 비중을 차지하였다. 정부보조는 일인당

29위안으로 전년대비 58.3% 증가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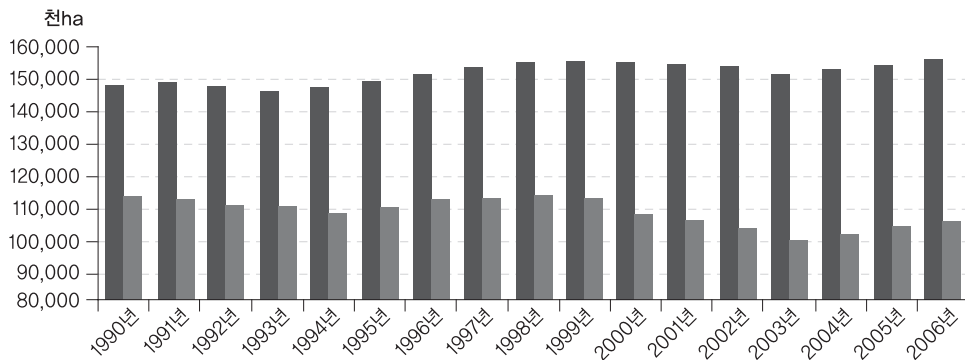
- 정부의 농업지출은 매년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는데 2006년에는 3,173억 위안으로 총 지출 중 7.8%를 차지하고 있다. 정부 총예산중 농업분야 지출비중은 2000년 7.8%에서 2003년 7.1%로 하락하였다가 2004년에는 9.7%로 증가하였다. 이는 도농간 소득격차 해소를 위한 중국정부 노력의 일환으로 판단된다.

3. 농산물 부류별 수급동향

3.1. 곡물류

중국은 많은 인구로 인해 식량자급률을 중요시하고 있는데 주요 식량작물로는 수도작, 소맥, 옥수수, 보리 등이 있다. 식량작물 재배면적은 1990년 전체 농작물 재배면적의 76.5%에서 2003년 65.2%로 하락하였으나 2006년에는 회복세로 돌아서 67.2%에 달하고 있다.

〈그림 2-5〉 경작지 및 식량작물 재배면적 변화추이(1990~2006)



자료: 중국 국가통계국, 중국농촌통계연감 2007.

식량작물 생산량은 1998년 51,230만톤으로 역대 최고수준을 달성하였으나 심한 가뭄과 생산구조 조정으로 1999~2001년 기간에 재배면적이 크게 감소하면서 2003년

〈표 2-4〉 식량작물별 재배면적 변화 추이(1990~2006)

단위: 천ha

연도별	1990	1995	2000	2002	2004	2006
농작물재배면적	148,362.3	149,879.3	156,299.8	154,635.5	153,552.5	157,020.6
식량작물재배면적	113,465.9	110,060.4	108,462.5	103,890.8	101,606.0	105,489.1
- 곡 물	-	89,309.6	85,264.2	81,466.3	79,350.4	83,126.1
· 수도작	33,064.5	30,744.1	29,961.7	28,201.6	28,378.8	29,294.6
· 소맥	30,753.2	28,860.2	26,653.3	23,908.3	21,626.0	22,961.4
· 옥수수	21,401.5	22,775.7	23,056.1	24,633.7	25,445.7	26,970.9
- 두 류	-	11,232.0	12,660.0	12,543.1	12,798.9	12,433.8

자료: 중국 국가통계국, 중국농촌통계연감 2007.

식량생산량은 최저치를 기록하였다.

- 옥수수는 길림성 지역이 2,806천ha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산둥성, 하북성, 하남성, 흑룡강성 순이다.
- 소맥은 하남성 지역이 5,007천ha로 전체의 22%를 차지하여 가장 많고, 다음으로 산둥성, 하북성, 안휘성, 강소성 순이다.
- 수도작은 호남성 지역이 3,772천ha로 전체의 13%를 차지하여 가장 많고, 강서성, 광서자치구, 강소성, 안휘성 순이다.
- 두류는 흑룡강성 지역에서 3,837천ha 재배하는데 전국의 31%에 달한다. 다음으로 내몽고, 안휘성, 길림성, 하남성 순이다.

1990년대 후반부터 채소 재배 농가의 소득이 식량작물 재배 농가 소득보다 높아 많은 농가들이 식량작물에서 채소로 작목을 전환하여 식량작물 재배면적은 지속적으로 감소하였다. 이같은 경향은 산둥성, 사천성, 강소성 지역에서 뚜렷이 나타나고 있다.

중국 정부는 식량작물 재배 면적의 축소를 막기 위해 2004년부터 농업세(農業稅) 감면 및 면제, 식량작물을 재배하는 농가에 대한 직접보조금 지불 등의 제도를 실시하고 있다. 식량작물 재배 농가에 대한 정책적인 지원과 2004년의 곡물가격 상승으로 식량작물 재배 면적은 2004년부터 회복세로 돌아섰고, 많은 채소 재배농가들이 다시 식량작물 재배로 전환하고 있다. 흑룡강성과 내몽고 지역에서는 식량작물 재배면적이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표 2-5〉 식량작물 주산지별 재배면적 변화추이(2000~2006)

단위: 천ha

순위	지역	1990	1995	2000	2005	2006
	전국	113,465.9	110,060.4	108,462.5	104,278.4	105,489.1
1	하남성	9,316.1	8,810.0	9,029.6	9,153.4	9,303.1
2	흑룡강성	7,420.0	7,500.2	7,852.5	8,650.8	9,023.7
3	산둥성	8,151.9	8,131.6	7,363.2	6,711.7	6,797.5
4	사천성	9,827.7	9,933.7	6,854.5	6,564.8	6,583.3
5	안휘성	6,246.1	5,852.5	6,183.8	6,410.9	6,493.5
6	하북성	6,827.8	6,829.5	6,918.7	6,240.2	6,199.4
7	강소성	6,363.0	5,755.2	5,304.3	4,909.5	4,985.1
8	호남성	5,365.7	5,115.6	5,029.9	4,838.6	4,807.3
9	내몽고	3,874.5	4,143.2	4,435.9	4,373.6	4,461.9
10	길림성	3,525.9	3,576.9	3,833.7	4,294.5	4,325.5

자료: 중국 국가통계국, 중국농촌통계연감 2007.

정책적 지원에 따른 식량작물의 증산에도 불구하고 소비도 매년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07년의 추가 증산분 5억톤으로 기본적인 수급균형을 유지하는 수준에 머물렀다.

- 품목별로 볼 때, 소맥과 벼의 소비는 약간 감소하였고, 옥수수의 소비는 급증하였다. 대두를 제외하고 소맥, 벼 및 옥수수는 수급균형 혹은 일부 비축하는 수준이었다.
- 식량작물의 식용소비는 1인당 식량소비량의 감소에 따라 전체적으로 약간 감소하였지만 공업용과 사료용 식량작물 수요는 급증하였다.

3.2. 채소류

채소류 재배면적은 개혁개방 이후 급속하게 증가하였다. 1990년 634만ha에서 2006년말 기준 1,822만ha로 2.9배 확대되었다. 따라서 전체 농작물 재배면적에서 채소류가 차지하는 비중도 4.3%에서 11.6%로 확대되었다.

최근 도시근교의 노동력 부족과 농촌지역의 인건비 상승 등으로 인해 생산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다른 지역으로 주산지가 이동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표 2-6〉 채소재배 주산지의 연도별 변화추이(2000~2006)

단위: 천ha

순위	지역	2000	2003	2004	2005	2006
	전국	15,237.3	17,953.7	17560.4	17,720.7	18,216.7
1	산동성	1,477.4	2,027.1	1,970.1	1,847.7	1,738.2
2	하남성	1,049.2	1,526.2	1,591.1	1,595.9	1,731.8
3	광둥성	961.2	1,194.9	1,146.7	1,162.7	1,185.2
4	사천성	717.4	1,006.2	970.6	991.5	1,181.9
5	강소성	869.8	1,341.7	1,217.5	1,194.4	1,161.2
6	광 서	815.2	1,006.8	1,026.1	1,094.4	1,131.8
7	하북성	735.6	1,068.5	1,082.2	1,104.8	1,122.9
8	호남성	635.0	964.3	962.6	997.1	1,046.1
9	호북성	905.5	1,086.9	1,021.1	1,004.8	1,017.6
10	안휘성	491.6	654.9	649.7	664.9	703.8

자료: 중국 국가통계국, 중국농촌통계연감 2007.

채소의 대표적인 산지인 산동성의 재배면적은 최근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데 반해 내몽고의 채소 재배면적은 2006년말 251.7천ha로 전년대비 3만ha 증가하였고, 신장지역도 186.8천ha로 전년대비 1만ha가 증가하였다. 또한 하북성 고원지대(해발 1500m)는 고랭지 채소의 새로운 유망지역으로 부상하고 있다.

- 내몽고, 하북성 지역의 농가당 경작지 면적은 12무(2,400평)로 1.5무(300평)인 산동성에 비해 규모면에서 우위에 있다. 또한 인건비도 산동성보다 훨씬 저렴하고, 스프링쿨러(spring cooler) 등 관개시설을 갖춘 농장의 연간 임대료가 1무(200평)당 150위안(2만원) 수준으로 저렴한 편이다.

- 또한 이 지역 근교에는 북경, 천진, 당산 등 대규모 소비지가 있고 천진항과 이연호 특(二蓮浩特)을 통해 각각 한국·일본과 러시아로 수출이 용이하다는 장점이 있다.

품목별로 살펴보면, 고추 주산지는 산동성에서 노동력이 풍부한 내몽고, 동북 3성 지역으로 이동하고 있으며, 마늘·양파 주산지는 산동성내에서 확대되고 있고, 배추와 당근은 주년 생산을 위해 계절별로 주산지를 형성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채소의 소비는 1980년대부터 1990년대 후반까지 감소하다가 다시 1997년부터 증가하였고 2000년부터는 다시 감소추세에 있다. 1997년 1인당 채소소비는 도시주민이

〈표 2-7〉 주요 채소류의 주산지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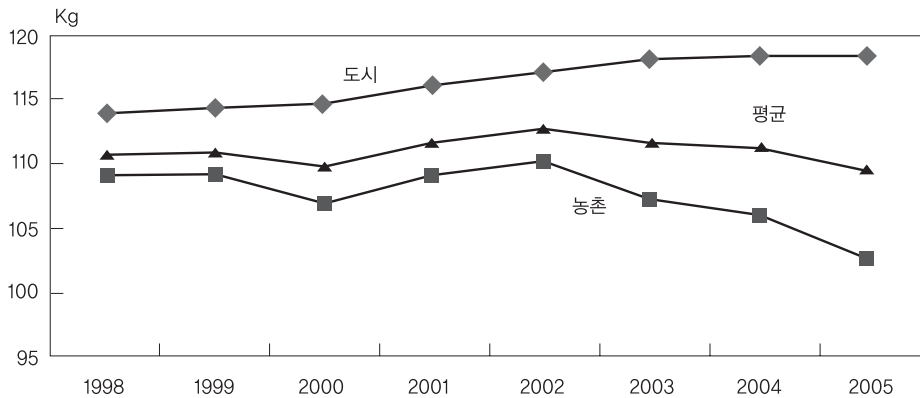
구 분	주산지 변화의 특징	변화 요인	주산지
고추	주산지 내륙으로 이동	인건비 문제	덕주시, 내몽고, 하남성, 동북3성
마늘	산동성 전지역 확대	내수 및 수출 증가	창산, 금향, 하택, 요성, 덕주
양파	산동성 전지역 확대	내수 및 수출 증가 (일본과 계약 재배)	금향, 평도, 유방
배추	계절별 주산지 이동	배추 내수 증가 김치 수출 증가	봄: 산동, 하남, 강소 여름: 하북성 가을: 산동, 동북 3성, 내몽고
당근	계절별 주산지 이동	당근 수출 증가	봄: 산동성(수광, 래서) 여름: 내몽고 가을: 수광 겨울: 수광, 하남성, 남방지역

자료: 어명근의, 「중국 원예산업의 발전과 대응 방안」, 2007.7.

113.3kg, 농촌주민이 107.2kg으로 6.1kg 차이를 보였으나 2006년에는 도시주민이 117.6kg, 농촌주민이 100.5kg으로 그 차이가 17.1kg으로 확대되었다.

도시주민 1인당 연간 채소소비량은 연평균 0.6% 증가하였고, 농촌주민은 연평균 0.9% 감소하여 전체적으로 0.2% 감소하였다. 2006년 기준 중국 1인당 평균 채소소비량은 109.1kg 수준이다.

〈그림 2-6〉 도시와 농촌지역의 채소 소비량 변화



자료: 중국 농업부, 중국농업통계자료, 각연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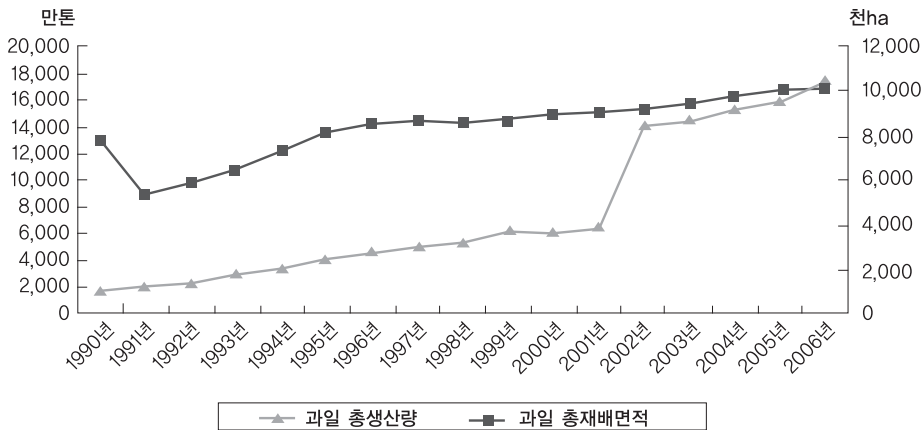
3.3. 과일류

중국은 1980년대 이후 과일 생산이 급격히 증가하였다. 이러한 생산 확대의 배경을 수요측면에서 보면 소득이 향상됨에 따라서 과일에 대한 수요가 증대하고 있고, 생산측면에서는 시장화 진전에 의해 높은 수익을 올릴 수 있는 작목으로의 전환이 급속히 일어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할 수 있다.

1984년 중국 정부가 과일시장을 개방하면서 과일 가격이 시장에 의해 결정되고 유통 체계에 대한 개혁정책이 실시됨에 따라 과일 생산은 빠른 속도로 증가하였다.

1990년대 초에 식재한 유목이 성목화되면서 성목면적이 매년 늘어나 2006년 과일생산량은 17,240만톤에 이르렀다. 1990~99년 과일 생산의 연평균 증가율은 14.3%로서 1980~89년의 연평균 증가율보다 3% 정도 높았다. 과수재배면적은 1990년 777만ha에서 2006년에 1,012만ha로 증가하였다.

〈그림 2-7〉 과일재배면적 및 과일생산량 변화추이(1990년~2006년)



자료: 중국 국가통계국, 중국농촌통계연감 2007.
 주: 2002년부터 과일통계에 과채류가 포함되어 있음.

중국의 과일산업은 집중도가 높은 편이다. 5대 과일로는 사과, 감귤, 배, 포도, 바나나 등인데 그중 사과, 감귤, 배의 생산량은 전체 과일 생산량의 60% 이상을 차지한다.

다만 최근 들어 5대 과일에 대한 집중도는 점차 낮아지면서 다양한 과수재배가 이루어지는 추이를 보이고 있다.

〈표 2-8〉 과일품종별 재배면적 및 생산량 변화추이(1995~2006)

단위: 만톤, 천ha,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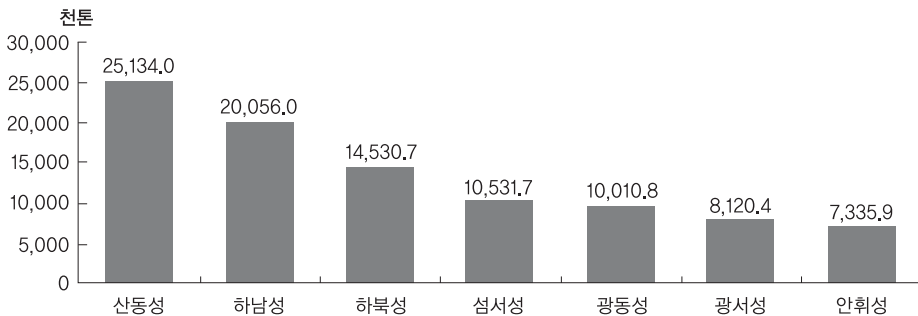
연도별	1995		2000		2003		2006	
	생산량	재배면적	생산량	재배면적	생산량	재배면적	생산량	재배면적
과 일	4,214.6	8,091.1	6,225.1	8,931.6	14,517.4	9,436.5	17,239.9	10,122.6
사과	1,400.8	2,947.8	2,043.1	2,254.1	2,110.2	1,900.4	2,605.9	1,898.9
감귤	822.5	1,214.1	878.3	1,271.8	1,345.4	1,505.7	1,789.8	1,814.6
배	494.2	859.4	841.2	1,014.6	979.8	1,061.5	1,198.6	1,087.1
포도	174.2	152.5	328.2	283.0	517.6	420.8	627.1	418.7
바나나	312.5	190.2	494.1	249.2	590.3	255.5	690.1	285.6
비 중	76.0	66.3	73.7	56.8	38.2	54.5	40.1	54.4

자료: 중국 국가통계국, 중국농촌통계연감 2007.

주: 2002년부터 과일통계에는 과채류 과일을 포함함.

- 전통적으로 가장 많이 재배하던 사과는 1997년부터 재배면적이 감소하고 있지만 단수가 늘어 생산량은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 사과 재배면적은 감소하고 있는 반면, 감귤은 재배면적과 생산량 모두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사과 재배면적에 근접하고 있다.

〈그림 2-8〉 지역별 과일생산량(2006)



자료: 중국 국가통계국, 중국농촌통계연감, 2007.

- 배와 바나나는 재배면적과 생산량 모두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고, 포도 재배면적은 연평균 10.3% 수준으로 크게 증가하다가 2004년부터 약간 주춤한 상태다.

지역별로는 산동성의 과일 생산량이 가장 많고, 다음으로 하남성, 하북성, 섬서성 순을 보이고 있다.

소득증가에 따라 과일의 1인당 소비량도 점차 증가하고 있다. 1980년 7.3kg에서 2005년 39kg으로 5배 이상 증가하였다. 국가개발개혁위원회(NDRC: National Development and Reform Commission)에 따르면, 중국 내에서 생산되는 과일의 90% 이상이 자국 내에서 소비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2-9〉 일인당 과일 소비량

품 목	단위: kg			
	1990	1995	2000	2006
도시	47.1	44.9	57.6	60.2
농촌	5.91	3.01	8.31	9.1
전국 평균	16.8	22.3	32.5	39.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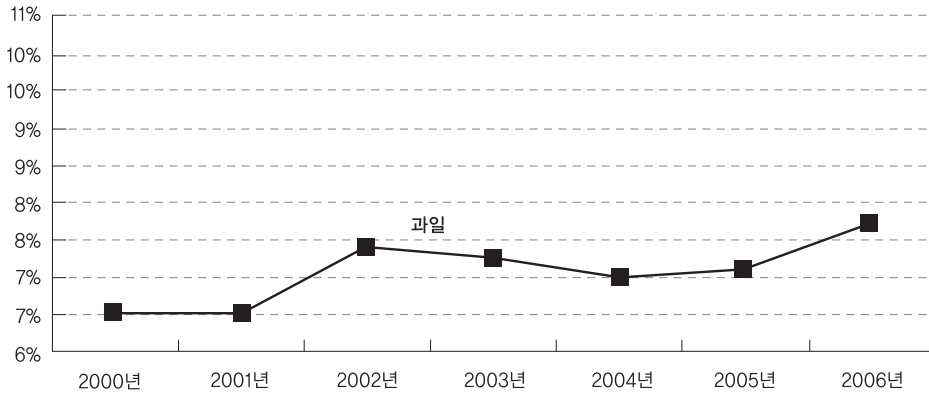
자료: 어명근외, 「중국 월예산업의 발전과 대응 방안」, 2007.7.

- 중국 소비자는 소득이 1% 상승하면 과일에 대한 지출을 1.58% 증가시키는 것으로 분석되었다(Shields and Huang 2004). 또한, 소득 상위 10%에 해당하는 도시 소비자의 과일 소비에 대한 지출은 소득 하위 10%의 소비자보다 두 배 이상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주민의 소득 증가와 식품영양 및 건강에 대한 의식이 높아짐에 따라 과일소비가 도시 주민의 식품소비지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 도시주민의 2006년 과일소비지출은 1인당 240위안으로 식품소비지출의 7.7%를 차지하고 있는데, 이는 1995년보다 약 1.4% 증가한 수치이다.

중국의 연간 1인당 과일 소비량은 빠르게 증가하고 있지만 세계 평균 소비량 수준에는 많이 부족한 상황이다. 중국 과일제품 유통협회 푸셔우첸(傅秀泉) 상무 부회장은 2005년 말에 열린 “중국 과일·야채 산업발전 고위층 포럼”에서 “중국 1인당 연간 과일 소비량은 세계 평균 수준보다 25.7% 정도 낮다”며, “국민 생활수준이 향상됨에 따라 중국 과일시장의 전망은 매우 밝다”고 발표했다.

〈그림 2-9〉 식품소비지출 중 과일소비 비중 변화 추이(도시주민)



자료: 어명근외, 「중국 월예산업의 발전과 대응 방안」, 2007.7.

중국 과일 소비는 주로 신선한 생과를 위주로 하고 있으며, 과일 주스 등 가공제품에 대한 소비는 적은 편이다. 과일 종류별 소비는 계절적인 변화에 따라 비교적 큰 차이가 있다. 가을·겨울에는 사과·감귤·배 등을 주로 소비하고 있으며, 여름·가을에는 포도·복숭아·수박 등을 주로 소비하고 있다. 하우스 재배 등 재배기술 발전에 따라 비 계절적인 과일 생산이 점점 증가되고 있고 여기에 외국산 과일들이 대량으로 수입되고 있어 중국 소비자들 특히 도시지역의 소비자들은 1년내내 신선한 과일을 소비하고 있다. 특히 파인애플·여지·용안(龍眼)·키위·양매(楊梅-딸기) 등에 대한 소비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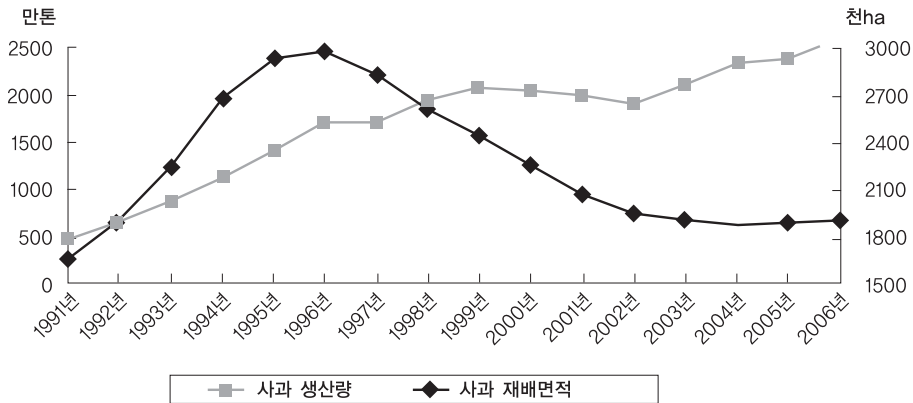
3.3.1 사과

1992년부터 중국은 세계 사과 생산대국인 미국을 제치고 사과 생산량에 있어 세계 1위를 차지하고 있다. 2006년 중국의 사과 생산량은 2,606만톤에 달하여 세계 총생산량의 34%를 차지하였다.

개혁개방 이후 중국의 사과재배는 꾸준히 증가하였다. 90년대에 들어서서는 사과 재배면적이 포화상태가 되면서 가격폭락과 폭등이 반복되는 불안정한 시장상황이 전개되었다.

사과산업의 불안정한 시장상황과 국가의 구조조정정책 등의 영향으로 1997년부터 사과 재배면적은 연평균 4.3% 수준의 감소추세를 나타냈다. 사과 재배면적은 지속적으로 감소하였지만 단위당 생산량 증가로 사과생산량은 증가하였다.

〈그림 2-10〉 사과 재배면적과 생산량 변화 추이(1990~2006)



자료: 중국 국가통계국, 중국농촌통계연감, 각연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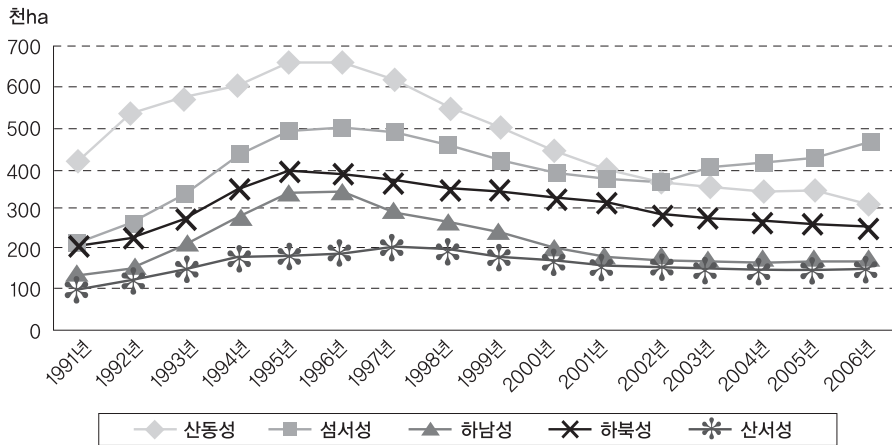
- 1990년 이후 사과의 생산량이 증가한 원인은 다수확 품종 보급, 재배기술 발전 등의 원인도 있지만 1980~90년 심어진 유목이 성목으로 바뀐 것이 주원인이다. 성목 면적의 증가로 1990년 들어 사과의 생산량이 빠르게 증가하였다. 2001년의 경우 사과 재배면적 가운데 유목 면적의 비중이 35%에 달하고 있어 향후에도 지속적인 생산증가가 예상된다. (어명근 외, 「중국 원예산업의 발전과 대응 방안」, 한국 농촌경제연구원, 2007.12.)

지역별로는 산동성과 섬서성의 사과 생산량이 가장 많다. 두 지역의 2006년도 사과 생산량을 합치면 1,343만톤으로 중국 전체 사과생산량 2,605만톤의 51.5%를 차지한다.

- 사과 특화지역은 토양과 지형, 기후 등에 맞추어 발해만과 서북 황토고원 지역에 분포되어 있다. 발해만 지역은 주로 산동성과 요녕성, 하북성을 포함하고, 서북 황토고원 지역은 섬서성, 산서성, 하남성, 감숙성 등이다.
- 사과 생산량 기준으로 산동성은 여전히 1위를 차지하지만, 최근 재배면적은 지속적

으로 감소하여 재배면적 기준으로는 2002년부터 섬서성이 1위를 차지하고 있다.

〈그림 2-11〉 지역별 사과 재배면적 변화추이(1990~2006)



자료: 중국 국가통계국, 중국농촌통계연감 각연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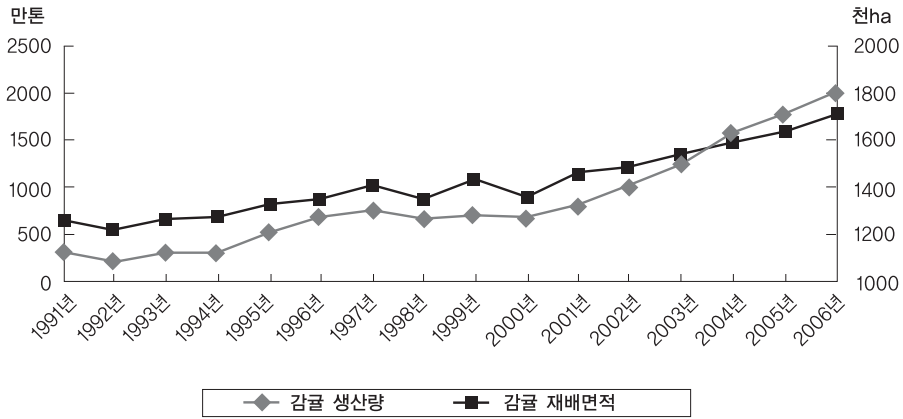
3.3.2. 감귤

중국의 감귤 재배면적은 브라질에 이어 세계 2위지만, 생산량은 브라질과 미국에 이어 세계 3위다. 감귤재배는 지속적인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는데, 감귤 재배면적은 1991년 112만ha에서 2006년 181만ha로 증가하였고, 생산량도 같은 기간 사이에 633만톤에서 1,789만톤으로 2.8배로 증가하였다.

중국의 감귤 재배지역은 일반적으로 양자강 유역 및 그 남부에 대부분 분포되어 있다. 북위 20°~33° 사이의 해발 1000m이하인 20개 성(시, 구)에서 재배되고 있는데 사천, 복건, 호남, 절강, 호북, 강서, 광서자치구, 광둥, 중경 등 9개 성에 대부분 집중되어 있다. 남아열대나 열대 지역에도 감귤이 분포되어 있지만 규모화된 산지는 많지 않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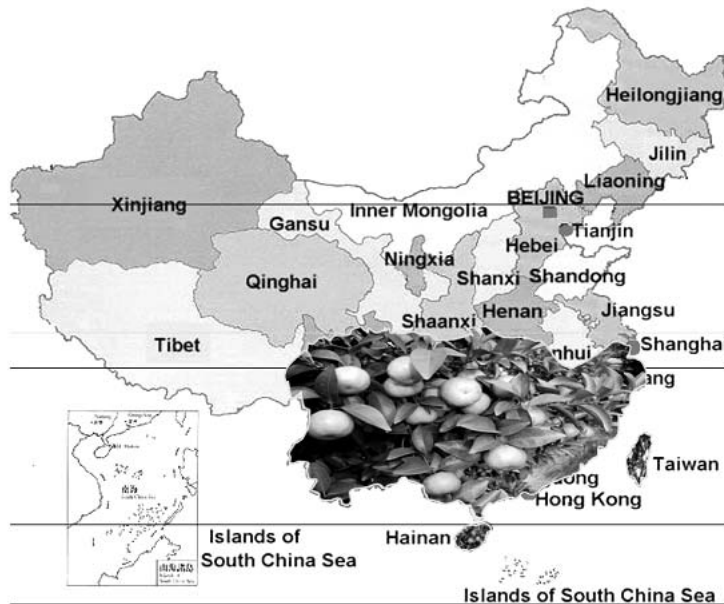
감귤의 품종별 구성으로 볼 때 중국은 주로 만다린류의 감귤을 재배하고 있다. 1990년의 경우 재배면적 기준으로 만다린류는 64.7%, 오렌지 25.5%, 기타 9.8%를 차지하였다. 생산량으로는 만다린류가 66.0%, 오렌지 24.4%, 기타가 9.6%를 차지하였다.

〈그림 2-12〉 감귤의 재배면적과 생산량 변화 추이(1991~2006)



자료: 중국 국가통계국, 중국농촌통계연감 각연도.

〈그림 2-13〉 중국 감귤 재배지역 분포도



자료: 등수신, 중국 감귤산업 연구, 2006.

1990년과 비교하여 2004년의 경우에는 재배면적 기준으로 만다린류가 여전히 높은 비중인 71.3%를 차지하고 있으며, 오렌지류 14.9%, 기타가 13.8%를 차지한다. 생산량 기준으로는 만다린류가 69.6%, 오렌지류 19.4%, 기타가 11.0%를 차지하였다.

〈표 2-10〉 감귤류 품종별 생산량(2001~2005)

단위: 만톤,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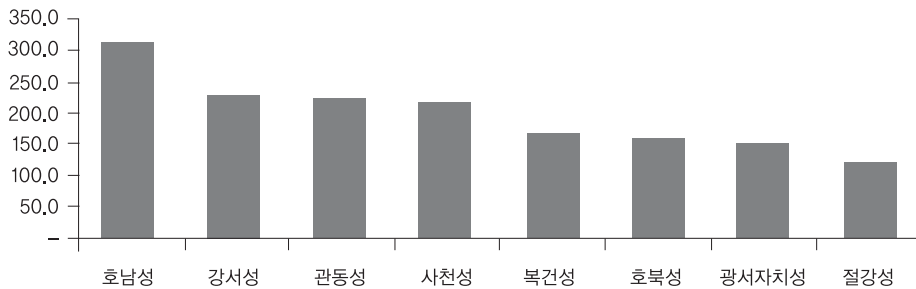
연도	柑		橘		橙		柚	
	생산량	비중	생산량	비중	생산량	비중	생산량	비중
2001	408.2	35	466.8	41	135.2	12	138.2	12
2002	424.9	36	457.5	38	150.1	13	152.6	13
2003	484.3	36	499.7	38	180.9	14	164.3	12
2004	532.3	36	552.6	38	212.1	14	180.1	12
2005	554.3	35	576.4	37	254.8	16	186.7	12

자료: 농업부, 중국농업통계자료, 2002~2005.

주: 柑 - 만다린, 橘 - 탄제린, 橙 - 오렌지, 柚 - 포멜로

지역별로는 호남성, 강서성, 광동성, 사천성, 복건성, 호북성, 광서자치구, 절강성 등 8개 지역의 감귤재배면적과 생산량이 전국의 90%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그림 2-14〉 지역별 감귤재배 현황(2006)



자료: 중국 국가통계국, 중국농촌통계연감, 각연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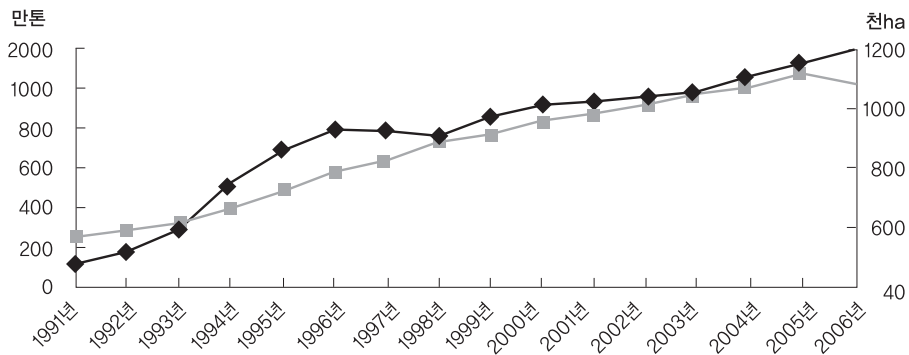
- 2005년 감귤류의 지역별 생산량 순위를 보면, 만다린의 경우 광서자치구, 사천, 호남, 절강, 복건성 순이며 이들 지역 생산량은 전국 총생산량의 68%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오렌지의 경우에는 사천, 광서, 강서, 중경, 광동성이 전국 총생산량의

75% 이상을 차지하며, 이들 지역의 탄제린 생산량은 전국 총 생산량의 72% 이상을 차지함으로써 만다린류에 비하여 지역성이 더욱 뚜렷이 나타나고 있다. 이에 비하여 포멜로의 경우는 복건, 광둥, 광서자치구, 사천, 절강성 순이며 이들 지역이 전체 포멜로 생산의 90%를 차지하고 있다.

3.3.3. 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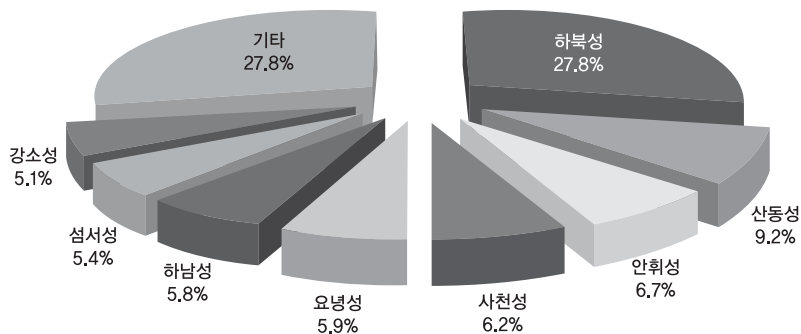
중국의 배 재배면적은 개혁개방 이후 점진적으로 증가하다가 배 가격이 하락하면서

〈그림 2-15〉 배의 재배면적과 생산량 변화 추이(1991~2006)



자료: 중국 국가통계국, 중국농촌통계연감, 각연도.

〈그림 2-16〉 지역별 배 생산량 비중(2006)



자료: 중국 국가통계국, 중국농촌통계연감, 200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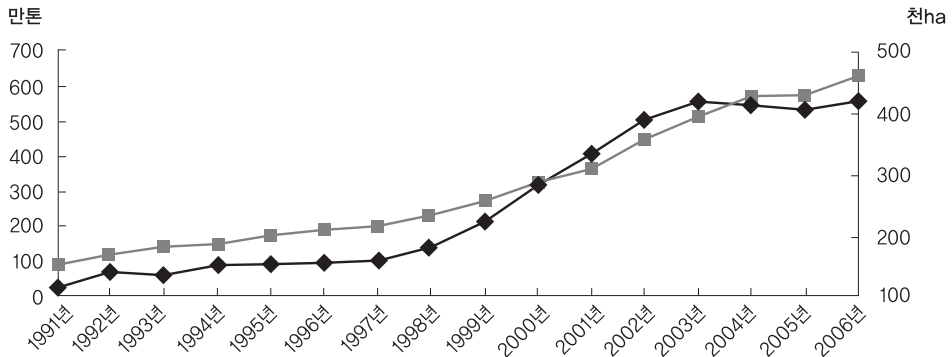
최근 재배면적 증가세가 둔화되고 있다. 배 재배면적은 1991년의 48.3만ha에서 2006년 108.7만ha로 2.3배로 증가되었고, 같은 기간 동안 생산량은 249.8만톤에서 1,198.6만톤 증가하였다.

배는 전국적으로 생산되고 있는데 하북성의 생산량이 가장 많아 27.8%를 차지한다. 다음으로 생산량이 많은 지역은 산둥성으로 하북성과 산둥성 2개 지역의 생산량을 합하면 전국 생산량의 37%에 달한다.

3.3.4. 포도

중국의 포도 재배면적과 생산량은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다. 포도 재배면적은 1991년의 11.4만ha에서 2006년 41.9만ha로 3.7배 증가되었고, 같은 기간 동안 생산량은 91.6만톤에서 627.1만톤으로 무려 6.8배 증가하였다.

〈그림 2-17〉 포도의 재배면적과 생산량 변화 추이(1991~200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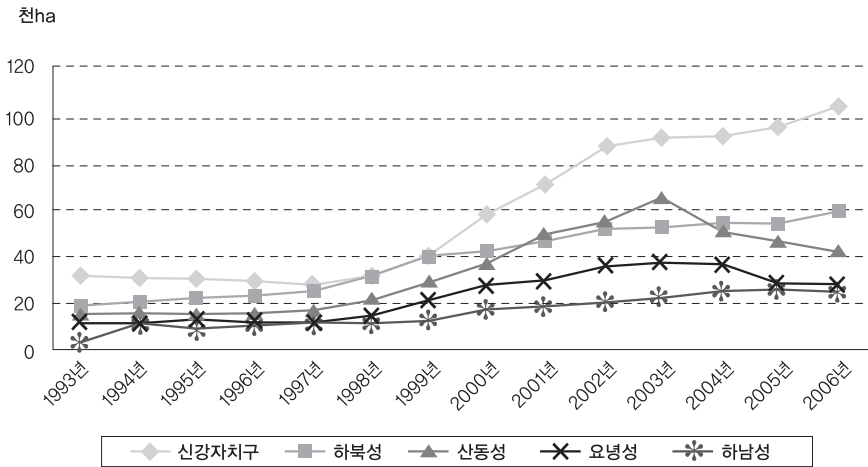


자료: 중국 국가통계국, 중국농촌통계연감, 각연도.

신강자치구의 포도 생산량이 가장 많은데 2006년 신강자치구의 포도 재배면적은 103.9천ha로 전국의 24.8%, 생산량은 150.2만톤으로 23.9%를 차지하였다.

- 최근 산둥성의 포도재배면적은 감소추세를 보여 하북성이 2위를 차지하고 있다. 요녕성 포도재배면적도 감소하고 있는 반면, 하남성은 확대되고 있는 추세다.

〈그림 2-18〉 지역별 포도 재배면적 변화추이(1990~2006)



자료: 중국 국가통계국, 중국농촌통계연감, 각연도.

3.4. 화훼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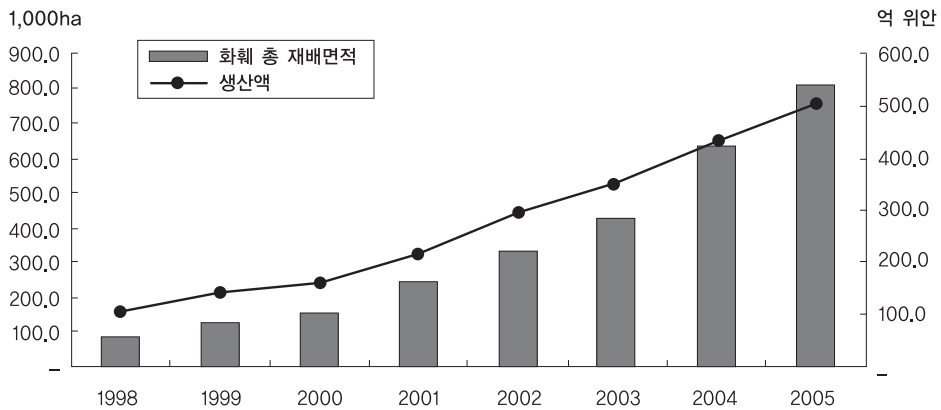
중국의 화훼산업은 2000년 이후 아주 빠른 속도로 성장하고 있다. 화훼류 재배면적은 1998년 8만 6천ha에서 연평균 14.9%씩 증가하여 2005년 81만ha로 증가하였다. 1998년 107억 위안이던 생산액은 2005년까지 연평균 10.1%씩 증가하여 503억 위안에 이르렀고, 이는 1998년과 비교할 때 4.7배 증가한 수준이다.

화훼류는 크게 절화, 분재, 관상묘목 등으로 나눌 수 있는데, 전 품목에 걸쳐 재배면적이 확대되고 있다. 재배면적의 연평균 증가율을 보면, 1998년에서 2005년 사이에 절화류가 11.0%, 분재가 9.3%, 관상묘목이 16.4%씩 증가하였다. 판매량의 연평균 증가율은 절화류와 관상묘목이 각각 10.5%, 분재가 8.9%이었다.

중국의 화훼류 산업에서 절화류 재배 면적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특히 장미와 국화의 재배면적 증가 속도가 빠른 편이다. 장미의 재배면적은 1998년부터 2005년까지 연평균 11.9%씩 증가하였고, 국화의 재배면적은 연평균 9.1%씩 증가하였다. 카네이션의 재배면적은 연평균 5.1%, 글라디올러스의 재배면적은 연평균 8.4%씩 증가하였다.

중국 화훼산업의 중심이 광둥성, 절강성, 복건성 등에서 운남성으로 빠르게 옮겨가고 있다. 운남성의 절화 생산량은 중국 전체의 70%를 점하고 있으며, 1994년 2억 1천만 주를 생산하여 중국내 절화 생산량에서 1위에 오른 이래 현재까지 그 지위를 유지하고 있다. 가을과 겨울철에는 중국내 주요 소비시장인 상해, 북경 등지에서 운남성 절화의 점유율은 80~90%에 이른다.

〈그림 2-19〉 화훼류 재배면적 및 생산액(1998~2005)



자료: 어명근외, 「중국 원예산업의 발전과 대응 방안」, 2007.

〈표 2-11〉 중국의 화훼류 재배면적과 판매량 추이

단위: 천ha, 백만주

	1998년	2000년	2002년	2004년	2005년	연평균 증가율	
총 재배면적	85.9	147.5	334.5	636.0	810.2	14.9%	
절화	재배면적	7.2	10.7	18.8	35.1	38.9	11.0%
	판매량	2,165.9	3,805.5	9,519.7	8,868.4	10,877.1	10.5%
분재	재배면적	14.4	18.8	39.1	78.5	60.0	9.3%
	판매량	693.2	810.8	1,586.3	3,237.7	2,741.8	8.9%
관상 묘목	재배면적	36.0	65.6	163.8	356.0	415.0	16.4%
	판매량	2,642.3	1,809.1	5,454.8	13,123.1	13,245.8	10.5%

자료: 어명근외, 「중국 원예산업의 발전과 대응 방안」, 2007.7.

최근 화훼류 시설 재배면적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1998년 7천ha였던 시설재배 면적이 2005년 3만 8천ha로 확대되었다. 특히, 2000년 이후 시설 재배면적의 성장 속도가 매우 빠르게 나타나고 있다. 시설재배 형태는 비닐온실 면적이 가장 많고 차광시설이 그 다음이다. 1998년부터 2005년까지 연평균 면적 증가율은 일광온실 17.7%, 비닐온실 11.6%이었다. 가온시설을 갖춘 시설의 면적은 과거보다 빠르게 증가하고 있지만 다른 시설재배 형태에 비해 증가율은 완만한 편이다.

- 지역별로 보면, 운남성, 광둥성, 요녕성 등의 시설재배 면적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세 지역의 시설재배 면적을 합하면 전국 시설재배면적의 50%를 넘는다. 최근 들어 시설재배 면적이 급증한 지역은 운남성과 요녕성이며 하북성과 절강성 지역은 감소하고 있다.

〈표 2-12〉 지역별 시설화훼 재배면적 추이(2000~2005)

단위: ha

구분	운남성	광둥성	요녕성	강소성	하북성	절강성
2000	2,139.0	1,384.0	n.a.	1,778.0	1,011.0	3,385.0
2001	4,496.0	4,036.0	n.a.	n.a.	1,429.0	1,105.0
2002	3,428.0	7,979.0	n.a.	2,091.0	1,006.0	1,317.0
2003	3,891.6	6,565.4	3,443.5	3,018.1	1,188.1	1,366.8
2004	4,958.4	6,469.9	3,426.1	n.a.	1,667.0	2,996.0
2005	6,413.6	6,341.2	6,738.5	2,254.5	1,314.4	1,511.0

자료: 어명근의, 「중국 원예산업의 발전과 대응 방안」, 2007.7.

주: n.a.는 해당 자료가 없거나 일관성이 없는 경우임. 예를 들어, 통계자료상 강소성의 2004년 시설재배 면적은 0.2ha나 2004년 전후 자료로 미루어 신뢰성이 낮음.

중국의 1인당 화훼 소비액은 연간 1달러 수준(또는 연간 2송이)으로 일본의 1/30 수준에 불과하다(중국 화훼생산자협회). 하지만 1인당 국민소득이 빠르게 증가하면서 화훼류 소비량도 빠르게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어 중국 화훼 소비시장의 잠재력이 매우 크다고 할 수 있다. 최근 온실재배가 급증하면서 출하시기가 주년화하고 있다. 3월에서 9월 사이에 소비가 집중되며 특히 명절 기간에 소비량이 많다. 호접란이나 심비디움과 같은 서양란은 주로 춘절을 중심으로한 1개월 동안에 소비가 집중되는데, 주로 고소득층에 의한 선물용 소비가 대부분이다. 2008년의 경우 심비디움 판매량은 150만본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다.

3.5. 축산물

경제성장과 더불어 축산물, 수산물 등에 대한 소비가 증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5대 축종인 소, 돼지, 양, 닭, 토끼의 사육두수는 매년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표 2-13〉 주요 축종별 사육두수 변화추이(1999~2006)

구분	단위	1999	2000	2005	2006
소	만두	3,766.2	3,964.8	5,287.6	5,602.9
돼지	만두	50,749.0	52,673.3	66,098.6	68,050.4
양	만마리	18,820.4	20,472.7	30,804.5	32,967.6
닭	억마리	74.3	81.0	98.6	101.8
토끼	만마리	22,103.0	25,878.2	37,840.4	40,367.7

자료: 중국 국가통계국, 중국농촌통계연감, 2007.

- 2007년에는 돼지 사료가격의 상승, 돈람이(猪藍耳) 돼지역병 발생 등의 영향으로 돼지 사육두수가 감소하였다. 소규모 양돈농가들의 암태지 도살, 종돈 판매 등으로 인해 돼지고기 공급량이 감소함에 따라 가격은 70%이상 상승하여 kg당 27.9위안에 달하였다.
- 돼지고기의 가격상승과 중국정부의 양돈생산에 대한 지원정책의 영향으로 2007년 하반기에는 양돈 사육두수가 증가하였다. 암태지 사육두수가 증가하였는데 4.8억

〈표 2-14〉 육류 생산량 변화추이(2001~2006)

구분	단위: 만톤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육류생산량	6,333.9	6,586.5	6,932.9	7,244.8	7,743.1	8,051.4
돼지,소,양고기	5,026.0	5,227.9	5,506.3	5,776.8	6,157.6	6,416.8
돼지고기	4,184.5	4,326.6	4,518.6	4,701.6	5,010.6	5,197.2
쇠고기	548.8	584.6	630.4	675.9	711.5	750.0
양고기	292.7	316.7	357.2	399.3	435.5	469.7
유제품생산량	1,122.9	1,400.4	1,848.6	2,368.4	2,864.8	3,302.5

자료: 자료 : 중국 국가통계국, 중국농촌통계연감, 2007.

마리로, 전년대비 약 4%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육 증가 시기가 늦어졌기 때문에 2007년도 출하물량은 여전히 감소하여 전년 대비 2.9% 감소하였고, 돼지고기 생산량도 5,040만 톤으로 3%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2007년 육류 총생산량은 8,130만톤으로 전년도 8,051만톤 대비 1% 증가하였다. 가금난(계란, 오리알 등) 생산량은 3,000만 톤으로 3% 증가하였고, 유제품 생산량은 3,650만 톤으로 10% 정도 증가하였다. 하지만 육류, 난류, 유제품류의 생산 증가 속도는 둔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표 2-15〉 육류별 생산량의 지역별 순위(2006)

단위: 만톤

순위	돼지고기		쇠고기		양고기		유제품	
	지역	생산량	지역	생산량	지역	생산량	지역	생산량
1위	사천성	541.3	하남성	109.3	내몽고	81.0	내몽고	877.5
2위	하남성	470.3	하북성	90.0	신 강	67.0	흑룡강성	464.6
3위	호남성	449.6	산둥성	81.1	하남성	51.2	하북성	417.0
4위	산둥성	380.7	길림성	53.0	산둥성	36.6	산둥성	238.6
5위	하북성	352.2	요녕성	44.4	하북성	35.4	신 강	187.8
6위	운남성	260.6	내몽고	38.2	사천성	21.0	섬서성	157.4
7위	광둥성	259.5	신 강	38.0	강소성	18.0	하남성	154.1
8위	호북성	254.0	안휘성	34.4	안휘성	17.6	요녕성	97.4
9위	안휘성	226.7	흑룡강성	32.3	감숙성	14.4	산서성	83.4
10위	강소성	218.7	사천성	29.6	호남성	13.0	천 진	68.3

자료: 중국 국가통계국, 중국농촌통계연간, 2007.

- 전체 육류생산량 중 돼지고기, 소고기, 양고기의 비중은 79.7%를 차지한다. 그중 돼지고기 생산량은 전체 육류생산량의 64.6%로 중국인들의 돼지고기 선호도가 높음을 알 수 있다. 하지만 2000년대 들어 고소득층을 중심으로한 쇠고기 수요 증가로 생산량 역시 증가 추이를 보이고 있다.
- 유가공 산업은 지난 7년간의 급속한 성장으로 인해 어느덧 유제품 가공능력은 과잉상태에 빠지게 되었다. 또한 사료, 노동력, 방역 등의 사육비용이 상승함에 따라 젖소 사육농가의 소득은 대폭 감소하였다. 연간 산유량이 4.5톤 이하인 젖소는 수익을 발생할 수 없게 되었는데, 2006년 하반기부터 내몽고, 하북성, 산서성 등 지

역에서는 노(老), 약(弱), 병(病), 저생산성 젓소를 집중적으로 도살하였다. 젓소도 살 사태가 지나치게 확대되어 일부 지역에서는 원유 부족현상이 발생하였고, 2007년 8월 하순에는 지나친 가격 상승으로 원료 구매에 애로를 겪는 상황까지 벌어졌다.

육류 생산량을 지역별로 보면, 돼지고기는 사천성이 가장 많아 10%를 차지하고, 다음으로 하남성, 호남성 순이다. 쇠고기는 하남성, 하북성, 산둥성 순이고, 양고기는 내몽고와 신강지역의 생산량 합계가 전체의 30% 이상을 차지한다. 유제품은 내몽고 지역이 월등히 많아 전체의 27%를 차지한다.

경제성장과 소득증대에 따라 중국인의 식품 소비패턴에는 많은 변화를 보이고 있는데 과거 곡물 중심의 소비구조에서 최근에는 육류 및 수산물 등의 소비가 증가하고 있다. 식품소비에 있어서 도시와 농촌의 격차는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 곡물의 경우 1인당 소비량은 감소하고 있지만 도시지역에 비하여 농촌지역의 감소폭은 느린 것으로 나

〈표 2-16〉 도시와 농촌 가구 1인당 식품 소비량(1990~2006)

단위: kg/인, %

연도	곡물		채소		육류(돼지, 소, 양)		수산물	
	농촌	도시	농촌	도시	농촌	도시	농촌	도시
1990	262.1	130.7	134.0	138.7	11.3	21.7	2.1	7.7
1995	260.1	97.0	104.6	118.6	11.3	19.7	3.4	9.2
2000	249.5	82.3	112.0	114.7	14.6	20.1	3.9	11.7
2001	238.6	79.7	109.3	115.9	14.5	19.2	4.1	12.3
2002	236.5	78.5	110.2	116.5	14.9	23.3	4.4	13.2
2003	222.4	79.5	107.4	118.3	15.0	23.7	4.7	13.4
2004	219.3	78.2	106.6	122.3	14.8	22.9	4.5	12.5
2005	208.9	77.0	102.3	118.6	17.1	23.9	4.9	12.6
2006	205.6	76.0	100.5	117.6	17.0	23.8	5.0	13.0
연평균 성장률								
83~90	0.1	-1.4	0.3	-2.	1.9	1.3	4.5	-0.7
90~0	0~0.5	-4.5	-1.8	-1.9	2.6	-0.8	6.2	4.3
00~04	-3.2	-1.3	-1.2	1.6	0.3	3.3	3.6	1.7
83~04	-0.8	-2.9	-1.0	-1.4	1.9	0.7	5.1	2.1

자료: 중국 국가통계국, 통계연감, 2007.

타났다. 육류와 수산물의 경우 도시와 농촌의 가구 1인당 소비량은 모두 증가되었으나, 도시가 농촌보다는 월등히 높은 수치를 보이고 있다. 2006년 1인당 육류 및 수산물 소비량은 도시 주민들은 23.8kg, 13kg인 반면 농촌 주민들은 각각 17.0kg와 5kg 수준을 보이고 있다.

4. 농산물 무역동향

2007년에도 중국경제는 고속 성장을 유지하여 전체 GDP는 전년 대비 11.4% 성장하였다.

2007년도 농산물 수출입 역시 증가하였고 수입의 증가폭이 수출의 증가폭보다 커서 농산물 무역 적자가 빠르게 늘어났다. 중국의 2007년도 농산물 수출입 총액은 781.0억 달러로 전년 동기대비 23.0% 증가하였다. 그 중 수출총액은 370.1억 달러로 전년 대비 17.8% 증가한 반면, 수입총액은 410.9억 달러로 28.1% 증가하였다.

중국의 농산물 수출입은 동부 연해지역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이 지역의 농산물 수출액은 중국 전체 수출총액의 76.7%를 차지하며 농산물 수입액은 중국 전체 수입총액의 94.4%를 차지한다.

중국에서 농산물의 수출액 1위를 차지하는 지역은 여전히 산둥성이고, 2위는 광둥성, 3위는 요녕성 순이다. 수입액 1위를 차지하는 지역은 강소성, 2위는 광둥성, 3위는 산

〈표 2-17〉 중국 농산물의 수출입 대상 지역별 현황(2006)

단위: 억달러, %

수출시장	수출액	전년대비 성장률	수출총액중 비중	수입시장	수입액	전년대비 성장률	수입총액중 비중
합 계	314.15	13.9		합계	320.8	11.8	
아시아	193.21	6.4	61.5	북미주	84.3	6.7	26.3
유럽	55.89	23.0	17.8	아시아	79.6	40.5	24.8
북미주	43.04	28.7	13.7	남미주	77.2	2.17	24.1
아프리카	8.95	34.4	2.9	유럽	36.8	8.56	11.5
남미주	8.24	55.6	2.6	대양주	30.8	△1.08	9.6
대양주	4.82	39.5	1.5	아프리카	12.0	12.1	3.8

자료: 중국농업부, 「2007 중국농산물무역발전보고」, 2007.7.

동성 순이다.

아시아는 중국 농산물 수출대상지역 중 제일 큰 시장으로 2007년 중국 농산물 수출 총액의 60.3%를 차지하였다. 유럽은 중국 농산물의 두번째 수출시장인 동시에 네번째 수입시장이고, 북미 지역은 세번째 수출시장인 동시에 두번째 수입시장이다. 수출 대상국에서는 일본이 제1위를 차지하고 있고 미국과 한국이 그 뒤를 잇고 있다. 수입 대상국으로는 미국이 제1위를 차지하고 있고 이어서 아르헨티나, 브라질 순이다.

4.1. 곡물 및 식용유

2005년 이래 중국의 식량 생산량은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수급균형을 유지하였다. 곡물의 수출입에 있어서는 수출이 증가하고 수입이 감소하여 순수출이 계속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2007년의 경우 991.2만톤을 수출(전년대비 62.5% 증가)하고 155.7만톤을 수입(전년대비 56.7% 감소)하여 순수출은 835.4만톤에 달하였다.

쌀은 주요 수출 품목인 동시에 수입 품목이고 옥수수과 소맥은 주로 수출하며 보리는 주로 수입한다.

〈표 2-18〉 곡물 품목별 수출입 실적(2007)

단위: 만 톤, %

품목	수출		수입		순수출	
	수출량	증감률	수입량	증감률	순수출량	증감률
벼	134.2	7.2	48.7	33.2	85.6	63.6
옥수수	491.8	58.7	3.54	△54.5	488.3	61.0
소맥	307.3	1.0	10.1	83.6	297.2	470.0
보리	-	-	91.3	△57.3	-	-

자료: 중국농업부, 2007년 중국농산물수출입동향, 2008.2.

주: 증감률은 전년 동기 대비 수치임

벼 품목은 쌀, 쌀가루, 벼, 종자벼를 포함함.

벼 품목 중 수출량의 97.1%와 수입량의 95.8%는 쌀 제품임.

옥수수 품목은 옥수수, 옥수수가루, 기타 가공 옥수수와 종자옥수수를 포함함.

소맥 품목은 소맥, 소맥분, 종자소맥을 포함함.

보리 품목은 보리, 가공보리, 종자보리를 포함함.

곡물의 수출시장은 주로 우리나라와 일본 등 주변국이고, 수입상대국은 호주, 태국,

캐나다 등이다.

〈표 2-19〉 중국 식량작물의 무역 상대국 분포 현황(2006)

단위: 만톤, %

수출시장	수출량	수출총액중 비중	수입원산지	수입량	수입총액중 비중
합 계			합 계		
한국	256.7	42.1	호주	200.4	55.6
일본	63.1	10.3	태국	69.1	19.2
필리핀	61.1	10.0	캐나다	55.5	15.4
말레이시아	36.9	6.1	미국	24.9	6.9
베트남	22.9	3.8	베트남	3.8	1.1
코트디부아르	21.6	3.5	라오스	2.1	0.6
북한	20.8	3.4	프랑스	1.5	0.4
인도네시아	18.1	3.0	일본	1.1	0.3
리비아	17.0	2.8	미얀마	1.0	0.3
러시아	15.1	2.5	한국	0.5	0.1

자료: 중국농업부, 「2007 중국농산물무역발전보고」, 2007.7.

곡물 수출에 있어 옥수수과 소맥 제품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다. 옥수수 제품은 주로 한국과 일본에 수출되고, 소맥 제품은 필리핀과 한국에 수출된다. 곡물수입에서는 보리제품이 60% 정도로 가장 많으며 그 중 50% 이상을 호주로부터 수입한다. 쌀제품은 주로 태국과 베트남으로부터 수입된다.

〈표 2-20〉 곡물 제품별 수출시장과 수입시장(2006)

단위: %

옥수수 제품 수출		소맥제품 수출		보리제품 수입		쌀제품수입	
수출시장	비중	수출시장	비중	수입시장	비중	수입시장	비중
한국	63.7	필리핀	34.5	호주	77.9	태국	94.5
일본	14.0	한국	27.5	캐나다	21.4	베트남	4.9
말레이시아	11.8	베트남	8.8	프랑스	1.7		0.6
베트남	2.8	북한	8.6	키르기스스탄	-	미얀마	0.03
인도네시아	2.2	인도네시아	7.1	말레이시아	-	파키스탄	0.02

자료: 중국농업부, 「2007 중국농산물무역발전보고」, 2007.7.

식용 유지작물은 2006년 수출과 수입이 동시에 증가하였고, 식용 식물류의 경우 수

출은 감소하고 수입은 증가하였다. 면화는 수입량이 감소, 설탕은 수출입이 동시에 감소하였다.

〈표 2-21〉 식용 유지·식물유 품목별 수출입 실적(2006)

단위: 만 톤, %

품 목	수출		수입	
	수출량	증감률	수입량	증감률
식용 유지작물	127.1	4.7	3185.8	8.8
대 두	47.5	20.2	3082.1	9.0
식용 식물유	16.8	△58.1	839.7	25.0
두 유	6.6	△44.2	282.3	83.0
유채유	2.2	△85.0	37.5	7.5
종려유	-	-	509.5	0.3
설탕	11.1	△28.4	119.3	△12.6

자료: 중국농업부, 2007년 중국농산물수출입동향, 2008.2.

주: 증감률은 전년 대비 수치임.

4.2. 채소류

중국의 채소류 무역에 있어 수입은 미미한 반면 수출은 품목도 다양하고 수출액도 많다. 채소류 수출액은 1990년의 5.9억 달러에서 2006년에는 54.3억 달러로 9배 이상 증가하였다. 채소류는 중국이 WTO에 가입한 2002년 이래 축산물을 제치고 최대의 수출 농산물로 부각되었다.

2006년 전체 채소수출량은 732.7만톤으로 전년 대비 7.7%, 수출액은 54.3억 달러로 21.0% 성장하였고 수입량은 11.7만톤으로 20.1%, 수입액은 0.9억달러로 12.0% 증가하였다. 따라서 2006년에 한해동안 중국은 채소 무역에서 53.4억달러의 흑자를 실현하였다.

- 2007년 1~11월 기간동안 중국의 채소수출량은 736.7만 톤으로 전년 동기보다 10.2% 증가, 수출액은 55.8억 달러로 전년 동기보다 13.5% 증가하였다.

부류별로는 2006년의 신선·냉동채소 수출액은 가공채소를 제치고 1위를 차지하였다. 하지만 2007년의 경우에는 가공채소가 더 많이 수출되었다.

〈표 2-22〉 채소류 수출 동향(2006~2007)

단위: 억달러, %

구 분		수출액	전년 대비 증가	수출총액 중 비중
채소 전체		54.3	21.0	
신선·냉동채소	2006년	22.7	28.0	41.8
	2007년	21.4	2.9	38.5
가공채소	2006년	21.5	15.0	39.6
	2007년	24.3	25.6	43.6
건조채소	2006년	10.1	19.7	18.6
	2007년	10.0	11.9	18.0

자료: 중국농업부, 「2007 중국농산물무역발전보고」, 2007.7.

중국농업부, 2007년 중국농산물수출입동향, 2008.2.

주: 2007년 통계는 1월~11월 수치임.

2006년 수출채소 중 신선·냉장마늘 수출량은 11.6만톤, 수출액은 7.4억달러로 모두 1위를 차지하고 있다. 건조 혹은 탈수마늘 수출액도 전년대비 58.3% 증가하였다.

〈표 2-23〉 채소 제품별 수출동향(2006)

단위: 만톤, 억달러, %

제품	수출량	전년대비 성장율	수출액	전년대비 성장율	수출총액중 비중
선선·냉장마늘	116.1	5.8	7.4	43.6	13.5
캐참통조림	63.1	4.9	3.6	19.0	6.6
백버섯통조림	25.2	△8.9	2.6	17.2	4.8
건조·탈수마늘	12.9	22.0	2.3	58.3	4.2
생강	28.0	16.9	1.7	△23.1	3.1
아스파라거스 통조림	8.6	△19.3	1.7	30.1	3.1
건표고버섯	1.8	△27.4	1.6	△11.4	2.9
신선·냉장 양파	53.1	△0.8	1.4	35.6	2.5
신선·냉장 당근 및 무우	43.1	10.5	1.4	30.1	2.5
건고추	7.0	△0.5	1.0	4.0	1.9

자료: 중국농업부, 「2007 중국농산물무역발전보고」, 2007.7.

2006년 신선·냉동채소의 수입량과 수입액은 모두 대폭 증가한 반면, 가공채소와 건채소의 수입량과 수입액에는 큰 변화가 없다.

지역별로는 산둥성, 복건성, 신강, 절강성, 강소성, 광둥성은 중국의 주요 채소 수출

〈표 2-24〉 채소류 수입동향(200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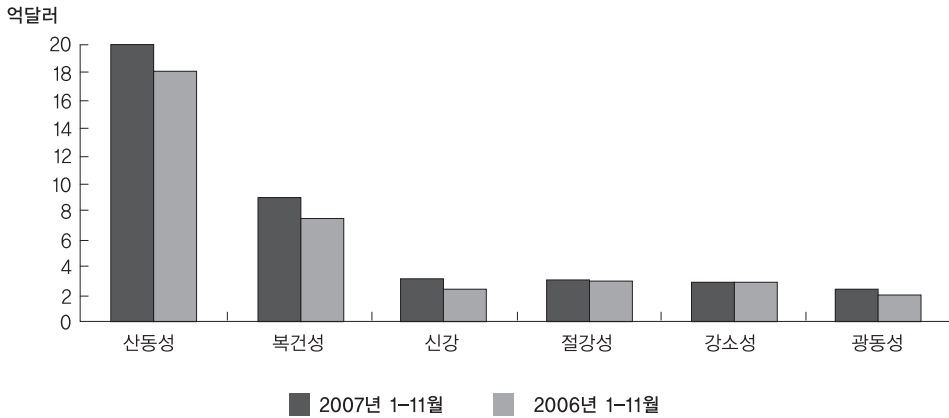
단위: 만톤, 억달러, %

제품	수입량	전년대비 증가율	수입액	전년대비 증가율	총수입액중 비중
채소 전체	11.7	20.3	0.9	12.0	
가공채소	6.7	0.5	0.5	8.8	58.6
신선냉동채소	4.6	72.5	0.3	27.4	29.4
건조채소	0.5	5.1	0.1	△3.27	12.0

자료: 중국농업부, 「2007 중국농산물무역발전보고」, 2007.7.

지역이다. 그 중 산둥성의 2007년 1~11월 사이 채소 수출액은 전년 동기보다 9.4% 증가한 19.9억 달러로 전국에서 1위를 차지하였다. 같은 기간 복건성의 채소 수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 19.9% 증가한 8.9억 달러였으며 절강성, 신강, 강소성, 광둥성의 수출액 역시 증가추세를 나타내고 있다.

〈그림 2-20〉 지역별 채소류 수출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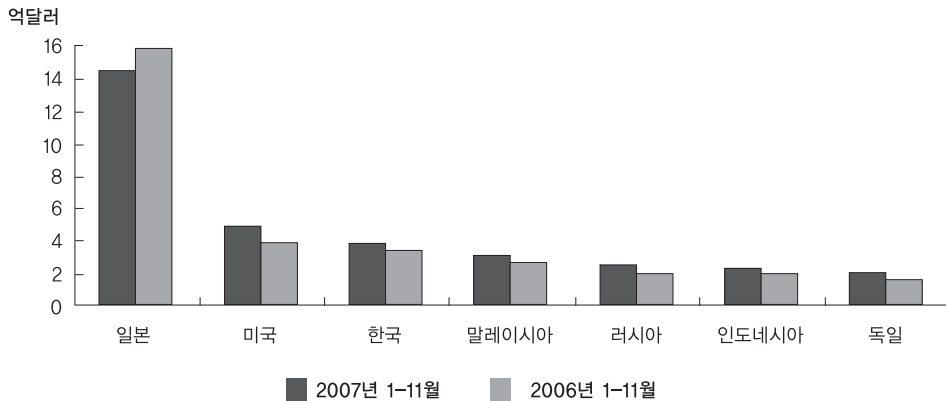


자료: 중국농업부, 2007년 중국농산물수출입동향, 2008.2.

2006년 통계기준으로 중국의 채소수출 상위 10대 시장은 일본, 미국, 한국,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러시아, 홍콩, 독일, 네덜란드, 이탈리아 순이다. 이같은 상위 10대 시장의 수출액을 합하면 수출총액의 73%를 차지한다.

- 일본과 동남아 지역은 중국 채소의 가장 중요한 수출시장이다. 2007년 1~11월의

〈그림 2-21〉 중국 채소 수출대상국별 수출 변화



자료: 중국농업부, 2007년 중국농산물수출입동향, 2008.2.

대일본 채소수출액은 14.5억 달러로 중국 채소 수출총액의 26.0%를 차지하였고 동남아 국가들에 대한 채소 수출액은 8.4억 달러로 15.0%를 차지하였다. 또한 미국, 한국, 러시아, 독일에 대한 채소 수출도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는데 전년 동기 대비 각각 22.3%, 13.0%, 25.7%, 28.3% 증가하였다.

4.3. 과일류

중국의 과일류(신선·냉동과일, 과일즙, 과일통조림, 기타 가공과일을 포함함) 무역 흑자는 2000년 이래 지속적으로 증가하였는데 2000년의 3.6억달러에서 2006년의 17.1억달러로 3.8배 증가하였다. 2006년 과일 수출량은 370.4만톤, 수출액은 24.8억 달러로 각각 전년대비 1.9%, 21.7% 성장하였다.

- 2007년 1~11월 사이 중국의 과일수출은 422.4만톤으로 전년 동기대비 31.0% 증가, 수출액은 32.4억달러로 전년 동기대비 51.2% 증가하였다.

품목별 수출구조를 보면 신선·냉동과일과 가공제품이 각각 절반씩 차지하고 있다.

과일류 수출제품 중 신선·냉동과일은 주로 신선사과, 감귤, 배 등이다. 과일통조림 수출은 감귤통조림과 복숭아통조림이 많은데 특히 감귤통조림 수출량은 전체의 60%를

〈표 2-25〉 과일류 수출동향(2006~2007)

단위: 만톤, %

구 분	수출액	전년 대비 증가	수출총량 중 비중
과일 전체(2006)	370.4	1.9	
신선·냉동과일	2006년	△2.5	53.6
	2007년	24.8	50.7
과일즙	2006년	△5.0	20.0
	2007년	58.1	23.6
과일통조림	2006년	4.8	14.3
	2007년	23.6	14.0
기타 가공과일	2006년	11.9	12.1
	2007년	23.6	11.7

자료: 중국농업부, 「2007 중국농산물무역발전보고」, 2007.7.

중국농업부, 2007년 중국농산물수출입동향, 2008.2.

주: 2007년 통계는 1월~11월 수치임.

차지한다. 과일즙에서는 사과즙 수출이 가장 많은데 수출량과 수출액 모두 90%이상을 차지한다. 기타 가공과일에는 건포도와 잼류, 제리류 등이 있다.

〈표 2-26〉 과일류의 제품별 수출동향(2006)

단위: 만톤, 억달러, %

구 분	수출량	전년대비 성장률	수출액	전년대비 성장률	
신선·냉동 과일	신선사과	80.4	△2.4	37,254.8	21.7
	감귤	43.5	△6.6	16,151.0	12.7
	신선배	37.5	1.9	14,771.3	20.9
	포도	3.4	61.3	1,923.4	92.9
	바나나	2.3	△3.2	722.8	△3.5
	복숭아	2.0	18.5	559.1	10.9
	키위	0.4	△7.8	310.2	△13.5
	파인애플	0.4	△31.7	180.8	41.4
과일통조림	감귤통조림	31.7	5.7	23,483.3	18.2
	복숭아통조림	9.1	18.6	7,445.6	20.4
	배통조림	3.6	4.5	2,309.7	23.5
과일즙	사과즙	67.4	3.5	59,529.2	29.5

자료: 중국농업부, 「2007 중국농산물무역발전보고」, 2007.7.

- 사과는 1990년도만 해도 수입량이 수출량보다 많았으나 1995년 이래 순수출 품목으로 전환되어 2005년에는 82만톤이 수출되었고, 2006년에는 약간 감소한 80만톤이 수출되었다.
- 감귤 수출량은 1995년 13만톤에서 2006년에는 43만톤으로 증가하였다.
- 포도 수출도 1990년 700톤에서 2006년 3.4만톤으로 크게 증가하였으나 국내 수요가 많아 여전히 순수입 품목이다.
- 배 수출은 1990년 4만톤에서 2006년 37.5만톤으로 급증하였다.

2006년 과일수입량은 125.9만톤으로 9.9% 성장, 수입액은 7.6억달러로 15.2% 성장하였다. 2007년 1~11월 기간중 과일의 수입은 123만톤으로 전년 동기대비 6.3% 증가하였고 수입액은 8.6억 달러로 24.7% 증가하였다.

〈표 2-27〉 과일류 수입동향(2006)

단위: 만톤, 억달러, %

구 분	수입량	전년대비 증가율	수입액	전년대비 증가율	총수입액중 비중
과일 전체	125.9	9.9	7.6	15.3	
신선·냉동과일	106.7	8.4	5.7	10.7	64.9
과일즙	7.4	7.7	1.0	34.2	11.2
과일통조림	0.7	25.7	0.1	37.2	0.6
기타 가공과일	11.1	27.6	0.9	27.8	10.1

자료: 중국농업부, 「2007 중국농산물무역발전보고」, 2007.7.

〈표 2-28〉 과일류의 제품별 수입동향(2006)

단위: 만톤, 억달러, %

구 분		수입량	전년대비 성장율	수입액	전년대비 성장율
신선·냉동 과일	바나나	38.8	9.0	11,616.6	16.1
	신선포도	4.6	△20.0	6,938.4	△15.8
	감귤(오렌지류)	6.3	26.0	4,220.6	19.8
	신선사과	3.1	△6.4	2,527.1	△0.6
	키위	1.0	56.1	1,131.8	96.1
과일즙	감귤즙	6.4	4.8	8,587.1	36.0
기타가공과일	건조 용안	5.9	32.7	3,286.4	25.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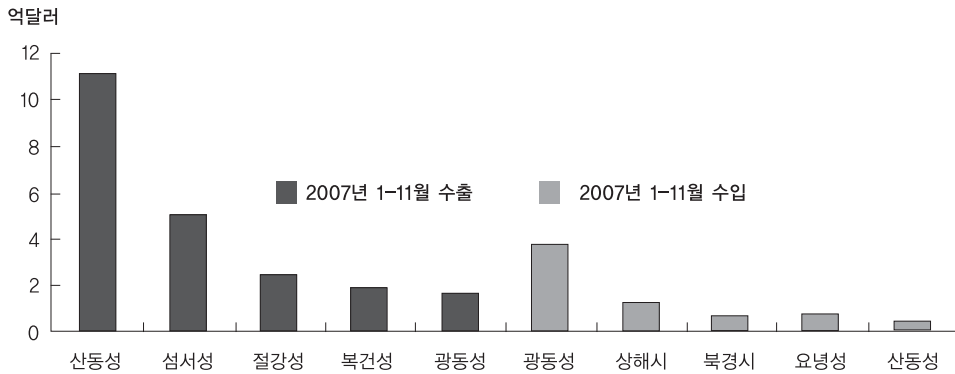
자료: 중국농업부, 「2007 중국농산물무역발전보고」, 2007.7.

대표적인 과일 수입 품목으로는 바나나, 신선포도, 감귤, 감귤즙 등이 있다.

- 2007년 1~11월 사이 바나나 29.9만톤, 키위 11.6만톤, 감귤 7.2만톤, 감귤즙 5.7만톤, 포도 4.2만톤을 수입, 전년 동기대비 10% 이상의 증가폭을 보이고 있다.

중국의 지역별 수출실적을 보면 산동성, 섬서성, 절강성, 복건성 순이다. 2007년 1~11월 사이 이들 지역은 각각 11.1억달러, 5.0억달러, 2.4억달러, 2.0억달러를 수출하였다.

〈그림 2-22〉 지역별 과일 수출입 추이



자료: 중국농업부, 2007년 중국농산물수출입동향, 2008.2.

주요 수출대상국은 미국, 일본, 러시아, 네덜란드, 독일, 말레이시아다. 2006년도 6

〈표 2-29〉 중국 과일 수출대상국 현황(2006)

단위: 만톤, 억달러,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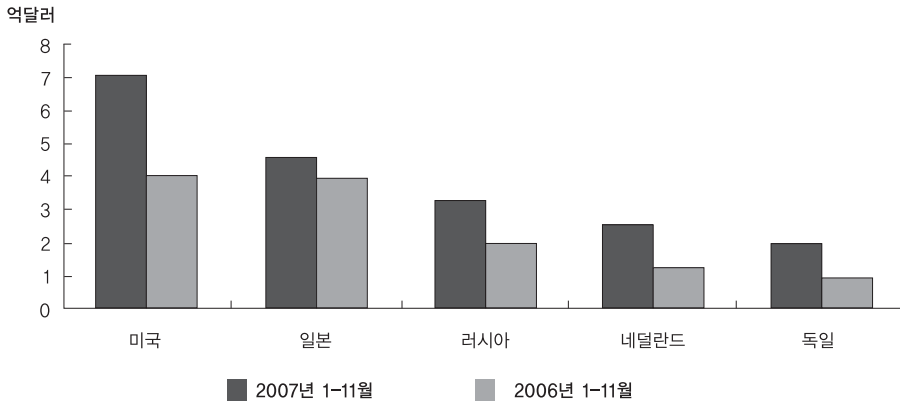
수출시장	수출량	전년대비 성장률	수출액	전년대비 성장률
미국	52.0	6.8	6.5	29.0
일본	39.0	△2.2	4.4	3.5
러시아	42.5	19.7	2.3	49.1
네덜란드	18.3	23.8	1.5	60.3
독일	13.3	△22.1	1.1	△0.6
말레이시아	20.0	△4.0	1.0	17.4

자료: 중국농업부, 「2007 중국농산물무역발전보고」, 2007.7.

대 수출대상국의 수출액을 합치면 수출총액의 60.4%를 차지하였다.

- 2007년 1~11월 사이 이들 국가에 각각 65.7만톤, 38.0만톤, 50.7만톤, 25.0만톤, 19.1만톤을 수출하였는데, 이는 전년 동기보다 증가한 것이다. 수출액은 각각 같은 기간동안 과일수출 총액의 21.4%, 14.1%, 10.0%, 7.6%, 6.0%를 차지하였다.

〈그림 2-23〉 수출대상국별 수출액 변화 추이



자료: 중국농업부, 2007년 중국농산물수출입동향, 2008.2.

주요 수입대상국은 태국, 미국, 필리핀, 베트남, 브라질과 칠레다. 이들 6대 수입대상국의 수입액을 합치면 수입총액의 80.1%, 수입량으로는 90.6%를 차지한다. 2006년 베트남으로부터의 과일수입액은 전년대비 70%이상 증가하였고 미국, 필리핀, 브라질

〈표 2-30〉 중국 과일 수입대상국 현황(200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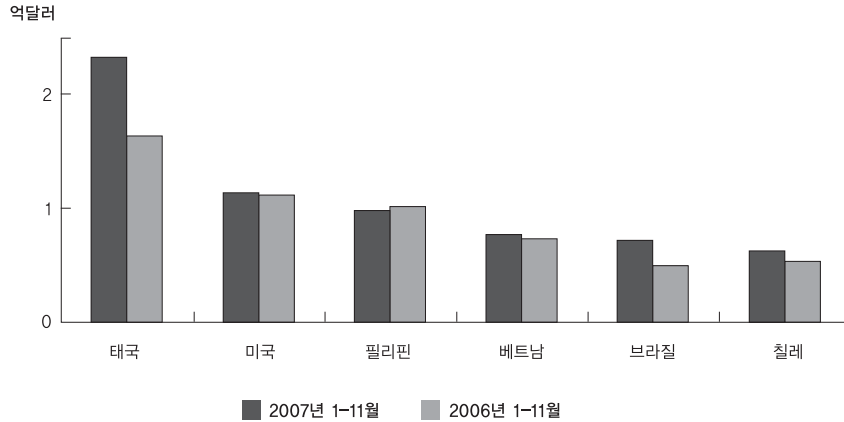
단위: 만톤, 억달러, %

수입시장	수입량	전년대비 성장률	수입액	전년대비 성장률
태국	25.8	1.9	1.8	△4.5
미국	12.5	14.0	1.2	14.5
필리핀	35.3	14.6	1.2	22.9
베트남	31.5	24.9	0.8	72.0
브라질	4.5	△11.8	0.6	17.8
칠레	4.5	△11.4	0.6	△10.8

자료: 중국농업부, 「2007 중국농산물무역발전보고」, 2007.7.

에서의 수입액도 대폭 증가하였다.

〈그림 2-24〉 수입대상국별 수입액 변화 추이



자료: 중국농업부, 2007년 중국농산물수출입동향, 2008.2.

“중국·아세안 FTA” 조기 실시¹⁾의 영향으로 중국과 아세안 국가간의 2006년 과일 무역총액은 8.4억 달러에 이르렀고 이는 2003년에 비하여 68.5% 증가한 것이다.

〈표 2-31〉 중국·아세안 과일무역 실적(2007.1~11)

구 분	수량 (만 톤)	총량 비중 (%)	전년 대비 증감률(%)	금액 (억 달러)	총액 비중 (%)	전년 대비 증감률(%)
대아세안 수출	99.56	23.57	16.62	4.83	14.88	24.44
대아세안 수입	90.75	73.78	4.58	4.30	49.77	20.3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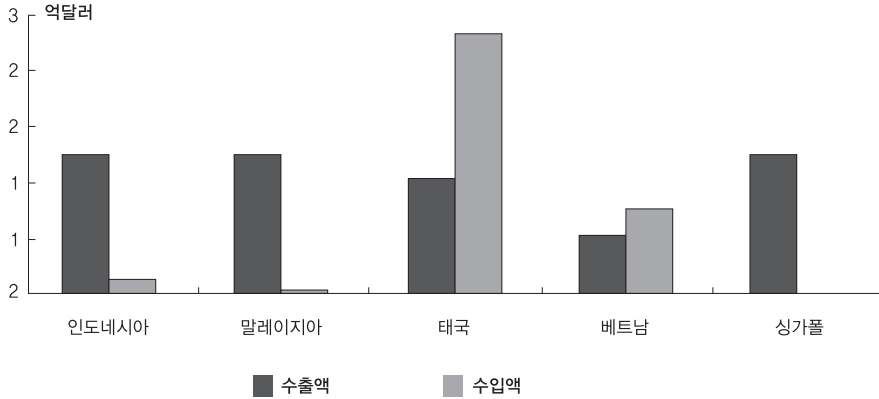
자료: 중국농업부, 2007년 중국농산물수출입동향, 2008.2.

중국과 아세안의 과일무역은 상호 보완관계를 갖고 있다. 중국이 주로 수입하고 있는 과일은 용안, 두리안, 여지, 바나나, 연무(蓮霧: wax-apple) 등이고, 중국의 대 아세안

1) 2002년에 중국과 ASEAN 국가들(브루나이,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필리핀, 싱가포르, 태국, 캄보디아, 라오스, 미얀마, 베트남 등 10개국)은 FTA를 체결하여 관세 철폐 프로그램(Early Harvest Program)을 시작하였음. EHP의 핵심은 과일, 채소, 수산물 등 600여개 품목에 대한 관세를 2004년부터 점진적으로 삭감하여 2006년까지 완전 철폐하는 것임.

수출과일은 주로 사과, 배, 감귤, 복숭아통조림, 대추류 등이다.

〈그림 2-25〉 중국·아세안 국가별 과일무역 실적(2007.1~1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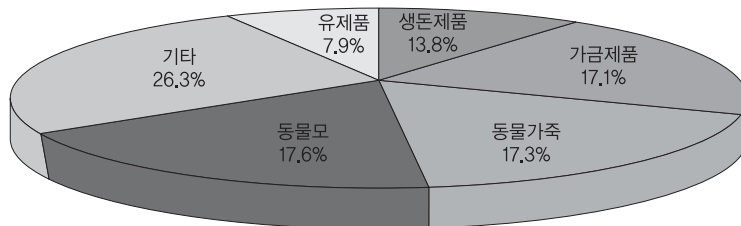


자료: 중국농업부, 2007년 중국농산물수출입동향, 2008.2.

4.4. 축산물

중국은 축산물 무역에서는 무역적자를 보고 있다. 2006년 축산물 무역총액은 82.7억 달러로 전년대비 5.7% 성장하였다. 그중 수출액은 37.2억 달러로 3.4% 증가, 수입액은 45.5억 달러로 7.7% 증가하였다. 무역적자는 8.3억 달러로 32.8% 증가하였다.

〈그림 2-26〉 축산제품 무역구조(2006)



자료: 중국농업부, 「2007 중국농산물무역발전보고」, 2007.7.

무역적자를 발생하게 하는 주요 제품으로는 동물가죽, 동물모, 유제품, 동물생모피 등이 있다.

축산제품 중 수출입 규모가 큰 상위 제품은 동물모, 동물가죽, 가공제품, 돼지고기 등이다.

2006년의 경우 수출제품을 수출액순위별로 보면 생돈제품이 9.8억 달러로 축산제품 수출총액의 26.4%를 차지하여 1위이다. 다음으로 가공제품이 9.3억 달러로 25.1%를 차지한다. 전년대비 수출액 증가폭이 큰 제품으로는 양봉제품 19.7%, 양제품 17.8%, 유제품 14.9% 순이다.

축산제품 수입액이 1억달러를 초과하는 제품은 동물가죽, 동물모, 유제품, 가공제품,

〈표 2-32〉 주요 축산물의 수출 현황(2006)

단위: 만달러, %

구 분	단위	수출량	전년대비 성장율	수출액	전년대비 성장율
생돈제품				98,294.6	3.9
돼지고기	톤	268,932.8	7.5	40,098.9	△1.2
가공돼지고기	톤	149,855.6	10.4	35,580.3	13.9
생돈	천두	1,719.6	△2.4	22,518.9	△0.7
가공제품				93,264.6	2.0
가공가금	톤	236,562.4	9.5	73,391.4	7.5
닭고기	톤	135,961.5	△13.7	16,708.7	△14.1
기타 닭	천마리	18,994.0	△24.0	3,164.5	△15.3
털	톤	32,159.5	△12.9	31,059.9	△13.4
소제품				18,260.6	0.6
가공소고기	톤	33,400.8	△5.9	8,172.0	△22.1
소고기	톤	27,448.3	43.7	6,415.8	54.6
기타 생우	천두	54.2	0.3	3,658.5	4.4
난제품				7,574.1	0.9
신선란	천개	941,515.7	22	4,233.1	△2.2
가공란	천개	251,238.6	△12.6	1,998.1	5.5
가공란	톤	6,677.5	3.1	1,316.5	4.0
양봉제품				12,817.1	19.7
천연꿀	톤	81,073.6	△8.3	10,527.0	20.3
봉왕장제품	톤	939.3	△2.4	2,046.5	4.5

자료: 중국농업부, 「2007 중국농산물무역발전보고」, 2007.7.

〈표 2-33〉 주요 축산물의 수입 현황(2006)

단위: 만달러, %

구 분	단위	수입량	전년대비 성장율	수입액	전년대비 성장율
동물가죽				143,235.0	8.7
소, 말 가죽	톤	704,737.8	8.7	120,365.2	17.7
양 가죽	톤	204,335.1	7.3	19,049.3	△20.5
동물모				129,041.8	3.4
양모	톤	278,027.6	11.8	126,232.4	4.1
유제품				55,789.2	21.6
분유	톤	136,046.1	25.9	29,161.9	23.8
녹청분	톤	184,496.5	△1.5	19,415.1	23.4
기타유제품	톤	23,465.6	10.5	6,692.2	11.4
가금제품				48,086.7	35.6
닭고기	톤	588,496.2	53.5	46,269.1	38.2
종금	천마리	999.6	△27.2	1,551.7	△15.5
동물생모	피토	32,553.3	11.5	16,654.2	4.4
양돈제품				16,013.8	△10.6
돼지고기분쇄	톤	194,919.1	15.6	13,426.8	△7.8
돼지고기	톤	23,843.4	△23.6	2,130.5	△26.5
중돈	천두	2.5	△23.1	425.4	△1.1

자료: 중국농업부, 「2007 중국농산물무역발전보고」, 2007.7.

〈표 2-34〉 축산제품 주요 수출시장(2006)

단위: 만달러, %

국 가	수출액	수출총액중 비중
일 본	126,313.4	34.0
홍 콩	81,825.4	22.0
미 국	28,677.5	7.7
독 일	20,411.8	5.5
한 국	12,997.8	3.5
북 한	11,466.7	3.1
핀란드	7,612.3	2.0
대 만	7,240.3	1.9
마카오	6,043.4	1.6
네덜란드	5,792.2	1.6

자료: 중국농업부, 「2007 중국농산물무역발전보고」, 2007.7.

동물생모피, 돼지고기제품 등 6가지이다. 동물가죽 수입액이 가장 많아 14.3억달러로 축산제품 총수입액의 31.5%를 차지한다.

중국의 축산제품 주요 수출시장은 일본, 홍콩, 미국, 독일, 한국, 북한, 핀란드와 대만이다. 그중 일본과 홍콩시장에 대한 수출액은 각각 수출총액의 1/3과 1/5를 차지한다.

- 일본으로의 수출은 가금제품, 생돈제품이 주가 되고 있다. 가금제품 수출액은 6.5억달러로 전년대비 7.3% 증가하였는데 수출총액의 50%이상을 차지한다. 생돈제품 수출액도 2.3억달러로 18.1%를 차지한다.
- 홍콩지역에는 주로 생돈과 가금제품을 수출한다. 2006년 대홍콩 생돈제품 수출액은 4.3억달러였는데 이중 생돈제품은 160.2만두, 2.1억달러였다. 가금제품수출은 2.0억달러였는데 이중 생닭은 0.2억달러가 수출되었다.
- 미국으로는 주로 털을 수출하는데 2006년 수출량은 1.6만톤, 수출액은 1.2억달러였다.

중국의 축산제품 주요 수입시장은 호주, 미국, 뉴질랜드, 캐나다, 프랑스, 브라질, 덴마크다. 이중 호주와 미국으로부터의 수입액은 각각 수입총액의 32.7%와 29.8%를 차지한다.

〈표 2-35〉 축산제품 주요 수입시장(2006)

단위: 만달러, %

국 가	수입액	수입총액중 비중
호 주	148,679.0	32.7
미 국	135,706.6	29.8
뉴질랜드	50,864.6	11.2
캐나다	16,480.7	3.6
프랑스	15,632.3	3.4
브라질	12,267.9	2.7
덴마크	10,122.0	2.2
우루과이	6,116.3	1.3
핀란드	5,768.3	1.3
독 일	5,735.3	1.3

자료: 중국농업부, 「2007 중국농산물무역발전보고」, 2007.7.

- 호주로부터는 주로 동물모와 동물가죽을 수입한다. 이 두 품목의 합계는 호주 수입

총액의 84.7%를 차지한다. 동물모는 18.6만톤, 10.0억달러 수입하였고, 동물가죽은 24.9만톤, 2.6억달러 수입하였다.

- 미국지역에서는 주로 동물가죽과 가죽제품을 수입한다. 이 두 품목의 합계는 미국 수입총액의 83.9%를 차지한다. 동물가죽은 41.8만톤, 8.1억달러를 수입하여 전년 대비 각각 23.1%, 22.0% 증가하였다. 가죽제품 수입액은 3.3억달러로 68.4% 증가하였다.
- 뉴질랜드에서는 주로 유제품과 동물모를 수입하는데 이 두가지 품목의 합계는 75.2%를 차지한다. 유제품은 12.4만톤, 2.7억달러를 수입하여 각각 25.7%, 21.9% 성장하였다. 동물모는 3.6만톤, 1.1억달러 수입하였다.

4.5. 화훼류

중국의 화훼류 수출은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05년에는 1억 5,000만 달러를 넘었다. 이는 1998년부터 연평균 10.1%씩 증가한 것으로 증가 속도가 매우 빠른 편이다. 특히 절화류 수출액 성장세가 두드러진다. 1998년에 1,500만 달러 수준이던 절화류 수출액은 연평균 12.0%씩 증가하여 2005년에 9,500만 달러를 넘어섰다. 같은 기간 분재 수출액은 7.9%, 관상묘목은 4.3% 성장하는 데 그쳤다. 1998년에 절화류 수출액은 분재류와 비슷한 수준이었지만 2005년에는 2.4배로 확대되었다.

〈표 2-36〉 중국의 화훼류 수출액 추이(1998~2005)

단위: 만달러

	절화류	분재	관상묘목	기타	합계
1998	1,536.2	1,161.2	269.4	337.7	3,304.5
2000	3,767.7	1,955.5	2,895.1	-	8,618.3
2001	3,327.0	1,504.0	2,932.4	-	7,763.4
2002	2,939.0	3,155.0	1,726.0	240.0	8,060.0
2003	4,428.1	3,453.0	1,460.0	463.0	9,804.1
2004	6,934.0	3,390.0	1,477.0	2,633.0	14,434.0
2005	9,535.0	3,930.0	533.0	1,428.0	15,426.0
연평균 증가율	12.0%	7.9%	4.3%	9.4%	10.1%

자료: 어명근외, 「중국 원예산업의 발전과 대응 방안」, 2007.7.

중국의 화훼류 수출은 지역별로 특화되어 있다. 절화류는 운남성과 요녕성, 관상식물은 광둥성과 복건성 및 해남성, 절엽절지(切葉切枝)는 절강성이 중심지역이다. 운남성의 화훼 수출액은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01년 1,540만 달러에서 2006년에 6,500만 달러로 증가하였다.

운남성의 절화 수출액은 2006년 1,000만 달러를 넘어섰다. 운남성에서 생산된 화훼는 네덜란드, 일본 등을 포함하여 38개국에 수출되고 있지만 아시아 지역으로의 수출 비중이 높다. 2006년에 대일본 수출액은 336만 달러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홍콩으로의 수출이 298만 달러로 많았다. ASEAN과의 FTA 이후 이들 국가로의 수출도 증가하고 있는데 2006년 싱가포르로의 수출액은 192만 달러, 태국으로의 수출액은 137만 달러였다. 이들 4개국(일본, 홍콩, 싱가포르, 태국)으로의 절화 수출액이 운남성 절화 수출의 80%를 차지하고 있다.

화훼류 수출대상국별 2006년 수출액은 일본이 3,400만 달러로 1위, 네덜란드가 1,800만 달러로 2위를 차지하고 있다. 2005년 대비 대일 수출은 68.2%, 네덜란드로의 수출은 18.1% 증가하였다. 그 밖에 미국, 한국, 홍콩 등이 중국 화훼류의 주요 수출 시장이다. 대한민국 수출액은 2006년 940만 달러로 일본, 네덜란드, 미국에 이어 4위를 차지하고 있다. 2005년 대비 25%의 높은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호접란은 미국에 이미 수출되었지만 절화류 수출은 2006년 9월에 장미수출이 처음이었다. 이후 장미의 수출이 분재류 수출과 더불어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표 2-37〉 중국의 국가별 화훼류 수출 현황(2005~2006)

단위: 만 달러, %

국가별(지역별)	2005년	2006년	증감률
수출총액	7,318.7	10,003.9	36.7
일본	2,011.4	3,383.1	68.2
네덜란드	1,522.5	1,797.8	18.1
미국	859.7	964.2	12.2
한국	750.7	937.3	24.9
홍콩	677.7	827.8	22.1
싱가포르	185.3	280.0	51.1

자료: 어명근외, 「중국 원예산업의 발전과 대응 방안」, 2007.7.

화훼류의 대일본 수출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절화류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절화류 가운데 특히 장미의 수출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장미의 수출이 증가하는 이유는 장거리 운송에도 손실이 적고 가시를 제거할 경우 수송량이 많아 수송단가를 낮출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장미는 수출가격도 높은 편이다. 반면, 카네이션은 항공 운송이 가능하지만 단가가 낮고, 튜립은 단가가 높은 반면 포장비 등 운송비가 많이 드는 단점이 있다. 백합은 단가도 높고 항공 운송도 가능하지만 취급이 상당히 까다로운 편이다. 따라서 이러한 품목들은 가까운 싱가포르 등에 수출하고 장거리 시장에는 주로 장미를 수출하고 있다.

2006년 중국의 신선절화 수출액 가운데 대일본 수출액이 59%를 차지하고 있다. 중국의 대일본 화훼 수출은 1996년부터 시작되었으나 2002년까지는 수출 실적이 미미하였다. 2002년 이후 운남성의 절화산업이 빠르게 성장하고 중국 내에 화훼류 수출 전문 기업이 설립되면서 대일본 수출이 증가하기 시작하였다. 일본으로 수출되는 주요 화훼 품목은 국화, 카네이션, 백합 등이며, 일본의 해당 품목 총수입량에서 중국산의 비중은 각각 19%, 39%, 6%를 차지하고 있다. 하지만 중국산 화훼류의 품질이 낮아 대일본 수출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백합의 경우, 2006년도 대일본 수출액이 전년 동기대비 36%나 감소하였다.

지역별 화훼류 수출은 광둥성이 2,400만 달러로 가장 많다. 과거 복건성의 수출이 많았으나, 최근 광둥성이 수출을 주도하고 있으며 절강성과 운남성도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2005년 대비 절강성은 173%, 운남성은 90% 증가하였다. 화훼류 생산이 많은 지역 중 내륙에 위치하고 있는 운남성은 토지 임대료가 연안 지역에 비해 저렴한 반면

〈표 2-38〉 중국의 주요 지역별 화훼류 수출 현황(2005~2006)

지역	2005년	2006년	증감률
절강성	628.8	1,716.2	172.9
복건성	1,073.3	1,370.9	27.7
광둥성	2,609.3	2,381.6	-8.7
운남성	711.3	1,353.0	90.2

자료: 어명근외, 「중국 원예산업의 발전과 대응 방안」, 2007.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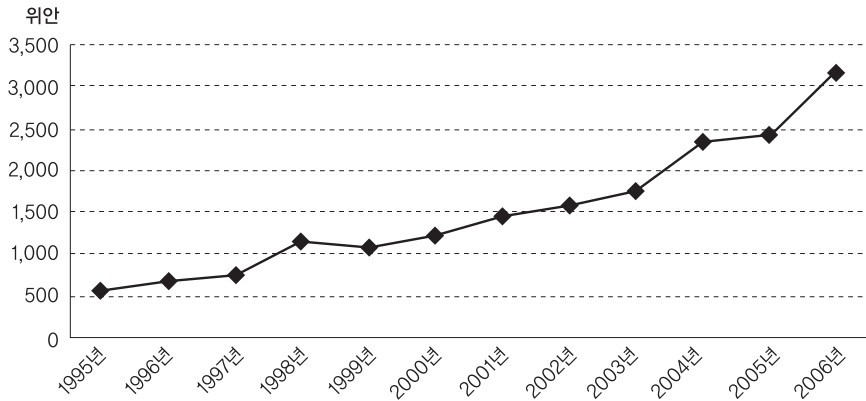
육로 운송비가 비싸지만, 항공편을 이용하는 화훼류 수출 특성상 수출에 불리하지 않은 편이다.

5. 최근의 농업정책 동향

5.1. 일반적 동향

전체 인구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농촌인구를 보유하고 있는 중국에서는 농업에 대한 정책을 중요시할 수 밖에 없다. 정부지출에서 농업분야에 대한 지출은 꾸준히 늘고 있고, 특히 2004년 이후 대폭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1990년 308억 위안에서 2006년 3,173억 위안으로 10배 이상 증가하였다.

〈그림 2-27〉 정부재정 중 농업지출 변화추이(1995~2006)



자료: 국가통계국, 중국농촌통계연감, 2007.

중국 정부가 설정하고 있는 최우선 정책과제가 제시된다는 점에서 특별한 의미가 있는 ‘중양 1호 문건’이 2004년 이후 5년 연속 농업·농촌·농민 즉 3농 문제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2004년 이래 중국정부에서는 “많이 주고 적게 취하고, 공업으로 농업을 보조하며, 도시가 농촌을 지지하는” 등 농업발전을 추진하는 일련의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오랫동안 지속해오던 농업세 징수제도를 전면 폐지하고 보조금 지급을 확대하는

등 농업분야에 대한 대대적인 지원정책 덕택에 침체되었던 농업부문은 확대 발전되었고, 농촌의 모습도 활기를 찾고 있다.

- 2004년 ‘1호 문건’은 농촌인구가 전체 인구의 60%를 차지하고 있는 현실에서 3.3배로 확대된 도·농간 소득격차가 조화로운 사회 건설의 잠재적인 위협요인으로 부상했다는 현실인식이 반영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 2005년 ‘중앙 1호 문건’에는 농업의 생산능력 제고를 최우선 정책과제로 제시했다. 특히 작부체계의 변화와 농지감소 등으로 1999년부터 2003년까지 5년 연속 식량생산이 감소했던 경험은 중국 정부에 식량안보의 중요성을 각인시키는 계기가 됐다.
- 2006년 ‘중앙 1호 문건’은 ‘사회주의 신농촌’을 중국 농업의 발전방향으로 제시하고 당면 해결과제를 제시했다.
- 이어서 2007년에는 사회주의 신농촌 건설을 위한 구체적인 실천과제의 하나인 농업 현대화를 최우선 정책과제로 제시한 ‘중앙 1호 문건’을 발표하였다.

이러한 농업보조정책의 시행은 최근 농업·농촌의 발전을 촉진시키는 중요한 요소다.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측면에서 농업정책 시행의 효과를 종합할 수 있다.

첫째, 2004년부터 정부에서는 농업·농촌사업을 지도하는 4개의 중앙1호문건을 발표하였다. 2004년 1호문건은 농민소득증대가 주제였고, 2005년 1호문건은 농업종합생산능력제고에 중점을 두어 농촌생산력발전을 주제로 하였다. 2006년에는 신농촌건설의 광범한 추진을 주제로 농촌사회의 번영을 기본문제로 하였다. 2007년에는 현대농업발전을 주제로 신농촌건설을 추진하는 데에 있어서 우선적인 문제로 삼을 것을 강조하였다.

둘째, “4감면, 4보조”등 농업에 혜택을 주는 정책을 실시하였다. 이를 전후하여 전국적인 범위로 농업특산세, 목업세, 농업세와 도축세 등을 면제하여 농민들의 부담을 경감하였다. 2006년부터 각종 농업세금을 면제한 이후 전국의 농민들은 매년 1,200억 위안 수준의 부담이 경감되었다. 2004년 이래 국가에서는 식량직접보조금, 종합직접보조금, 식량종자보조금 등 지급범위를 확대하고 농기계구매 보조를 매년 증가하였다. 2007년 중앙재정으로부터 식량직접보조 등 농업분야에 대한 각종 보조금은 526억 위안에 달하였다.

셋째, 농촌기초건설에 대한 투입을 확대하였다. 농촌도로, 전기시설개조 등을 대규모로 확충하고, 농촌주민들의 식용수 안전문제를 확대 해결하였다. 농촌지역의 의무교육 확대를 실현하고, 의료제도 개혁을 적극 추진하고 농촌최저생활보장제도를 도입하여 농촌지역의 생활환경을 개선하였다.

최근 몇 년간의 농업정책은 농업을 강화하고, 농촌의 환경을 개선하며, 농민소득증대에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중국 정부에서는 향후 농업분야에 대한 지원정책을 계속적으로 안정시키고 확대하여 농업·농촌·농민 등 3농 정책을 공고하게 할 것을 강조하고 있다.

5.2. 곡물 수출제한 조치

2006년 중반 이후 국제 곡물가격이 급등하여 중국 국내가격과의 격차가 확대되면서 밀, 옥수수 등 곡물과 밀가루, 전분 등 곡물 가공제품의 수출이 대폭 확대되었다.

하지만 2007년에 들어서면서 중국 국내 농산물 가격도 급등하기 시작하면서 중국도 2007년 12월 이후 곡물 수출제한 조치를 시행하기 시작하였다.

2007년 3월부터 중국의 소비자물가지수(CPI) 상승률은 억제선인 3%를 넘어 연말까지 지속적으로 상승하여 전년대비 4.8% 상승함에 따라 물가 안정이 중국 거시경제 당국의 최대 현안으로 부상하였다. 2007년 중국의 식품가격은 전년대비 12.3% 상승하였으며 전체 CPI 상승률 4.8% 가운데 4.0%가 식품가격 상승에 의한 것이었다.

중국은 국내 곡물수급 및 식품가격의 안정을 목표로 2007년 12월부터 수출세 환급제도 폐지, 수출관세 부과, 수출쿼터제 등 3가지 곡물수출 제한 조치를 시행하고 있다.

- 2007년 12월 20일부터 쌀, 밀, 옥수수, 콩 등 84개 품목의 곡물 원료 및 제분 제품의 수출세 환급을 폐지하였다.
- 2008년 1월 1일부터 한해동안 밀, 옥수수, 쌀, 대두 등 식량작물 원료 및 제분 제품 57개 품목에 대해 5~25%의 수출관세 부과조치 시행계획을 발표하였다.
- 2008년 1월 1일부터 수출허가증관리 품목을 세분하여 수출쿼터허가증관리 품목, 수출쿼터입찰 품목, 수출허가증관리 품목으로 구분하고 옥수수가루, 밀가루, 쌀가루 등 11개 품목에 대해서는 2008년 1월 1일부터 수출쿼터허가증 관리를 실시하도

록 하였다.

중국의 곡물 수출은 곡물 수출제한 조치 실시 이후 감소 추세를 나타내고 있지만 수입도 감소하여 전체적으로 순수출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 품목별로 옥수수와 밀은 수출이 대폭 감소하였지만 벼와 대두는 오히려 수출이 증가하였다. 2008년 1~2월 식량 수출입 실적을 볼 때, 옥수수 제품은 6.3만톤으로 전년 동기대비 96.5% 감소, 밀제품도 17.1만톤으로 36.4% 감소하였다. 반면 쌀 제품은 34.5만톤으로 35.6% 증가하였다.

5.3. 핵심 농정 방향

최근 중국 농정당국의 주요 정책방향은 크게 4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첫째, 경제발전예 따른 소득수준 향상으로 축산물 소비가 확대되고 있는데, 이는 사료 곡물의 엄청난 수요 증가로 이어지고 있다. 이에 따라 옥수수, 콩은 물론 밀의 자급이 위협받고 있다. 이에 대응하여 중국 정부는 2007년 말부터 이들 곡물에 대한 수출통제(수출세 감면조치의 폐지 및 별도의 세금 부과 등)를 시작하였음은 물론 이들 곡물의 증산을 위한 지원정책을 강화하고 있다. 쌀의 경우에는 사료작물은 아니지만 전반적인 물가상승 억제를 위해 수출통제품목에 포함시키고 있다. 곡물 증산을 위해서는 농경지의 확보가 절대적인데, 비농업용으로 전용되는 면적이 확대 추세에 있어 절대농지 확보를 위한 방안에 고심하고 있다. 방안의 하나로서 농지전용을 억제하기 위해 현재 1m²당 농지전용부담금이 10위안인 것을 내년부터는 50위안으로 인상할 예정이다.

둘째, 도시와 농촌간의 소득 및 삶의 질 격차는 물론 농촌지역간 소득격차가 확대되고 이는 사회적 불안요소의 하나가 되어 있다. 이에 대응하여 농촌지역의 소득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이른바 '신농촌건설' 추진을 강화하고 있다. 이와 동시에 소득이 높은 연해지역에는 외국투자를 별로 반기지 않지만(고급기술 투자는 예외) 내륙 농촌지역에는 농업관련 투자를 환영하고 있다.

셋째, 소득증대는 필연적으로 농산물 중 특히 청과물(과실 및 채소류), 축산물, 화훼류의 소비로 이어지게 마련인데, 이들 농산물은 부패성이 높아 신속·대량 유통이 관건이 된다. 이에 따라 이들 농산물의 유통효율성(가격 및 운영 효율성) 제고를 위한 물류시설, 거래제도 등의 개선에 커다란 관심을 쏟고 있다. 농산물 유통시스템 전반의 효율

성 제고를 위한 각 유통단계별 대안 마련을 통해 여하히 농가수취가격은 제고시키는 한편 소비자지불가격은 낮출 것인가를 고심하고 있다. 이를 위해 농산물 물류개선 및 가공 분야 등에는 외국인 투자를 환영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중국산 농산물의 안전성에 대한 자국 소비자는 물론 외국 소비자들의 우려 등을 불식시키기 위해 식품의 안전성 제고를 위한 노력과 나아가 브랜드화 시키기 위한 방안 등을 강화하고 있다. 특히 브랜드화와 관련해서는 외국인 투자를 희망하고 있다.

제3장. 중국 조선족과 재중 한인

현재 우리나라는 세계 170여개 국가에 화교, 유태인에 이어 세계에서 3번째로 많은 700여만 명에 이르는 해외동포를 보유한 교민대국이다. 그중 중국은 가장 많은 교민을 보유한 국가로서 해외동포 중 39.2%를 차지한다.

〈표 3-1〉 국가별 재외동포 분포현황, 2007

단위: 명

지역별	국가별	시민권자	영주권자	체류자		총계
				일반	유학생	
아주지역	합계	2,577,953	546,919	751,288	164,216	4,040,376
	일본	296,168 ¹⁾	499,553	80,530	17,489	893,740
	중국	2,244,398 (1,923,800 ²⁾)	3,112	438,238	76,412	2,762,160
	기타	37,387	44,254	232,520	70,315	384,476
미주지역	합계	938,650	878,696	396,439	127,378	2,341,163
	미국	825,420	732,329	354,031	105,131	2,016,911
	캐나다	95,062	78,497	21,536	21,533	216,628
	중남미	18,168	67,870	20,872	714	107,624
구주지역	합계	531,062	24,456	47,981	41,753	645,252
	독립국가연합	518,437	3,342	9,052	3,145	553,976
	유럽	12,625	21,114	38,929	38,608	111,276
중동지역	합계	82	15	9,139	204	9,440
아프리카지역	합계	187	1,260	6,301	737	8,485
총계		4,047,934	1,451,346	1,211,148	334,288	7,044,716

자료: 재외동포재단

주: 1) 재일동포 귀화자 총수(1952~2005년도, 조선적포함): 일본 법무성 통계

2) 2000년도 중국 전인구조사상의 조선적(중국 국적) 총수

재중동포는 중국 시민권자인 조선족과 재중 장기체류 한국인 두 부류로 나눌 수 있다. 조선족이라 함은 중국 국적을 가진 조선민족 성원을 말하는 것으로 중국정부에서 공식적으로 명명하는 55개 소수민족 중 하나다. 현재 중국 조선족은 대체로 명말 청초(明末清初)부터 1940년대 말기까지 한반도에서 이주 정착한 조선인 이주민과 그들의

후예들로 구성된 민족집단이다.

1. 조선족

1.1. 조선족의 형성

1.1.1. 조선인의 이주역사

• 1860년~1910년

조선인의 대량 이주는 1860년대부터 본격화되었다. 만주족이 청나라를 건국한 후 동북 지역은 그들 조상의 발원지로 여겨 봉금정책을 실시하였기 때문에 두만강 이북지역은 거주민이 거의 없었다. 반면 당시 조선 지역에는 농지면적에 비해 인구는 많아 식량이 부족한 상태였다. 더욱이 연속되는 자연재해는 조선 농민들을 기아에 허덕이게 하였고 이들은 살 길을 찾아 강을 건너 중국 동북지역의 황무지를 개간하고 새로운 삶의 터전을 닦기 시작하였다.

청나라의 극심한 봉금정책도 굶주린 이주민들의 도강을 막지 못하였다. 이주민들은 압록강, 두만강 연안 지역에 널리 분포하기 시작하여 1870년경에는 조선농민들이 집안(輯安)에 1,000여 가구가 모이고, 임강(臨江), 혼강(渾江) 연안의 산간 지역에도 이주민들이 많이 모이게 되었다. 1881년 기준으로 연변지역에는 만여 명의 조선농민들이 생활하고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1885년 봉금령의 폐지와 더불어 조선의 가난한 농민들은 더욱 많이 만주지역으로 이주해 가기 시작하였다. 1987년 통화(通化), 환인(桓仁), 관전(寬甸), 신빈(新賓)등 지역에 이주해 온 조선농민들이 이미 8,000여가구 30,000여 명에 달하였다. 1905년에는 장백(長白), 임강(臨江), 집안(輯安), 안동(安東), 봉성(鳳城)과 관전 등 지역에 거주한 조선농민들이 9,900여 가구가 되었다고 한다. 1904년 연변지역의 조선인 들은 5만여 명이었고, 1909년에는 18만여 명에 이르게 되었다.²⁾

2) 정신철, 중국조선족 그들의 미래는, 신인간사, 2000.

• 1910년~1930년

조선반도가 일본의 식민지가 된 후 조선인은 더욱 대규모로 중국으로 이주하였다. 일본 제국주의의 강점 하에 조국땅에 발붙이고 살 수 없었던 많은 수의 파산한 농민들 뿐만 아니라, 관헌의 눈을 피하여 독립운동을 하려는 많은 애국지사들도 끊임없이 중국으로 건너가게 되었다.

1910년~1912년에 중국 동북지역의 조선인 숫자는 4만여 명이나 증가하였고 1910년~1920년 간에 압록강과 두만강 이북 지역에 이주해 온 조선인 수는 19만여 명에 달했다. 또 통계에 의하면 1922년 3월까지 동북 3성에 거주하고 있는 조선인이 65만여 명이며, 이 중에 두만강, 압록강 유역에 거주하는 수가 44만여 명으로 전체의 약 69%를 차지하였다.

• 1930년~1945년

일본 식민주의자들의 강제 이민정책에 의하여 많은 조선농민들이 고향을 떠나 중국에 이민해 가게 된다. 1931년 일본은 '9.18사변'을 일으키고 이어 중국 동북 3성을 그들의 식민지로 만들었다. 일본 제국주의는 국내의 계급갈등을 완화시키고 동북을 전중국 침략의 후방과 식량기지로 만들기 위하여 1936년 이후 향후 20년간 100만 가구, 511만 명의 이민 계획을 수립하였다. 이에 따라 1941년 8월까지 일본은 중국 동북지역에 435개의 '이민개척단'을 파견하였다. 그 인원이 4만여 가구, 10만여명에 달하며, 이 숫자는 '9.18사변' 이전의 일본 이민수의 315배와 '7.7사변' 때의 3.7배에 달한다.

이와 동시에 조선총독부와 위(僞) 만주국은 <재만선인지도요강(在滿鮮人指導要綱)>에 근거하여 조선농민들을 동북에 강제적으로 이민시켰다. 이들은 '만선척식주식회사(滿鮮拓植株式會社)'를 설립한 후 동북지역에 39개의 이식구역을 설정하여 1939년부터 매년 조선에서 1만 가구를 이민시킬 계획을 세웠다. 1940년 8월의 통계에 의하면 1937년부터 1940년까지 이른바 '집단개척민'으로 동북 각지에 이민시킨 조선농민이 1만여가구에 달하고 이외에 1939년에 '집합(集畵)개척민' 형식으로 간도, 길림, 봉천, 통화, 묵단강 등 지역에 800여 가구를 이민시키고, 1940년에는 통화, 길림, 간도, 금주와 빈강(濱江, 지금의 할빈지역) 등 지역에 1,700여 가구를 이민시켰다.

1939년 말에 중국 동북지역의 조선인수는 116만여명에서 1944년에는 165만여명에

달하였다. 1945년 광복을 맞아 대부분의 사람들이 한반도로 귀국을 원하였으나 마침 농작물의 수확이 이루어지지 않은 시기였기 때문에 일부만 귀국하게 되었다. 1949년에는 111만여명의 수준에서 중화인민공화국의 건국을 맞이하게 되었다.

1.1.2. 조선족에 대한 중국 정부의 정책

• 1920년대~1930년대 초반

중국공산당은 국내 민족들의 힘을 합쳐 국제 제국주의 세력을 물리치기 위하여 초창기부터 중국내 각 민족문제에 관심을 가졌다. 1927년 10월 중국공산당 만주성임시위원회는 <만주농민결의안(滿洲農民決議案)>에서 처음으로 조선에서 온 농민들을 거론하였다.

1928년에 <만주(滿洲)의 조선농민>이란 문건에서 “재만 조선농민은 중국농민과 같이 모두 토지소유권과 거주권을 향유하고 혁명정권을 향유한다. 재만 조선농민은 우리의 반일 우군이고 우리의 만주 혁명적 농민의 한 부분이며, 오직 중국의 균벌통치를 뒤엎고 일본 침략자를 몰아내야 만주의 조선농민 문제를 진정히 해결할 수 있으며, 이것이 만주의 모든 농민, 노동자와 만주의 조선농민의 공동한 임무다”라고 지적하였다.

이 시기 조선족에 대한 중국 정부의 이해는 ‘교민(僑民)’, ‘이민(移民)’의 정도에서 벗어나지 못하였다. 하지만 ‘반일·반군벌 투쟁은 동북 각 민족인민의 공동 임무이며 조선족 해방의 길이다’라고 지적함으로써 조선족의 위치를 인정하였다.

• 1930년대 초~1945년

1931년 5월 중국공산당 만주성위원회는 <만주의 한국민족(韓國民族) 문제에 관한 결의안>에서 만주지역에는 조선민족이 약 백수십만명이 있고, 그들은 “만주 소수민족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며, 오직 중국공산당의 영도하에 투쟁하여야만 재만 한민족이 진정한 해방을 취득할 수 있다”고 지적하였다.

동년 11월 서금(瑞金)에서 개최된 중화소유애(中華蘇維埃) 제1차 전국대표대회에서 통과한 <중화소유애공화국 헌법요강>에서는 “소유애 정권내의 한(漢), 만(滿), 몽(蒙), 회(回), 장(藏), 대만인(臺灣人), 고려인(高麗人) 등은 소유애 법률앞에서 모두 평등하고 모두 소유애 공화국의 공민이며, 모두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향유한다”고 규정하였다.

1939년 모택동은 “중국에 몽골인(蒙古人), 회인(回人), 장인(藏人), 위글인(維吾爾

人), 조선인(朝鮮人) 등 수십 개의 소수민족이 있으며, 중국은 다수민족으로 구성된 광대한 인구를 가진 하나의 국가다”라고 지적하였다. 중국공산당은 “조선족은 국내 기타 민족과 같이 정치·경제·문화교육·풍속습관·종교신앙자유 등 각 측면에서 평등한 권리를 향유하며, 간도 한인민족자치구의 건립과 동북 조선인의 자치구를 건립할 권리가 있으며, 조선족은 중국 각 민족 인민들과 단합하여 무장항일하고 신중국을 건국할 역사적 사명을 갖고 있다”라고 강조하였다.

• 1945년~1955년

항일전쟁이 끝난 이후 국민당과의 대결에서 중국공산당은 동북지역에 공고한 근거지 마련이 필요했다. 동북 근거지의 필요에 따라 동북지역 조선족과 관련된 문제를 실제적으로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되었다.

1945년 9월말에 조선족의 상황을 역사적 관점에서 객관적으로 분석하고 이 곳의 조선족은 중국의 소수민족이며 그들은 한족과 같이 평등한 권리와 의무를 향유한다고 인정하였다. 동년 12월 중국공산당 길림성위원회는 민족사업회의를 개최하여 “동북 조선족은 연변 등 지역의 주요한 개척자이고 영광스러운 혁명 전통을 갖고 있으며, ‘9.18사변’ 이전 중국공산당 동북당 조직의 60~70%가 조선족 동지였고, 항일전쟁 시기의 조선족은 더욱 높은 혁명적 열정을 보여주었다”고 하면서 “조선족은 중국의 한 민족이 되기에 손색이 없다”고 지적하였다.

1948년 8월 중국공산당 연변지역위원회에서는 〈연변민족문제〉 결의문을 내놓고 연변 조선민족 인민에 대한 방침과 정책을 제정하였다. 이 결의문에서는 연변 조선민족 인민의 소수민족으로서의 지위를 비준한 정책의 정확성을 강조하였다.

1949년 1월 길림성은 전 성 민족사업회의를 개최하여 연변조선족자치지역 수립의 필요성을 역설하였는데, 본 회의는 연변조선족자치주 성립의 서막이었다.

한국전쟁의 발발 등으로 지연되어 1952년 2월이 되어서야 중국 중앙정부의 ‘소수민족지구 자치에 관한 정령’이 발표되었고, 1952년 9월 3일 연변조선족자치구 인민정부가 정식으로 선언되었다. 연변조선족자치구는 주덕해를 주석으로, 연길시를 자치구 직할시로 하여 건립되었다.

1955년에 채택된 중국헌법에 의하여 국무원은 연변조선족자치구를 자치주로 승인을

하였다. 자치구와 자치주는 격차가 큰 것으로 자치구는 성급이고 자치주는 성 산하의 주급에 해당된다. 자치주에 중요한 것이 행정적 독자성보다 민족문화를 보존하고 민족 언어를 사용할 수 있는 언어정책이다.

중국 정부는 조선족에게 민족평등과 자결의 정책을 실시하여 길림성, 흑룡강성, 요녕성 등 동북 3성 지역에 1개 자치주, 1개 자치현, 36개 자치향과 진, 12개 연합자치향과 진을, 내몽고자치구에 1개 자치향을 설립하도록 하였다.

〈표 3-2〉 조선족 자치지역 명목

단위: 명, %

지명	인구	조선족 인구	조선족 인구 %
연변(延邊)조선족자치주	2,183,771	855,602	39.18
연길(延吉)시	376,370	222,685	59.16
도문(圖門)시	138,594	79,937	57.53
돈화(敦化)시	477,154	21,599	4.53
훈춘(琿春)시	208,548	89,206	42.77
용정(龍井)시	269,943	183,575	68.01
화룡(和龍)시	229,180	127,809	55.77
왕청(汪淸)현	265,550	81,417	30.66
안도(安圖)현	218,432	49,574	22.70
장백(長白)조선족자치현	83,662	14,725	17.60

자료: 정신철, 「중국조선족 그들의 미래는」, 2000.

주: 1) 연합향의 조선족인구에는 기타 소수민족 인구 포함.

2) 인구통계는 1995년 기준임.

연변조선족자치주는 길림성 산하의 자치주로서 6개 시, 2개의 현을 관할하면서 헌법과 민족구역자치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된 민족자치권리를 행사하고 있다. 중국에서 유일한 조선인 자치주인 연변조선족자치주는 길림성의 동남부에 위치한 주로서 총면적은 42,700km²로 길림성의 1/4를 차지한다. 동으로는 러시아의 연해주의 핫산지역과 접하고, 남으로는 두만강을 사이에 두고 북한의 함경북도 양강도와 국경을 접하고 북으로는 흑룡강성과 접하고 있다. 연변은 재중 조선민족의 마음의 고향이고 조선인들의 문화의 원천지이기도 하다.

중국정부가 중국으로 이주한 한민족 이민자(韓人)에게 중국 소수민족으로서 지위를 주고 ‘조선족’이란 명칭을 공식적으로 붙인 것은 1952년 9월 3일 연변조선족자치구

(1954년 연변조선족자치주가 됨)가 생긴 이후부터이며, 1954년 중화인민공화국 제1차 전국인민대표대회에서 통과한 헌법에 중국의 소수 민족을 중국의 공민으로 규정함으로써 조선족이 합법적인 중국의 소수 민족이 되었다. 이때부터 중국조선족의 조국은 중국이 된 것이다.

1945년 해방 이후 만주로 이주한 동포들은 고국(한반도)에 가고 싶어하면서도 ‘빈손으로 고향에 가봐야’ 라는 심리가 크게 작용하였다. 이때 1946년 중국은 토지개혁을 통해 지주 소유의 토지를 소작농에게 나눠주었다. 조선족은 동북 3성의 분배받은 토지

〈표 3-3〉 조선족 향진 명록

단위: 명, %

① 흑룡강성

지명	인구	조선족 인구	조선족 인구 %
依蘭縣迎蘭 조선족향	9,315	2,885	30.97
五常市民樂 조선족향	13,188	6,554	49.70
尙志市河東 조선족향	14,592	6,400	43.86
尙志市漁池 조선족향	10,949	2,885	26.35
海林市新安 조선족향	17,814	8,464	47.51
海林市海東 조선족향	15,982	6,504	40.60
宁安市臥龍 조선족향	15,547	4,780	30.75
宁安市城東 조선·만족향	19,155	5,700	29.76
宁安市江南 조선·만족향	22,599	8,600	38.05
東宁縣三盆口 조선족진	18,506	7,414	40.06
樺川縣星火 조선족향	5,760	5,748	99.79
湯旺縣湯旺 조선족향	12,813	8,500	66.34
密山市和平 조선족향	18,305	4,812	26.29
鷄東縣鷄林 조선족향	8,839	8,839	100.00
鷄東縣明德 조선족향	9,879	2,996	30.33
友誼縣成富 조선·만족향	5,364	1,692	31.54
蘿北縣東明 조선족향	3,895	3,832	98.39
綏化市与和 조선족향	3,880	3,756	96.80
鐵力縣年丰 조선족향	12,320	3,165	25.69
北安市主星 조선족향	3,707	1,462	39.44

자료: 정신철, 「중국조선족 그들의 미래는」, 2000.

주: 1) 연합향의 조선족인구에는 기타 소수민족 인구 포함.

2) 인구통계는 1995년 기준임.

② 길림성

지명	인구	조선족 인구	조선족 인구 %
榆樹市延和 조선족향	2,168	2,061	95.06
永吉縣土城 만족·조선족향	21,104	3,058	14.49
蛟河市烏林 조선족향	10,137	3,697	36.47
柳河縣三源浦 조선족진	9,276	2,149	23.17
柳河縣姜家店 조선족향	11,140	5,829	52.32
輝南縣樓街 조선족향	14,645	2,912	17.49
通化縣大泉源 만족·조선족향	12,481	791	6.34
通化縣金斗 조선·만족향	6,974	1,670	23.95
集安市凉水 조선족향	6,810	2,124	31.19
梅河口市花園 조선족향	18,385	4,077	22.18
梅河口市小楊 만족·조선족향	9,395	1,423	15.15
東丰縣三和 만족·조선족향	10,847	991	9.14

자료: 정신철, 「중국조선족 그들의 미래는」, 2000.

주: 1) 연합향의 조선족인구에는 기타 소수민족 인구 포함.

2) 인구통계는 1995년 기준임.

③ 요녕성

지명	인구	조선족 인구	조선족 인구 %
沈陽市于洪區大興 조선족향	15,000	6,000	40.00
沈陽市東陵區渾河站 조선족향	25,000	6,000	24.00
沈陽市新城子區朝鮮·錫伯 족향	15,000	6,000	40.00
撫順市順城區李石寨 조선족향	26,000	8,000	30.77
撫順市順城區前甸 조선족향	19,000	6,000	31.58
桓仁滿族自治縣雅河 조선족향	14,000	8,600	61.43
桓仁滿族自治縣六道河 조선족향	12,000	6,000	50.00
桓仁滿族自治縣拐磨子 조선족향	18,000	12,000	66.67
桓仁滿族自治縣普樂堡 조선족향	18,000	5,000	27.78
寬甸滿族自治縣下露河子 조선족향	12,000	7,000	58.33
新實滿族自治縣旺晴門 조선족진	10,000	6,000	60.00
清原滿族自治縣南八家 조선족진	24,000	11,000	45.83
鞍山市蘊堡區宋三台子 조선·만족진	40,000	6,000	15.00
撫順縣大南 조선·만족향	10,000	4,000	40.00
開原縣八宝滿·錫伯·조선족향	23,000	18,000	78.26
大洼縣榮興 조선족향	18,000	5,000	27.78

자료: 정신철, 「중국조선족 그들의 미래는」, 2000.

주: 1) 연합향의 조선족인구에는 기타 소수민족 인구 포함.

2) 인구통계는 1995년 기준임.

④ 내몽고자치구

지명	인구	조선족 인구	조선족 인구 %
阿榮旗新發 조선족향	11,000	846	8.00

자료: 정신철, 「중국조선족 그들의 미래는」, 2000.

주: 인구통계는 1995년 기준임.

를 개간하여 벼농사를 지을 수 있는 터전으로 만들고 중국땅에서 한민족의 글과 문화를 지켜온 중국의 소수민족으로 전형적인 농촌 공동체를 형성해 왔다.

1.2. 조선족의 분포 및 인구이동 변화

조선족은 전통적으로 길림성, 요녕성, 흑룡강성으로 구성된 동북 3성에 집중적으로

〈표 3-4〉 조선족 인구의 지역분포 변화추이

단위: 명, %

구 분	1982년		1990년		2000년		2005년 ¹⁾	
	인구수	비율	인구수	비율	인구수	비율	인구수	비율
합 계	1,765,240		1,923,361		1,923,842		2,361,100	
동북3성	1,733,967	98.23	1,868,377	97.14	1,775,198	92.27	1,838,000	77.85
- 길 림	1,104,071	62.55	1,183,567	61.54	1,145,688	59.55	1,170,000	49.55
· 연 변	754,706	42.75	821,479	42.71	842,135	43.77	830,000	35.15
- 흑룡강	431,644	24.45	454,091	23.61	388,458	20.19	388,000	16.43
- 요 녕	198,252	11.23	230,719	12.00	241,052	12.53	280,000	11.86
기타지역	31,273	1.77	54,984	2.86	148,644	7.73	523,100	22.16
- 북 경	3,905	0.22	7,710	0.40	20,369	1.06	170,000	7.20
- 천 진	816	0.05	1,820	0.09	11,041	0.57		
- 내몽고	17,580	1.00	22,173	1.15	21,859	1.14	22,000	0.93
- 하 북	1,737	0.10	6,713	0.35	11,783	0.61	-	-
- 상 해	462	0.03	742	0.04	5,120	0.27	85,000	3.60
- 강 소	-	-	963	0.05	5,048	0.26	-	-
- 산 동	939	0.05	3,362	0.2	27,795	1.44	180,000	7.62
- 광 동	-	-	611	0.03	10,463	0.54	60,000	2.54

자료: 권태환, 중국조선족사회의 변화, 서울대학교 출판부, 2005.에서 중국인구통계자료를 기초로 함.

주: 이진산, 「중국 한겨레사회 어디까지 왔나?」, 흑룡강조선민족출판사, 2006.5.에서 발췌 정리한 것으로서 유동인구를 포함함.

거주하였다. <표 3-4>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전 중국내에서 동북 3성 거주자는 1982년에 98%를 넘고 있다. 이 중 63%가 길림성에 거주했고 길림성 거주자의 2/3, 총 조선족 인구의 43%가 연변조선족자치주에 거주하고 있었다.

중국의 개혁개방 이후 조선족 사회의 변화 가운데 뚜렷한 현상은 급속한 인구이동으로 볼 수 있다. 조선족 인구의 동북 3성 집중도는 1982년 98%에서 2000년에 92% 수준으로 점차 약화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표3-4에서 나타난 통계수치는 중국 센서스 자료에 의한 것인데, 중국의 호구제도를 감안할 때 실제 인구이동은 이보다 더 많다고 볼 수 있다. 다시 말해서 인구이동 수 뿐만 아니라 유동인구도 상당부분 차지하고 있다. 유동인구란 인구 이동의 한가지 형태로 일반적으로 호구를 원적에 두고 거주 지역을 떠나 다른 지역으로 유동하여 일시거주증을 받는 형태로 정착하는 것을 말한다.

조선족들은 농촌에서 도시로, 소도시에서 대·중도시로, 동북 전통적인 집결지역에서 산해관 이남 연해지역으로 확대되었다. 또한 한중 수교 이후 한국과의 밀접한 교류 등으로 중국 조선족의 인구 이동은 전례 없는 급격한 양상을 보였다. 이진산의 『중국 한겨레사회 어디까지 왔나?』의 통계수치에 따르면 동북 3성 이외의 지역으로 유동하여 거주하고 있는 조선족은 52만명에 달하고 있는데 지역별로 산둥성 180,000명, 수도권 지역 170,000명, 상해 85,000명, 광둥성 60,000명으로 한국기업이 대거 진출한 대도시에 집중되어 있다(표3-6).

따라서 조선족 인구의 이동은 크게 세 가지로 분류 할 수 있다.

첫째, 농촌에서 동북 3성내 도시로의 이동이다.

- 초기의 조선 이주민들은 만주지역으로 건너와 황무지를 개간하여 논농사를 시작하였다. 쌀과 옥수수를 주작목으로 하는 조선 이주민들은 어느 정도 소득을 올리면서 조족향 및 진 등을 이루어 한민족 고유의 문화와 언어 등을 유지하여 왔다. 하지만 중국의 개혁개방이후 도농간의 소득 및 삶의 질 격차 확대는 조선족들로 하여금 농촌을 떠나게 하였다.

- 1980년대 중반부터 일부 조선족들은 동북 지역의 주요 도시인 심양, 장춘, 하얼빈, 길림, 대련 등 지역에 진출하여 유통업 등 서비스분야에 종사하기 시작하였다.

둘째, 조선족 집거지로부터 대도시로의 이동이다.

- 1980년대 말에 이르러서는 조선족 인구 이동은 보다 본격화되어 그 분포 지역도

확대되기 시작하였다. 내몽고, 섬서, 감숙, 청해, 영하, 신강 등 서북지역에서 점차 산둥성, 강소성, 광둥성 등 동남 연해 지역으로 확대되었다.

- 1992년 한중 수교 이후 조선족 유동인구는 상대적으로 한국투자기업이 많은 북경, 천진, 상해, 강소성, 절강성, 산둥성, 광둥성 등 지역에 집중되었다.

셋째, 외국으로의 취업이동이다. 이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한국으로의 이동이라고 할 수 있다.

- 1986년 서울에서 열렸던 아시안게임과 1988년 올림픽 등 일련의 스포츠 행사를 통하여 한국과 중국의 관계가 개선되기 시작하였다. 1986년부터 KBS라디오 사회교육방송은 조선족을 상대로 이산가족 찾기 프로그램을 제작방송하였는데, 이 방송을 통하여 많은 친척들의 생사확인이 이루어졌다. 한국정부는 간단한 여행증명서 발급만으로 이들의 한국방문을 가능하게 하였다. 이때 친척들의 초청으로 홍콩을 경유하여 한국을 방문한 사람들이 처음으로 한국 땅을 디딘 사람들이었다.

- 1993년부터 산업연수와 결혼을 통한 한국행이 시작되면서 한국으로의 이동이 급격히 확대되었고 한국행 경로 역시 점점 다양해졌다. 산업시찰, 공무, 부모초청, 여행 등 공식경로 외에도 위장결혼, 밀입국 등 불법경로도 확대되었다. 2008년 4월 현재 한국에 거주하는 조선족 동포수는 38만 명 수준인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 그 밖에도 1990년대에 들어서면서 국외진출이 조선족 인구이동의 한 축을 이루게 되었다. 1990년대 중반에는 조선족의 진출 국가가 이미 30여개 국가에 달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1.3. 조선족 유동인구의 특징

중국의 경우 일반 농민들이 도시 이주후 많이 종사하고 있는 업종은 건설, 환경, 위생, 가정부, 폐품회수 등 단순 노동업종이 대부분이나 조선족 이동 인구 가운데서는 이 같은 업종에 종사하는 인구가 거의 없다. 중국의 55개 소수민족 가운데서도 조선족은 전통적으로 교육열이 가장 높아 교육수준이 상당히 높은 편이다. 조선족 이동 인구 가운데 청장년들은 거의 중학 졸업 이상의 교육 수준이며 최근 몇 년 간에는 대학 졸업생들의 이동도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도시지역에서의 취업업종 역시 회사원,

자영업 등 일반 중국인들과는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다.

조선족 유동인구의 직업 영역에는 아주 독특한 특징이 있는데, 다시 말해서 민족 전통 음식업에 많이 종사하고 있다는 점이다. 도시에 진출하여 먼저 시작한 직업이 김치 장사와 조선족 식당을 꾸리는 일이었다. 다시 말하면 농업 민족인 조선족이 상품경제 영역에 갓 뛰어들었을 때 먼저 그들에게 익숙한 농식품, 특히 민족의 전통식품으로 시장을 개척하였던 것이다. 따라서 조선족 유동인구는 조선족 음식문화를 중국내에 널리 보급시키는데 크게 기여한 것으로 판단된다.

조선족 유동인구는 한국투자기업 또는 한국인과 연계되는 직업에 많이 종사하고 있다. 한중수교 이후 양국 간의 경제·문화 교류가 활발히 진행되어 한중간 무역 및 투자가 증가하였다. 조선족은 같은 민족, 같은 언어 등 동질성을 이용하여 한국과의 교류에 적극적으로 참가하여 중개자 역할을 담당하였다. 이들의 영역으로는 통역, 관광안내원, 무역, 대외기관의 대한국 업무, 한국측 기업대리, 한국투자기업 직원 등과 한국인을 상대로 하는 음식점 및 오락업 등이 있다. 특히 한국기업의 대중국 진출 초기에는 이들의 역할이 절대적이었으며, 현재도 다른 외국인들이 부러워할 정도로 상당한 교량역할을 하고 있다.

2. 재중 한인

한중 두 나라간에는 1970년대 후반 이후 간접교역의 형식으로 경제교류가 시작되었다. 1990년대 들어 한국의 산업구조조정 등으로 중국에 대한 투자가 급증하여 중국은 한국의 제1위 투자 대상국이 되었다. 투자 대상 지역은 발해만[渤海灣] 주변과 동북 3성으로 업종은 주로 제조업이었으며, 이후 청도를 중심으로 한 산동성, 심천을 중심으로 한 광둥성, 상해시 등으로 확대되고 있다.

중국은 정경분리(政經分離) 원칙을 고수하여 민간교류만 허용하다가 1990년 10월에는 무역대표사무소 개설에 합의하였고, 1992년 2월 무역협정, 같은 해 7월 투자보장협정이 발효되었다. 1992년 8월 24일 양국은 수교의정서를 교환하고 정식 외교관계를 수립하여 상호 대사관을 개설하였다.

1992년 9월 노태우 대통령이 중국을 방문해 국가주석 양상곤(楊尙昆), 총리 이봉(李

鵬), 총서기 강택민(江澤民)과 회담을 가졌고, 1994년 3월 김영삼 대통령, 1998년 11월 김대중 대통령이 중국을 방문하여 '21세기의 한·중 협력동반자 관계'를 구축하기로 합의하였다. 노무현 대통령도 2003년, 2006년도에 방중하는 등 한국의 역대 대통령이 모두 방중하였고, 중국측에서도 강택민 국가주석이 1995년에 방한한데 이어 2005년 11월에는 호금도(胡錦濤) 중국 주석이 방한하는 등 정상간 상호 방문이 활발히 진행되었다. 호금도 주석이 방한시, 한·중 정상은 양국 수교 15주년이 되는 2007년을 '한·중 교류의 해'로 정하고, 양국간 상호 이해 증진을 위해 다양한 교류 행사를 개최기로 합의하는 등 양국간 교류는 빠른 속도로 확대되고 있다.

〈표 3-5〉 한·중수교후 양국간 교류현황

시기		수교이후~문민정부 (1992~1996)		국민의정부 (1997~2002)		참여정부 (2003~2007)	
양국관계		우호협력관계		'98김대중 대통령 방중시 '협력동반자관계' 구축		'03 노무현 대통령 방중시 '전면적 협력동반자관계' 구축	
평가		경제·통상·인적교류 등 중심으로 관계 발전		고위인사 교류 확대, 정치· 외교 분야간 협력 강화 등 보다 포괄적인 관계 발전		정치·외교·안보·경제· 통상·문화 등 제반분야에서의 전면적· 실질적협력 관계로 발전	
통계	교역 관계	63.7억불 (수출·수입)	'92	312.5억불 (수출·수입)	'00	약 1천 5억불 (수출·수입)	'05
	인적 교류	약 13만명		약 200만명		약 425만명	

자료: 2007 한중교류의 해 <http://www.koreachina2007.net/>

한중경제교류는 1990년대 후반 외환위기 여파로 주춤하였으나, 중국의 WTO가입과 한국의 경기회복으로 2002년 이후 다시 급증하고 있다. 2006년 기준으로 중국은 우리나라의 제1위 교역 상대국(1,181억 달러)이자 제1위 수출대상국(695억 달러), 제1위 흑자대상국이다. 한국은 미국과 일본에 이어 중국의 제3위 교역상대국이다. 양국간 교역 규모는 1992년 64억불 규모에서 불과 15년만에 18배가량 증가하였다.

중국국가여행국(中國國家旅遊局)은 2006년 말 기준 중국을 방문한 한국인 방문객 수가 전년대비 10.7% 증가한 392만 명으로 일본을 제치고 1위로 올라섰다고 발표하였

다. 이는 중국 전체 외국인 방문객의 17.6%에 이르는 수준이다.

한국 드라마로 대변되는 “한류(韓流)”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현재 중국에서는 한국 문화에 대한 관심이 날로 증대하고 있다. 또한, 중국내 한국인 상시 체류자가 43만 8천 명, 유학생이 7만 6천 명에 달하는 등<표 3-1> 한국의 중국에 대한 관심 즉 “한풍(漢風)”도 강세를 보이고 있다.

지리적 인접성, 저렴한 인건비 및 광대한 시장 등 투자유인으로 인해 중국은 우리의 2대 투자대상국으로 급부상하였다. 한국기업들은 내수 부진을 만회하기 위해 중국시장에 적극 진출하였고 일부 기업은 중국에서 높은 브랜드 인지도를 확보하였다.

3. 재중 동포 조직

재중동포는 중국 시민권자인 조선족과 재중 장기체류 한국인 두 부류로 나눌 수 있다. 재외동포재단의 2007년도 통계에 따르면 재중 동포는 2,762,160명인데, 그중 조선족은 2,244,398명, 장기체류 한국인은 517,762명이다. (표 3-1)

조선족 집거지역 이외 도시에 진출한 조선족 유동인구는 한국투자기업 또는 한국인과 연계되는 직업에 많이 종사하고 있다. 따라서 재중동포는 지역별로 조선족집거지역인 동북 3성과 한국기업이 대거 진출하여 있는 북경, 천진, 상해, 강소성, 절강성, 산둥성, 광둥성 등에 집중되어 있다.

재중 동포 수가 상당히 많고, 또한 상호 연관되는 지역, 직업에 종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통합적인 조직은 형성되지 않은 상태다. 따라서 재중 동포 조직은 지역별로 조선족조직과 재중 한국인조직들로 나뉘어져 있다. 조선족조직으로는 조선족기업가협회가 대표적이고, 재중 한인조직으로는 재중한국인회, 재중한국상회 등이 있다.

〈표 3-6〉 주요 지역별 재중동포 수 및 기업체수

지역	조선족 수	한국인 수	기업체수		주요 민간단체
			한국기업	조선족기업	
광둥성	60,000	30,000	2,500		한국상회, 광동조선족연의회
해남성	400				
상해	85,000	60,000	2,000		상해한국상회, 동조살롱, 동방살롱, CBMC
산둥성	180,000	120,000	10,880		청도조선족기업가협회, 조선족노인협회
수도권	170,000	125,000	4,500		재중한국상회, 재중한국인회, 친진조선족연의회, 베이징고려경제문화연구회
요녕성	280,000	43,000	2,000	3,000	심양시조선족연의회, 요녕성조선족경제문화교류협회
연변	830,000	10,000	150	1,000	-
길림성	340,000	4,000	200	800	-
흑룡강성	388,000	5,000	1,200	2,000	흑룡강조선어학회, 하얼빈조선민족족진위원회, 하얼빈한국상회, 목단강한국상회
사천성	1,000	1,000	30	30	성도한국인상회, 조선족연의회, 아리랑축구팀, 중한문화교류협회
운남성	800	2,500	16		운남한국인회, 운남한국인상회, 유학생캠프, 한인회 골프모임
중경시	400	300	200	10	중경한국인회
감숙성	500	80	15		감숙한국상회, 란주조선족연의회
섬서성	3,000	1,000	50	100	서안한국상회, 조선족연의회
내몽고	22,000	120	81		내몽골조선족연구회

자료: 이진산, 「중국 한겨레사회 어디까지 왔나?」, 흑룡강조선민족출판사, 2006.5.에서 발췌 정리한 것임.

3.1. 조선족기업가협회

중국의 조선족기업가협회는 지역별로 설립되어 있고 현재까지 통합단체는 설립되지 않은 상태다. 2006년도에 전국적인 조선족기업가협회 본부 설립을 시도하여 청도조선족기업가협회에서 포럼을 조직하려고 하였으나 동북공정 등 정치적인 이유로 무산되었다.

재외동포재단의 자료에 의하면 중국의 조선족기업가협회는 현재 광둥성, 길림성, 요녕성 등 지역에 12개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실제로는 지역별로 더 많은 조선족기업가협회가 존재하고 있는데, 이는 중국정부의 견제를 의식하여 공개적인 활동을

자제하고 있기 때문이다.

〈표 3-7〉 조선족기업가협회 현황(2007)

협회 명칭	설립시간	회원수	위치
광동성조선민족연합회	2004.8.8.	60	광동성 심천시
연변기업가협회	N.A	N.A	길림성 연길시
연변연우정보교류협회	2006.7	5,000	길림성 연길시
중국길림성조선족진흥총회	1988.12.30	700	길림성 장춘시
길림성통화시조선족기업가협회	N.A	N.A	길림성 통화시
중국연대조선족상공협회	2006.9.3	32	산둥성 연태시
청도시조선족기업협회	1997.12.18	300	산둥성 청도시
단둥시조선족경제문화교류협회	N.A	N.A	요녕성 단둥시
무순시조선족기업가연의회	2001.9	36	요녕성 무순시
심양조선족기업가협회	2004.5.9	260	요녕성 심양시
요녕성조선족기업가협회	2001.4	500	요녕성 심양시
하얼빈조선족기업가협회	2000.7.2	80	흑룡강성 할빈시

자료: 재외동포재단, 「2007 세계 한인회 디렉토리」, 2007.

현재 활성화되어 있는 조선족기업가협회로는 청도조선족기업가협회, 광동성조선족기업가협회, 북경조선족기업가협회, 상해조선족기업가협회, 동북조선족기업가협회 등이다.

- 1997년 11월 20일 설립된 청도조선족기업가협회는 역사가 길고, 규모가 크며, 활성화되어 있으며, 전국적으로 핵심역할을 하고 있다. 300명 정도의 회원에 150~200개 회원사를 포함하고 있다. 청도조선족기업가협회 회원중에는 농관련 산업에 종사하고 있는 회원이 많다. 주로 양파, 마늘, 당근, 김치 등 가공공장과 소스, 수프, 다대기 가공공장들이다.
- 북경, 상해 등지의 조선족기업가협회는 규모가 큰 편이기는 하나 청도지역에 비해 회원간 이질성이 강해 결집력은 다소 낮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조선족기업가협회는 통합단체는 형성되지 않았지만, 지역별 조선족기업가협회장들간의 네트워크가 조성되어 있어 상호간의 행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등 공동활동을 진행하고 있다.

조선족기업가협회에서는 2006년부터 한국의 한상대회에 참석하고 있다. 참가비용은 사전등록시 일인당 350불, 현장등록은 450불이고, 교통비는 별도로 자체 부담으로 하고 있다.

3.2. 한국인회

한국인의 중국 진출은 1992년 한중 수교 이후 꾸준한 증가세를 보이다가 2000년대 들어 급증, 2008년 현재 전체 재중 한국인은 50만 명을 능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50만 명에 이르는 재중 한국인은 중국 진출의 선발대로서 한중 교류의 실질적 ‘민간 외교관’ 이자, 한류의 ‘전도사’이며, 대중 수출의 역군이다. 50만명 이상의 규모로 증대된 재중 한국인 사회는 그 규모로 보면 한국의 중소도시 규모 이상이지만, 중국에 살고 있는 재중 한국인들은 사실상 ‘고립’ 돼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중국 정부는 물론 이거니와 한국정부도 미국과 일본의 해외동포조직에 비해 관심을 갖지 않는 상태에 놓여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세계로 진출한 재외동포사회가 언제나 그랬듯이, 재중 한국인사회도 일부 봉사 정신이 투철한 인사들이 중심이 되어 순수 민간단체인 한국인회를 결성하고 현지 한국인 사회의 구심점 역할을 맡아 하고 있다.

〈표 3-8〉 재중국 한국인회 설립지역 및 교민현황

지역	교민수	지역	교민수	지역	교민수	지역	교민수
북경	10,000	단둥	2,000	덕주	300	제남	-
천진	50,000	대련	20,000	상해	50,000	동관	-
심양	20,000	목단강	500	연변	10,000	헤주	-
장춘	5,000	무순	500	이우	5,000	철령	-
할빈	5,000	안산	1,000	청도	70,000	유방	-
위해	15,000	무석	300	연태	5,000	우루무치	5,000
곤명	2,000	심천	30,000	광주	-	계	306,600

자료: 재중국한국인회 <http://www.koreann.net>

주: 광주, 제남, 동관 등 한국인회의 교민수 통계자료는 없음.

21세기 세계화 과정에서 민간의 역할이 강조되는 가운데, 민간자치활동이 기존의 정부와 제도의 공백을 메우는 사례가 많아지고 있다. 한중 교류 과정에서 발생하고 있는 다양한 문제에 대해 한중 양국 정부는 미처 손을 못대고 있지만, 재중 한국인들은 순수

〈표 3-9〉 재중 한국인회 현황(2007)

협회명칭	설립시기	회원수	위치
남통한국인회	2006.5.10	40	강소성 남통현
진강한국상회/한국인회	2002.3	35	강소성 단둥시
중국무석한인회	2002	54	강소성 무석시
소주지역한국인회	1993	90	강소성 소주시
염성한국인회	2003.5.12	22	강소성 염성시
장가항한국상회/한국인회	2004.1.1	68	강소성 장가항시
중국심천한인회	2005.7.1	20,000	광둥성 심천시
중국연변한국인회	1997.7.17	105	길림성 연길시
중국장춘한인회	1992	70	길림성 장춘시
재중국한국인회	2000.6.1	10,000	북경시
중국덕주한인회	2003.3.15	350	산둥성 덕주시
중국위해한인회	1993.11.2		산둥성 위해시
청도한국인회	1992.1.4	634	산둥성 청도시
상해한국인회	1993.4.5	230	상해시
중국안휘성한국인회	2005.1	43	안휘성 합비시
중국단둥한국인회	2000.3.17	254	요녕성 단둥시
중국대련한인회	1992	1,500	요녕성 대련시
중국무순한인회	1996.3	200	요녕성 무순시
선양한국인회	1992.7.12	800	요녕성 심양시
안산한국인회	1996.12.14	30	요녕성 안산시
중국철령한국인회	2003.9.11	50	요녕성 철령시
곤명한국인회	2000.1.5	2,500	운남성 곤명시
가흥한국상회/한국인회	2002.4.1	34	절강성 가흥시
승주한국상회/한국인회	1999.11.15	24	절강성 승주시
중국절강성영파한인회	2001.3	120	절강성 영파시
온주한국상회/한국인회	2005.11	32	절강성 온주시
천진한국인회	2001.10.26	11,356	천진시
중국목단강한인회	1998.9.10	54	흑룡강성 목단강시
중국하얼빈한인회	1994.7.1	70	흑룡강성 하얼빈시

자료: 재외동포재단, 「2007 세계 한인회 디렉토리」, 2007.

민간단체인 재중 한국인회를 통해서 한국인 사회의 발전은 물론 한국과 중국간 가교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현재 중국 29개 지역별로 설립된 한국인회는 회원 상호간의 친목과 유대를 강화하고 재중 교민의 권익을 증진하며 아울러 각 방면에서 한중간의 상호협력 및 이해를 증진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

1992년 8월 24일 한중 수교 이후 15년 동안 한중 민간교류와 재중 한국인사회 형성의 산 증인으로서 재중한국인회 제4대 회장을 맡은 김희철 회장은 2007년의 사업목표를 '재중한국인회와 한국인 사회를 한단계 업그레이드 하는 해'로 정하고 왕성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3.3. 한국상회

중국한국상회는 중국에 진출한 한국기업을 위해 활동하는 경제단체로서 재중국 한국 기업들의 상공회의소(Korea Chamber of Commerce & Industry in China)라고 할 수 있다.

중국한국상회는 1993년 중국정부의 비준을 받았으며, 한국기업의 이익을 대변하는 경제단체로서 활동하고 있다. 중국 내 각 지역별로 2006년 12월말 기준으로 37개 지

〈표 3-10〉 중국 한국상회 회원현황

지역	교민수	지역	교민수	지역	교민수	지역	교민수
북경	187	영구	15	덕주	28	온주	32
천진	870	단둥	85	연운항	44	하문	22
상해	286	대련	99	남통	24	광주	134
할빈	88	진황도	36	무석	50	동관	115
목단강	20	창주	30	소주	98	혜주	63
장춘	104	청도	673	무한	28	심천	177
연변	86	위해	624	서안	17	곤명	21
심양	365	연태	279	사천	29	-	-
안산	28	유방	38	승주	23	-	-
무순	28	제남	25	이우	240	계	5,111

자료: 중국한국상회, 「2007년 중국한국상회 회원명부」

역에 한국상회가 설립 운영되고 있으며, 전체 지역상회에 가입한 회원사는 총 5,100여 개 사에 달하고 있다.

중국한국상회의 주요 활동과 사업은 다음과 같다.

- 경제정보의 이메일 서비스

‘중국경제정보’를 매일 이메일로 제공하고 있다. ‘중국경제정보’를 통해 중국내 주요일간지에 게재된 주요 경제·경영관련 정보와 법령 및 정책을 비롯하여 각 지역의 주요행사 등을 주중한국대사관과 주요 유관기관에서 제공하고 있다.

- ‘중국경제단신’ 저널 발간

최신법령법규, 업종별동향, 경제동향, 전시상담회 안내, 경영지원정보 등을 내용으로 하는 ‘중국경제단신’을 월 2회 발간하여 중국내 전 회원사에 보낸다.

- 최신 중국경제법령집 발간

진출기업들의 경영활동 편의를 위하여 투자, 수출입, 조세, 금융, 노무, 특허 등 경제 관련 분야의 최신법령을 한·중문 대조본으로 편집하여 주기적으로 발간함으로써 업무에 유용한 참고자료를 제공한다.

- 홈페이지를 통한 정보제공

이메일과 저널을 통해 제공하는 정보는 중국한국상회 홈페이지 <http://www.china.korcham.net>에 게재하며, 홈페이지에는 중국내 주요 경제정보, 투자정보, 기업 거래 정보 및 중국 전지역 회원사 검색서비스 등의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 기업경영상담센터 운영

중국에 진출한 한국기업의 투자 및 경영 전반에 걸쳐 상담 서비스를 제공한다. 투자 무역, 상사법률, 세무재무, 노사문제, 지재권 등의 분야에서 기본적인 사항에 대해 무료로 상담을 하며, 회사설립절차 대행 등 추가적인 사항은 유료로 서비스를 제공한다.

- 한국기업의 권익 대변

한국기업들의 불이익, 피해사례에 대해 주중국대사관과 협력하여 중국 각급 정부기관에 조사 및 구제를 요청하여 한국기업의 이익 보호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 대사관과의 정보교류회

주중한국대사관과의 정보교류회를 정기적으로 개최하여 중국에 진출한 한국기업들의 애로사항을 수집하고 이에 대한 해결방안과 지원방안을 모색하여 한국기업들의 경영활동을 지원하고 있다.

- 회원사간 정보교류의 증진

투자 및 진출기업간의 경영정보와 노하우를 공유하기 위한 상호 정보 교류의 장을 정기적으로 마련함으로써 중국내 사업활동의 원활화를 도모하는 한편, 세무, 노무, 해관 분야 등에 대한 설명회와 교류회를 수시 개최한다.

- 중국정부기관 및 단체와의 교류

중국 중앙정부 및 지방정부를 비롯하여 각급 경제단체와 주중 외국상회와의 네트워크를 통하여 한국기업들과 중국기업 및 기타 외국기업과의 교류와 협력을 촉진하고 있다.

- 회원사 임직원의 한국비자 대리신청(북경 등 일부 지역)

회원사의 중국국적 임직원의 한국내 단기교육과 출장에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한국입국 상용비자 대리 신청을 한다.

제4장. 재중국 한민족 농식품 업체 사례

1. 농업 및 생산자재 분야

1.1. 21세기 한국배 농장

(1) 개요

- 북경시 통주구 지하리촌에 위치하고 있는 농장은 10만평 부지에 배나무 6개 품종 (만풍, 황금배, 화산, 추황, 갈천, 원황) 5만주가 식재되어 있음.
- 2000년 남궁견 전사장이 조성한 것으로 현 박홍균 사장(54세)이 2003년에 인수, 운영하고 있음.

(2) 사업내용

- 배 재배경험이 적어 작년까지는 경험축적 및 판매루트 확대에 노력함.

〈사진 1〉 21세기 배농장 전경



- 상주 직원수는 15명이며, 화분 및 수확작업시 필요 인력 고용
- 사질토양 등 토양조건이 좋아 별도의 비료가 필요 없을 정도이며, 한국보다 배의 당도가 높음.
- 현재는 주로 수집상을 통해 판매
- 저장시설은 48m² 창고가 2개동임.

(3) 향후 계획

- 배가 지나치게 밀식되어 있어 솟아낼 계획임.
- 친환경배 생산 및 지방정부와 연계하여 체험관광시설을 마련할 예정임.
- 상품성에 따라 차별적인 유통방식을 추진

1.2. 산둥성 한국배 협회

(1) 개요

- 산둥성 위해(威海), 교남(膠南), 래서(萊西) 일대에 16~18개소의 배농장이 있음.
- 진출한지 12년이 된 농장이 가장 오래되었고, 4개 농장은 10년전에 진출하였으며, 최근 3년간에는 더 이상 진출이 없는 상황임.

(2) 사업내용

- 재배면적은 100~2,000무로 농장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으나 평균 500무 수준에서 재배하고 있음.
- 생산량의 40~50%는 중국내 대리인을 통해 캐나다로 수출하고 나머지는 중국전역의 내수시장으로 공급
- 중국인들이 재배하는 배보다 품질 경쟁력이 높으며, 주로 고소득층에서 많은 소비를 하고 있음. 가격은 중국농가에 비해 2배 정도 비쌘.
- 중국의 인건비와 물가가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어 농장운영에 위협요인으로 작용

1.3. 흑룡강성 유기수도협회

(1) 개요

- 쌀의 유기재배를 추진, 4년 준비 끝에 2006년 11월 사단법인화 하였음.
- 회장은 홍상표씨이며 2008년 현재 회원수는 105명이고, 이중 90%가 조선족임.

(2) 사업내용

- 현재 쌀의 유기재배 면적은 300ha이며, 판매 전담기구는 없고 하얼빈시 지역 위주로 판매하고 있음.
- 일반쌀의 산지 판매가격은 500g당 1.5위안 수준임에 반해 전환기 유기쌀은 500g에 5위안, 유기쌀은 500g에 10위안 수준임.

(3) 향후 계획

- 유기쌀 재배면적을 1,000ha까지 확대할 계획임.
- 조건이 맞을 경우 한국기업과 합작의향 있음.
- 흑룡강성에는 조선족향만 22개로 주로 쌀을 재배(옥수수 및 콩도 재배)하고 있어, 쌀 계약재배 확대 가능성은 매우 큼.

1.4. 천수농장(유기농장)

(1) 개요

- 1996년 시작된 천수농장은 북경시 서북쪽 창핑구에 위치하며, 연변자치주 연길시에도 농장이 있음. 현재 중국 한국상회 회장인 오수중(61세)씨가 설립한 것으로 북경농장의 면적은 13만평이고, 본격적인 유기농산물 생산은 1999년부터임.
- 유기재배에 대한 기술지도는 현재 한국유기농업협회 부회장으로 있는 한남용 장로에 의해 2000년부터 본격적으로 이루어졌음.

(2) 사업내용

- 상추·배추 등 채소류, 오이·딸기 등 과채류, 포도·복숭아 등 과실류를 중심으로 40여가지 작목을 유기농법으로 재배하고 있음.
- 판매는 북경지역 뿐만 아니라 상해지역까지 이루어지고 있음.
- 2008년 올림픽에 대비한 유기농산물 생산 필요성에 따라 북경시의 적극적인 후원을 받고 있음은 물론 북경 인근 지역 42개 농장에 대한 유기농업 기술지원이 천수 농장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음.

(3) 향후 계획

- 중국의 유기농산물 시장이 지속적으로 확대됨에 따라 생산규모의 확대를 추진중임.

1.5. 이화식품

(1) 개요

- 한재길(1946년생)씨는 1970년대 제주도에서 전천후 시범농장을 운영하면서 파세리, 브로콜리 등을 생산하여 일본에 수출하였음.
- 인건비 상승으로 수출채산성이 낮아짐에 따라 1992년 중국으로 진출, 처음에는 산동성 지역에서 중고 자동차 수출대행업을 하였음.
- 1995년부터 해남도, 절강성 지역에서 양파, 브로콜리 등을 생산하여 일본에 수출하였고, 현재는 고구마의 연중 생산체계를 구축하고 반가공품 형태로 일본과 한국으로 수출하고 있으며, 콩을 삶아 레토르트 포장한 것과 단호박은 일본으로 수출하고 있음.

(2) 사업내용

- 일본에서 개발한 고구마 신품종(나루도긴도끼 ; 鳴門金時) 등을 산동성(5~10월 수확), 안휘성(10~12월 수확), 해남도(1~2월 수확) 등 3개 지역에서 연중 생산하여, 산동성 레서시에 있는 이화식품에서 반가공하여 일본 및 한국으로 수출함.
- 고구마피자 및 사라다용은 한국으로 수출하고 맛탕, 술용 및 자색고구마분말 등은

일본으로 수출함.

- 레토르트 콩은 산동성 영성시에 있는 석도수산과 합작하여 일본으로 수출함.

(3) 향후 계획

- 액화질소를 사용해 슬라이스버섯, 브로콜리 등을 신선 상태로 수출할 계획임.

1.6. 유기농장

(1) 개요

- 1999년 중국에서 선교활동을 시작한 김영배씨는 선교활동과 더불어 유기농산물 및 화훼류를 생산·판매하고 있음.

(2) 사업내용

- 광주성 심천시 외곽에 있는 해주시의 농장(전체 면적은 4만평)에서 1/3은 유기채소, 1/3은 화훼류를 생산하여 심천 및 홍콩 지역 식당에 공급하고 있음.

1.7. 낙농농장

(1) 개요

- 김해 출신 주지석(48세)씨는 한국에서 젓소를 사육하다가 2000년 중국으로 와 처음에는 딸기 모종을 한국으로 수출하였고, 2006년부터 젓소 사육을 시작하였음.
- 농장은 심양시 외곽 소가툰 신흥촌(조선족 향)에 있고, 규모는 3만 5천평임.

(2) 사업내용

- 2008년 현재 젓소 100두를 사육하며, 사료용 옥수수는 농장에서 직접 생산하여 조달함.
- 조선족 향 주민들에게 젓소 사육기술을 교육하고 있음

(3) 향후 계획

- 현재 중국의 우유소비가 확대되고 있어 젖소 사육 전망은 좋은 것으로 판단됨.
- 올해 말 한국에 있는 가족들이 오게 되면 농장 규모 확대를 위해 타 지역으로 이전을 검토하고 있음.
- 중국내에 한인 농장을 건설하는 것이 꿈임.

〈사진 2〉 낙농농장 전경



1.8. 유니베라(구 남양알로에)

(1) 개요

- 유니베라는 1988년 미국 텍사스주에 알로에 농장을 시작으로 멕시코 탐피코, 러시아 연해주, 중국 해남도 등에 농장을 확대하고 있음.
- 유니베라 중국법인 '하이난 알로콕(Hainan Aloecorp)'은 2000년 70만평의 알로에 농장을 시작한 후 2008년 현재 130만평의 농장에서 50만주의 알로에를 키우고 있음.

(2) 사업내용

- 하이난 알로콧의 사장은 한상준씨가 맡고 있으며, 금년 4월 가공공장을 설립하였음.
- 이번 가공시설은 ‘제4세대 알로에’ 생산시설로서 공정의 효율성을 증대시킨 TTS 공법, 면역력과 기능성을 증대시킨 MAP공법, 영양소와 유효성분을 유지시키는 RWD공법 등을 조화시킨 것임.
- 중국 하이난 가공시설 추가로 전세계 시장에서의 시장점유율을 50%까지 상승시키게 되었음.

(3) 성공 요인

- 직원들이 개인주의에서 벗어나 ‘한가족’이라는 인식을 가질 수 있도록 직원 생일에는 선물과 축하메시지를 전하는 ‘생일자의 날’ 행사를 거행하고, 연말에는 직원 가족 모두가 참석하는 식사자리 등을 마련함으로써 현지화에 성공

(4) 향후 계획

- 알로에 농장 규모를 2배로 확충함과 동시에 인근 해안가에 빌라, 수영장, 스파, 건강회복시설 등이 복합된 ‘웰니스(wellness)타운’을 설립할 계획임.

1.9. 위해 송림무역유한공사

(1) 개요

- 원기옥 사장은 길림 교하에서 논농사를 하다가 1992년부터 산동성 문등시에서 묘목사업을 시작한 교포사업가임.
 - 현재 두명의 사위와 딸들과 함께 가족경영을 하고 있음.
- 주요 상품
 - 묘목, 종자, 야생화꽃을 생산하여 수출
 - 이팝나무, 산수유, 목련 등

(2) 사업내용

- 재배면적은 300~400무
 - 문등에서는 직접재배하고 묘목별로 적합한 지역을 찾아 계약재배
- 한국시장에 100% 수출
 - 과거 일본시장에도 진출하였으나 현재는 한국에만 수출
- 위해와 연태의 항구를 통해 인천과 부산으로 수출
- 중국내 물가 상승으로 원가 상승 압박이 심화되고 있음.

(3) 향후계획

- 한국시장의 묘목 수요는 정체되고 있어 수출선 다변화를 꾀하고 있음.
- 묘목 품종도 수요의 변화에 맞추어 다양한 상품 개발 계획

1.10. 세농종묘

(1) 개요

- ‘농우바이오’ 회장인 고의선 의원이 1980년대부터 중국 진출을 검토하기 시작하여 1994년 중국 현지법인인 ‘세농종묘’를 북경시 대흥구(大興區)에 설립하였음.
- ‘홍농종묘’가 1997년 외환위기로 멕시코계 ‘세미니스’로 넘어감에 따라 당시 사장 이던 조대현씨가 1999년 ‘농우바이오’ 도와 현재 부회장을, 사장은 박상견씨가 맡고 있음.
- 1만평 규모로 시작하여 2008년 현재 세농종묘 연구소 면적이 48,500평, 중국 전역(동북3성, 산둥성, 감숙성 등)에 종묘 위탁생산 면적은 60~100만평에 이르고 있음.

(2) 사업내용

- 현재 무, 배추, 고추 종자사업이 주종이 되고 있고, 일부 양배추, 토마토, 당근, 수박, 양파, 참외, 브로콜리 종자도 생산하고 있음.

- 세농종묘의 대표적 종자는 백옥춘(白玉春;바이위춘)이라는 봄무종자로서 전국적인 명성을 갖고 있는데, 가짜 종자까지 나오고 있어 이를 막기 위해 특수캔을 사용하고 있을 정도임.
- 또한 배추종자인 ‘사계왕’ (四季王;쓰지왕), 고추종자인 ‘세농청초’ (世農靑椒;스농칭자오), 당근 종자인 ‘개량신희전 5촌’ 역시 유명세를 타고 있음.
- 종묘연구소에는 정규직원 12명(한인소장, 3명의 교포, 8명의 한족)과 임시직원 200명이 근무하고 있고, 본사에는 100명 정도가 근무하고 있음.
- 중국내 매출액은 연간 3,000만위안(한화 40억원 수준)이며, 수출은 연간 600만달러(한화 60억원 수준) 정도를 45개국에 수출하고 있음.
- 중국내에서는 판매방식은 중국딜러(도매상)를 통해 현금 및 신용판매하고 있는데, 현재 심양과 광둥에만 있는 각 성 담당자를 보다 확대할 예정임.

(3) 현지화 성공 전략

- 종자사업은 장기간에 걸친 노력으로 신뢰 형성이 중요하므로 끊임없는 신제품 연구와 불량종자 근절을 위한 노력

〈사진 3〉 세농종묘 연구소 전경



- 효율성 제고를 위해 전산적인 ERP시스템을 도입하여, 한국과 중국의 수준을 평준화
- 직원들간 인간관계를 중요시하며, 중국 직원을 한국에 데려와 교육
- 지역사회에 대한 장학금 제공 등 다양한 지원

(4) 향후 계획

- 세계적인 종자기업으로 발돋움하기 위해서는 양배추, 토마토, 양파 종자 분야가 핵심이므로 이 분야에 대한 연구개발을 강화
- 양채류(브로콜리, 칼리플라워 등) 종자 개발 강화
- 한국품종 판매에서 벗어나 현지 실정에 맞는 품종개발 및 판매 강화

1.11. 하얼빈 장일(長日) 양파연구소

(1) 개요

- 흑룡강성 농업연구소에 근무하던 조선족 교포인 최성일 박사가 운영하는 민간연구소임.

(2) 사업내용

- 한국에서 재배하고 있는 양파는 중국 산둥성 지역의 양파와 마찬가지로 추파(가을) 재배 품종임.
- 20여년에 걸친 연구결과 흑룡강성과 같이 겨울이 춥고 여름에 해가 긴 지역을 위한 춘파(봄)재배용 품종을 개발하였음.
- 이같은 춘파재배 양파는 8월에 수확하여 저장성이 좋아 다음해 4월까지 출하가 가능함.

(3) 향후 계획

- 흑룡강성 지역에 춘파재배용 양파 품종을 보급할 뿐만 아니라 기온이 낮은 러시아 및 북한지역에도 보급할 계획임.

1.12. 레서 CJ사료유한공사

(1) 개요

- CJ 사료의 중국내 진출 공장수는 총 9개소이며, 청도 공장은 2004년 5월에 가동하기 시작함.
 - 레서시로부터 30무(6천평) 토지를 50년간 무상임대. 단 무당 20만원의 토지사용료 지급
 - 매출액은 2007년 기준으로 100억원(한국 원)
 - 직원수는 총 80명이며, 이중 40명은 영업을 담당하고 있고, 대표이사를 제외한 직원 전부는 한족임.
- 주요품목
 - 배합사료, 농축사료

(2) 사업내용

- 연간 생산규모는 60,000톤(현재 가동률은 50% 이하 수준)으로 농축사료 위주로 생산하고 있으며, 단백질(40%)과 비타민 등을 첨가하여 공급하면 농가에서는 옥수수와 소맥피 등을 섞어 사용
- 대두박, 면실박, 채종박 등을 조달하여 생산
 - 대두박은 청도, 연대 등 4개 지역에서 원료를 공급 받고 채종박은 사천성에서 대부분 조달
- 월 2,000톤을 출고하고 있으며, 15일분 정도를 비축하고 있음.
- 판매는 150개 대리점과의 계약을 통해 판매되고 있고 수시로 대리점 모집 행사를 진행
 - 거래는 100% 현금거래
- 지역의 화물센터(화물차 콜센터 또는 화물차 시장 개념)를 통해 물류차량을 확보하여 배송

- 자체 차량보유시 유지비가 더 높을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임.
- 현재 톤당 마진이 150 위안 정도이나 마진의 대부분이 물류비에 소요됨.
 - 다만 최근 사업환경이 개선될 조짐을 보임.

1.13. 북경 중레이 사료유한공사(北京中磊飼料有限公司)

(1) 개요

- 이석민 사장(48세)은 쌍용종합상사에 근무하면서 1994년 중국에 근무를 시작하였고, 1997년 퇴직후 1999년 중레이사료회사를 설립
- 유산균을 이용한 발효사료 ‘라이펙(Lifech)’을 개발, 중국 정부로부터 특허를 받았음.
- 초기에 발효사료 실험을 위해 돼지 60두, 닭 2,000여수를 같이 사육하면서 효능을 인정받았고 인근 사육농가에 사료가 판매되기 시작하였으나, 발효사료의 습도가 40%수준이어서 사료관리에 어려움이 발생, 사료 판매보다는 직접 사육쪽으로 방향을 전환

(2) 사업내용

- 2008년 1월 현재 돼지 600두, 산란계 3만수를 사육하면서, 돼지고기 및 소시지 등은 직영점(북경 왕징시위엔)에서 판매하고, 계란은 고급백화점 및 외국인이 주요 이용하는 슈퍼마켓 등을 통해 판매함.
- 돼지고기와 계란은 ‘Village Farm’이라는 브랜드를 사용, 시중가격보다 돼지고기는 2배, 계란은 4배 가격에 판매하고 있고, 소시지는 ‘Prime’이라는 브랜드로 판매하고 있음.

(3) 향후 계획

- 중국의 1인당 국민소득이 빠르게 성장함에 따라 중국 소비자 역시 식품의 안전성, 유기농산물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음.
- 중국의 ‘얼상’ 그룹과 RFID칩을 이용한 생산이력추적시스템 구축을 시도했으나 다

소 이른 감이 있어 현재는 중단 상태임.

- 당분간 고품질 축산물 유통분야에 집중하면서 중국 내수시장 공략을 확대할 계획임.

1.14. 청도 세원비료유한공사

(1) 개요

- 중국 북경에서 경공업대학을 나온 교포 기업가 태성남 사장에 의해 운영되고 있는 유기비료 업체임.
- 태성남 대표는 청도의 하이얼에 한국산 모터를 공급하는 사업도 병행하고 있음.

(2) 사업내용

- 청도의 공장에서 생산된 유기비료는 한국으로 수출되고 있으며, 주로 영남지방에 많이 공급되고 있음.

(3) 향후계획

- 유기비료 사업 확대 외에도 다양한 분야에서 한국과의 사업을 확대하고자 준비중

1.15. 흑룡강성 달풍과기개발유한공사

(1) 개요

- 흑룡강성 하얼빈시 하성구에서 유기질비료를 생산하는 기업임. 1998년 설립되어 김희선(55세)씨가 동사장을 맡고 있음.

(2) 사업내용

- 계분과 왕겨를 사용하여 유기질비료를 생산하는데 연간 생산규모는 2만톤 수준임.
- 중국내에 생산과 유통을 담당하는 지사가 흑룡강성 2, 길림성 1, 하북성 2, 강소성 2 등 모두 7개소가 있음.

(3) 향후계획

- 중국의 유기질비료 수요량이 계속 증가하고 있어 생산 및 유통 확대를 위해 지사 설립을 확대할 계획임.

2. 화훼 분야

- 화훼분야는 중국 운남성 곤명시 지역에 집중되어 있는데, 곤명시 인근지역에 모두 9개 농장(북부지역 5개, 남부 3개, 동부 1개)이 있음. 북부지역 5개중 3개는 곤명시 화훼시범구(총면적 600만평)내에 위치하고 있음.

2.1. 금호화훼(금호원예자재유한공사)

(1) 개요

- 금호그룹이 운영하던 농장을 1998년 현재 사장인 김성호씨, 이사인 김희석씨, 과장인 유성현씨의 부친 등 3인이 공동으로 인수하여 현재까지 경영중임.
- 유과장 부친의 사업을 이어받아 1999년부터 현장 근무를 시작하였고, 김이사는 자재를 유과장은 생산을 책임지고 있음.

(2) 사업내용

- 인수 초기에는 미니국화, 미니장미 등도 같이 생산하였으나, 2002년부터는 양란인 심비디움만 생산하고 있음. 연간 5만본 정도를 출하하고 있는데 북경지역으로 1만본, 항주 2만본, 곤명시 두남화훼도매시장내 매장에 1만본 등을 출하하며, 나머지 1만본은 농장에서 상인들에게 직접 컨테이너 단위(1컨테이너당 2,200~2,500본)로 판매하고 있음.
- 품종은 일본의 ‘가와노’, ‘무꼬야마’ 회사 품종을 주로 사용하는데 40여종에 이르고 있음. 소·중묘는 갈탄보일러를 이용 가온하고 있으나 대묘는 가온하지 않음.
- 중국인은 황색꽃을 제일 선호하는 경향이 있으나, 지역에 따라 다소의 취향차이가 있고 최근 황색꽃 출하량이 늘고 있어, 출하시 지역특성에 맞춰 꽃 색깔의 배합을

조정하고 있음.

- 중국 농가의 심비디움 생산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이들과의 차별화를 위해 품질고급화에 집중하고 있음. 또한 판매의 다원화를 위해 심비디움 절화의 일본 수출을 작년부터 추진하고 있음.
- 고용인원은 40명 수준임.

(3) 향후계획

- 곤명시에서 1시간 정도 거리에 신공항이 건설 예정으로 있어 항공편 이용이 보다

〈사진 4〉 금호화훼 농장 전경



〈사진 5〉 곤명의 두남화훼도매시장의 내부



편리해질 것으로 예상되어, 일본의 절화 수출을 보다 확대할 계획임.

- 인근에 석림(石林) 등 유명관광지가 있어 농장 주위에 테마파크를 조성할 계획임.

2.2. 금난원(운남 금난화훼유한공사)

(1) 개요

- 한국 「금난원」에서 2002년 곤명시 화훼시범구(총면적 40만평)내에 설치·운영하고 있는데 면적은 시설 3,500평, 노지 1,000평 규모이며 현지사장은 최경덕씨가 맡고 있음.

(2) 사업내용

- 연간 심비디움 2만본 정도를 출하하고 있으며, 한국 금난원과 제주 갈산농원에서 중국에 직접 수출하는 물량중 매잔품은 이곳에서 재배후 다음 해에 다시 판매함.
- 중국내 판매지역은 북경, 청도, 항주, 광주 지역이며 주로 상인을 통해 판매하고 있는데, 광주지역 판매량이 많아 매장을 직접 운영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음.
- 조직배양은 한국에서 한 후 이곳에는 2년생을 가져와 1년반 정도 재배하여 개화시

〈사진 6〉 금란원 온실 내부



김. 중국내 심비디움 수요는 중추절에도 다소 있기는 하나 주로 춘절 1개월에서 15 일전이 피크라고 할 수 있는데, 여기에 개화시기를 맞추는 것이 가장 중요함.

- 고용인원은 조선족 동포 1명을 포함하여 22명임.

(3) 향후계획

- 한국에서 가져오는 것보다 이곳에서 재배하여 판매하는 것이 유리하여(실제로 한국에서의 직수출 물량은 감소하고 있음) 중국내 재배면적을 확대할 예정임.
- 재배면적을 3만평 규모로 확대할 생각이나 화웨이시범구내의 수질이 좋지 않아 적절한 곳을 물색하고 있음.

2.3. 화중원예(운남 화중원예유한공사)

(1) 개요

- 한문규씨가 1999년 선인장을 키우던 농장을 인수하여 시작하였으나, 갑자기 사망함에 따라 부인인 장희숙 사장이 계승 운영하고 있음.

〈사진 7〉 화중원예 온실 전경



(2) 사업내용

- 전체 농장부지는 16,000평이며 이중 하우스 시설면적은 12,000평임.
- 플라스틱묘부터 재배하여 연간 3~4만본 정도를 출하하는데, 북경·상해·광주 지역으로 상인을 통해 판매함.
- 광둥성 불산시(佛山市)에는 한국화훼센터와 공동으로 운영하는 물류기지(사장은 이상노씨)가 있음.
- 품종은 일본회사(가와노 등)가 개발한 것을 사용하며, 직원수는 40~50명 수준임.

(3) 향후계획

- 품종 다양화를 위해 호주 로얄오키드(Royal Orchid)사의 품종을 시험재배중임.

2.4. 경성화훼

(1) 개요

- 사장인 김성식씨는 길림성 장백현 출신으로 1992년 일본과 합작으로 농장을 시작하였고, 재배기술은 고 한문규씨(화중원에 사장) 도움을 많이 받았다고 함.

〈사진 8〉 북경 여인가 화훼시장 내부



- 1999년부터 지분 전체를 인수하여 2008년 현재 전체면적 5만평, 이중 하우스 면적은 8만㎡이며, 6만㎡에서는 심비디움을, 2만㎡에서는 호접란을 재배하고 있음.

(2) 사업내용

- 연간 출하량은 심비디움 5만본, 호접란 50만본이며 광주, 북경, 청도, 남경, 성도 등으로 상인을 통해 판매함.
- 조직배양실을 운영하고 있는데 호접란 500만주, 심비디움 20만주 수준임. 호접란 조직배양묘의 일부는 대만상인에게 판매하는데 이들은 이를 다시 미국으로 판매한다고 함.
- 심비디움 중 황색 및 적색 품종은 일본회사의 품종을, 녹색은 호주 품종을 사용함.
- 직원수는 조직배양실 50명, 농장 130명(심비디움 90명, 호접란 40명), 사무실 10명 등임.

(3) 향후계획

- 2004년부터 조직배양실에서 심비디움의 황·녹색 교잡종을 개발중인데 2009년 봄 출하예정임.
- 품질 차별화를 위해 보다 많은 꽃대를 올리는 기술을 개발중임.

2.5. 토화원 화훼(곤명 토화원화훼유한공사)

(1) 개요

- 사장인 정해범씨는 경기도 일산지역에서 화훼유통을 하면서 1999년 곤명시 화훼 박람회 참가를 계기로 중국으로부터 카네이션을 수입·판매하다가 2004년 3사람이 동업으로 곤명시 정공현 토화원에서 국화 농장을 시작하였고, 현재는 독자 경영중임.

(2) 사업내용

- 흰색 국화만을 재배하는데, 전체 면적은 16,200평이며 이중 시설 면적은 12,000

평임.

- 12월부터 5월까지 출하하는데 주로 한국과 일본으로 수출함.
- 직원수는 조선족동포 2명을 포함하여 40~50명 수준임.

(3) 향후계획

- 한국과 일본, 중국 국화시장의 특성 및 저렴한 자재공급 방안 등은 완전히 파악되었고 흰록병을 이겨내는 기술도 개발하였으나, 곤명시 지역의 겨울철 기온이 다소 낮아 새로운 투자파트너를 구해 남쪽지역으로 확대 이전하는 것을 계획중임.

〈사진 9〉 토화원 온실 내부



2.6. 한국화훼센터

(1) 개요

- 광둥성 광주시 동남쪽에 위치한 불산시(佛山市)에 위치하며 고 한문규 사장이 1995년에 12,000평 부지에 설립하였음. 현 사장인 이상노씨는 원래 일본시장을 담당하였으나 한사장 사망후 2001년부터 이곳을 맡아 운영하고 있음.

(2) 사업내용

- 한국과 중국 곤명에서 생산하는 심비디움의 물류기지 역할과 함께 관엽 및 호접란의 위탁생산판매(중국농가에 100만주 정도를 계약 생산)를 하고 있음.
- 거래 비중은 중국 내수 30%, 한국 수출(관엽 및 호접란묘) 60%, 일본(호접란) 및 네덜란드(관엽) 수출 10%임.

〈사진 10〉 한국화훼센터 전경



3. 식품가공분야

3.1. CJ

(1) 개요

- CJ는 1996년 산둥성 청도지역에 육가공 공장 준공 이래 사료, 외식, 홈쇼핑, 엔터테인먼트, 물류 등 그룹 전 사업부문이 중국에 진출해 있음.
- 2006년부터는 중국내 사업을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CJ 중국본사(박근태 사장)를 신설해 총괄 운영케 하고 있음.

(2) 사업내용

- 라이신 공장(산둥성 요성시)은 산둥성 및 요녕성에서 옥수수를 구입, 가공하여 중국내 CJ사료공장(9개소), 라면·조미료·간장업체 등에 공급
- 상해 CJ는 한국으로부터 설탕을 수출용 원자재로 수입(B쿼타), 수출용 제품업체에 판매하는 한편, 한국의 식자재로써 밀감류, 버섯류, 락교, 맛밤, 송이버섯(사천성), 수산물 등을 수입하고 있음.
- 산둥성 레서시에 있는 ‘다시다’ 공장에서 2002년부터 생산을 시작, 중국 전역에 판매하고 있으며 동시에 2007년부터 식품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안전센터’를 운영하고 있음.
- 북경지역에서는 중국 굴지의 기업인 얼상그룹과 함께 지분 참여(49%)를 통해 ‘얼상 CJ’를 설립, 하루 25만모의 ‘백옥’ ‘두부’ 등을 판매하고 있음.
- CJ푸드빌은 2005년 북경에 베이커리인 ‘뚜레쥬르’ 1호점을 오픈한데 이어 2008년 현재 북경 8개점, 상해 1개점 등 모두 9개점을 운영하고 있으며, 같은해 면 전문점인 ‘시젠’을 오픈 현재 북경에 3개점을 운영하고 있는데 최근 비빔밥 메뉴를 추가 중국인들의 호응을 받고 있음.
- CJ푸드시스템은 한식 전문점인 ‘사랑채’, 커피전문점인 ‘모닝해즈’를 홍콩공항내에 개점한데 이어 북경 및 청도 공항에도 진출할 예정임.
- CJ사료는 성도, 심양, 청도, 귀양, 정주, 남경, 천진, 하얼빈, 장사 지역의 중국내

〈사진 11〉 CJ의 북경소재 뚜레쥬르와 시젠



9개 공장을 가동중임.

3.2. 오리온

(1) 개요

- 1993년 북경에 현지 사무소를 개설하였고 1995년에는 현지법인인 ‘오리온 식품유 한공사’를 설립하였음.
- 1997년 북경에 초코파이 공장을, 2002년에는 상해 초코파이 공장을, 2006년에는 북경에 스낵 공장을 건립하였음.

(2) 사업내용

- 초코파이를 주종으로 비스킷, 스윙칩 등 스낵류, 껌류 등을 생산하고 있음.
- 2007년 총 매출액은 1,200억원 수준이며, 2000년 이후 북경과 상해지역의 매출액 증가율은 각각 35%, 65% 수준임.
- 초코파이의 중국 브랜드명을 좋은 친구란 의미의 호려우(好麗友)라 짓고, 다양한 마케팅 노력이 흑자 실현에 발판이 되었음.
- 중국시장에서는 중국공장 및 한국공장에서 생산된 초코파이가 함께 판매되고 있는데, 중국인들의 외제 선호에 따라 한국에서 생산된 제품이 보다 비싼 가격에 판매되고 있음.

(3) 향후계획

- 중국 소비자의 높은 ‘오리온 초코파이’ 브랜드에 대한 인지도를 바탕으로 보다 다양한 스낵 제품 개발을 추진할 예정임.
- 중국을 시작으로 러시아, 베트남 시장으로 확대해 나가고 있음을 발판삼아 글로벌 기업으로 도약할 계획임.

3.3. 롯데

(1) 개요

- 롯데그룹의 음식료품 기업으로 롯데제과와 롯데칠성음료가 중국시장을 적극적으로 공략하고 있음.
- 한·중 수교 이전에는 홍콩 및 싱가포르를 통한 간접 수출방식이었으나, 수교 직후인 1992년말 중국 북경에 현지 사무소를 설립하였음.
- 롯데제과는 1995년 북경에 껌공장을 설립한 후 2002년에는 ‘자일리톨껌’ 공장을 추가 건립하고, 2003년에는 코팅껌 설비까지 갖춘 공장을 설립하였음.
- 롯데칠성음료는 2005년 북경후아방식품유한공사(음료수 전문회사로서 연간 생산 규모는 6만톤 수준)의 지분 100%를 인수하였고, 같은 해 하남성에 있는 뤼허창달 실업유한공사와 합자 형태로 ‘롯데오더리(Lotteaodeli) 음료 유한공사’를 설립하였음.

(2) 사업내용

- 롯데껌의 중국 시장에서의 점유율은 2004년에는 10%대였으나 현재는 30% 수준에 이르고 있으며, 연간 매출액은 2003년 160억원에서 2007년에는 1,000억원 수준으로 빠르게 확대되고 있음.
- 롯데칠성음료는 2010년 매출액 목표를 1,200억원 수준으로 설정하고 있음.

(3) 향후계획

- 롯데껌은 2010년까지 중국의 껌시장 점유율 1위를 목표로 하고 있음.
- 롯데칠성음료 2개 중국회사와 판매망 및 생산기지의 공유, 공동의 광고 및 판촉활동을 통해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할 계획임.

3.4. 종가집 김치

(1) 개요

- (주) 대상은 두산김치를 인수, 북경시 외곽에 2004년 7월 공장 설립한 후, 현재 배추김치, 알타리김치, 갓김치, 열무김치, 깍뚜기 등 5가지 김치류를 생산
- 1일 생산규모는 10톤 수준이며, 현재 1일 7톤 정도를 생산 판매함.

(2) 사업내용

- 원료조달은 배추의 경우 하절기에는 하북성, 가을에는 산둥성 및 북경시 인근, 고춧가루는 산둥성(교주), 젓갈류는 산둥성(석도), 마늘, 알타리무, 열무 등은 양이 적어 공장 인근에서 계약재배
- 배추품종은 한국품종을 회사가 구입하여 재배농민에게 공급하고 있음.
- 한국계, 외국계, 중국 ‘징커룽(京客隆)’ 등 500여개 슈퍼마켓에서 판매하고 있으며, 대리점(북경 및 상해 각 2곳, 칭도, 천진, 심천 각 1곳 등)을 통해 공급함.
- 초기에는 현금거래만을 했으나 최근에는 현금 및 외상거래를 병행
- 매출액은 작년도에만 50% 신장하여 연간 30억원 수준임.
- 경쟁업체는 조선족교포가 운영하는 ‘길업’, ‘영생’, ‘아리랑’ 등임.

(3) 향후 계획

- 중국의 김치소비가 빠른 속도로 확대되고 있어 전망이 밝으며, 중국인 입맛에 맞추기보다 한국식 김치 생산을 지속할 예정임.
- 영국, 네덜란드, 슬로바키아, 호주, 태국, 몽고 등으로의 수출량을 더욱 확대할 계획임.
- 현재 중국에서는 김치 표준이 없고 장아찌(중국의 ‘파우차이(泡菜)’) 기준에 맞추고 있어 김치표준 마련에 더욱 노력할 생각임.
- 다른 지역에 생산기지를 건설하려고 하나 성간 협조체계 미흡으로 원하는 생산기지 확보에 어려움이 있음.

- 신제품(반찬류, 단무지, 오이지 등) 생산을 확대할 계획임.

〈사진 12〉 종가집김치 전경



3.5. 심양한전(漢田)식품유한공사

(1) 개요

- 1993년 중국에 온 송인기씨가 동사장을 맡고 있으며, 심양에서는 유일하게 김치수출 허가를 받은 업체임.
- 2003년 독자기업으로 설립되어 지금까지 김치만을 전문적으로 생산하고 있음.

(2) 사업내용

- 현재 생산량의 95%는 OEM으로 한국에 수출하고, 5%는 중국시장에 판매하고 있음.
- 1일 생산규모는 20톤이며, 2007년에는 한국으로의 수출량이 400톤이었음.
- 철저한 위생관리를 위해 공장내에 CCTV가 설치되어 모든 생산공정, 복장상태, 청결 및 위생상태, 원료운반 및 저장 등을 심양시 상검국(식품관리청)에서 직접 온라인으로 감시하고 있음.

- 직원수는 100여명이며, 심양·하얼빈·장춘·북경 등 4곳에 영업망을 두고 있음.
특히 기업의 단체급식에도 납품하고 있음.

(3) 향후 계획

- 중국내 내수판매를 더욱 확대하기 위해 현재의 영업망을 더욱 확충할 계획임.

3.6. 청도 경복궁김치유한공사

(1) 개요

- 문병순 사장이 1993년 3개 식당 운영을 통한 한국식품에 대한 노하우를 기반으로 2001년부터 김치사업 본격화
 - 현재는 한식당(출장부페) 3개소, 호텔, 김치공장, 농장을 운영
 - 전체 직원수는 80명
- 현재는 문병순 사장의 건강문제로 문지혜 사장이 운영을 책임지고 있으며 문지혜 사장은 한국서 학업 등을 마치고 중국에 온지는 3년 정도되는 한국인임.

(2) 사업내용

- 주요품목
 - 배추김치, 총각김치, 열무김치, 깍두기, 오이소박이, 갓김치, 파김치, 백김치, 나박김치, 동치미(10종류)
- 산동성 교주시에 10만평 규모의 직영농장 운영
 - 배추, 무 등 물량이 많은 4~5개 채소류를 직접 재배
 - 물량이 많지 않은 양념류 등은 인근 청도 도매시장에서 구매
- 품종은 한국과 같은 것을 사용하고 있으며, 중국내 세농종묘로부터 구입
- 판매 물량은 월별로 변동이 있으나 150~300톤 정도이며, 배추김치가 전체의 50%

를 차지하고 있고, 그 다음이 총각김치로 여름에 많이 판매됨.

- 겨울에 한정하여 동치미도 생산·판매

- 기생충 검사 등 검사시설은 자체적으로 가지고 있으며, 제품개발은 문 사장 외 2명의 직원이 함께 개발
- 주로 해안지역을 중심으로 30개 도시에 공급하고 있으며, 현재 별도의 홍보를 하고 있지 않으나 청도에서 타 지역으로 이주하는 사람들의 입소문 및 요청에 따라 판매처가 확대되고 있음.
 - 물량이 많은 곳은 대리점(전체물량의 50% 수준)을 통하고 그 외 지역은 개별 배달

(3) 향후계획

- 중국 사람들 입맛에 맞추기 위한 김치의 변형보다는 한국 전통의 맛을 간직하면서 중국사람들에게 서서히 접근할 예정
- 자체 비료공장 건설을 계획중에 있음.

〈사진 13〉 청도 경복궁김치유한공사 전경



3.7. 흑룡강 쌍태(双太)식품유한공사

(1) 개요

- 한국에서 태일정밀을 운영하던 정강환씨(1945년생)는 한·중 국교수립 직후 흑룡강성 하얼빈시에 진출하여 ‘쌍태전자’ 회사를 설립
- ‘쌍태전자’는 흑룡강성에서 가장 큰 회사가 되었으나 중국내 경쟁사의 출현 등으로 수지가 악화되어, 이후 ‘쌍태식품유한공사’를 설립하였음.
- 정강환 동사장은 식품가공회사를 운영함과 동시에 흑룡강성 조선족 교포를 대상으로 하는 교육사업에 정열을 쏟고 있음.

(2) 사업내용

- 자체 호박생산기지를 갖고 반가공 단호박과 참기름을 일본으로 수출하고 있음.
- 쌀 가공제품(찹쌀 경단, 찐쌀, 떡볶이 등)과 절단 당근, 고추장, 냉동고추는 한국으로 수출하며, 고춧가루는 내수 판매하고 있음.

(3) 향후계획

- 동북3성의 조선족 교포들이 한국 및 중국의 타지역으로 취업해 감에 따라 교포사

〈사진 14〉 하얼빈 쌍태식품유한공사 전경



회가 크게 흔들리고 있고 특히 홀로 남겨진 교포 청소년 문제가 심각함.

- 한국 교민과 조선족 교포 교육을 위한 시설 확충 및 교포들의 보다 소득이 높은 작목 재배를 위한 훈련시설 마련 등을 계획하고 있음.

3.8. 하얼빈 신세기식품

(1) 개요

- 사장인 조선족 동포 임동(林棟)씨는 중국 국가대표 스케이트 선수 코치를 하다 일본 유학중 투자자를 만나 1993년 일본과의 합자회사로 출발

(2) 사업내용

- 주요 제품
 - 수출 : 산고추, 유기농콩
 - 내수 : 김치, 고추 및 마늘 절임, 기타 반찬류, 냉면 등 육수
 - ‘꼬마산고추’ 라는 브랜드로 한국으로 수출하며, 해륜지역에서 생산하는 유기농콩은 전량 일본 수출
- 천진에도 공장이 있으며, 내수는 주로 흑룡강성과 북경지역을 대상으로 하는데 이들 지역에 10개의 직판점이 있음.
- 직원수는 판매점을 포함하여 200명 수준이며, 급여는 일반직원 1,000원 내외(성과급 제외), 관리직은 2,800~3,000원
- 연매출액은 4천만 위안 수준임.
- 작은고추는 광둥, 호남성에서 가져오고 있으며, 마늘은 산둥성에서 공급받고, 고춧가루는 ‘쌍태식품’ 제품을 사용
- 자체 품질관리 담당자가 있으나 잔류농약 검사 등 전문검사는 ‘하얼빈 품질기술감독국’에 위탁
- HACCP에 맞는 시설은 아직 되어 있지 않음.
- 김치는 발효하지 않고 설탕을 넣어 단맛을 낸 한족대상의 김치 생산

- 동북3성에서는 신것을 좋아하지 않으나 베이징에서는 좋아함.
- 새우젓은 김치가 검어져 멸치젓을 사용하는데, 산동에 있는 한국기업으로부터 조달

- 내수용은 일반 가게를 통해 판매
- 직판점에서는 자체 생산품 외에 한국식품과 비빔밥도 판매

(3) 향후계획

- 3년내 주식상장을 목표
- 위수공업개발구로 공장 이전 예정(10,000㎡, 지상2층 지하1층)

〈사진 15〉 하얼빈 신세기식품의 상품



3.9. 경성김치

(1) 개요

- 사장인 임이철(1951년생)씨는 1997년 중국으로 와 1999년부터 김치공장을 시작하였는데, 한인으로서의 최초의 김치공장 운영자임.

- 공장은 요녕성 심양시 소가툰 지역 외에 또 한 곳이 있음.

(2) 사업내용

- 연간 김치 생산량은 1,000톤 수준이며 무말랭이, 진공 고추 및 고춧가루도 생산함.
- 중국 내수시장과 수출비중은 1:9 수준이며, 수출시에는 대련과 단동항을 주로 이용함.
- 고추, 무, 배추는 계약재배 하는데, 여름배추는 내몽고 적봉지역과 흑룡강성 치치하얼 지역에서, 나머지는 인근 지역에서 계약재배함. 고추의 경우 부족분은 내몽고 카이로 지역으로부터 구입함. 젓갈은 중국산을 이용하며, 마늘은 산동성과 요녕성 지역으로부터 구입함.
- 직원수는 50~60명 수준임.
- 진공 고추는 한국, 고춧가루는 동남아 지역으로 수출

(3) 향후 계획

- 부부가 경영하는 관계로 사업확대 계획은 없고, 교민사회에 대한 봉사활동을 지속할 예정임.

〈사진 16〉 경성김치 임이철 사장



- 중국에 한국 종자를 보급한 것이 가장 큰 보람임.

3.10. 농심

(1) 회사개요

- 1996년 ‘신라면’으로 중국시장 진출 이후 상해에 제1공장(1996년), 청도에 농수산물 가공 및 스프공장(1998년), 2000년에는 심양에 라면 및 스낵 공장을 건설 운영하고 있음.

(2) 사업내용

- 상해공장은 주로 라면류를 생산하고 있는데, 연간 생산 능력은 4억개 수준이며 공장 연면적은 4,300평임.
- 심양공장은 라면 및 스낵을 생산하는데, 연간 생산능력은 각각 3억개, 4억개이며, 공장 연면적은 6,340평임.
- 청도공장은 연면적 11,000평 수준이며 농산물 가공품, 라면스프, 스낵원료 등을 생산해 상해와 심양공장에 공급하고 있음.

(3) 향후계획

- 상해공장을 이전 증설하여 생산규모를 연산 6억개 수준으로 확대할 계획임.
- ‘고급라면’의 이미지를 더욱 강조함과 동시에 제품 다양화를 추구할 예정임.

3.11. 청도 농심식품유한공사

(1) 개요

- (주)농심이 1998년 7월 산동성 청도에 개설하였음
- 직원수는 300명(한국인 7명)이며, 토지 30,000평, 건물 11,019평임

(2) 사업내용

- 주요품목

- 스낵반제품 : 12,000톤, Key Base : 360톤, 야채즙 2,100톤 등
- 2007년 매출액은 1,460만달러임

- 색도와 매운 맛 등 농심 자체의 기준에 맞춰 벤더를 통해 중국 각지에서 원료 농산물 수집(계약재배는 하지 않음)

- 양파 : 감숙성, 마늘 : 산동성, 파 : 강소성, 고추 : 산동성
- 고추는 산동성 외에도 내몽고, 감숙성, 사천성 등으로 확대

- 청도 공장은 완제품을 생산하는 곳이 아니라 원료를 가공해 반제품 형태로 심양(라면/스낵)과 상해(라면)의 공장으로 공급

- 스낵 반제품(생지), 조미포, 야채포, Key Base 등
- 농심 외 타 업체들의 요청에 따라 스프 자체를 공급

- 야채 즙을 생산하여 수출

〈사진 17〉 청도 농심공장 전경



- 마늘 엑기스 200톤, 양파 엑기스 50톤은 수출

- 청도공장에서 유일한 완제품은 '춘우' (녹두당면을 이용한 용기면)로 한국과 일본으로 수출
- 청도공장은 반제품을 생산하나 다른 공장에서 생산되는 라면과 스펙류 등의 완제품은 대리점과 대형유통업체의 두가지 유통경로만 이용
- 최근 법인세의 갑작스런 인상(17~22%→25%) 등으로 경영환경이 악화되고 있음.

(3) 향후계획

- 반제품 중심의 생산에서 탈피하여 완제품 생산으로 사업확대 예정

3.12. 연대 유미식품유한공사

(1) 개요

- 한국에서 음식점과 돈육 수입업에 종사하던 윤병국 사장이 산동성 연대시에 진출하여 2000년 11월 창립한 식품기업임.
- 미국, 캐나다, 호주, 유럽, 동남아, 브라질 등 세계 각지로 수출하고 있으며, 중국 내수시장 진출은 2006년 8월부터 개시

(2) 사업내용

- 주요제품
 - 냉동면 : 우동면, 녹차면, 짜장면, 칼국수, 메밀소바, 소면 등
 - 압출면 : 냉면, 쫄면, 막국수면 등
 - 생면류 : 칼국수면, 우동면, 짜장면, 메밀면, 사리소면 등
 - 소스류 : 우동소스, 짜장소스, 짬뽕소스, 덮밥소스, 육수, 탕수육 소스 등
 - 기타 : 돈까스, 탕수육, 물만두, 떡국떡 등
- 사용하는 밀가루는 대한제분을 통해 구입하고, 특수면 생산을 위해 일본으로부터

일부 수입

- 전세계 50개국에 냉동면 수출
- 중국 내수시장은 2006년에 진출하였으나, 아직 영업을 전담하는 부서를 두고 있지 않아 매출 증가 속도는 완만함.
- 연간 매출액은 20억원 수준이며, 종업원수는 60명임.

(3) 향후계획

- 최근 중국정부의 수출식품에 대한 위생 기준이 강화되고 있어 현 공장부지내에 위생기준에 부합한 새로운 공장을 건설하여 다양한 상품을 수출할 예정임.

〈사진 18〉 연대 유미식품유한공사 전경



3.13. 교주 스카이식품유한공사

(1) 개요

- 송기울 사장이 1997년부터 1년간 중국현지 조사를 거쳐 1998년부터 운영하고 있는 식품기업임.
- 주요 생산품목은 고춧가루이며 시기적인 보완차원에서 송이버섯 수출을 병행하고

있음.

- 중국내 사업체는 산둥성 교주시와 사천성 성도시 2곳에 있으며, 가공공장은 교주시에서만 운영

(2) 사업내용

- 사천성에서 고추 계약재배
 - 약 10,000농가(50,000 농민)를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직접 계약을 통한 원료구매
 - 재배면적은 약 500만평으로 연간 20,000톤을 구매하며 이중 1/10은 자체 가공용으로 사용하고 나머지는 중국내에서 판매
 - 원료구매시 가격은 시세를 기준으로 현장에서 대금 지급
 - 송이버섯은 동북3성과 운남성에서 구매하고 있음.
- 고춧가루 완제품은 전량 일본으로 수출하고 있으며, 한국의 경우 고춧가루 완제품의 관세가 높아 원료로서 태경과 종가집에 공급
- 사천성에서 청도로의 운송은 대부분 트럭에 의하고 있음.

〈사진 19〉 교주 스카이식품유한공사



- 일본 수출은 근처에 있는 황도항(약 40분 거리)을 통해 수출

(3) 향후계획

- 식품과 관련해서 한국 바이어들의 저가격 중심적 사고가 중국 농산물에 대한 이미지를 낮추고, 한국 소비자에게 좋은 농산물 제공 기회를 박탈하고 있음.
- 중국 농산물에 대한 이미지 제고를 위한 노력을 확대할 계획임.

3.14. 용정 녹전농특산품개발유한공사

(1) 개요

- 사장은 조선족 교포인 김영호씨가 맡고 있음.
- 콩, 수수, 기장, 옥수수, 조 등을 파쇄하여 밥과 함께 혼합할 수 있도록 하는 가공품 생산
 - 쌀은 인근의 어곡전에서 구입하여 도정 및 포장하여 판매

(2) 사업내용

- 10,000톤의 가공설비와 3,000톤의 저장공간을 갖추고 있으며, 일 20,000박스 출고(box당 10kg)
- 공장 근처의 농민들과 계약재배
 - 콩의 경우 덕신지역에서 1,000ha를 계약재배하고 있으며, 1kg에 5위안씩 구매하고 있고 제품화율은 70%임.
- 유기농 재배를 위해 농민들에 대한 기술지도를 하고 있으며, 참나무 수액 등을 활용
- 제품은 동북 3성을 넘어 전국적으로 판매되고 있음.
- 공급가격은 박스(10kg)당 9위안이며 장춘 등 동북 3성 지역은 13위안에 판매되고 있고, 상해 등은 60위안에 판매되는 지역까지 있음.

(3) 향후계획

- 축산과 작물재배를 연계한 유기농 곡물재배 단지를 조성하고자 하나 자금 부족으로 잠시 보류중
 - 현재 보유중인 자금의 대부분은 수매자금으로 이용되고 있고 정부의 수매자금 지원이 부족해 사업확대를 위한 자금 확보에 애로
- 유기농업에 관심있는 한국의 기업가와 합작·합자 형태의 사업추진 고려
 - 공장 시설 및 계약재배 대상 농가는 확대 가능(8,000평 부지 확보)

〈사진 20〉 용정 녹전농특산품개발유한공사 전경



3.15. 연길 세원식품유한공사

(1) 개요

- 페인트 사업을 하고 있는 김윤길 사장이 식품산업으로 진출하여 2007년부터 맥반석 계란을 생산·공급하고 있는 사업체임.

(2) 사업내용

- 52,000개씩 맥반석 계란을 판매처에 공급하고 있음.
- 동종의 유사기업들이 많아 판매점 확보 경쟁이 치열

3.16. 연변 녹미식품유한공사

(1) 개요

- 교포 기업가인 안미화 사장이 운영하는 식품가공업체
- 연길시와 근교 2개의 공장을 운영하고 있으며 고추 절임을 생산하여 한국의 GS마트에 공급

(2) 사업내용

- 원료인 고추는 연변 인근의 대규모 산지에서 조달하고 있음.
- 땅에 구덩이를 파고 그곳에 절인 고추를 일정기간 숙성시킨 다음 선별 포장을 거쳐 박스로 포장하여 수출하고 있음.
 - 방문한 공장의 경우 103칸의 구덩이에 5,000~8,000근(1근=500g)을 처리할

〈사진 21〉 연변 녹미식품유한공사 절임시설



수 있는 저장시설이 있음.

- 선별 과정에서 5~8cm 크기의 고추만 상품화하여 처리

4. 무역 및 유통분야

4.1. 농협 북경사무소

(1) 유자차

- ‘두원농협’ 산 유자차 수출
- 그동안 개인 대리상을 이용하였으나 2007년 12월부터 ‘강소성공소합작총사’에 운영하는 수귀(蘇果)마트(강소성에만 2,200개)에 농협식품전문매장 개설, 2008년 말까지 20개 매장 운영 예정
 - 중화전국공소합작총사(북경 소재) ; 한국의 농협중앙회에 해당
 - 강소성 선택이유 ; 타성보다 공소합작사에서 유통사업이 가장 활성화

(2) 인삼

- 대리상 통해 동인당(同仁堂)에 납품, 현재 6년근 뿌리삼(홍삼)만 취급하고 있고 5년근은 신청상태이며, 가공제품은 아직 없음.
- 홍콩에는 한삼인(韓蔘人)매장 1개소, 2007년 5월 홍콩에 ‘농협고려삼유한공사’ 설립. 농협고려인삼의 자회사이며 현지 직원은 1명이고 사장은 북경사무소장이 겸임

4.2. 대련 대관무역유한공사

(1) 개요

- 대관무역공사는 한국 농식품을 중국으로 수출하는 가장 규모가 큰 회사임. 사장은 류재순씨이며, 2008년 현재 중국내 5개 지역에 지사를 두고 있음.
- 북경 지사장은 전상호씨(조선족), 청도 지사장은 이오성씨(조선족), 상해 지사장은 송인명씨(한인), 광주 지사장은 전양준씨(조선족), 대련 지사장은 한정옥씨(조선족) 임.

- 대련지사장인 현정옥사장(1964년생)은 1993년부터 흑룡강성 하얼빈시에 슈퍼마켓을 경영하다가 2000년 요녕성 대련시로 진출하였고, 2001년에는 「청정원」의 중국 총판을 맡게 되었음.
- 2002년부터 「청정원」이 직영체제로 전환함에 따라 한국의 다른 식품회사와의 거래를 확대하기 시작하였음.

(2) 사업내용

- 2008년 현재 「CJ」(전 해찬들), 「오리온」, 「삼양」 등 18개 한국기업의 총판을 맡고 있음.
- 인천에 있는 (주)대관에서 물품을 수집하여 중국으로 보내는데, 월 40 feet 컨테이너 40개 분량(월10~12억원 수준)을 취급함.
- 통관은 대련항에서 직접한 다음 도매와 소매를 겸함. 도매는 까르프, 중국 및 한인 슈퍼마켓에 공급하며, 소매는 “Korean Mart” 4곳(하얼빈 2곳, 청도 및 대련 각 1곳)을 운영하고 있음.
- 현재 종업원수는 40명임.

(3) 향후 계획

- 한국과 중국은 검역기준에 상당한 차이가 있으므로 중국 검역기준에 대한 한국 수출업체를 대상으로 한 교육 필요
- 중국의 김에 대한 비소성분 기준은 한국 기준의 1/50에 불과하여 비현실적임. 이에 대한 한국 정부의 교정 노력이 요청됨.
- 한국산 식품 중 깨, 울무, 호두 등은 사용한 가공식품과 커피 등에서 대장균이 발견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 경우 통관이 3개월간 정지되므로 수입업체 입장에서는 커다란 부담이 되므로 철저한 사전 검역이 요구됨.
- 차 또는 음료의 경우 함량표시(예: 유자 함량 53% 등)를 하게 되어 있는데, 중국 통관시 실제 함량조사를 하므로 정확히 기재할 필요가 있음.
- 현재 직영하고 있는 “Korean Mart”를 체인화할 계획임.

4.3. 인터넷 무역업

(1) 개요

- 조선족 동포인 조동철씨(1977년생)는 인터넷을 이용, 중국 심양에서 다양한 농수 산물을 모아 한국으로 수출하는 사업을 하고 있음.
- 이 사업은 1998년 단둥에서 쌀을 30만근 확보해 ‘요녕성중국농업정보망’에 올려 단 3일만에 9,000위안을 벌면서 시작되었음.

(2) 사업내용

- 2004년 본격화된 사업은 중국농촌중개인 사이트를 개설 5~6천명에 이르는 중개인을 확보하여 중개 및 매취사업을 하는데 수집된 농수산물은 한국의 ‘전통식품가공협회’, ‘강동수산’, ‘정보화마을중앙협의회’ 등 10개 조직으로 수출하며, 일부는 중국내에서 판매함
- 취급품목은 옥수수 및 잡곡류, 버섯(송이 및 목이버섯), 마늘, 종자류, 산채류(더덕, 고사리 등), 한약재, 수산물 등임.
- 사무실은 고향인 심양시 교구 소가툰에 있으며, 2007년 80개 품목에 총 매출액은 7천만 위안 수준임.
- 대련, 단둥, 천진항을 주로 이용하며 품목에 따라 상해 근처의 렌강(북건성 녹차의 경우) 등을 이용하기도 함.
- 한국에서의 통관은 중국 무역회사가 담당함.

(3) 향후 계획

- 새로운 사업 발상으로 여러차례 수상을 하기도 했는데, 향후 취급품목 및 거래선을 보다 다양화하고, 한국의 지사규모도 확대할 계획임.

4.4. 이마트

(1) 개요

- 1997년 상해에 1호점을 개설
- 선진국 유통업체에 비해 다소 중국시장 진출이 늦었음. 프랑스계 ‘까르푸’ 매장은 2008년 5월 현재 107개소(상해지역은 14개소) 임에 반해 ‘이마트’의 점포수는 상해를 중심으로한 화동지역에 9개, 천진시 2개 등 모두 11개점임.

(2) 사업내용

- SKU 기준으로 식품류의 취급품목수는 8천개 정도이며 이중 한국식품류는(한국에서 수입 또는 중국에서 생산) 10%인 800개 수준임.
- 한국으로부터의 직수입은 2006년말부터 시작되었고 향후 보다 확대할 예정임.
- 후발주자로서 입지가 좋은 곳의 차지가 늦었으나, 깨끗하고 편리하다는 이미지가 제고되고 가격조건은 다소 불리함에도 가격에 대한 소비자 민감도가 낮아지고 있는 까닭에 연간 매출액 증가율은 15~20%에 이르고 있음.
- 화동지역 전체 점포의 직원수는 2,200명이며, 이중 한국직원은 중국본부 12명, 화

〈사진 22〉 중국 상해 이마트 본사 전경



동지역 4명, 천진지역 7명 등 모두 23명임.

(3) 향후 계획

- 점포당 개설비가 800만~1,300만 달러가 소요되는 등 점포 확대에 상당한 재원이 요구됨. 상해를 중심으로 한 화동지역은 서비스업이 발달, 소비성향이 높아 이 지역을 중심으로 클러스터식 확장을 추진할 계획임.
- 우선 2008년내에 화동지역 6개, 천진 및 북경지역 각 1개 점포를 추가로 개설하고, 2012년까지 모두 50개 점까지 확대할 계획이었으나 롯데의 적극적인 중국진출계획(매년 2개 이상의 백화점 개설 및 네덜란드계 중국내 대형 유통업체인 '마크로' 8개점 인수 등)에 자극받아 70개점으로 상향 조정
- 유기농 및 한국제품의 비중을 확대할 계획임.

4.5. 갤러리아

(1) 개요

- 한국에서 통신분야에 종사하던 신사장은 7년전부터 상해시에서 한국식품의 수입 및 도·소매 사업을 시작

(2) 사업내용

- 처음에는 식품을 수입, 할인매장에 납품하였으나 2005년부터 슈퍼마켓인 '갤러리아'를 시작, 현재 5,000개 품목을 취급하고 있음.
- 한국회사와 직접 거래하고 있으며(통관은 한족이 담당) 월평균 20 컨테이너 분량임.
- 이중 7~800개 품목(주로 면류, 장류, 과자류)은 도매를 겸하고 있음.

(3) 향후 계획

- 중국 전역에 걸친 체인화를 계획하고 있음.

4.6. 신거성

(1) 개요

- 한국에서 교직생활을 하던 사장 전미숙씨가 10년전 중국 심천시로 와 2003년 개업

(2) 사업내용

- 조선족 도매상을 통해 한국식품을 공급받음.
- 김치는 운남성 곤명에서 조선족이 생산하는 ‘마마손’ 을 공급받았으나 최근 중지되고 북경지역에서 생산되는 ‘경복궁’ 김치를 공급받고 있음. 또한 최근 생산하기 시작한 광주지역의 ‘햇미소’ 김치의 공급도 시작되었음.
- 고객의 절반은 한국인, 나머지 절반은 중국인임.
- 중국인 고객은 특히 한국산 김, 미역, 커피, 면류, 김밥용재료(단무지, 게맛살, 햄 등) 등을 선호함. 특히 김치에 대한 수요가 늘고 있는데 김치를 직접 담그기 위해 ‘김치소’ 를 찾는 고객도 있음.

4.7. 설이네 가게

- 조선족 동포가 광주 및 심천시에 각각 2개씩 슈포마켓을 운영하고 있는데, 취급하는 한국식품은 모두 심천시를 통해 공급함.

〈사진 23〉 설이네 가게 전경



5. 외식분야

5.1. 서라벌

(1) 개요

- 종합 한식 식당이라 할 수 있는 서라벌은 1991년 중국 북경시에 지점을 설치하기 시작하여 2008년 현재 중국 전역에 18개 점포로 확대되었음.
- 한인회장을 역임한 백금식씨(60세)가 초기부터 개척하기 시작하여 13년간에 걸쳐 이룩한 것임. 4년전 퇴임하고 현재는 북경시 왕징점, 장춘시 장춘점을 직영하고 있음.
- 심천지역에는 홍콩 영사를 역임한 신흥우씨가 2개 점포를 운영하고 있음.

(2) 사업내용

- 중국식으로 변형시키기보다 전통적인 한국식 식단을 고집하고 좋은 재료를 사용함. 고객의 90%가 중국의 중상층 계층임.
- 초기에는 품질기준에 맞는 원자재 구입이 힘들었으나, 한국에서 종자를 들여와 중국에서 위탁 생산하는 등 원자재 조달에 문제가 없음. 쇠고기는 하북성에 위치한 대규모 농장에서 구입하는 등 원자재 100%를 중국내에서 조달하고 있음.
- 한국산 주류도 취급하고 있으나, 최근 낮은 도수와 따뜻한 청주를 선호하는 중국인의 취향 때문에 일본산 청주 판매량이 많음.

(3) 향후 계획

- 종합 한식당은 대형화·고급화되어야 하며, 각 점포의 품질관리, 점포디자인, 메뉴 개발이 핵심사항임.
- 중국 전역에 보다 많은 체인점 확대 계획임.

5.2. 본가(本家)

(1) 개요

- 고급 한식점 체인으로 회장인 백종원씨는 2005년 중국에 진출하여 북경, 상해, 청도 등 15개 체인점을 운영하고 있음.

(2) 사업내용

- 중국 소비자의 입맛에 맞추어 현지화하기보다 철저히 전통적인 한식 메뉴를 고집하여 빠른 기간내에 성공
- 현지 직원의 중국업체로의 이탈을 막기 위해 비전 제시와 더불어 일체감 향상을 위한 정기적인 교육을 실시
- 중국인은 접대 또는 자기과시를 위해 고급 한식당을 찾게 되는데, 중국인 시각에서 전통 한식당은 한국인이 많이 찾는 곳이 되며, 이를 위해 한국인 입맛에 맞아야 한다고 함. 따라서 한국인과 중국인 고객의 비율이 6대4 정도가 이상적이라고 함.

5.3. 대장금

(1) 개요

- 북경에서 유명한 한식당인 '수복성'에서 독립한 온대성씨가 현재 북경시에 8개 점포를 운영

(2) 사업내용

- 한국식 비빔밥으로 유명하며, 고추장은 순창 '문옥레가' 브랜드를 사용하고 있음.

5.4. 연길 롯데리아식품유한공사

(1) 개요

- 박왕근 대표(연변 한국상회 회장 겸임)가 롯데그룹 북경지사에서의 경험과 사전조

사를 통해 사업 시작

- 패스트푸드 체인점인 롯데리아를 연길시 중심지에 2개소 운영

(2) 사업내용

- 점심, 저녁 시간외에 들어오는 고객들이 수익에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어 다른 요식업보다 많은 장점이 있으며, 고급분위기를 원하는 가족단위의 고객과 연인들이 주로 이용
- 한국의 패스트푸드점과 같이 선불로 음식값을 치르게 하고 있으며, 초기정착에 다소 애로가 있었음.
- 직원들은 모두 한족을 고용
- 최근 KFC의 3개점 출점으로 매출액이 많이 줄었음.
 - 다국적 패스트푸드 기업들은 직접 진출보다는 지역별로 사업자를 선정하여 선불로 프랜차이즈 가입비를 받음

(2) 향후계획

- 프랜차이즈 형태로 사업 확대 예정이나, 아직은 관리할 수 있는 역량이나 인력확보

〈사진 24〉 연길 롯데리아 매장 전경



가 여의치 않아 실행을 못하고 있음.

5.5. 제이너스 그룹(BBQ)

(1) 개요

- 1995년 'BBQ' (Best Believable Quality)를 시작으로 '닭익는 마을', '깨끗한 BHC' 등 8개 브랜드, 도합 3,300개 점포를 국내외에 운영하고 있음.

(2) 사업내용

- 중국내에는 가맹점이 2008년 5월 현재 천진 및 북경지역 16개, 청도를 포함한 산둥성 지역 32개, 상해 2개 등 모두 50개임.
- 2004년 중국내 독자법인인 '상해비비객찬음관리유한공사'를 설립, 정경수씨가 총경리를 맡고 있음.
- 낮은 브랜드 이미지를 탈피하여 중국시장에 적합한 레스토랑 형태로 발돋움하기 위해 기존의 치킨위주의 메뉴에서 벗어나 다양한 메뉴를 추가하고 있음. 또한 중국에 없던 배달시스템을 도입해 차별화에 성공하고 있음.
- 상해시 포동 난춘루의 직영 1호점은 치킨 뿐만 아니라 각종 샐러드, 햄버그 및 샌드위치, 피자, 떡볶이, 김밥, 비빔밥, 인삼닭죽 등으로 다양화하고 있음. 이곳의 주고객은 90% 이상이 중국인임.
- 매일 신선한 닭 공급을 위해 안휘성에 있는 공장과 제휴하고 있음.

(3) 향후계획

- 올해 안에 상해시에 5개 점포를 추가 개설함과 동시에 상해-항주간 고속도로 2곳의 휴게소, 대학 기숙사 및 구내식당, 버스터미널 등으로 점포를 확대할 계획임.
- 경기도 이천에 있는 치킨대학에서의 집중 교육을 확대하고, 지속적인 메뉴개발 및 다양한 이벤트, 주 1회의 가맹점 사업설명회 등도 계획하고 있음.

5.6. 한나산

(1) 개요

- 조선족 교포인 장덕문씨는 중국판 ‘야끼니꾸’ 식당인 종합육류구이점인 ‘한나산’을 운영하고 있음.
- 2001년 북경에 1호점을 개점한 이래 2002년 4개, 2004년 10개, 2005년 16개로 지점을 확대하고 있음.

5.7. 연길 진달래반점유한책임공사

(1) 개요

- 중국의 국영기업이 일본인과 합작으로 길림성 연길시에 운영하던 ‘진달래식당’을 1990년 조선족 교포인 최기옥씨가 인수하여 경영한 이래 현재는 아들인 고봉열씨가 총경리를 맡고 있음.
- 쇠고기구이, 냉면 등을 메뉴로 하였으나 1995년 이후로는 냉면전문점으로 자리매김

(2) 사업내용

- 냉면전문점 특히 ‘진달래 냉면’으로 명성을 얻게 됨에 따라 1997년에는 중국중임회의에 의해 ‘중화명음식’으로, 2001년에는 전국음식품관리 활동우수기업으로 선정되었음.
- 2008년 현재 직영점 3개소(길림성 훈춘, 도문, 왕청), 가맹점 6개소(북경, 천진, 심양, 하얼빈, 진황도, 제주도)임.
- 연간 매출액은 700만 위안 수준이며, 종업원수는 250명임.

(3) 향후계획

- 냉면은 계절성 메뉴이므로(특히 6~8월이 호황) 비수기를 위한 메뉴를 지속적으로 개발
- 빠른 인건비 상승에 대응하여 원가 절감 방안을 모색

제5장. 대중국 농식품 수출입 및 투자현황과 문제점

1. 중국산 농수산물 수입 현황

1.1. 개황

중국산 농산물의 경우 수입규모는 2007년 현재 약 2,375백만 달러로 2003년과 비교하면 37.7% 증가하였다. 중국산 농산물의 수입 추세는 증감을 반복하다가 2007년도에 급격히 증가하였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전체 농산물 수입액 중 중국이 차지하는 비

〈표 5-1〉 중국산 농산물 수입추이(2003~2007)

단위: 천 달러, 톤

년도	금액		비중(%)	물량		비중(%)
	중국	전체국가		중국	전체국가	
2003	1,725,495	6,212,665	27.8	10,354,367	24,301,025	42.6
2004	1,125,187	7,444,567	15.1	3,824,599	24,317,420	15.7
2005	1,756,999	7,397,370	23.8	7,815,503	24,765,542	31.6
2006	1,550,836	8,117,195	19.1	4,668,774	25,142,081	18.6
2007	2,375,231	10,089,013	23.5	7,320,304	25,973,875	28.2

자료: 농수산물유통공사(www.kati.net)

〈표 5-2〉 중국산 수산물 수입추이(2003~2007)

단위: 천 달러, 톤

년도	금액		비중(%)	물량		비중(%)
	중국	전체국가		중국	전체국가	
2003	714,078	1,964,145	36.4	465,190	1,245,531	37.3
2004	910,500	2,264,247	40.2	497,710	1,289,789	38.6
2005	938,487	2,387,146	39.3	509,837	1,270,511	40.1
2006	1,036,927	2,773,571	37.4	563,660	1,393,066	40.5
2007	1,072,651	3,059,800	35.1	543,855	1,405,385	38.7

자료: 농수산물유통공사(www.kati.net)

중은 2007년 23.5%로 2003년 27.8%와 비교하여 다소 감소하였다.

중국산 수산물의 경우 수입규모는 2007년 현재 약 1,073백만 달러로 2003년과 비교하면 50.1% 증가하였으며 중국산 수산물의 수입은 매년 점차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그러나 전체 수산물 수입액 중 중국산 수산물이 차지하는 비중은 2007년 35.1%로 2003년 36.4%와 비교하여 다소 감소하였다.

1.2. 농산물 부류별 수입 동향

중국에서 수입되는 농산물 중 곡류, 서류, 두류, 전분, 과일류, 채소류, 버섯류, 인삼류, 소스류, 화훼류, 차류, 음료류, 과자류, 면류 등이 주로 수입되고 있다. 각 부류별로 주로 수입되는 농산물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1.1 곡류

곡류의 경우 2003년 1,045백만 달러의 규모였으며 이후 증감을 반복하여 2007년 현재 약 953백만 달러 규모를 보이고 있다. 2007년 현재, 곡류 중 옥수수의 수입규모가 613백만 달러로 가장 높으며 그 다음으로 밀, 쌀 순으로 나타났다.

〈표 5-3〉 곡류 주요 품목 수입추이(2003~2007)

단위: 천 달러, 톤

구분	2003		2004		2005		2006		2007	
	금액	물량	금액	물량	금액	물량	금액	물량	금액	물량
소계	1,045,494	8,714,064	346,187	2,177,716	870,744	5,983,327	414,882	2,493,152	953,271	4,486,551
옥수수	907,900	7,775,623	238,775	1,707,661	819,954	5,835,744	282,333	1,982,450	613,618	3,166,047
밀	94,798.8	01,900	57,756	334,607	3,071	13,093	52,866	332,455	225,942	1,073,740
쌀	36,027	103,051	37,636	88,915	33,453	85,033	68,154	140,094	83,093	158,936
보리	1,701	5,907	2,566	7,905	5,396	17,767	2,524	8,657	17,513	47,278

자료: 농수산물유통공사(www.kati.net)

1.1.2 서류

서류의 경우 2003년 619천달러의 규모였으며 2006년을 제외하고 점차적으로 증가

하여 2007년 현재 2003년과 대비하여 516% 증가한 약 3,814천달러 규모를 보이고 있다. 2007년 현재 서류 중 감자의 수입규모가 전체의 78.5%를 차지한 약 2,993천달러로 가장 높으며, 그 다음은 고구마 순으로 나타났다.

〈표 5-4〉 서류 주요 품목 수입추이(2003~2007)

단위: 천 달러, 톤

구분	2003		2004		2005		2006		2007	
	금액	물량	금액	물량	금액	물량	금액	물량	금액	물량
소계	619	1,169	1,217	2,284	1,909	3,680	1,416	1,406	3,814	1,872
감자	311	521	516	882	742	1,242	357	420	2,993	1,120
고구마	80	128	520	1,051	838	1,756	51	81	99	172

자료: 농수산물유통공사(www.kati.net)

1.1.3 두류

두류의 경우 2003년 37,056천달러의 규모였으며 2006년을 제외하고 점차 증가하여 2007년 현재 2003년 대비 약 200% 증가한 111,013천달러 규모를 보이고 있다. 2007년 현재, 두류 중 대두의 수입규모가 82,942천달러로 가장 높으며 그 다음으로 팥, 강낭콩 순으로 나타났다.

〈표 5-5〉 두류 주요 품목 수입추이(2003~2007)

단위: 천 달러, 톤

구분	2003		2004		2005		2006		2007	
	금액	물량	금액	물량	금액	물량	금액	물량	금액	물량
소계	37,056	125,927	44,129	126,433	51,038	147,776	45,203	102,207	111,013	235,403
대두	20,110	78,421	20,445	76,979	28,466	96,573	24,666	58,883	82,942	183,076
팥	12,303	28,594	19,441	32,036	17,275	28,796	13,461	27,118	21,025	36,023
강낭콩	1,803	7,170	1,758	7,324	2,154	8,652	1,709	6,073	1,716	6,753

자료: 농수산물유통공사(www.kati.net)

1.1.4 전분류

전분류의 경우 2003년 16,658천달러의 규모였으며 2005년 다소 감소한 것을 제외

하고 점차적으로 증가하여, 2007년 현재 2003년 대비 약 106.8% 증가한 34,457천달러 규모를 보이고 있다. 2007년 현재, 전분류 중 옥수수전분의 수입규모가 18,940천달러로 가장 높으며 그 다음으로 고구마전분, 밀전분 순으로 나타났다.

〈표 5-6〉 전분류 주요 품목 수입추이(2003~2007)

단위: 천달러, 톤

구분	2003		2004		2005		2006		2007	
	금액	물량	금액	물량	금액	물량	금액	물량	금액	물량
소계	16,658	53,386	17,994	53,930	16,711	51,503	31,413	88,100	34,457	90,081
옥수수전분	5,996	31,767	6,321	30,129	7,258	33,648	14,750	59,376	18,940	65,530
고구마전분	10,004	20,400	11,250	23,376	8,913	17,172	16,083	28,164	14,806	23,824
밀전분	238	935	62	204	141	450	65	191	60	160

자료: 농수산물유통공사(www.kati.net)

1.1.5 과실류

사과의 경우 신선 형태로 수입되는 경우는 없고 대부분 사과쥬스 형태로 수입되고 있다. 사과 전체의 수입규모는 2003년도 1,066천달러의 규모였으나 점차 증가하여 2007년 현재 2003년 대비 약 392.1% 증가한 5,246천달러의 규모를 나타내고 있으며, 2007년을 기준으로 전체 사과류 수입 중 사과쥬스의 수입 규모는 4,965천달러의 규모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복숭아 전체의 수입규모는 2003년도 713천달러의 규모였으나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07년 현재 2003년 대비 약 635.8% 증가한 4,117천달러의 규모를 나타내고 있다. 그 중 설탕을 첨가하여 밀폐용기에 담은 복숭아 가공품이 3,766천달러 규모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기타 조제한 가공품 복숭아 246천달러, 복숭아쥬스 105천달러의 규모를 보이고 있다.

포도 전체의 수입규모는 2003년도 20천 달러의 규모였으나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07년 현재 2003년 대비 약 2,260% 증가한 472천달러의 규모를 보이고 있다. 2007년을 기준으로 전체 포도류 수입 중 신선포도의 수입은 없으며 건조포도 75천달러, 포도 쥬스 44천달러, 기타 방법 조제 포도가 397천달러 규모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배 전체의 수입규모는 2003년도 35천달러의 규모였으나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이후 증감을 반복하여 2007년 현재 2003년 대비 약 314.3% 증가한 145천달러의 규

모를 보이고 있으며, 신선 형태로 수입되는 경우는 없으며 대부분 조제를 통한 가공품 형태로 수입되고 있다.

〈표 5-7〉 과실류 주요 품목 수입추이(2003~2007)

단위: 천달러, 톤

구분	2003		2004		2005		2006		2007	
	금액	물량	금액	물량	금액	물량	금액	물량	금액	물량
소계	30,360	44,489	43,518	61,526	50,391	68,282	64,573	86,248	72,793	102,954
사과	1,066	1,486	1,338	1,888	3,541	4,389	4,748	4,813	5,246	4,631
복숭아	713	952	730	945	1,705	2,124	2,972	3,600	4,117	5,021
포도	20	32	231	223	276	221	340	241	472	364
배	35	70	33	61	143	268	151	277	145	260

자료: 농수산물유통공사(www.kati.net)

1.1.6 채소류

채소류의 경우 2003년 165,861천달러의 규모였으며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07년 현재 2003년 대비 약 141.8% 증가한 399,978천달러 규모를 보이고 있다. 2007년 현재, 채소류 중 김치의 수입규모가 전체 채소류 수입의 약 27.6%를 차지한 100,842천달러로 가장 높으며 그 다음으로 고추, 당근, 마늘, 양파, 파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2007년 현재를 기준으로 주요 품목의 수입규모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고추의 경우 전체 수입액 80,724천달러 중 냉동고추류의 경우 59,542천달러, 건조고추 19,742천달러의 규모로 대부분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당근의 경우 전체 수입액 36,788천달러 중 신선 및 냉장 당근의 경우 33,831천달러, 건조당근 2,202천달러, 냉동당근 754천달러의 규모를 차지하고 있다. 마늘의 경우 전체 수입액 31,722천달러 중 냉동 마늘 19,215천달러, 절임마늘 4,815천달러, 탈피 마늘 877천달러, 건조마늘 832천달러, 기타 5,950천달러의 구성을 보이며 신선 마늘은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양파의 경우 전체 수입액 11,813천달러 중 신선양파 8,332천달러, 건조양파 2,596천달러, 냉동양파 759천달러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파의 경우 모두 건조된 상태로 수입되고 있으며, 기타 품목으로 토마토의 경우 전체 수입액 9,724천달러 중 토마

토 페이스트 형태가 9,379천달러로 대부분이며, 딸기의 경우도 전체 5,586천달러 중 초분류딸기 냉동형태의 수입이 5,565천달러로 대부분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5-8〉 채소류 주요 품목 수입추이(2003~2007)

단위: 천 달러, 톤

구분	2003		2004		2005		2006		2007	
	금액	물량	금액	물량	금액	물량	금액	물량	금액	물량
소계	165,861	376,841	238,530	472,418	251,332	490,294	346,852	627,977	399,978	711,571
김치	10,288	28,702	29,472	72,605	51,312	111,429	87,936	177,922	110,842	220,306
고추	39,408	60,844	63,101	89,709	49,654	79,481	58,612	102,515	80,724	130,890
당근	13,994	36,609	22,546	62,676	27,916	72,641	35,368	80,793	36,788	89,201
마늘	14,597	34,649	23,460	56,150	21,207	42,145	32,321	43,985	31,722	50,978
양파	9,645	60,699	5,935	24,563	7,964	39,892	14,273	36,966	11,813	29,084
파	6,200	2,056	9,297	2,301	8,280	2,054	8,806	1,778	9,961	1,996
토마토	5,419	10,397	8,076	14,898	7,355	13,865	8,025	14,844	9,724	16,225
딸기	1,314	1,847	2,714	3,603	2,567	3,769	4,051	4,391	5,586	5,815
생강	2,498	11,511	6,279	11,240	5,185	11,862	2,379	5,873	4,076	11,885
오이	1,681	7,334	2,603	11,324	2,599	11,698	3,629	14,139	3,680	14,078
양배추	1,835	5,144	1,852	3,175	1,285	902	1,016	998	2,704	5,315
무	1,616	3,703	1,403	4,340	1,285	2,964	1,676	3,680	1,553	3,077
상치	152	267	167	285	133	198	627	1,011	1,035	1,594
시금치	164	429	217	588	333	670	626	925	557	867
배추	1,522	9,858	771	4,342	248	1,369	908	3,902	542	2,058
호박	321	157	243	96	198	146	300	175	377	235

자료: 농수산물유통공사(www.kati.net)

1.1.7 버섯류

버섯류의 경우 2003년 9,731천달러의 규모였으며 2004년 다소 감소한 것을 제외하고 점차적으로 증가하여, 2007년 현재 2003년 대비 약 53.3% 증가한 14,918천달러 규모를 보이고 있다. 2007년 현재, 버섯류 중 양송이버섯의 수입규모가 전체 버섯류 수입의 약 72.2%를 차지한 10,773천달러로 가장 많고 그 다음으로 영지버섯, 느타리버섯 순으로 나타났다.

〈표 5-9〉 버섯류 주요 품목 수입추이(2003~2007)

단위: 천 달러, 톤

구분	2003		2004		2005		2006		2007	
	금액	물량	금액	물량	금액	물량	금액	물량	금액	물량
소계	9,731	13,589	7,809	13,441	8,974	16,675	12,220	17,212	14,918	17,230
양송이	6,733	10,375	5,828	9,170	6,463	9,960	7,591	8,977	10,773	9,243
영지버섯	551	217	132	65	274	134	703	243	870	278
느타리버섯	2	3	0	0	19	3	72	9	21	3

자료: 농수산물유통공사(www.kati.net)

1.1.8 인삼류

인삼류의 경우 2003년 3,770천달러의 규모였으나 2005년 이후 다소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2007년 현재 2003년 대비 약 5.1% 증가한 3,960천달러 규모를 보이고 있다. 2007년 현재, 인삼류 중 백삼정 형태로 수입되는 경우가 전체 인삼류 수입의 약 60.9%를 차지한 2,414천달러로 가장 높았으며 그 다음으로 백삼, 백삼분, 홍삼, 수삼 형태 순으로 나타났다.

〈표 5-10〉 인삼류 주요 품목 수입추이(2003~2007)

단위: 천 달러, 톤

구분	2003		2004		2005		2006		2007	
	금액	물량	금액	물량	금액	물량	금액	물량	금액	물량
소계	3,770	174	4,085	170	4,729	244	4,710	348	3,960	231
백삼정	3,082	87	3,084	86	3,674	99	2,755	92	2,414	71
백삼	19	1	492	38	818	108	1,226	159	1,251	137
백삼분	175	13	181	13	119	7	225	18	132	11
홍삼	149	13	237	15	59	8	188	15	87	5
수삼	32	3	30	12	45	22	191	56	46	5

자료: 농수산물유통공사(www.kati.net)

1.1.9 소스류

소스류의 경우 2003년 46,901천달러의 규모였으며 그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07년 현재 2003년 대비 약 41.3% 증가한 66,290천달러 규모를 보이고 있다.

2007년 현재, 소스류는 기타 형태로 수입되는 경우가 가장 많으며 기타를 제외한 품목 중 된장이 1,957천달러로 가장 높으며, 그 다음으로 메주, 춘장, 간장, 고추장 순으로 나타났다.

〈표 5-11〉 소스류 주요 품목 수입추이(2003~2007)

단위: 천달러, 톤

구분	2003		2004		2005		2006		2007	
	금액	물량	금액	물량	금액	물량	금액	물량	금액	물량
소계	46,901	47,388	47,000	48,882	50,706	57,864	51,436	52,698	66,290	58,619
된장	732	1,844	566	1,324	1,233	3,060	1,873	4,248	1,957	3,971
메주	1,020	2,439	1,407	3,109	1,414	2,746	1,255	2,187	1,665	2,666
춘장	105	180	54	104	427	734	822	1,469	921	1,646
간장	45	42	146	108	201	192	354	370	570	616
고추장	81	195	80	199	499	963	228	435	545	1,029

자료: 농수산물유통공사(www.kati.net)

1.1.10 화훼류

화훼류의 경우 2003년 1,847천달러의 규모였으며 2004년 다소 감소한 것을 제외하고 점차적으로 증가하여, 2007년 현재 2003년 대비 약 232.4% 증가한 6,139천달러

〈표 5-12〉 화훼류 주요 품목 수입추이(2003~2007)

단위: 천달러, 톤

구분	2003		2004		2005		2006		2007	
	금액	물량	금액	물량	금액	물량	금액	물량	금액	물량
소계	1,847	411	1,820	950	3,188	1,123	6,088	1,939	6,139	1,624
난초	1,362	90	914	83 1,	788	165	4,486	719	4,554	604
카네이션	177	116	216	146	323	198	378	177	408	243
선인장	11	13	22	44	10	8	189	263	330	462
국화	15	7	10	17	11	8	84	28	261	122
백합	2	0	1	0	3	1	1	0	17	4
장미	4	3	6	2	28	11	13	4	15	5

자료: 농수산물유통공사(www.kati.net)

규모를 보이고 있다. 2007년 현재, 화훼류 중 난초(동양란)의 수입규모가 전체 화훼류 수입의 약 74.2%를 차지한 4,554천달러로 가장 높으며 그 다음으로 카네이션, 선인장, 국화, 백합, 장미 순으로 나타났다.

1.1.11 기타(차류, 주류, 음료류, 과자류, 면류)

홍차와 녹차 등을 포함한 차류의 경우 2003년 478천달러의 규모였으며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였으나 2007년도에는 감소하였다. 그러나 2003년 대비 약 478.7% 증가한 2,766천달러의 규모를 보이고 있다. 주류의 경우 2003년 28,512천달러의 규모였으며 이후 증감을 반복하다가 2007년 현재 2003년 대비 87.6% 증가한 53,495천달러의 규모를 보이고 있다.

음료류의 경우 2003년 4,128천달러의 규모였으며 이후 대체적으로 감소하다가 2007년 현재 급격히 증가하여 38,457천달러의 규모를 보이고 있다. 과자류의 경우 2003년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07년 현재 2003년 대비 143.1% 증가한 74,737천달러의 규모를 보이고 있으며, 면류의 경우 2003년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07년 현재 2003년 대비 83.4% 증가한 52,416천달러의 규모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5-13〉 기타 주요 품목 수입추이(2003~2007)

단위: 천 달러, 톤

구분	2003		2004		2005		2006		2007	
	금액	물량	금액	물량	금액	물량	금액	물량	금액	물량
차류	478	250	716	368	2,646	592	4,833	655	2,766	507
주류	28,512	72,133	7,747	16,841	23,256	44,361	65,500	111,947	53,495	86,754
음료류	4,128	8,905	2,852	3,665	2,825	4,058	2,316	4,090	38,457	27,998
과자류	30,739	26,292	35,110	27,281	47,904	32,344	56,032	34,528	74,737	40,183
면류	28,585	49,924	32,321	52,626	36,818	56,191	40,753	56,337	52,416	61,942

자료: 농수산물유통공사(www.kati.net)

1.3. 수산물 수입 추이

수산물 중 어류의 경우 2003년 488,294천달러의 규모를 보였으며 이후 2005년에

다소 감소한 것을 제외하고 점차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2007년 현재 2003년 대비 약 32.8% 증가한 648,047천달러의 규모를 나타내고 있다. 갑각류의 경우 2003년 92,983천달러의 규모를 보이고 있으며 이후 증감을 반복하는 추세이다. 2007년 현재 2003년 대비 약 96.7% 증가한 181,491천달러의 규모를 나타내고 있다.

연체동물의 경우 2003년 120,197천달러의 규모를 보였으며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이다. 2007년 현재 2003년 대비 약 76.7% 증가한 212,953천달러의 규모를 나타내고 있다. 수생동물의 경우 2003년 1,615천달러의 규모를 보였으며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이다. 2007년 현재 2003년 대비 약 506.9% 증가한 9,802천달러의 규모를 보이고 있다. 해조류의 경우 2003년 3,923천달러의 규모를 보였으며 이후 2006년을 제외하고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이다. 2007년 현재 2003년 대비 약 63.2% 증가한 6,404천달러의 규모를 보이고 있다.

〈표 5-14〉 수산물 주요 품목 수입추이(2003~2007)

단위: 천 달러, 톤

구분	2003		2004		2005		2006		2007	
	금액	물량	금액	물량	금액	물량	금액	물량	금액	물량
어류	488,294	331,505	563,071	323,065	561,982	332,297	592,396	349,660	648,047	341,377
갑각류	92,983	43,210	157,638	60,691	147,145	53,676	184,061	68,484	181,491	64,325
연체동물	120,197	79,967	149,816	93,557	168,771	96,921	210,453	113,768	212,953	110,888
수생동물	1,615	1,357	2,947	2,447	4,201	2,799	6,541	4,736	9,802	6,129
해조류	3,923	4,576	4,191	6,090	4,248	5,278	3,701	4,126	6,404	6,551

자료: 농수산물유통공사(www.kati.net)

2. 대중국 농식품 수출 현황

2.1 농식품 수출 현황

우리나라의 농식품 수출액은 2007년 2,532백만달러로 2006년 대비 9.9% 증가하였다. 일본이 전체 수출에서 25.5%를 차지하는 가장 큰 시장이며, 다음으로 중국(홍콩포함)이 17.3%, 미국은 11.9%를 차지하고 있다.

수출증가세에 있어서는 가장 큰 시장인 일본이 2004년을 기점으로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 반면 러시아에 대한 농식품 수출은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07년 전체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9.5%에 이르고 있다.

〈표5-15〉 국가별 수출실적(2003~2007)

단위: 백만달러

국가	2003	2004	2005	2006	2007
합계	1,860	2,085	2,222	2,304	2,532
일본	658	729	713	651	646
미국	223	285	280	282	302
중국	166	313	231	260	295
홍콩	99	119	124	146	142
대만	62	71	110	92	103
러시아	157	175	204	208	240
EU	53	65	68	49	55
기타	364	428	492	617	749

자료: 농림부

부류별로는 2007년의 경우 신선농식품과 가공식품의 수출 비중이 각각 23.6%와 76.4%로 나타나고 있으며, 가공품의 수출액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반면 과실류

〈표 5-16〉 부류별 수출실적(2003~2007)

단위: 백만달러

구 분	2003	2004	2005	2006	2007
합 계	1,860	2,085	2,222	2,304	2,532
신선농식품	508	551	608	536	597
채소	101	127	137	134	121
김치	93	103	93	70	75
인삼	67	89	83	89	92
화훼	45	49	52	40	58
과실	71	86	121	98	145
돼지고기	31	27	34	24	26
가금육	4	4	10	9	9
임산물	96	67	77	72	71
가공농식품	1,352	1,534	1,613	1,769	1,935

자료: 농림부

〈표 5-17〉 주요 품목별 수출 현황

단위: 천톤, 백만달러, %

구 분	2006(A)		2007(B)		증감률(B/A)	
	물량	금액	물량	금액	물량	금액
합 계	1,433.5	2,304.4	1,514.0	2,531.8	5.6	9.9
신선농식품	184.0	535.5	198.4	597.1	7.8	11.5
○채 소	46.3	133.6	42.7	121.1	△7.8	△9.4
*파프리카	14.6	45.7	14.2	47.2	△2.9	3.1
○김 치	25.6	70.3	26.5	75.3	3.5	7.1
○인 삼	1.9	88.6	1.9	92.1	-	4.0
○화 훼	8.1	40.4	10.0	58.1	23.5	43.8
○과 실	65.6	98.4	79.0	144.9	20.4	47.3
*배	16.3	36.7	20.0	49.2	22.5	34.2
*유자차	10.3	30.8	8.5	25.9	△17.5	△15.9
○돼지고기	12.2	23.9	12.6	25.6	3.3	7.1
○가금육(닭, 오리)	3.2	8.5	5.7	9.0	78.1	5.9
*삼계탕	1.0	4.1	0.9	3.7	△8.2	△8.0
○임산물	21.1	71.8	20.0	71.0	△5.2	△1.1
*송이버섯	0.05	7.2	0.1	11.1	102.2	54.7
*표고버섯	0.2	3.4	0.3	5.8	75.3	69.8
*밤	15.6	33.3	12.8	28.2	△18.2	△15.3
가공농식품	1,249.5	1,768.9	1,315.6	1,934.7	5.3	9.4
○가공식품	1188.1	1716.6	1251.2	1877.5	5.3	9.4
-면 류	56.1	166.0	58.1	179.4	3.6	8.1
*라면	29.8	102.6	30.4	115.7	2.0	12.8
-소스류	48.9	95.0	49.8	107.2	1.8	12.8
*고추장	5.6	11.3	5.2	11.1	△7.1	△1.8
*된장	4.8	8.9	5.2	10.1	8.3	13.5
*간장	7.5	9.2	7.4	10.7	△1.3	16.3
-주 류	192.1	192.6	190.8	191.6	△0.7	△0.5
*소주	90.6	118.7	87.7	112.4	△3.2	△5.3
-차 류	1.5	4.4	0.8	2.5	△46.7	△43.2
-과자류	71.0	205.8	73.9	225.5	4.1	9.6
-연초류	43.7	350.3	54.1	413.7	23.8	18.1
○목 재 류	61.4	52.2	64.4	57.2	4.9	9.6

자료: 농수산물유통공사

를 제외한 신선품의 수출 증가세는 정체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2007년 기준으로 신선 농식품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과실이 24.3%로 가장 많으며 채소류가 20.3%, 인삼 15.4%, 김치 12.6% 등의 순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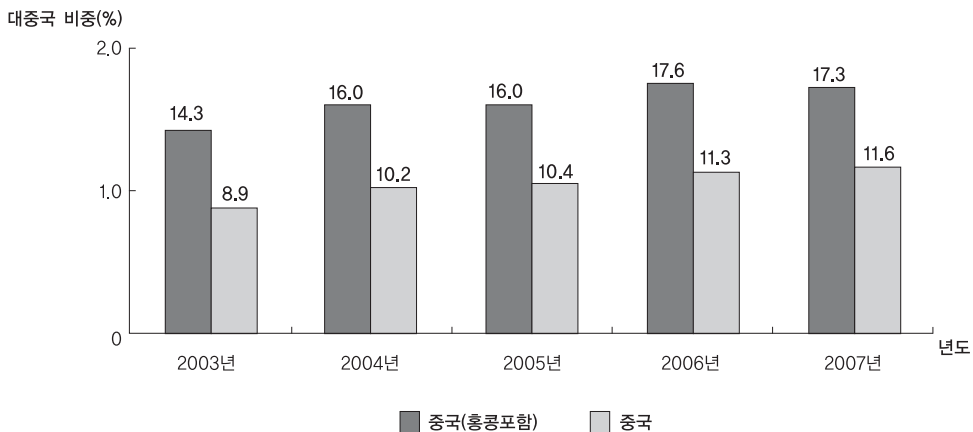
품목별 수출을 살펴보면, 채소류의 수출에 있어 파프리카가 차지하는 비중은 2007년 기준으로 39%(금액 기준)에 이르고 있고, 과실류에 있어서는 배와 유자차(유자차는 2007년 개정 HSK 코드부터 과실류로 분류), 산림부산물물의 경우는 밤의 비중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

가공품의 경우는 연초류, 과자류, 주류, 면류, 소스류 순으로 수출 비중이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면류에 있어서는 라면이, 주류에 있어서는 소주가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의 전통식품인 고추장, 간장, 된장의 수출액은 아직 낮은 수준에 그치고 있다.

2.2. 대중국 농식품 수출 현황

경제성장에 따라 중국의 농식품 소비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이에 따라 농식품 수입액도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다. 2007년 중국의 농산물 수입액은 411억달러로 2006년대비 28.1%나 증가하였다.

〈그림 5-1〉 대중국 수출비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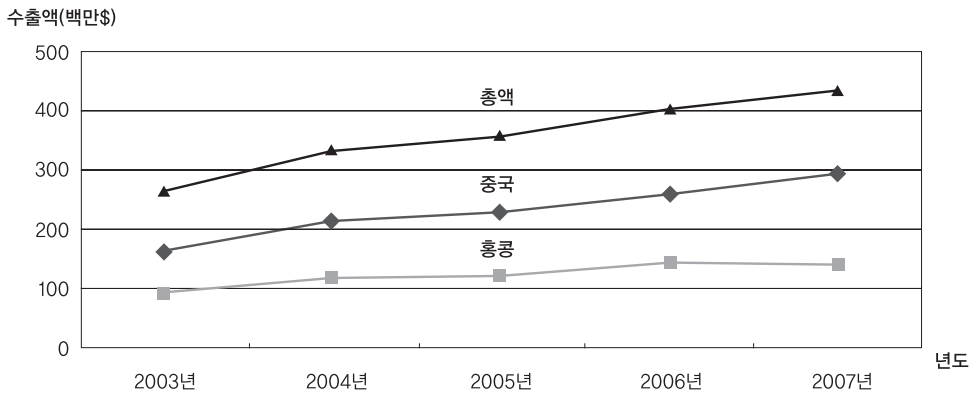
그러나 우리나라의 대중국 농식품 수출은 2007년말 기준으로 수출액(홍콩 제외)은 2억 9천만달러, 수출물량은 23만 2천톤으로 중국의 전체 농산물 수입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금액기준으로 0.7%에 불과한 실정이다. 중국의 경제성장에 따른 농산물 수입 증가속도를 감안하면 우리나라의 대중국 농산물 수출실적은 지극히 미흡한 수준이라 할 수 있다.

비록 중국의 입장에서는 우리나라로부터 수입하는 농식품 비중이 낮지만 우리의 입장에서는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은 큰 편이다. 중국(홍콩 제외)이 우리나라의 농식품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2007년의 경우 11.6%에 이르고 있다.

대중국 농식품 수출액은 2003년 265백만달러(중국 166백만달러, 홍콩 99백만달러)에서 2007년 437백만달러(중국 295백만달러, 홍콩 142백만달러)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2007년의 경우 홍콩에 대한 수출은 감소하였으나 중국 본토에 대한 수출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면서 수출증가세를 이어가고 있다.

〈그림 5-2〉 대중국 수출액 변화 추이(2003~2007)



농식품의 대중국 수출에 있어 신선농식품과 가공식품의 비중은 2007년 금액기준으로 각각 22.9%와 77.1%(우리나라 전체 농식품 수출은 각각 23.6%와 76.4%)로 가공품이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신선농식품의 수출에 있어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임산물(특히 밤)과 화훼류로 2007년 수출액 기준으로 각각 34.5%와 34.0%를 차지하고 있으며, 과실류의 수출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면서 17.0%를 차지하고 있다. 그러나 과실류, 화훼류, 돼지고기를 제외하고는 수출증가세가 둔화 또는 감소하고 있는 상황으로 김치의 경우 수출이 지속적인 하락세를 면치 못하고 있다.

가공품의 경우도 수출이 매년 증가하고 있는데, 특히 당류의 수출이 매년 크게 증가하고 있다. 반면 목재류의 경우는 2004년을 기점으로 하락세가 완전한 상황이다.

〈표 5-18〉 부류별 대중국 농산물 수출현황(2003~2007)

단위: 천달러, %

품 목	2003	2004	2005	2006	2007
신선농식품	41,376	43,055	59,425	59,084	67,537
채소	4,240	5,828	8,096	8,761	5,450
김치	188	63	50	27	11
인삼	3,108	5,011	4,751	7,173	3,568
화훼	10,030	8,018	16,033	10,298	23,298
과실	1,667	2,422	3,906	6,015	11,456
돼지고기	12	0	201	419	754
가금육	206	0	188	3	23
임산물	21,925	21,713	26,200	26,388	22,977
- 밤	21,627	21,322	20,720	19,380	16,659
가공농식품	124,707	170,598	171,740	200,372	227,057
가공식품	97,670	133,337	157,440	189,050	219,635
- 과자류	12,513	25,095	40,966	38,543	38,617
- 당류	24,316	30,216	37,110	51,978	54,394
목재류	27,037	37,261	14,300	11,322	7,422
합 계	166,083	213,653	231,165	259,456	294,594

자료: 농수산물유통공사

홍콩에 대한 수출은 매년 지속적으로 늘어나다가 2007년 가공 농식품의 수출이 감소하면서 하락세로 돌아섰다.

신선농식품의 경우 인삼에 대한 비중이 매우 높게 나타나는데, 2007년 전체 신선농식품 수출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60.6%로 절대 다수를 차지하고 있고, 김치의 경우는 중국 본토보다 훨씬 많이 수출되고 있다.

가공품의 경우는 당류의 수출비중이 높고 다음으로 주류, 과자류 순으로 많이 수출되고 있다.

〈표 5-19〉 부류별 대홍콩 농산물 수출현황(2003~2007)

단위: 천달러

품 목	2003	2004	2005	2006	2007
신선농식품	22,126	35,812	34,106	34,328	34,855
채소	960	3,801	4,651	6,301	4,014
김치	540	665	798	779	1,162
인삼	14,245	25,892	21,780	19,799	21,134
화훼	1,003	27	45	95	149
과실	2,830	2,997	3,623	3,956	6,415
돼지고기	-	-	1	49	209
가금육	784	342	1,441	1,690	549
임산물	2,289	2,088	1,767	1,659	1,223
가공농식품	75,489	83,454	89,635	111,855	107,555
가공식품	73,979	82,342	89,134	111,364	107,132
- 당류	28,365	28,793	33,695	45,804	44,140
- 주류	16,679	18,540	18,286	21,950	20,407
- 과자류	10,318	11,548	12,026	10,941	11,679
목재류	1,510	1,112	501	491	423
합 계	166,083	213,653	231,165	259,456	294,594

자료: 농수산물유통공사

중국(홍콩 제외)에 대한 연도별 수출액 상위 20개 품목을 살펴보면, 2004년 이후 연도별로 큰 변동없이 같은 품목들이 상위에 계속 위치해 있다. 연도별 특색이라면 2005년의 된장과 2007년의 간장, 채소종자 정도가 새롭게 상위 순위에 위치한 정도이다.

2004년부터 2007년까지 4년 연속으로 대중국 농식품 수출에서 1위를 차지한 품목은 자당(설탕)이고, 2007년을 제외하고는 밤이 그 뒤를 잇고 있다. 그 외 난(서양란), 비스킷류, 라면, 필터담배 등이 지속적으로 수출 상위품목에 위치해 있다.

대중국 상위 수출품목들의 상당수가 수입농산물에 의존하는 가공식품(과자류, 면류, 주류, 커피 등)이 주류를 이루고 있어 국내 농산물과의 연계는 부족한 편이다. 다만 밤(밤의 문제점은 다음 장에 설명), 난, 홍삼 정도가 우리 농업과 직접적인 연계를 가지는 수출품이라고 할 수 있다.

〈표 5-20〉 연도별 대중국 농식품 수출액 상위 20개 품목(2004~2007)

순위	2004	2005	2006	2007
1	자당	자당	자당	자당
2	밤	밤	밤	라면
3	비스킷류	비스킷류	라면	난초
4	라면	난초	비스킷류	밤
5	난초	라면	난초	밀크대용조제품
6	필터담배	껌	곡류제조품	비스킷류
7	새털	곡류제조품	면류(라면제외)	곡류제조품
8	홍삼(본삼)	필터담배	밀크대용조제품	일반음료
9	인스턴트 커피	새털	홍삼(본삼)	사탕
10	껌	커피조제품	베이커리	제품필터담배
11	흡연용 담배	인스턴트 커피	새털	베이커리 제품
12	소스류	홍삼(본삼)	사탕	소주
13	혼합조미료	사탕	과일쥬스	새털
14	사탕	된장	필터담배	소스류
15	밀크대용조제품	밀크대용조제품	인스턴트 커피	과즙음료
16	소스	채소종자	과즙음료	면류(라면제외)
17	스카치 위스키	과즙음료	설탕절임식물	인스턴트 커피
18	커피조제품	소주	소주	스카치 위스키
19	베이커리	제품면류(라면제외)	소스류	간장
20	밀가루	설탕절임식물	대두(에폭시화)	채소종자

자료: 관세청 수출입통관자료, 품목분류는 HSK 기준

2.3. 주요 품목별 수출현황

2.3.1 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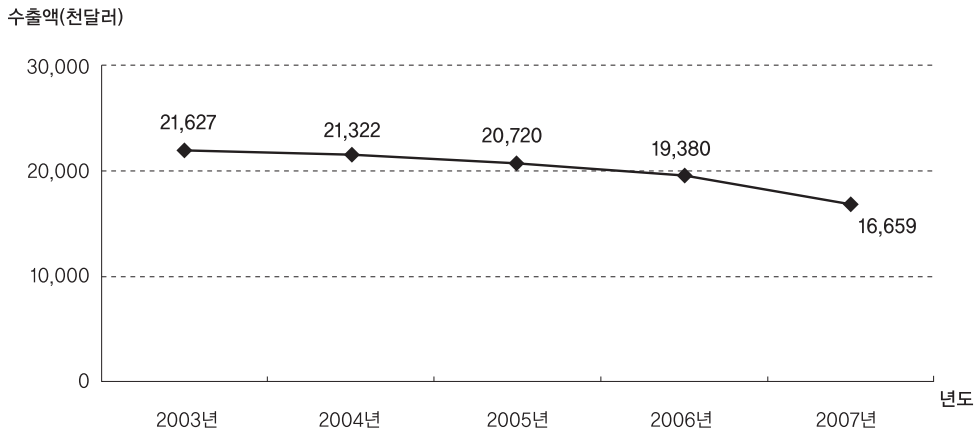
밤은 중국으로 수출하는 신선 농식품 중 최대 수출품목이다. 2007년 16.7백만달러를 중국으로 수출하여 대중국 신선농식품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4.7%에 이른다.

중국이 세계 최대의 밤 생산국임에도 한국으로부터 밤이 수입되고 있는 이유는, 한국 기업들이 일본 수출을 위해 탈피 등의 가공공장(간밤 등을 생산)을 중국에 두고 있기 때문이며, 중국으로 보내진 밤들은 중국 내수시장에 판매되지 않고 전량 일본으로 수출되고 있다. 따라서 중국으로 수출되는 밤은 중국 내수용으로 소비되는 것이 아니므로 대

중국 수출품에 포함시키기에는 다소 무리가 따른다.

중국산 밤을 일본 수출용으로 사용하지 않는 이유는 아직은 중국산 밤의 품질이 낮아 일본의 요구수준을 맞추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그러나 최근 산동성을 중심으로 한국 밤 품종의 생산이 이루어지면서 중국으로의 수출량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그림 5-3〉 연도별 대중국 밤 수출현황



주: 홍콩제외

2.3.2 화훼류(난)

화훼류 수출은 2006년 큰 폭의 감소세 이후 2007년 23.3백만달러로 다시 회복세를 보였다. 특히 중국으로 수출되는 화훼류는 서양난으로 밤과 더불어 중국으로 많이 수출되고 있는 대표적인 농산물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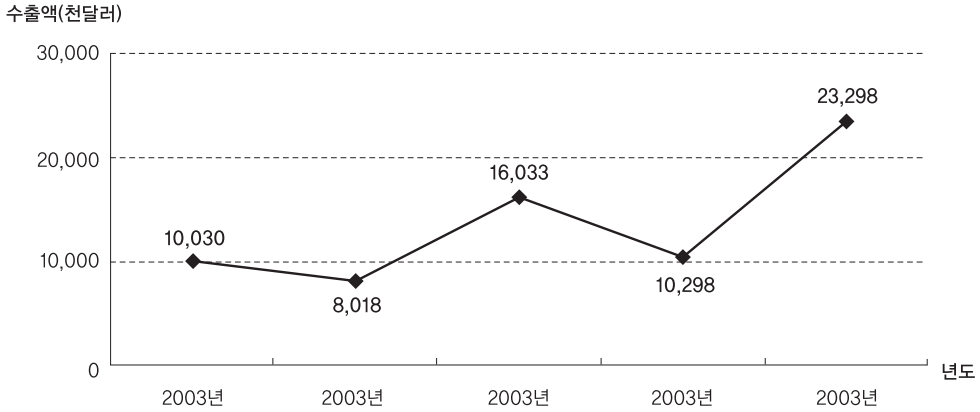
중국인들은 난초·연꽃·국화·매화를 각각 순서대로 춘하추동 4계절의 명화로 인식하고 있어 난을 춘절에 선물용으로 많이 소비하고 있다.

최근 중국에서 인기를 얻고 있는 수출 난은 심비디움으로 우리 농산물 중 중국에서 고급품의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 대표적인 농산물이다. 심비디움은 상품화까지 4년의 기간이 걸리는데다 높은 기술력을 필요로 하는 품종이어서 현재까지 우리나라가 중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대표적인 품목이다.

그러나 한국 업체의 중국현지 생산 확대, 중국 생산농가의 증가 및 기술축적에 따라

한국의 대중국 난 수출은 장기적으로 어려움이 예상된다.

〈그림 5-4〉 연도별 대중국 화훼류 수출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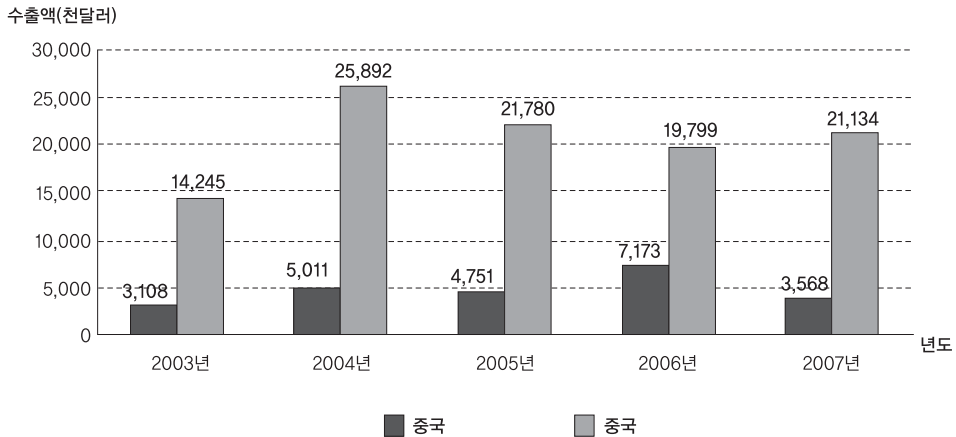


주: 홍콩제외

2.3.3 인삼

우리나라의 대중국(홍콩 포함) 인삼 수출의 절대 다수는 홍삼이다. 홍삼은 본삼 외에도 엑기스, 가루, 타블렛 등 다양한 가공형태로 수출되고 있으나 대부분의 수출품이 홍삼 본삼에 의존하고 있다.

〈그림 5-5〉 연도별 대중국 인삼 수출현황



홍콩이 세계 인삼시장의 집산지 역할을 하고 있어 우리의 인삼 수출도 중국 본토보다는 홍콩으로 많은 물량이 수출되고 있다. 2007년 홍콩으로 수출된 인삼은 21.1백만달러이고 중국 본토로 수출된 것은 3.6백만달러에 불과하다.

2.3.4 김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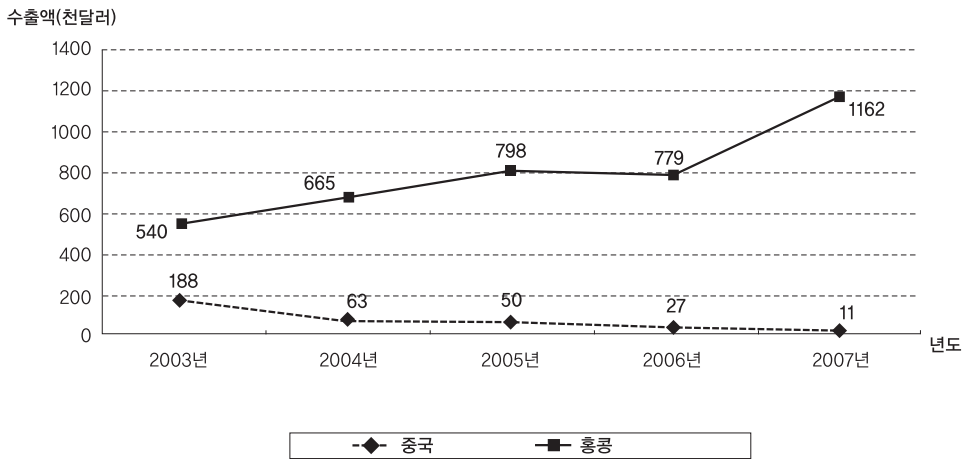
우리의 대표적인 식품인 김치는 2007년 전세계에 75백만달러가 수출되었는데 이 중 홍콩을 포함한 대중국 수출비중은 1.6%에 불과한 1.2백만달러가 수출되었다. 특히 중국 본토에 대한 수출은 매년 감소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수출액 자체도 극히 미미한 수준으로 2007년 11천달러가 수출되었을 뿐이다.

국내 김치관련 기업, 중국진출 교민, 조선족 기업가들이 중국의 북경과 산둥성을 중심으로 김치 사업에 진출함에 따라, 한국산 김치 수출품에 대한 수요를 빠르게 대체하였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반면 홍콩으로의 수출은 매년 증가 추세에 있는데 특히 2007년에는 수출액이 큰 폭으로 상승하여 116만달러가 수출되었다. 요식업체로의 납품 증가와 항공사 기내식 채택에 따른 수요증가로 수출 증가세가 지속되고 있다.

홍콩을 포함한 대중국 인삼 수출액은 2004년 30.9백만달러를 정점으로 매년 조금씩 하락하고 있는데 전체 인삼 수출액에서의 수출비중도 2004년 34.7%에서 2007년에는

〈그림 5-6〉 연도별 대중국 김치 수출현황



26.9%로 하락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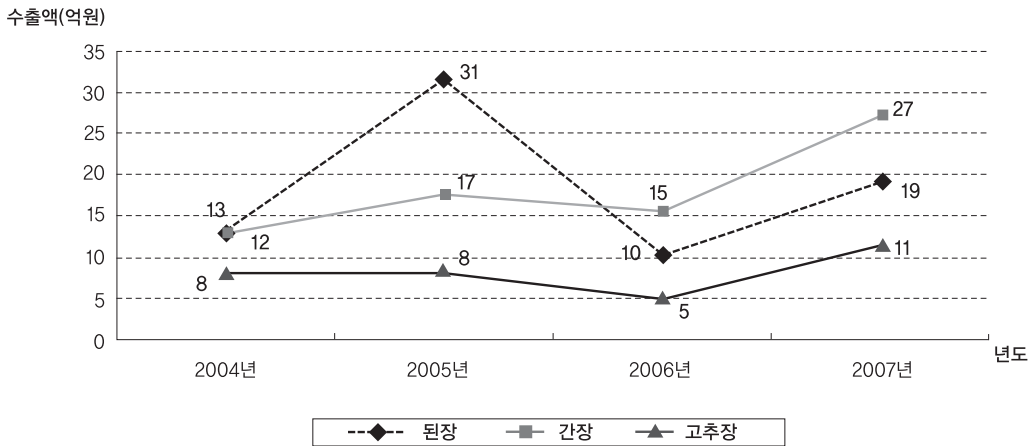
2.3.5 장류

장류(된장, 고추장, 간장)는 2007년 기준으로 57억원이 중국으로 수출되었다. 가장 많이 수출된 것은 간장으로 27억원이 수출되었고, 그 다음으로 된장 19억원, 고추장 11억원의 순이다. 장류의 대중국 수출비중은 전세계 수출액 31.9백만달러의 17.9%(1달러=1,000원 기준)를 차지하고 있다.

장류의 수출은 2006년 큰 폭으로 감소하게 되는데, 2005년 10월에 있었던 한·중간 김치 분쟁에 대한 보복으로 중국이 한국산 고추장에 기생충 발견을 핑계로 수입을 중단하면서 타격을 받았다. 하지만 2007년에는 수출이 다시 증가세로 돌아섰다.

중국의 고소득층이 증가하면서 건강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한국 음식을 건강식으로 인식하는 인구가 증가함에 따라 중국으로의 수출이 조금씩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림 5-7〉 연도별 대중국 장류 수출현황



자료 : 관세청 수출입통관정보, 홍콩 제외

2.4. 대중국 농식품 수출상의 문제점

2.4.1 국내 농업과의 연계 부족

대부분의 주요 수출 품목이 외국에서 수입한 설탕원료, 밀가루, 커피 등을 가공한 수출품이어서 국내 농업과의 동반 발전이 힘든 농식품 수출구조를 가지고 있다.

2007년의 예를 들면 수출액 상위 20개 품목 중 난, 간장, 채소종자를 제외한 자당, 라면, 비스킷류, 사탕, 인스턴트 커피, 스카치 위스키 등 대부분 품목이 외국 농산물 및 원료를 기반으로 하는 상품임을 알 수 있다.

또한 중국농업 기술의 발전과 저렴한 생산비용으로 인해 한국에서 진출한 농기업의 원료 구매가 대부분 현지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따라서 한국 식품가공업체의 중국진출과 우리 농산물을 원부자재로 활용하는 연계가 미흡한 실정이다.

2.4.2 한국 음식에 대한 이미지 제고 미흡

중국인들에게 한국의 음식 문화를 다양하고 체계적으로 전달하지 못하여 한국 음식 및 농산물에 대한 차별성을 명확히 인식시키지 못하고 있다. 이는 우리 농식품의 중국 내수시장 진출 및 확산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 이에 따라 우리의 농식품 수출은 중국내 교민을 위주로 한 수출에 머물고 있는 실정이다.

중국내의 한류열풍(특히 대장금 방영)이라는 호재를 단순히 김치, 인삼 등 특정 농식품에 국한하여 홍보함으로써 우리나라 음식 문화 전반을 소개하고 중국인들의 한국 농산물 및 음식에 대한 선호를 개선하는데 크게 미흡하였다.

일본의 농식품은 고품질 제품임을 인식시키면서, 가격 수준이 상당히 높은 사과, 쌀, 장류 등을 수출하고 있는 일본의 수출사례를 타산지석으로 삼을 필요가 있다.

2.4.3 새로운 수요 창출을 위한 품목 개발 부진

중국의 농식품 수입이 급증하고 있는 상황에서도 한국의 대중국 농식품 수출은 크게 늘지 않고 주요 수출 품목의 변동이 적으며, 소주 등이 여전히 상위 수출품목에 자리하고 있다. 이는 우리의 농식품 수출이 중국에 진출한 우리 교민들을 대상으로 한 소비에 머물고 있음을 의미한다.

중국 소비자의 주류에 대한 기호가 보다 낮은 도수의 술을 선호하는 방향으로 전환하고 있다. 이같은 흐름을 파악한 일본은 다양한 청주 및 증류식 소주의 대중국 수출을 확대하고 있다는 점을 눈여겨 볼 필요가 있다.

한국 농식품에 대한 중국인들의 새로운 수요를 창출하기 위해서는 기존 품목의 진출과는 별개로, 새로운 수요에 대응하는 신상품 개발에 주력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3. 대중국 농식품분야 투자현황

3.1. 대중국 투자 현황

우리나라 대중국 투자의 시초는 서울 올림픽과 북경 아시안게임 등을 계기로 양국간 인적교류가 이루어진 1980년대 말로 거슬러 올라간다. 이 시기는 중국과 수교 전으로 홍콩, 일본 등 제3국을 경유한 우회투자 방식을 이용하여 중국에 진출하기 시작하였다.

이 기간에는 농산물 가공, 의류, 가죽 및 피혁제품 등 노동집약적인 경공업과 한국 내에서 생산단가를 맞출 수 없는 일부 전자부품 업종을 중심으로 중국에 진출하였다.

1992년 8월 한·중 수교를 계기로 우리나라의 대중국 투자는 크게 증가하게 된다. 이 시기는 중국이 전면적인 시장개방을 실시함으로써 외국인투자가 급속히 확대되는 시기와 궤를 같이하고 있다.

1990년대 중반 이후부터는 전기·전자 분야 등 대기업들의 투자가 본격화되면서 투자업종이 다양화되었으며, 부동산, 요식업 등 비제조업 분야에 대한 투자도 증가하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대중국 투자의 붂물은 1997년말 발생한 우리나라의 외환위기로 인해 크게 감소하게 된다. 그러나 이 시기에도 국내 중소기업의 중국에 대한 투자는 지속되었는데, 한국 내의 경기불안과 경영애로 등에 따른 생산기지이전 투자의 성격을 지니고 있었다.

이 시기 투자의 특징은 중국의 저임금을 목표로 산업을 이전하는 의류, 섬유 등 노동집약적인 중소기업의 투자가 주종을 이루었다.

위축되어 있던 중국투자는 2001년 11월 중국의 WTO 가입과 IT산업을 중심으로 한

국경제가 안정을 찾기 시작하면서 다시 크게 증가하기 시작한다. 중국이 WTO 가입과 더불어 외국인 투자기업의 생산품에 대해 내수시장을 개방하는 조치를 취하면서 중국의 내수시장을 목표로 하는 투자가 크게 증가하기 시작하였다. 전자통신, 자동차 및 철강 분야, 그리고 서비스분야에 대한 투자가 활발히 이루어졌다.

중국은 우리나라의 실질적인 최대 투자대상국가로서 2007년의 경우 직접투자액이 52억 3,100만 달러이고, 전체 해외직접투자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5.7%에 이르고 있다. 그러나 중국에 대한 투자액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우리나라의 해외투자 대상국이 다변화되면서 2005년 이후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은 감소 추세에 있다.

〈표 5-21〉 대중국 해외직접투자 현황

단위: 백만달러, %

연 도	해외직접투자 총계(A)	대중국 해외직접투자(B)	B/A
1990	963	16	1.7
1995	3,102	842	27.1
2000	5,069	711	14.0
2005	6,792	2,773	40.8
2006	10,958	3,349	30.6
2007	20,325	5,231	25.7

자료: 한국수출입은행

대중국 투자를 지역별로 살펴보면, 2008년 3월말까지 진행된 우리나라의 대중국 투자의 83.3%가 6개 지역(산둥성, 강소성, 요녕성, 북경시, 천진시, 상해시)에 집중되고 있다. 투자가 집중된 지역들은 우리나라와 지리적으로 근접하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우리나라와 가장 근접한 산둥성에 57억 3천만달러로 가장 많은 투자가 이루어졌으며 다음으로 강소성 53억 3천만달러, 북경시에 31억 7천만달러의 순으로 투자가 이루어졌다.

투자가 집중된 6개 지역의 법인당 투자금액을 비교해 보면, 강소성이 법인당 가장 많은 342만달러가 투자되었고 다음으로 북경시 216만달러, 상해시 136만달러의 순으로 투자되었다. 전체 투자금액이 가장 많은 산둥성은 법인당 87만달러, 요녕성은 78만달러로 이 두 지역에 다수의 소규모 투자가 집중되었음을 알 수 있다.

〈표 5-22〉 지역별 대중국 투자 누적액 현황(2008. 3)

단위: 백만달러, %

성·시	투 자 금 액		신규법인수 누계		누계법인당 투자금액 (A/B)
	금액(A)	비중	건수(B)	비중	
산동성	5,730	23.8	6,598	35.5	0.87
강소성	5,326	22.1	1,556	8.4	3.42
북경시	3,171	13.2	1,468	7.9	2.16
천진시	2,142	8.9	1,595	8.6	1.34
요녕성	1,982	8.2	2,543	13.7	0.78
상해시	1,692	7.0	1,242	6.7	1.36
광둥성	999	4.2	584	3.1	1.71
절강성	841	3.5	634	3.4	1.33
하북성	386	1.6	387	2.1	1.00
길림성	352	1.5	973	5.2	0.36
호남성	311	1.3	40	0.2	7.77
흑룡강성	282	1.2	374	2.0	0.75
자치구 전체	163	0.7	75	0.4	2.18
강서성	116	0.5	34	0.2	3.42
북건성	108	0.5	112	0.6	0.97
사천성	93	0.4	80	0.4	1.16
호북성	78	0.3	53	0.3	1.48
안휘성	75	0.3	55	0.3	1.36
해남성	60	0.2	34	0.2	1.76
산서성	49	0.2	25	0.1	1.96
하남성	40	0.2	47	0.3	0.85
감숙성	22	0.1	15	0.1	1.48
섬서성	13	0.1	25	0.1	0.50
운남성	12	0.0	30	0.2	0.39
귀주성	7	0.0	8	0.0	0.93
청해성	1	0.0	3	0.0	0.47
합계	24,053	100.0	18,590	100.0	

자료: 한국수출입은행

3.2. 농식품분야 투자현황

농식품 분야의 중국투자는 2007년까지 약 10억달러가 투자되었는데, 이 중 농림업 분야가 8,100만달러(7.9%), 식품제조업은 7억 7천만달러(75.7%), 도소매·음식점업의 서비스 분야가 1억달러로 전체의 10.2%를 차지하였다.

〈표 5-23〉 대중국 농식품 분야 직접투자 누적액 현황(2007)

단위: 천달러, %

구 분	투 자 금 액	비 중
농업	73,717	7.2
임업	7,510	0.7
음식료제조업	774,898	75.7
도매업	23,785	2.3
소매업	40,279	3.9
음식점업	103,989	10.2
합 계	1,024,178	100.0

자료: 한국수출입은행

〈표 5-24〉 연도별 대중국 농식품 분야 직접투자 현황(2003~2007)

단위: 천달러

구 분	2003	2004	2005	2006	2007
농업	4,541	9,400	8,790	10,693	19,196
임업	534	835	269	1,572	175
음식료제조업	40,627	93,880	140,411	129,351	98,429
도매업	53	17	480	5,601	17,634
소매업	-	-	560	5,053	35,185
음식점업	5,311	14,521	17,570	15,999	17,216
합 계	51,066	118,653	168,080	168,269	187,835

자료: 한국수출입은행

연도별 투자내역을 살펴보면, 2003년 5,100만달러에서 2007년 말에는 1억 8,784만달러로 3배이상 증가하였으며, 매년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 농업부문과 도소매업에 대한 투자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중국이 서비스업을 중심으로 하는 다양한 개방화조치를 발표하여 농식품 투

자가 크게 증가한 2005년의 상승세를 이어가지 못하고 2006년과 2007년의 투자 증가 속도는 다소 둔화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3.2.1 농림업

농식품 분야 대중국 투자를 업종별로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농업분야의 경우 특정 분야에 투자가 집중되는 경향을 가지고 있다. 즉 전체 70% 이상의 투자가 식량작물 재배에 집중되고 있고 과일, 채소, 화훼 등의 분야에 대한 투자는 낮은 수준이다. 다만 최근 과일재배에 대한 투자가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고 2006년부터는 다양한 농업분야로 투자가 확산되고 있다.

축산업의 경우 투자의 대부분은 양돈분야에 집중되고 있고, 소사육의 경우 농업분야 투자액의 1%에도 미치지 못하는 저조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양돈업의 경우 투자의 대부분은 산동성 청도시에 집중되고 있다. 그러나 2006년 이후 소사육 투자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향후 중국 내수시장 환경변화에 따라 투자 확대가 본격화할 가능성

〈표 5-25〉 농림업 투자 누적액 현황(2007)

단위: 천달러, %

구분	업종	투자금액	비중
농업	식량작물재배업	53,545	72.6
	과실작물재배업	2,472	3.4
	채소작물재배업	868	1.2
	화훼작물재배업	2,126	2.9
	양돈업	7,144	9.7
	육우사육업	598	0.8
	기타 축산업	865	1.2
	기타	6,099	8.3
	소계	73,717	100.00
임업	벌목업	5,813	77.40
	육림업	125	1.66
	임업관련서비스업	1,403	18.68
	임업용종묘생산업	169	2.25
	소계	7,510	100.00
합계		81,227	

자료: 한국수출입은행

도 크다.

임업분야는 현재까지 투자금액 누계가 750만달러로 농식품 분야 전체에서 1%에도 미치지 못하는 미미한 수준의 투자에 그치고 있으며, 또한 대부분의 투자는 별목업에 집중되고 있다. 그러나 최근 기존 별목업 위주의 투자에서 육림업과 임업용 종묘생산업, 임업관련 서비스업으로 투자 대상이 다양화되고 있다.

농림업 분야의 세부업종별 연차별 투자현황을 살펴보면, 2003년 5백만달러에서 2007년 2천만달러로 4배가 증가하였다. 특히 과실작물재배업에 대한 투자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고, 화훼와 양돈업에 대한 투자도 최근 확대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농업 및 임업에 대한 지역별 투자현황을 살펴보면, 산동성에 대한 투자가 두드러진다. 2007년을 제외하고 연간 농림업 투자액의 50% 이상이 산동성에 집중되고 있다.

2007년의 경우 산동성의 농업투자액은 878만달러로 전체 투자금액의 44.7%를 차지하였고, 북경시에 대한 세농종묘의 4,800백만달러 투자가 그 뒤를 잇고 있다.

한편, 일반적인 대중국 투자와 달리 농림업 투자에서는 길림성, 운남성, 흑룡강성에

〈표 5-26〉 농림업 연차별 투자액 현황(2003~2007)

단위: 천달러

구분	세부업종	2003	2004	2005	2006	2007
농업	식량작물재배업	4,210	9,140	7,292	2,631	9,245
	과실작물재배업	331	260	180	413	1,288
	채소작물재배업				70	798
	화훼작물재배업			18	1,426	682
	양돈업			490	2,480	4,174
	육우사육업				80	518
	기타 축산업			407	447	10
	기타			403	3,146	2,481
	소 계	4,541	9,400	8,790	10,693	19,196
임업	별목업	534	835	269		50
	육림업					125
	임업관련서비스업				1403	
	임업용종묘생산업				169	
	소 계	534	835	269	1,572	175
합 계		5,075	10,235	9,059	12,265	19,371

자료: 한국수출입은행

대한 투자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표 5-27〉 지역별 농림업 직접투자액 현황(2003~2007)

단위: 천달러

성, 시	2003	2004	2005	2006	2007
산동성	2,952	7,160	5,619	6,851	8,681
허북성	-	186	-	451	264
길림성	329	216	1,378	1,279	412
북건성	-	700	87	130	100
강소성	368	150	20	75	1,798
해남성	525	600	-	-	-
요녕성	547	449	383	2,383	1,664
북경시	244	147	681	28	4,800
운남성	110	206	323	1,007	838
상해시	-	70	55	-	-
천진시	-	60	-	-	-
흑룡강성	-	-	324	31	613
강서성	-	-	144	-	-
자치구 전체	-	-	45	-	-
안휘성	-	-	-	31	-
사천성	-	-	-	-	200
합계	5,075	9,944	9,059	12,266	19,370

자료: 한국수출입은행

3.2.2 식품제조업

식품제조업의 경우 농식품 전체 투자의 76%인 7억 7천만달러가 투자되어 가장 많은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는 분야이다. 대부분의 투자는 조미료제조업, 육류가공업, 곡물도정업, 낙농제품제조업 등 4가지 업종에 집중되어 있다.

식품제조업의 경우 2005년 1억 4천만달러를 기점으로 투자금액이 조금씩 감소하여 2007년말 기준으로 약 1억달러 수준의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다.

육류 가공업에 대한 투자가 큰 폭으로 감소하였고, 낙농제품 관련 투자도 부진을 보이고 있으나, 김치 및 두부관련 업종에 대한 투자는 절대적인 금액이 많지는 않으나 2007년 큰 폭의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표 5-28〉 식품제조업 투자 누적액 현황(2007)

단위: 천달러, %

구분	업종	투자금액	비중
음식료제조업	곡물 도정업	111,086	14.3
	비알콜성음료 제조업	45,915	5.9
	육류 가공업	126,301	16.3
	김치 및 채소절임식품 제조업	7,329	1.0
	두부 및 유사식품 제조업	6,028	0.8
	사료 제조업	15,081	2.0
	낙농제품 제조업	80,142	10.3
	전분 및 전분제품 제조업	17,383	2.2
	조미료 제조업	313,552	40.5
	코코아 제품 및 설탕과자 제조업	25,378	3.3
	기타	26,703	3.4
합계		774,898	100.00

자료: 한국수출입은행

〈표 5-29〉 식품제조업 연차별 투자현황(2003~2007)

단위: 천달러

구분	세부업종	2003	2004	2005	2006	2007
음식료 제조업	곡물도정업	7,376	26,713	16,708	20,042	13,025
	비알콜성음료 제조업			27,754	5,948	12,214
	육류 가공업	16,130	29,028	21,319	9,044	1,970
	김치 및 채소절임식품 제조업			120	1,698	5,511
	두부 및 유사식품 제조업				138	5,890
	사료 제조업			2,100	8,653	4,328
	낙농제품 제조업	125	11,303	5,850	7,094	3,791
	전분 및 전분제품 제조업				14,013	3,020
	조미료 제조업	16,526	26,656	64,229	29,863	28,912
	코코아 제품 및 설탕과자 제조업				21,000	4,378
	기타	470	180	2,331	11,858	15,320
합계			40,627	93,880	140,411	29,351

자료: 한국수출입은행

3.2.3 도소매업

도소매업의 경우 중국이 WTO 가입시 약속한 외국인에 대한 유통시장 개방 약속에 따라, 2004년 12월 11일 외국인투자 유통기업에 대한 각종 제한을 폐지하고 시장을 대폭 개방하였다.

〈표 5-30〉 도소매업 투자 누적액 현황(2007)

단위: 천달러, %

구분	업종	투자금액	비중
도매업	곡물도매업	250	1.05
	과실및채소도매업	2,049	8.61
	기타가공식품도매업	3,093	13.00
	기타비가공식품도매업	472	1.98
	기타산업용농산물및산동물도매업	1,782	7.49
	기타상품중개업	1,401	5.89
	낙농품도매업	77	0.32
	농업용기계및장비도매업	130	0.55
	비알콜음료도매업	9,994	42.02
	빵및과자도매업	460	1.93
	사료도매업	100	0.42
	산업용농축산물및산동물중개업	424	1.78
	상품종합중개업	2,317	9.74
	음·식료품및담배중개업	200	0.84
	주류도매업	871	3.66
	화초및산식물도매업	165	0.69
소계		23,785	100.00
소매업	건강보조식품소매업	4,993	12.40
	과실및채소소매업	479	1.19
	그외기타종합소매업	798	1.98
	기타대형종합소매업	31,000	76.96
	기타식품소매업	1,385	3.44
	슈퍼마켓	1,170	2.90
	애완용동물및관련용품소매업	26	0.06
	육류소매업	43	0.11
	음료소매업	385	0.96
	소계		40,279
합계			64,064

자료: 한국수출입은행

〈표 5-31〉 도소매업 연차별 투자현황(2003~2007)

단위: 천달러

구분	세부업종	2003	2004	2005	2006	2007
도매업	곡물도매업			70	125	55
	과실및채소도매업				691	1,358
	기타가공식품도매업	53	17	250	1,312	1,461
	기타비가공식품도매업				200	272
	기타산업용농산물및산동물도매업			160	1,502	120
	기타상품중개업				432	969
	낙농품도매업				77	
	농업용기계및장비도매업				27	103
	비알콜음료도매업				94	9,900
	빵및과자도매업				200	260
	사료도매업					100
	산업용농축산물및산동물중개업					424
	상품종합중개업				170	2,147
	음·식료품및담배중개업				150	50
	주류도매업				621	250
	화초및산식물도매업					165
	소계	53	17	480	5,601	17,634
소매업	건강보조식품소매업				3,441	1,551
	과실및채소소매업				270	209
	그외기타종합소매업				495	303
	기타대형종합소매업					31,000
	기타식품소매업			460	507	418
	기타음·식료품위주종합소매업					-
	수산물소매업					520
	슈퍼마켓			30	180	960
	애완용동물및관련용품소매업					26
	육류소매업					43
	음료소매업			70	160	155
	소계			560	5,053	35,185
	합계	53	17	1,040	10,654	52,819

자료: 한국수출입은행

이에 따라 우리나라의 농식품 도소매업도 2005년부터 본격적인 진출이 이루어지는데, 2007년부터는 대형종합소매업을 중심으로 큰 폭의 투자가 이루어졌다.

도매업의 경우 소매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투자금액이 작지만 매년 큰폭으로 증가하고 있다. 특히 2007년 롯데(중국)투자유한공사의 설립에 따라 큰 폭으로 상승한 비알콜음료도매업, 산동성 청도시에 집중된 과일 및 채소도매업, 상품종합중개업 등의 업종에서 큰 폭의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농식품 관련 도매업 중 음료도매업에 전체 투자의 42%인 1천만달러가 투자되었고, 다음으로 가공식품도매업이 13%, 상품종합중개업 10%, 과일 및 채소도매업이 9%로 그 뒤를 잇고 있다.

소매업의 경우 도매업의 2배 수준인 4,000만달러가 투자되었는데 소매업 전체 투자의 77%인 3,100만달러가 2007년 대형종합소매업에 집중되었다. 신세계의 북경, 상해, 강소성 무석(無錫)시에 대한 투자와 산동성 청도시 롯데마트에 대한 투자가 이루어지면서 투자액이 증가하였다.

3.2.4 음식점업

농식품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서비스 산업인 음식점업의 경우 농식품 전체 투자의 10% 수준인 1억달러가 투자되었다. 그러나 이 중 우리 농산물 및 우리 음식과 직접적

〈표 5-32〉 음식점업 투자 누적액 현황(2007)

단위: 천달러, %

구분	업종	투자금액	비중
음식점	업서양음식점업	3,120	3.00
	일반유흥주점업	15	0.01
	일본음식점업	1,514	1.46
	중국음식점업	876	0.84
	피자, 햄버거및치킨전문점	1,387	1.33
	한식점업	2,834	2.73
	기관구내식당업	36	0.03
	그외기타음식점업	2,357	2.27
	기타일반음식점업	90,549	87.08
	제과점업	839	0.81
	찾집	462	0.44
합계		103,989	100.00

자료: 한국수출입은행

관련성이 높은 한식점업의 경우 283만달러 투자로 전체의 2.7% 수준에 머물고 있다.

음식점업의 경우 연차별 투자금액에 있어 뚜렷한 증가세는 나타내지 못하고 있으나, 2007년의 경우 한식점업에 대한 투자가 급격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표 5-33〉 음식점업 연차별 투자현황(2003~2007)

단위: 천달러

구분	세부업종	2003	2004	2005	2006	2007
음식점업	한식점업				435	2,399
	서양음식점업		361	146	980	1,633
	일본음식점업	208	119	290	153	284
	중국음식점업					876
	일반유흥주점업					15
	제과점업				451	388
	찻집				147	315
	피자, 햄버거및치킨전문점			140	944	304
	기관구내식당업					36
	기타일반음식점업	5,103	14,041	16,909	11,766	9,816
	그외기타음식점업			85	1,123	1,150
합계		5,311	14,521	17,570	15,999	17,216

자료: 한국수출입은행

3.3. 대중국 농식품분야 투자의 문제점

3.3.1 한정된 투자대상

2007년부터 다양화 되기는 하였으나 특정 분야에 투자가 집중되는 경향이 높다. 농림업의 경우 대부분의 투자가 식량작물, 양돈, 벌목업에 집중되고 있고, 농식품 제조업도 4개 분야에 투자가 집중되는 등 투자 대상이 한정된 분야에 몰리고 있다.

이는 국내 진출기업 및 기업인간의 경쟁을 심화시켜 중국내에서의 투자성공 가능성을 떨어뜨리는 요인이 되고 있다.

3.3.2 투자규모의 영세성

농식품 투자의 경우 식품제조업 및 서비스업까지 합친 투자액은 전체 중국 투자액의

20% 수준이지만, 농림업만을 따로 생각하면 전체의 1.5% 로 상당히 낮은 수준이다. 특히 중국은 향후 한국의 식량안보를 위한 중요한 기지로 인식되고 있는 상황에서 농림업에 대한 투자 수준은 매우 낮다고 할 수 있다.

농식품 투자의 기반이 되는 농림업에 대한 투자가 부실하고 영세하여 1차 농림축산물과 2차 가공품간의 투자연계가 부족한 상황이 되고 있다.

제6장. 대중국 수출 및 투자 활성화 방안

대중국(홍콩 포함) 농식품(농수산물 및 가공식품) 수입액은 2003년 24.4억달러에서 2007년 34.5억달러로 증가하였고, 수출액은 같은 기간중 2.7억달러에서 4.4억달러로 증가하였다. 이는 곧 대중국 농식품 교역의 무역적자는 2003년 21.7억달러에서 2007년에는 30.1억달러로 확대되었음을 의미한다.

이같은 농식품 무역적자 규모는 홍콩을 제외한 중국본토만 생각할 경우 22.7억달러에서 31.5억달러로 증가한 것이며, 가공식품을 제외한 신선농식품만을 고려할 경우 24.0억달러에서 33.8억달러로 확대된 것이다. 이같은 추세는 특단의 조치가 없는 한 계속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는 바, 대중국 농식품 무역적자를 줄일 수 있는 대안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특히 대중국 전체 무역수지의 흑자 규모가 2005년 이후 지속적으로 줄고 있어, 농식품 분야의 무역구조개선은 시급한 과제가 아닐 수 없다.

농식품 분야에 대한 투자 역시 일반 제조업 분야에 비해 규모가 작을 뿐만 아니라 투자범위도 지극히 한정적이며, 농림업보다는 식품가공분야에 치중되어 있는 실정이다.

대중국 농식품 교역의 만성적인 적자구조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기 위해서는 우리 농식품의 대중국 수출 활성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함은 물론 현지투자를 통한 간접적인 수출확대 방안을 동시에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본 장에서는 수출 및 투자, 두가지 측면에서 새로운 방향 및 전략, 주요 과제, 수출 및 투자유망 분야에 대해 살펴보기로 한다.

1. 대중국 농식품 수출 및 투자의 SWOT 분석

우리의 시설채소 농업은 채소류의 1인당 소비량이 세계에서 가장 많은 국내시장을 바탕으로 좁은 땅덩어리에서 기술 및 자본 집약적인 농업을 해온 결과 생산성이나 시설 측면에서 세계적인 수준이 되어 있다. 예를 들어 비닐하우스 자재와 재배기술이 해외(미국, 캐나다 등)로 수출되는 수준에 이르렀음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 또한 중국시장에 대한 접근성에 있어 가장 유리한 지리적 우위성으로 인해 신선도 유지 및 저렴한 유통

비용 등의 강점이 있다. 사계절과 주야간의 뚜렷한 기온차이 등은 네덜란드가 부러워할 만큼의 고품질 화훼류 생산을 가능케 한다. 우리의 뛰어난 토양 및 기후조건은 과실의 맛과 향은 물론 인삼 등의 영양성분 측면에서도 우수한 강점을 갖게 한다. 또한 우리 농식품에 대해 대다수의 중국인들은 자국산 농식품에 비해 맛과 향이 뛰어나며 안전성이 높다는 점을 인정하고 있다.

하지만 중국의 낮은 임금 수준 및 저렴한 농지사용료로 인해 우리의 농식품은 가격경쟁력이 낮은 상태에 있다. 여기에 최근 세계적인 원자재가격 상승은 수입원자재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우리 농식품의 가격경쟁력을 더욱 악화시키고 있다. 중국 전역에 산재하여 조선족 동포나 한인들이 운영하고 있는 소규모 한식당은 우리의 식문화에 대해 ‘싸구려’ 또는 ‘그다지 고급음식이 아니다’라는 부정적인 인식을 갖게 한 점이 크다고 판단된다. 또한 넓은 국토와 많은 인구에 따른 중국의 지역별 이질성, 급격한 경제성장에 따른 소득계층의 분화 확대 등을 간과한 채, 소규모 수입 및 수출상에 의존하여 특정 지역만을 대상으로 하거나, 지자체간 경쟁적으로 소규모 물산전 등에 의존하는 홍보 방식 등 체계적이며 조직적이지 못한 수출 및 투자 전략이 약점으로 제기되고 있다.

한편 대중국 농식품 수출에 있어 많은 기회요인도 있다. 최근 우리 경제의 발전과 한류 붐에 따라 중국인들의 한국과 한국의 식문화를 바라보는 시각이 긍정적인 방향으로 크게 바뀌고 있다. 한국의 다양한 음식 및 식재료(중국에 비해 월등히 다양한 채소류, 산채류, 장류, 김치류, 부침개 및 떡류 등)가 건강 및 기능성을 강조하는 추세에 걸맞다는 점을 인정하기 시작한 것으로 판단된다. 280만명에 이르는 재중 한민족 및 다양한 조직들은 우리의 식문화를 알리는 첩병 역할을 담당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중국과 한국 간의 중요한 가교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또한 중국 전체인구의 5%, 약 7천만명에 이르는 고소득 계층의 소비수준은 상상을 초월할 정도인데, 값비싼 유기농 제품 및 수입 식품류, 고급 화훼류, 심지어 고급 한식당 등의 주 고객이 되고 있다. 여기에 앞으로 예상되는 한중간 FTA 체결은 관세인하 및 유리한 투자조건의 조성 등을 통해 우리 가공 식품류의 대중국 수출경쟁력과 농식품분야에 대한 투자분위기를 더욱 제고시킬 것으로 전망된다.

대중국 농식품 수출 및 투자에 있어 몇가지 위협요인도 상존하고 있다. 중국은 재배 및 가공기술 향상을 통해 품질경쟁력 제고에 노력하고 있고, 일본은 우리보다 앞선 품

질경쟁력을 갖고 있어 자칫 우리의 입지가 좁혀질 가능성이 높다. 중국의 농식품 수입선 및 투자선이 일본, 미국, 유럽연합, 호주 등으로 보다 다변화되고 있음은 물론 중국 해관의 통관기능 역시 강화되고 있다. 또한 향후 예상되는 한중간 FTA 체결은 무역장벽을 더욱 낮춰 신선농산물(특히 채소류 및 과일류)의 무역적자를 더욱 확대시킬 것으로 예상된다.

〈그림 6-1〉 대중국 농식품 수출 및 투자의 SWOT 분석



2. 새로운 방향과 전략

대중국 농식품 수출 및 투자 활성화를 위한 새로운 방향은 크게 5가지로 설정할 수 있다.

• 품질경쟁력 제고 및 명확한 목표시장의 설정

- 품질경쟁력을 앞세운 일본산과 가격경쟁력이 높은 중국산 사이에서 우리의 선택은 일본산과의 경쟁에 중점을 두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일본은 과자류, 장류, 주류(청주와 증류식 소주), 심지어는 중국산에 비해 10배 정도가 비싼 사과와 쌀까지 중국의 고소득층을 대상으로 수출하고 있음을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한다.

- 중국은 많은 인구나 넓은 국토면적으로 지역별 이질성 특히 식문화의 차이가 크고, 급격한 경제성장에 따라 계층간 소득격차가 빠르게 확대되고 있으며, 외국 식문화의 유입으로 연령계층별 농식품 수요패턴의 차이가 뚜렷이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지금까지 불특정다수를 대상으로 하는 매스마케팅(mass marketing)에서 벗어나 우리 농식품의 수출대상지역, 소득계층, 연령대별 계층 등을 보다 명확히 하는 타겟마케팅(target marketing)과 틈새시장을 공략하는 니치마케팅(niche marketing)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

- 중국내 충분한 유통망 확보 및 포장의 개선

- 중국 고소득층 소비자들이 우리 농식품에 쉽게 접근케 하는 지름길은 이들이 주로 이용하는 고급 백화점이나 대형유통업체에 우리 상품을 진열시키는 것이다. 소득증가에 따라 대형소매유통매장 등이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는데, 프랑스계(까르푸), 미국계(월마트), 네덜란드계(마크로), 대만계 등이 주종을 이루고 있고 이중 까르푸의 매장수는 170개로 선두를 달리고 있다. 한국계로는 이마트와 농심이 있고, 최근 롯데그룹이 마크로를 인수함과 동시에 6월경에는 북경에 롯데백화점을 개점할 예정으로 있다. 2008년 5월 현재 이마트 매장은 화동지역을 중심으로 11개가 있으나 향후 2014년까지 매장수를 100개로 확대할 계획이다. 따라서 이들 매장에 우리의 농식품을 여하히 많이 입점시킬 것인가가 중요한 관건이 된다.

- 우리 농식품을 중국에 판매하는 또 다른 경로는 수입상-도매상-소규모 소매업체로 이어지는데, 수입상은 조선족이 대부분이나 일부 한인과 한족으로 구성되며 도매상은 대부분 한족이나 극히 일부는 한인으로 구성되어 있다. 지나치게 많은 수의 수입상과 도매상이 존재함으로 인해 과당경쟁으로 거래질서가 문란해지거나 과도한 유통마진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따라서 여하히 유통단계를 줄이고 수입상을 규모화할 것인가가 중요한 과제라 하겠다.

- 국가에 따라 선호하는 색감이나 디자인이 있게 마련인데, 대중국 수출 농식품의 경우 포장 및 외부표시 등이 중국인의 기준에 맞추기보다는 우리의 눈높이에 맞춘 것이 많아 이에 대한 개선이 요구된다.

• 한국 식문화의 전파와 관련한 마케팅 추진

- 특정국가의 식문화는 그 나라의 농식품을 토대로 이루어진 것이라 할 수 있다. 우리의 식문화가 다른 나라에 알려진다는 것은 우리의 농식품에 대한 해외 수요가 확대됨을 의미한다.
- 지금까지 우리의 농식품 수출전략은 우리의 식문화를 알리는데 주력하기 보다는 김치 또는 고추장 등 특정품목을 대상으로 한 것이었다. 이같은 전략을 통해 외국 소비자를 공략하는 방식은 외국인의 시각에서는 이질적인 농식품을 그들의 식문화에 접합시키려는 것이므로 많은 시간이 소요될 뿐만 아니라 이에 수반되는 유무형 노력 역시 낭비적인 요소가 많게 마련이다.
- 세계 어느 나라보다도 다양한 발효식품(김치류, 장류, 젓갈류 등)을 보유하고 있음은 물론 전 세계적인 추세인 건강 및 기능성을 추구하는 식품소비패턴에 걸맞는 우리의 식문화를 제대로 알려나간다면 농식품 수출은 보다 쉽게 확대될 수 있을 것이다.
- 중국인들은 자국 식문화에 대한 자부심이 상당히 강한 민족이므로 자칫 ‘우리 음식이 더 우수하다’는 식으로 접근할 경우에는 오히려 역효과를 초래할 수 있다. 따라서 차별성을 강조하되 중국인의 자존심을 지키며 선택케 하는 간접적이며 우회적인 접근 방식이 바람직할 것이다.

• 재중 한민족 네트워크의 활용

- 3장 및 4장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중국에는 조선족 230만명, 한인 50만명 등 280만명에 이르는 한민족과 다양한 단체 및 기업들이 활동하고 있다. 또한 최근 드라마, 공연 등으로 ‘한류’ 붐이 조성되면서 한국의 역사와 전통, 특히 식문화에 대한 관심을 갖는 중국인들이 늘어나고 있다.
- ‘관계(파시)’를 대단히 중요시하는 중국사회에서 이들은 한국과 중국을 이어주는 소중한 자원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이같은 개인 또는 조직을 대중국 농식품 수출 및 투자에 있어 첨병화하는 지혜가 요구된다.
- 특히 조선족은 직접 대화가 가능한 ‘중국인’이며 중국의 다른 소수민족에 비해 월등히 높은 교육수준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중국 진출시 당면하는 문화적, 언

어적, 체제적 장벽을 극복하는데 훌륭한 지원세력이라 할 수 있다.

• 수출 및 투자정보 지원체계의 재정비

- 지금까지 대중국 농식품 수출에 대해 가격경쟁력만을 근거로 부정적으로 보는 시각이 강했던 것이 사실이다. 농식품분야에 대한 투자 역시 공조직의 도움없이 민간조직만의 독자적인 판단에 의존함으로써 실패하였던 사례가 상당히 빈번하였다. 특히 중국의 법률 내용 및 체제에 대한 정보 및 이해 부족으로 손해를 본 경험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 우리 농식품에 대한 홍보 역시 민간업체 및 지자체가 개별적으로 수행함으로써 효과에 비해 아까운 자원만 낭비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
- 따라서 공조직과 민간조직간의 긴밀한 연계를 통한 보다 효율적인 중국시장 진출 방안의 마련, 효과적인 홍보방식 개발 등이 시급히 요구된다.

3. 분야별 주요 과제

3.1. 품질경쟁력 제고 및 명확한 목표시장의 설정

중국 경제의 지속적인 성장을 바탕으로 중국의 고소득층은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다. 보스턴컨설팅그룹(BCG)에 따르면 2006년 기준 백만장자 가구(자산 총액이 100만 달러를 넘는 가구)는 총 31만 가구로 지난 5년 동안 연평균 20%씩 증가하였다고 한다. 이런 수치는 미국, 일본, 영국, 독일에 이어 세계 다섯 번째 규모이며 중국 경제가 지속적으로 성장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2011년이 되면 백만장자 가구는 60만9000가구에 달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따라서 급증하는 중국내 고소득층을 겨냥한 수출전략 수립을 위해서는 한국 식문화에 대한 전파와는 별도로 식품의 안전성 강화, 건강식품 개발, 품질 고급화를 추구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 농산물 분야에 있어서는 신품종 개발 및 육종을 촉진시키되 특히 중국 고소득층의 기호에 맞는 품종 및 재배기술의 보급이 요청된다. 식품에 있어서는 우리 식

문화의 보급 확산과 고급 한식당의 중국진출 지원, 건강마케팅 강화를 통한 우리 전통 식품의 차별성 강화 등이 필요하다.

중국은 지역별로 이질성이 크기 때문에 대도시 중심으로 지역별 거점을 선정하여 지역에 맞는 농식품 수출 및 투자 전략을 수립하여야 한다. 식문화는 갑자기 침투되기 보다는 서서히 젖어드는 형태를 띄게 되므로, 재중 한민족들이 많이 거주하고 있는 도시들을 거점으로 지역별 특색에 맞게 수출전략을 수립하여야 할 것이다. 대표적인 지역별 거점도시로는 북경, 상해, 청도, 광주, 심천, 심양, 하얼빈, 장춘 등이 여기에 해당될 것이다.

중국인에게는 ‘민이식위천(民以食爲天)’ 음식이 하늘이라는 인식이 있어, 식탁에 음식의 종류와 양이 부족하면 큰 불경이 되므로 항상 푸짐한 것이 미덕이 된다. 또한 남부 지역으로 갈수록 ‘의식동원(醫食同源)’ 의약과 음식은 같다는 인식이 강해 건강에 좋은 음식을 선호하는 경향이 짙다. 또한 동북 3성, 사천성 지역은 매운 맛을 선호하는데 반해 상해 남쪽지역은 대체로 매운 맛 보다는 단맛을 선호한다. 이같은 소비패턴을 고려할 때, 중국에서는 희귀한 반면 우리나라에 많은 식재료, 약용식물 등을 이용한 식품개발과 동시에 지역별 선호도를 고려한 차별화된 제품으로 중국시장을 공략하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중국의 대외 개방이 확대됨에 따라 중국의 식문화 역시 많은 변화를 보이고 있다. 서양식 메뉴와 편의식품이 젊은 소비자층을 중심으로 확대되고 있고, 자국산에 비해 외국산을 선호하는 경향이 강하게 나타나고 있으며, 점차 낮은 도수의 술을 마시는 성향이 증대되고 있다. 따라서 이같은 소비 변화에 걸맞는 농식품 수출 및 투자에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 예를 들어, CJ의 시젠과 뚜레쥬르, BBQ의 경우, 젊은 소비자 계층의 성향을 정확히 파악, 성공한 사례라 판단된다. 일본식 청주, 증류식 소주, 맥주 등이 고급백화점 및 대형유통업체의 주류매장 상당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점도 이같은 변화에 조기 대응하여 성공한 것으로 판단된다.

3.2. 중국내 충분한 유통망 확보 및 포장의 개선

최근 증가하고 있는 한국계 대형유통업체에 대한 우리 농식품의 입점 확대를 위해 입

접비를 지원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 경우 품질 수준, 한국산 원자재의 사용정도, 중국 소비자의 선호 등을 고려하여 기준을 정하고, 기준에 따라 지원 수준을 차별화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중국내 대형유통업체간 경쟁이 치열한 상황이므로, 일단 한국계 대형유통업체에 입점이 되면 다른 대형유통업체도 입점을 시키게 되어 유통망 확대가 자연스럽게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 또한 한국계 유통업체내에 우리 농식품 전문코너를 상설 운영케 하고 시식회 등 다양한 이벤트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우리 농식품 수입상의 난립과 과당 경쟁을 억제시킴은 물론 규모화를 유도하기 위해 실적이 뛰어난 업체에 대해서는 저리의 금융지원이 요청된다. 규모화가 진행됨에 따라 중간 도매단계를 건너 뛰어 소매업체와 직접 거래가 확대되어 유통마진이 감소하게 됨으로써 궁극적으로 우리 농식품의 가격경쟁력이 제고될 것이다.

중국인들은 대체로 원색, 특히 적색 및 황색을 선호하므로 농식품 포장재의 색깔을 이같은 선호도를 고려하여 개선하여야 한다. 포장재 외부표시에는 한국어는 가급적 줄이고(외국산을 선호하므로 없애서는 안됨) 중국어로 제품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 동시에 브랜드 명칭은 한국 브랜드명과 중국 브랜드명을 병기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생각된다. 중국인은 특히 고급 포장재를 선호하므로, 수출품의 포장재는 보다 고급화하는 것이 요청된다.

3.3. 한국 식문화의 전파와 관련한 마케팅 추진

중국의 전통 4대 요리는 북경, 상해, 사천, 광주 요리였다. 하지만 지역간 이동이 활발해짐에 따라 최근 '신개념 8대 요리' 길림, 요녕, 산서, 서안(섬서성), 상해, 항주, Ningbo(절강성), 돈황(감숙성) 요리가 부상하고 있다. 우리의 식문화를 한국요리 대 중국요리 식으로 대별시켜 부각시키기보다는, 다양한 요리의 하나로써 부각시키되 특히 기름을 덜 쓴 담백하고 건강에 좋은 점 등으로 차별화하는 방식이 자국 식문화의 자긍심이 강한 중국인들에게 보다 효과적일 것이다.

드라마 또는 영화 등을 통한 한류열풍을 우리 식문화의 전파와 직접적으로 연결시키기 위해, '드라마 및 영화속의 한국음식 기행' 같은 우리 식문화에 대한 보다 정확한 정

보를 제공하는 프로그램을 중국 언론매체들이 제작하도록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다.

우리 식문화의 세계화를 위해 한식 조리사의 양성이 시급하다는 것을 부정할 사람은 없을 것이다. 이 경우 한인 조리사 양성에만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외국인을 대상으로한 한식 조리사 육성이 우리 식문화의 세계화에 보다 효과적임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국내 외국계 식당의 조리사가 외국인보다는 국내인이 많은 것처럼 국내에서 훈련시킨 외국인 조리사가 자국으로 돌아가 우리 식문화 전파에 첨병 역할을 하게 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우리 식문화의 중국내에서 저변 확대를 위해 한족 및 조선족을 대상으로한 조리사 양성 프로그램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중국내의 한국 식당을 대상으로 전통한식메뉴의 정도, 한국산 식재료의 사용 정도, 청결한 위생조건 등을 평가하여 일정 수준인 곳에 대해서는 한국정부의 인증마크 부착 허용, 한국산 식재료의 저가 공급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또한 매년 중국인 조리사를 대상으로 ‘한식요리 경연대회’를 개최 시상(예 : 한국 관광 등)하는 것도 우리 식문화의 저변 확대에 크게 기여할 것이다.

중국의 춘절, 중추절 등 명절에는 지인들끼리 서로 선물을 교환하는 풍습이 있는데, 지난 해 주중 한국대사관 농무관이 시작한 것처럼, 우리의 중국 진출 기업들이 거래처 및 담당 공무원들에게 우리의 농식품 및 화훼류, 중국내 유명한 한식당 안내책자 등을 선물하는 것을 확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통해 중국인들의 우리 농식품과 식문화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제고시키게 될 것이다.

우리 식문화와 농식품의 우수성을 홍보하고 이를 통해 수출활성화를 도모하는 것은 물론 중국 진출기업에 대한 농식품 투자정보를 효율적으로 제공하기 위해 이른바 ‘한국 식문화센터’를 상해와 북경 지역에 설립할 필요가 있다. 1층에는 우리의 우수 농식품 전시판매장, 2층에는 식문화 홍보관, 3층에는 농식품 유관기관(농수산물유통공사, 농협 등), 4층에는 고급 한식당 등을 배치하여 홍보, 판매, 지원기능 등이 종합적이며 효율적으로 이루어지게 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3.4. 재중 한민족 네트워크 활용

지역에 따라 차이는 있으나 중국내 한인조직(예 : 한인회, 한국상회)과 조선족 조직

(예 : 조선족기업가협회) 간의 교류가 그다지 활발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또한 지역별 조선족 조직들간의 교류 역시, 동북 3성 지역을 제외하고는 활성화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중국 정부의 견제를 의식한 이유 뿐만 아니라 한인과 조선족간의 접촉 과정에서 일부 몰지각한 한인과 조선족이 문제를 발생시켜 상호 신뢰를 훼손시킨 까닭이기도 하다. 하지만 상호 교류 및 협력을 보다 증진시킬 경우 서로가 발전할 수 있는 길이 되므로, 이를 촉진시키기 위한 간접적 지원(중국 정부를 의식하지 않을 수 없으므로)을 확대해야 할 것이다. 특히 농식품 분야에 종사하는 한인과 조선족의 데이터베이스를 마련, 정보의 공유를 통한 교류 확대 및 이를 지원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 마련이 요청된다.

유망수출품목을 발굴하여 중국내 조선족기업에게 중국내 판매를 담당케 함으로써 별도의 유통망 구축없이 비용절감, 축적된 시장정보의 활용 등을 통해 보다 쉽게 중국시장 진출이 가능케 될 것이다. 또한 현지투자 역시 조선족기업 또는 집단(예 : 조선족항 및 진 등)과 사업파트너를 이룰 경우 사업에 따른 리스크를 줄여 안정적 투자를 가능케 할 것이다. 동시에 한국의 수출 및 투자 희망업체와 조선족기업 또는 집단간의 매개기능이 원활히 이루어지게 하기 위해서는 농수산물유통공사의 중국주재원을 증원할 필요가 있다.

또한 북경, 상해, 광주 등 중국 전역 36개 지역에 있는 ‘중국한국상회’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이들이 가지고 있는 중국 현지에 대한 정보는 농식품 수출이나 투자를 희망하는 업체에게는 더없이 귀중한 것이다. 하지만 현재 중국 한국상회의 운영은 대한상공회의소의 소액지원금과 회장의 개인 사비로 운영되고 있는 까닭에 정보의 제공이나 지원기능이 체계적이며 조직적으로 이루어지기 힘든 상황이다. 따라서 중국한국상회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정부 유관기관의 지원과 병행한 활용방안이 필요하다. 즉 중국한국상회의 운영비를 단순히 보조하는 수준이 되어서는 소기의 목적 달성에 실패할 수 있기 때문에 구체적인 사업비 형태로 자금이 지원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예를 들어 지역별 한국상회가 투자기업들을 위한 해당 지역의 투자관련 정보를 생성하고 이를 정부 관련기관 또는 지역 한국상회간 네트워크를 연계하여 운영할 수 있는 부분에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3.5. 수출 및 투자정보 지원체계의 재정비

대중국 수출을 포함한 농식품 수출확대를 위해 범정부적 추진기구를 발족시켜야 한다.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관련부처 장관을 위원으로 하는 가칭 ‘식문화의 세계화 및 농식품 수출진흥위원회’를 출범시키고 산하에 관련부처 및 지자체의 실무책임자, 농업 및 식품업계, 무역업계, 학계 등 대표자로 구성된 실무추진단을 구성할 필요가 있다.

대중국 수출에 있어 신규유망품목 및 신규 수출시장 개척을 위해서는 농수산물유통공사 내에 독립채산조직을 두거나 별도 법인을 조직하는 것이 요청된다. 이를 통해 생산지도, 품질관리, 안전성 검사, 수출선의 확보, 해외홍보 및 판매전략 수립 등 수출의 전 과정을 책임지게 하는 체계가 마련되어야 한다. 이 조직에 대해서는 별도의 예산을 확보해주는 대신 일정기간 후에는 성과를 평가하여, 우수할 경우에는 성과급 지급 및 인사상의 인센티브 등을 부여하는 반면 성과가 부진할 경우에는 퇴출까지를 포함한 불이익을 주는 체계가 되도록 해야 할 것이다.

수출관련 업무의 행정적인 절차를 간소화하여 검역, 검사 등에 있어 수출업무의 간소화를 추진해야 한다. 한국 식약청의 경우 중국으로 수출하는 품목에 대하여 요구하는 검사 항목이 까다롭고 너무 복잡하다는 중소 농식품 수출업체의 지적이 많은 상황이다. 예를 들어 현재 수출하는 품목의 원산지 증명이 없을 경우 수출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원산지 증명의 경우 김치 파동이후 중국이 한국산 제품에 대하여 트집을 잡기 위한 구실인데도 불구하고 식품의약품안전청이 이를 확대 해석하여 수출기업들을 더 힘들게 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지적이다.

지자체 단위의 소규모 행사(예 : 지역특산물전 등) 보다는 중앙정부 차원에서 한국식품 전체를 한번에 알릴 수 있는 행사(예 : 한국식품페스티벌)를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것이 보다 효율적이다. 이 경우 인기 연예인을 동원하여 신세대 대중문화 행사를 곁들인다면(한국전통문화 공연은 지루하고 효과도 적다고 함) 금상첨화가 될 것이다. 이 같은 행사에 한국식품업체만을 참가시키기 보다는 중국인 현지 바이어도 함께 참여시켜 자국민들에게 한국식품에 대해 알리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한편 이러한 홍보행사와 더불어 한국 농식품에 대한 브랜드 지원을 강화하여야 한다. 대기업의 경우 자체 홍보를 통해 브랜드 인지도를 제고할 수 있으나, 중소기업의 경우

홍보에 많은 자금을 투입할 수 없기 때문에 자칫 동일 품목에 많은 브랜드가 난립하여 (예 : 유자차의 경우 상해에 삼화, 한성, 말터 등 15개 회사의 브랜드가 있음) 중국인들의 한국 농식품 인지에 장애가 발생할 수 있다. 그러나 정부에서 특정 브랜드를 규제할 수 없는 상황이므로 규제를 하기 보다는 특정 수출품목의 경우 선별·지원 및 공동 브랜드 도입을 통해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아울러 브랜드와는 별도로 한국 농식품임을 인지할 수 있는 마크를 제작하여 홍보 수단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현재 농식품의 수출관련 지원기능을 수행하는 농수산물유통공사의 경우 농림수산식품부가 사업방향, 예산 등 실행업무를 제외한 대부분의 업무에 관여를 하고 있다. 하지만 지식경제부의 경우 예산 편성만 할뿐 KOTRA가 하는 업무에 대해서는 자율에 맡기는 시스템임을 벤치마킹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농수산물유통공사의 경우, 중국을 상대로한 마케팅 비용으로 연간 총 10억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인삼 2~3억원, 김치 2억 5천만원, 인삼세미나 6천만원, 식문화홍보 6천만원, 이마트 종합판촉행사 6천만원 등으로 농림수산식품부가 예산을 지정하고 있다. 이와 같이 예산이 분산됨으로 인해 마케팅 또한 분산될 수 밖에 없는 실정이다. 따라서 통합마케팅을 통한 시너지효과 제고를 위해 농림수산식품부는 예산총액만 정하고 구체적인 비목별 예산집행은 공사 자율에 맡기는 대신 사후 평가를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사회주의 체제의 법무용론이 아직까지 완전히 개선되지 않은 중국의 경우 법률체계가 매우 복잡할 뿐만 아니라 어느 것이 상위법이고 더 큰 효력이 있는지 알기 어렵게 되어 있다. 예를 들어 ‘~에 관한 의견’, ‘~에 관한 통지’, ‘잠정규정’ 등도 법률에 해당하며, 지방정부의 실질적 권한이 커서 중앙정부의 법률과 배치되는 지방성정부의 규정이 통용되기도 한다. 중국정부는 이같은 문제해결을 위해 2000년 3월 ‘입법법’이라는 법률을 제정하여 헌법-법률-행정법규-지방성법규-규장 등의 법률체계를 세웠다. 하지만 아직까지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지 않고 있음은 물론 법률의 제정 및 개정이 너무 자주 이루어지고 있어 중국에서 사업을 하거나 투자하는 경우 종종 손해를 보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따라서 주중대사관에 법률전문가를 보강하여 중국 중앙 및 지방 정부의 법률 및 법규 제개정 현황을 수시로 파악하여 우리의 공관은 물론 중국한국상회 조직 등에 적기에 분산해주는 체계를 신속히 구축하여야 한다.

4. 수출 유망품목 및 투자 유망분야 검토

4.1. 주요 수출 유망품목별 보완사항

품목별 보완사항은 중국시장 전문가 및 중국내 한국 농식품 수입업자와의 면담을 통해 핵심사항만을 간추린 것이다.

4.1.1. 청과물류

- 딸기

- 국내에서 최근 개발된 ‘설향’ 품종을 주축으로 차압식 예냉기 설치 등을 통한 신선도 제고
- 중국 검역대상 품목으로 포함시키기 위한 사전협의 필요

- 참외

- 일정 당도 이상 및 신선도 제고
- 중국 검역대상 품목으로 포함시키기 위한 사전협의 필요

- 사과

- 선물용이므로 대과로서 선택과 맛이 뛰어나야 함
- 일본 ‘아오모리’ 산과 경쟁
- 중국 검역대상 품목으로 포함시키기 위한 사전협의 필요

4.1.2. 특용작물 및 축산물

- 인삼

- 무농약 재배로 중국삼과 차별화
- 원형 홍삼 및 홍삼 가공제품에 초점을 맞추되 가격경쟁력 제고

- 우유(시유)

- 한국산의 안전성에 대한 인식을 토대로 택배시스템 구축 필요
- 항공운송 등 신속성이 요청되므로 빠른 통관절차 협의 필요

4.1.3. 화훼류

- 서양란(심비디움)

- 중국내 유통기간이 춘절 전후 1개월에 불과하므로 생산시기를 정확히 조정
- 수송비를 포함한 생산비 감축 노력을 통해 가격경쟁력 제고
- 신제품의 개발이 필요하며, 육종 및 조직배양시설은 중국에 설치하는 것이 유리

4.1.4. 가공식품류

- 장류

- 고추장, 된장 보다 쌈장을 선호함
- 고추장의 경우 지역별 차별화 전략(동북지역은 매운 맛, 상해지역은 단 맛) 필요
- 초고추장의 수요가 늘고 있고, 보다 다양한 소스류 개발 필요
- 외부 표시의 개선(중국어)

- 주류

- 중국인의 주류 소비패턴은 도수가 낮은 쪽을 선호하는 방향으로 진행중임. 따라서 증류식 쌀소주(25도), 청주 등이 유망
- 약주의 경우 중국인이 좋아하는 방향으로 향기 조정 필요
- 와인류의 경우 복분자술보다는 머루술을 선호

- 차류

- 유자차의 경우 중국어 외부표시의 개선 및 브랜드 난립 억제 필요
- 한방차의 경우 건강음료로서 홍보 필요

- 한국산 보리차 선호

- 한과류

- 담백한 한과 선호

4.1.5. 수산물

- 중국인들은 김을 밥에 싸서 먹기보다는 그냥 먹기 때문에 짜지 않은 김을 선호
- 수산물 소비가 증가하고 있는데, 중국의 경우 민물 수산물이 주종을 이루고 있고 해산물의 종류가 단순하므로 중국인 기호에 적합한 해산물 수출 추진 필요
- 한국산 미역을 선호

4.2. 투자 유망분야 및 지역

중국의 최근 경제정책을 살펴보면, 지역간 격차를 줄여 지역균형발전을 추구하는 정책 전환이 뚜렷이 나타나고 있다. 중국정부는 동부지역(특히 연해 지역)에 대한 특혜를 축소하는 대신 중서부 내륙 및 동북 3성 지역에 대한 특혜는 확대할 것임을 분명히 하고 있다.

또한 곡물류의 국내 수요(식용 및 사료용) 급증에 따라 전체 곡물류에 대한 수출 통제는 물론 농지전용의 억제 등 곡물을 중심으로한 농업생산성 증대를 위한 정책을 강화하고 있다. 동시에 수출용 원료 수입에 대해 증치세(13% 또는 17%)를 부과하고 수출시 일정 부분을 환급해 주는데, 농산원료가공품에 대해서는 환급율을 인상하는 등 식품가공산업 육성 및 가공식품 수출 활성화를 위한 지원을 강화하고 있다.

이를 종합해 보면, 대중국 농식품분야 투자의 유망지역은 동북 3성(길림, 요녕, 흑룡강성)과 중서부 내륙지역(섬서, 감숙, 사천, 강서성 및 내몽고·신장위구르 자치구 등)이라 할 수 있다. 유망분야는 식품가공업, 종자·사료·비료·농약·시설자재 등 농업생산자재업, 쌀·밀·콩·옥수수 등 곡물재배업 분야라 하겠다.

지역별 유망 투자분야 선정을 위해서는 향후 보다 정밀한 조사·연구가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다만, 중국에 대한 조사과정에서 파악된 일부 지역 및 분야를 소개하면 다음

과 같다.

현재 일본은 쌀 품종인 고시히카리를 흑룡강성 및 길림성에서 재배하여 ‘야마가타고마치’ 라는 브랜드로 중국 내수시장에 비싼 가격(중국산 쌀의 2~3배)에 판매하고 있다. 동북 3성 지역의 쌀 재배, 특히 고품질 쌀은 거의 대부분 조선족 동포들에 의해 생산되고 있다. 이들과 협력하여 중국 내수시장을 겨냥 고품질 쌀을 생산·판매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동북 3성 지역중 특히 미질이 좋은 쌀이 생산되는 지역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 흑룡강성 오상시 민락 조선족향 : 흑룡강성 남부에 위치하며 하얼빈에서 차로 2시간 정도의 거리임. 조선족향으로 서기 등 모두 조선족이며, ‘오상쌀’은 고품질 쌀로 유명하고 4~5만무(800~1,000만평)의 농지 확보 가능함.

- 흑룡강성 영안시(발해진 향수촌) : 옛 발해왕터가 있는 곳으로 흑룡강성 동남부에 위치함. 화산암반층위에 30~40cm 정도의 퇴적층이 쌓여 중국 최고 품질의 쌀 생산이 가능하나, 충분한 규모의 농지 확보는 다소 힘듦.

- 흑룡강성 부금시 : 장덕진씨가 운영하던 ‘대륙개발’에서 개발하다 자금사정으로 중단한 지역임. 전체 면적은 3만 8천ha임.

- 요녕성 반금시 영흥 조선족진 : 심양에서 남서쪽으로 차로 2시간 거리에 위치함. 10개 촌에서 3만무 정도의 농지 확보 가능함.

- 요녕성 철령시 : 심양에서 동북 방향 2시간 거리임. 현재 300무 정도의 논에서 유기쌀이 계약재배되어 일본으로 수출되고 있음. 3만무 정도의 농지 확보 가능하나, 조선족향의 면적만으로는 부족하여 인근 한족촌까지 포함하여야 함.

- 길림성 매하구시 조선족향 : 장춘시와 길림시의 중간 지점이며 교통의 요지임. 3만무 정도의 농지 확보 가능함.

강서성 상록시는 상해시로부터 5시간 정도 거리에 있는 낙후된 지역이다. 토양조건이 좋아 고추, 호박, 마늘 등 거의 모든 밭작물 재배가 가능하며, 임금수준은 월 650위안 수준으로 상해시(1,300위안)의 절반 수준이다. 상록시는 재배 농산물의 가공분야 등에 한국 투자를 원하고 있는데, 투자시 시 차원에서 생산된 농산물의 수집 등 적극적인 지원을 하겠다고 한다.

중국인의 소득 향상에 따라 축산물(특히 쇠고기 및 유가공품), 유기채소류, 버섯류의 수요가 두드러지게 증가하고 있다. 육우 및 젖소의 경우 사육기술, 투입사료, 품종 등의 문제로 쇠고기의 품질이 낮을 뿐만 아니라 젖소의 연간 두당 착유량 역시 4,000kg 정도로 우리의 1/2 수준에도 못미치는 실정이다. 버섯류의 경우 봉지재배 방식이 대부분으로 우리에게 비해 품질 및 생산성 모두 상당히 낮은 수준이다. 내몽고자치구의 경우 원래 목축 방목지역이었는데 최근 대규모 낙농지대로 변모하고 있고, 밀·옥수수 등 사료작물도 풍부한 편이다. 따라서 이 지역에 우리의 수준 높은 낙농기술을 접합시키는 투자를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고품질 소의 사육과 버섯 및 유기채소류의 재배는 소득이 높은 대도시(상해, 광주, 심천, 북경, 천진, 청도시 등) 인근 지역에 투자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참고문헌

- 강호원, 「중국에서 대박난 한국 상인들」, 이자출판, 2007.11.
- 고경일 외, “한국전통음식의 중국시장 마케팅 전략방안 연구”, 「한국식품유통학회지」, 2008.1.
- 권태환, 「중국 조선족사회의 변화」, 서울대학교출판부, 2004.11.
- 김병률 외, 「농산물 수출유망품목 발굴 및 수출확대전략 수집연구」,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06.4.
- 김성훈, “안에서 잃은 것, 밖에서 찾자-WTO 체제하에서 우리나라 농업의 대외지향 강화 방안”, 「세계 한민족 농업인 네트워크(IKAN) 구축」국제농업심포지엄 자료집, 2004.11.
- 김완배, “농식품 수출확대를 위한 산지대응전략”, 「한국식품유통학회지」, 2005.8.
- _____, “세계 한민족 농업인 네트워크 구축 방안”, 「세계 한민족 농업인 네트워크(IKAN) 구축」국제농업심포지엄 자료집, 2004.11.
- 김완배 외, 「한민족 농업인 네트워크 구축 및 농업투자방안 연구 - 몽골, 중국동북3성, 극동러시아」, 대산농촌문화재단, 2006.5.
- _____, 「일본의 한민족 농업인 네트워크 구축 및 농식품 대일 수출활성화 방안」, 대산농촌문화재단, 2007.4.
- 김윤두, “중국 채소종자 시장현황 및 한국산 채소종자의 경쟁력 분석”, 「한국식품유통학회지」, 2008.1.
- 김정호 외, 「중국의 농업」, 오성출판사, 2006.3.
- 농림부, 「농림업주요통계」 각 연도
- _____, 「2007년 농식품 수출대책」, 2007.2.
- 농수산물유통공사, 「새로운 무역환경에서의 가공식품 수출경쟁력 분석」, 2004.7.
- _____, 「중국 주요도시별 농산물 수출여건 조사」, 2006.12.
- _____, <http://www.kati.net>
- 동북아신문 <http://www.dbanews.com/>
- 머레이 와이텐바움 외, 「華僑네트워크」, 세종연구원, 1988.3.
- 모이자 <http://moyiza.net/>
- 박진환, 「중국의 경제발전과 식량 및 농촌문제」, 국제농업개발원, 2004.4.

서명훈, 「한번시 조선민족 백년사화」, 민족출판사, 2007.1.

이광규, 「재중한인」, 일조각, 1994.

어명근 외, 「중국의 농산물수급 증장기 전망」,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06.11.

_____, 「중국 원예산업의 발전과 대응방안」,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07.7.

연변일보 <http://www.iybrb.com>

연변통신 <http://www.yanbianforum.com>

이윤기, 「잊혀진 땅 간도와 연해주」, 화산문화, 2005.4.

이장섭 외, 「중국조선족 기업의 경영활동」, 북코리아, 2006.12.

_____, 「중국조선족 기업의 네트워크」, 북코리아, 2007.12.

이진산, 「중국 한겨레사회 어디까지 왔나?」, 흑룡강조선민족출판사, 2006.6.

재외동포재단, 「2007 세계 한인회 디렉토리」, 2007.

정문섭·박은철 편저, 「중국의 농업과 농업정책」, 농림부, 2007.8.

정신철, 「한반도와 중국 그리고 조선족」, 2004.11.

_____, 「중국조선족 그들의 미래는...」, 신인간사, 200.3.

조선족글로벌네트워크 <http://www.ckywf.com>

중국국가통계국, 중국농업통계자료편람, 2006

중국국가통계국, 중국농촌통계연감, 각 연도

_____, 중국통계연감, 2007.

중국농업부, 중국농업통계자료, 각 연도

_____, 「2007 중국농산물무역발전보고」, 2007.7.

중국조선족민족통일촉진회 <http://gara38.web.fc2.com>

중국한국상회, 「2007년 중국한국상회 회원명부」, 2007.

차이나 코리아 닷컴 <http://www.china-corean.com>

천수산, 「조선족역사의 새 탐구」, 신성출판사, 2005.11.

한국무역협회 <http://www.kita.net>

흑룡강신문 <http://www.hljinwen.cn>

〈부록 1〉 조선족기업가협회 주소 및 연락처

협회 명칭(회원수)	주 소	전화번호
광둥성		
광둥성 조선민족연합회	#2503, BLKB, Jinfeng Tower, 1005 South Rd, Shenzhen Guangdong 518000	0755-8299-6985
길림성		
연변기업가협회	Yanji Jilinsheng 133000	0433-251-3518
연변 연우정보교류협회	Yanjishi Zaibeilu Dazhou jiudian 337hao, Jilinsheng	0433-619-5226
중국길림성조선족진 흥총회	4487 Ziyou Road, Changchun Jilin 130022	0431-8705-8080
길림성통화시조선족 기업가협회	Tonghuaxuan kuaidazhen shinfenglu 8hao Gilin	0435-522-4799
산둥성		
중국연대조선족상공 협회	No,212 Changjiang Road ETDZ Uantai, Shandong	0535-637-8688
청도시 조선족기업협회	#2603 Xingshijie Bldg, 9Fuzhou South Road Qingdao Shandong 266071	0532-8789-0322
요녕성		
단둥시조선족경제문 화교류협회	No,103C Zuo Narea Dandong development zone, AnongRiver, Dandong Liaoning 118000	139-04158318
무순시조선족기업가 연의회	No,9, Yongji Road, Fushun Liaoning 113006	0413-235-0977
심양조선족기업가 협회	Heping District, Shenyang Liaoning 1100000	024-3132-1777
요녕성조선족기업가 협회	Hongri Dasa B. 202 jangjunchao Road, Wenzhou Zhejiang	024-8687-1554
흑룡강성		
하얼빈조선족기업가 협회	211 Hayao St, Daoli District, Harbin Heilongjiang 150076	0451-8988-7871

〈부록 2〉 재중 한국인회 주소 및 연락처

협회 명칭(회원수)	주 소	전화번호
북경시		
재중한국인회	#1705 Botai Bldg., 221 Wangjing Xiyuan, Chaoyang District, Beijing 100102	010)6478-9526
상해시		
상해한국인회	616, Xuanlun Bidg, No.1100 WuzhongRoad, Shanghai 200336	021)6209-5175
천진시		
천진한국인회	4487 Ziyou Road, Changchun Jilin 130022	0431-8705-8080
천진시		
천진한국인회	1F. Fenglin Hotel, 6 Binshui Road, Nankai District, Tianjin 300381	022)2395-6600
강소성		
남통한국인회	14Zu, Zhongtiancun Hekouzhen, Rudongxian, Jiangsu 226463	0513)8488-1738
남통한국인회	14Zu, Zhongtiancun Hekouzhen, Rudongxian, Jiangsu 226463	0513)8488-1738
소주지역한국인회	#165 Zhuhui Road, Suzhou City, Jiangsu 215006	0512)6530-8792
염성한국인회	#32Xinyuan Road, Deve-Lopment Area, YanCheng	0515)828-5995
장가항한국상회/한국인회	GuoMao Hotel, Renmin Road, Zhangjiagang City, Jiangsu 215600	0512)5881-7805
중국무석한국인회	620#6Changjiang Road, Wuxi National Hi-tech Industrial Development Zone, Wuxi Jiangsu 214000	0510)8554-0055
진강한국상회/한국인회	#195, Jinlingshiru, Dandong, Jiangsu 262300	0511)6986-270/1
광둥성		
중국심천한인회	8-A Lianfangge, Hubinguayuan, Huaqiaocheng, Nanshanqu, Shenzhen, Guangdong 518053	0755)2692-1539
길림성		
중국연변한국인회	908 Sungbo Hotel, HaebangStreet, Yanji City Jilin 133000	0433)251-9663
중국장춘한인회	#808Huoju Bldg., 2400 TongzhiStr., Chaoyang, Changchun, Jilin	0431)8563-5242

협회 명칭(회원수)	주 소	전화번호
산동성		
중국덕주한인회	11F, YangguangB/D, Hubinlu, Dezhou, Shandong 253000	0534)226-2305
청도한국인회	1-2-301 Yulong Bldg., 19Miaoling Rd., Laoshan District, Qingdao 266061	0532)8896-0335
중국위해한인회	11F International Financial Hotel, 9North Road, Weihai, Shandong 264200	0631)523-0050
안휘성		
중국안휘성한국인회	Zhongguo Anguisheng Hefeishi Fengyanglu Zhengtaidasha 18-20, Anhui	0551)424-0001
요녕성		
선양한국인회	No9 Tianhougong St, Shenhe District, Shenyang, Liaoning 110013	024)2851-1110
안산한국인회	Yunquan Hotel, Yuquanguan, Tanggangzi, Quanshan District, Anshan, Liaoning 114048	0412)241-5596
중국단동한국인회	2F, #13-9hongrunxiaogu, Sanjing St, Zhenxing District, Dandong City, Liaoning 118000	0415)217-7455
중국대련한인회	14F, No88 Zhongsan Road., Zhongshan District, Dalian, Liaoning 116001	0411)8881-7700
중국무순한인회	#305Neighborhood Offices, Changchun, Fushun, Liaoning 113006	0413)749-0671
중국철명한국인회	1Ximen, Xiaoqiao Market, YinzhouQu, Tieling Liaoning 112000	0410)220-6676
운남성		
근명한국인회	#1421, Jiangdong Siji Apt, Extension of Beijing Road, KunmingCity, Yunnan	0871)574-4901
절강성		
가흥한국상회/ 한국인회	#169, Kaixuan Road, Jiaxing, Zhejiang 314000	0573)211-0758
승주한국상회/ 한국인회	Jungho Road, 8Ho, Shengzhou City, Zhejiang	0575)310-9170
온주한국상회/ 한국인회	HongridasaB. 202Jangjunchao Road, Wenzhou, Zhejiang	0577)8857-0070
중국절강성영파한인 회	Fengqi Road, Yinzhouqu, Ningbo, Zhejiang	0574)8875-0881

협회 명칭(회원수)	주 소	전화번호
흑룡강성		
중국목단강한인회	Xi7, YuXi8Zhijian, Mudanjie, Mudanjiang City, Heilongjiang 157400	0453)619-9223
중국하얼빈한인회	Holiday Inn City Centre, 90 Jingwei St., Daoli District, Harbin, Heilongjiang 150010	0451)8420-7000

〈부록 3〉 재중 한국상회 주소 및 연락처

협회 명칭(회원수)	주 소	전화번호
북경시		
중국한국상회 (1993.12.10)	北京市朝陽區霄雲路38號 現代汽車大廈9 09室 (郵:100027)	010)8453-9755~8
천진시		
천진한국상회 (1992.8.25)	天津市南開區寶水西道6號楓林賓館1樓 (郵:300381)	022)2395-7991~3
상해시		
상해한국상회 (1993.6)	上海市閔行區吳中路1100號,炫潤國際大 廈6F616室(郵: 201103)	021)6209-5175
흑룡강성		
할빈투자기업협회 (1994.7)	哈爾濱道里區經緯街90號万達假日酒店50 8室 (郵:150010)	0451)8420-7000
목단강한국(인)상회 (1998.8)	黑龍江省牡丹江市七星街夏威夷寫字樓7 樓(郵 : 157000)	0453)6920-318/ 6930-318
길림성		
장춘한국상회	吉林省長春市朝陽區同志街2400號 火炬 大廈808~810號郵 : 130021)	0431)563-5242
연변한국상회 (1997.7)	吉林省延吉市人民路51號,延邊新世紀大 廈寫字間1415號(郵:133000)	(0433)251-9663
요녕성		
심양한국상공회 (한국인회)	遼寧省瀋陽市瀋河區天后宮9 號	024)2851-1110~2
안산한국상회	遼寧省鞍山市千山區湯崗子玉泉館 溫泉 賓館 1層(郵:114048)	0412)241-5596
무순한국상공회 (1999.3)	遼寧省撫順市東洲區渾河南路東段12號 (撫順艾特紡織印染有限公司 院內)(郵:113004)	0413)465-0836/7
영구지역한국상회분 회 (1992. 6. 15)	營口經濟技術開發區工業小區小河沿寶山 路 (郵:115007)	0417)756-2100
재중국단동한국상회 (1996.8.22)	遼寧省丹東市振興區三經街鴻潤小區2號 樓13-09號(2層) (郵: 118000)	0415-217-7455/ 66
대련한국인회 (1990.5)	大連市中山區中山路88號,天安國際大廈 1401號 (郵: 116001)	0411)8881-7701 ~3
하북성		
진황도한국상회 (1993.10)	河北省秦皇島開發區河北大街萬衆大廈18 層1815室(郵:066000)	0335)535-1111

협회 명칭(회원수)	주 소	전화번호
창주한국상회 (1994.2.27)	河北省青縣京福路西側磚廠新樓滄州錦美 産業有限公司(郵:062650)	0317)432-6221
산동성		
청도한인상공회 (1992.1.4)	煙台市濱海北路濱海假日酒店2層 2088室 (郵: 264001)	0532)6696- 0032~4
위해한인상공회 (1993.11.2)	山東省濰坊市勝利東街226号	0631)520-3654
연대한인상공회 (1993)	山東省濟南市花園路213號,歷下軟件産業 園 A座 B208室(郵:250013)	0535)669- 6700~2
유방한인상공회 (1996.01.01)	青島市城陽區正陽路151號,世正愛麗安2 號樓303室(郵 : 266109)	0536)889-8117
제남한국상회 (2001.3)	山東省德州市湖濱北路61號陽光大廈11樓 (郵: 253020)	0531-8319-7080
덕주한국인상공회 (2002.9)	山東省威海市青島北路9號國際金融大酒 店1104室(郵:264200)	0534)218-2222
강소성		
연운항한국상회	江蘇省連雲港市海昌北路108-101, 新韓 濱館 552號(郵: 222001)	0518)8547-9910
남통한국상회	江蘇省南通市如東縣河口鎮天池南路6號 (郵:226463)	0513)8488-8138
무석한국상공회 (2000.4)	江蘇省無錫高新技術産業開發區 長江北 路6號, 百仕達大廈 622室	0510)8554-0055
소주한국인상회 (1993.3)	江蘇省蘇州市工業園區 星海街 169號,隣 里中心師惠大廈6樓A室(郵: 215021)	0512)6295-8044
호북성		
무한한인상회 (2003)	湖北省武漢市武昌武漢理工大學 東院 外 教樓201號(郵:430070)	027)6102-8747
섬서성		
서안한국상회 (2003.1.10)	陝西省西安市明德門小區北區40號樓二層 (郵:710065)	029)8208-7942
사천성		
사천한국상회	四川省成都市太升北路2號,天府陽光酒店 內 鄉土谷3層(郵: 610017)	028)8692-6466
절강성		
승주한국상회 (2001.7)	浙江省嵊州市官河里30號 2樓	0575)8310-9271

협회 명칭(회원수)	주 소	전화번호
중국한국상회 의오시 지회 (2000.1)	中國浙江省義烏市國際商貿城(福田市場) 二期 F5-19787號	0579)557-2950
온주한국상회	浙江省溫州市將軍橋路弘利大廈 B棟 3 單元 202室	0577)8857-0070
북건성		
하문기업협의회 (1994.7)	福建省廈門市集美區環珠路461-469號, 際諾思大廈(郵 : 361021)	0592)239-8590
광동성		
광주한국상공회	廣州市天河路533號 僑鑫教育學院主樓20 3-204室 (郵:510630)	020)8520-1798
동관한국상공인회 (1997.02)	廣東省東莞市東城區金澤商住中心 玉蘭 閣4樓 郵: 523000	0769)2248-5330
혜주한국상회	廣東省惠州市河南岸國商大廈A棟 15樓 GH室(郵 : 516001)	0752)256-0371
심천한국상공인회 (1996.4)	深圳市華僑城湖濱花園淵芳閣B棟8A(郵: 518053)	(0755)2692- 1539/0171
운남성		
재중국공명한국상회	中國云南省昆明市北京路延長線 江凍四 季公寓1421号	0871)574-4901

〈부록 4〉 농산업관련 조선족기업가 주소 및 연락처
(연변, 장춘, 심양, 단둥, 북경, 청도, 상해, 할빈)

기업명칭	대표자	주소	연락처	취급품목
연변				
연길국수공장	리상근		0433-262-8627	
연길 대외경제무역회사	원련화		0433-286-8612	
연길 여인세계한국물류	전향란		0433-255-3331	
연길 특산매메회사	리경련		0433-261-8758	
연변 김근식품가공 유한공사	정창남			
왕청 만천성 주류업 유한공사	이명옥			
왕청 연변 채씨 농부산품 유한공사	채기석			
왕청 황소목축업 유한공사	김성호			
화룡 농목경제개발유한공사 팔가지	강길화			
화룡 동성무공해 특산품유한공사	김상철			
화룡 동해식품가공 유한책임공사	최희순			
화룡 북림원요식업서비스 유한책임공사	황용			
화룡 서성 쌀가공공장	박동철			
화룡 친공농업발전 유한공사	최용길			
화룡 천마식용유증개판매 유한책임공사	박원철			
훈춘 길림 향승주류업 유한공사	김춘만			
훈춘 이민 종자유한공사	강호			
도문 식품회사	김봉운	도문 상상가	0433-362-2934	고기가공
북흥과자공장	김영득	연길	0433-253-4493	단설기, 과자
생물약업유한공사	리조신	연길	0433-261-3125	비료
식품가공공사	최문철	연길	0433-273-5332	부식품가공

기업명칭	대표자	주소	연락처	취급품목
연길 고우산식품기공유한공사	현명숙	연길	0433-285-7883	
연길 명태기공공장	김문화	연길		명태가공
연길 소고친유한공사	이철	연길		음식
연길 진달래반점유한책임공사	고봉렬	연길해단로388호	0433-508-7801	냉면
연길 식품주식회사	박정애	연길		김치
연변 과기대식품유한공사	이상연			곡물가공
연변 식용균주식회사		연길		식용균
연변 원예재료유한공사	고원철	연길진공기연통로139호	0433-286-5831	초탄
연변 특산실업유한공사	박기춘	도문용도로88호	0433-362-4561	인삼류, 기타
연변 홍화식품주식회사	허금자			보건식품
용정 개엿공장	한옥관	용정 하서가	0433-328-0884	개엿
용정 악수통샘물공장	리영국	용정 하남촌	0433-327-1988	음료수
장백산특산개발유한공사	손강호			웅담, 사양
장백산 특산품회사	김정일		0433-222-2314	홍경천
특색식품개발회사	김초남	연길	0433-251-1232	개고기, 찰옥수수
호래롱식품개발유한공사	안정숙	연길		증식, 한식, 해산물
장춘시				
길림성대경식품유한공사	권봉화	장춘시혜방대로810호A좌2구14F	138-03470101	한식된장, 쌈장, 고추장, 농산물
심양시				
경희루차음유한공사	원희연	화평구태원북가	85024-2383-2082	음식
민족기업발전총공사	박계현	화평구서탑가	82024-340-6672	슈퍼마켓, 무역
북에두부유한공사	임정언	철저구 연분가	133-90122212	두부
심양사천성식품유한공사	김성근	심양시심하구2위로46-갑7호1f	024-2270-0008	어묵
심양시진주다빈오락중심	정기철	심양시화평구서탑가81호	024-2346-2658	음식
한나식품유한공사	이영생	심허구중가로	88024-2346-6853	과자제조

기업명칭	대표자	주소	연락처	취급품목
연길 고우산식품기공유한공사	현명숙	연길	0433-285-7883	
연길 명태기공공장	김문화	연길		명태가공
연길 소고친유한공사	이철	연길		음식
연길 진달래반점유한책임공사	고봉렬	연길해단로388호	0433-508-7801	냉면
연길 식품주식회사	박정애	연길		김치
연변 과기대식품유한공사	이상연			곡물가공
연변 식용균주식회사		연길		식용균
연변 원예재료유한공사	고원철	연길건공기연통로139호	0433-286-5831	초탄
연변 특산실업유한공사	박기춘	도문용도로88호	0433-362-4561	인삼류, 기타
연변 홍화식품주식회사	허금자			보건식품
용정 개엿공장	한옥관	용정 하서가	0433-328-0884	개엿
용정 악수통샘물공장	리영국	용정 하남촌	0433-327-1988	음료수
장백산특산개발유한공사	손강호			웅담, 사양
장백산 특산품회사	김정일		0433-222-2314	홍경천
특색식품개발회사	김초남	연길	0433-251-1232	개고기, 찰옥수수
호래롱식품개발유한공사	안정숙	연길		증식, 한식, 해산물
장춘시				
길림성대경식품유한공사	권봉화	장춘시해방대로810호A좌2구14F	138-03470101	한식된장, 찜장, 고추장, 농산물
심양시				
경희루차음유한공사	원희연	화평구태원북가	85024-2383-2082	음식
민족기업발전총공사	박계현	화평구서탑가	82024-340-6672	슈퍼마켓, 무역
북에두부유한공사	임정인	철저구 연분가	133-90122212	두부
심양사천성식품유한공사	김성근	심양시심하구2위로46-갑7호1f	024-2270-0008	어묵
심양시진주다반오락중심	정기철	심양시화평구서탑가81호	024-2346-2658	음식
한나식품유한공사	이영생	심하구중가로	88024-2346-6853	과자제조

기업명칭	대표자	주소	연락처	취급품목
단둥시				
단둥송도원음식봉사유한공사	윤희선	요녕성단둥시개발구B구15호	0415-312-8763	식당
북경시				
만리장성도시락	김성용		010-6473-1133	
베이징옥류관찬음유한공사	김분화			이북음식, 한식
북경 백마강찬음 유한공사	감정섭			개고기, 한식, 중국요리
송이도시락			010-6471-3714	
행복도시락	박영철		010-6470-5492	
북경순단음식유한회사	신명순	조양과신원서낭중거리10호	010-6460-4288	식당
청도시				
교하시신봉실업 유한공사	김경석	청도시산동로8호태산청사618	0532-582-3011	농부식품수출
농업상품무역 유한공사	이철준	동해서로35호태평양중심7호	0532-502-3851	
미익회관	안영길	시남구기용호7호병	0532-587-3281	불고기, 술, 면식
조양식품	김홍석	청도시신원소구	0532-87977500	농산물, 기타무역
창원식품	이수광	래서시연대로제약공장체인점3-20호	0532-840-1299	
청도창원식품	동금화	청도시이창구빈허로1218호	0532-87620400	식품무역
청도신광식품 유한공사	남궁령	청도시로산구사자구서등영	0532-311-3801	
청도은성식품 유한공사	박원장	평포시인조대류갈장	0532-337-6517	
청도조풍농산품 유한공사	조현철		0532-337-1159	
청도진일식품유한회사	김진	청도교주시두촌공업원	0532-85233100	농산물가공수출, 김치가공
한국신송식품 중국총부	권혁준		139-05326530	
대동강무역유한공사 창평음식유한공사	김룡남	리창구수로86호	0532-789-5597	
래북식품유한공사	이희연	평도시명춘진공업원	0532-632-3399	망룽가공, 농수식품가공
목단도시락	최혜란	대만로	138-64858281	도시락
창원식품유한공사	이수학	청도시고과원묘평로19호유통과기아파트 6#2-501실	0532-766-1644	

기업명칭	대표자	주소	연락처	취급품목
청도농일식품유한공사	김철웅	청도시계말구금사강로1호	0532-838-8286	고추장반제품, 김치, 건조야채
청도다혜식품유한공사	이분녀	교주시영해공업단지	0532-526-2027	
청도성식품유한공사	박식장	평도시인조전	0532-337-6537	
청양한국식품마트	김철호	래서시봉래로4호	0532-848-8444	건고추, 냉동고추
청정원한국식품공사	김 호		0532-689-5400	
청도흑두성맥주유한회사	김성호	청도시성양구춘성로 중점	0532-8773-3400	
홍안루음식유한공사	김명남	0532-688-0092		
파리버케트	김성엽	청도시부산로68번지	0532-87615569	식품, 서비스
플하우스 커피숍	정향월	청도시청양구화양로459번지	0532-87761884	음료수, 커피
K-MART	김민규	청양베이탄창청루	0532-776-7786	한국식품
상해시				
현성관한식집	김성두		136-01909495	
음식동해물집	김진호		021-6449-3778	
음식영창무역공사	김영길		021-5045-4377	농부산물
함빈시				
장일양파연구소	최성일		138-04587801	양파재배
할민동북양유한공사	강진룡		139-46115599	곰시육
할빈북남식품유한공사	김복남		0454-86897365	
흑룡강동강시주업공사	최창록		136-04696513	곰시육, 옹담

〈부록 5〉 농산업관련 재증 한국투자기업 주소 및 연락처

기업명칭	대표자	주소	연락처	취급품목
곤명시				
운남금란화훼유한공사 (雲南金蘭花卉有限公司)	김한균		0871)798-2338	서양란(심비디움) 생산, 판매
세미화훼유한공사 (世美花卉有限公司)	김태인	昆明市嵩明縣楊橋鄉軍馬場	0871)794-9641/2	서양란 생산판매
금호원예자재유한공사 (錦湖園藝資材有限公司)	김성호	云南省昆明市宜良縣草甸鄉	0871)769-5678	화훼생산, 원예 자재
유통곤명한촌찬음유한공사 (昆明韓村餐飲有限公司)	안원환	昆明市尚義街2號	0871)313-7711	
곤명성림식품주식회사 (昆明盛林蔬菜製品有限公司)	강재영	昆明市高新開發區昌源中路中段	0871)821-3611	김치, 떡
한천식품유한공사 곤명판사처 (韓泉食品有限公司 昆明辦事處)	최권한	云南昆明市大樹中營 348號 6-A07	0871)331-9591	참숯
곤명죽림찬음유한공사 (昆明竹林餐飲有限公司)	김정심	云南昆明市東風東路 52號	0871-3182207	식당(한식)
옥계강장수린유한공사 (玉溪澄江昌秀蘭園有限公司)	신근호	云南玉溪市澄江縣師家村	0877)676-7897	관화 생산 및 유통
옥계강장소심란유한공사 (玉溪澄江素心蘭園有限公司)	원기철	云南玉溪市澄江縣師家村	0877)691-3728	관화 생산 및 유통
운남화중원예유한공사 (云南花中園藝有限公司)	장희숙	云南昆明市晉寧縣晉城鎮小海村	0871)781-6007	심비디움 생산 및 유통
운남한인찬음유한공사 (한우촌) 雲南韓人餐飲有限公司 (韓友村)	윤익희	昆明市金實小區金秋路55號	0871)572-8021	

기업명칭	대표자	주소	연락처	취급품목
광주시				
호려우식품(上海優雨食品有限公司廣州辦事處)	김종혁	廣州市天河區體育東路140-148號 南方證券大廈20樓2001室(郵: 510620)	020)3887-9080 /9781	제과
한국주식회사 농심 광주대표처 (韓國株式會社 農心廣州辦事處)	박원현	廣州市天河區天河北路28號 時代廣場中座915室(郵: 510620)	020)891-0180 /81/83/89	
남대문정종한국요리 (南大門正宗韓國料理)	한숙희	廣州市番禺區市橋山大道7號長城酒店2樓	020)8483-1748	
단동시				
암록강횃집 (鴨綠江生魚店)	이한근	丹東市振興區 六緯路 14-103	0415)216-5398	횃집
진문금강산식품 (錦江山食品)	오 완	丹東市振興區 三冠小區 4號樓 3單元	0415)317-0848	고추장, 된장 전문제조
민속촌 (民俗村)	소재홍	丹東市振興區 三馬路金順家園	0415)217-3488	
박가네 (朴家燒烤)	박태성	丹東市振興區 二街	0415)213-2453	불고기 전문
한일관 (韓一館)	박춘부	丹東市 二街	0415)619-0507	한식당, 농산물 가공 및 수출
동엽식품 (東擘食品)	김현근	丹東市振興區 勝利街 316號	0415)622-7508	식품가공 및 수출
왕관떡집 (王冠食品)	김주식	丹東市振興區 二經街	0415)290-5004	떡집
진문운영동해관 (東海館)	김정자	丹東市振興區 3街石油小區 3號樓 105号	0415) 216-5000	
만리장성 (萬里長城)	김장곤	丹東市振興區 綠苑小區 3號樓 103	0415) 217-8585	
수라청	김영수	丹東市開發區 普利瑪賓館1層	0415) 230-9022	
동일건강원 (東一健康園)	김석철	丹東市江灣江濱村3組612號	0415) 622-7272	보신제품
이화원 (梨花園)	김광호	丹東市沿江開發區	0415) 312-4358	주스류 제조 및 수출
단동화원과채속동유한공사 (丹東花園果菜速凍有限公司)	고진영	丹東市振興區 山上街79號	0415)215-1778	밤 및 기타 농산품
단동영원식품유한공사 (丹東永遠食品有限公司)	이영환	丹東市振安區 九連城鎮廟嶺村六組	0415)416-6944	고추장, 된장, 간장

기업명칭	대표자	주소	연락처	취급품목
단동송림목제품유한공사 (丹東松林木製品有限公司)	송남철	丹東市振安區太平灣鎮	0415)419-1014	원목 소품 가구
단동북래특식품유한공사 (丹東福來特食品有限公司)	김영길	丹東市元寶區蝦蟆塘大街 551號	0415)232-1395	참쌀떡 기타과자류 제조 중국판매
단동중방식품유한공사 (丹東中邦食品有限公司)	윤달생	丹東市元寶區蝦蟆塘鎮黑溝村2組 (郵: 118000)	0415) 314-9188	담수어 양식, 농수산물 수출입
단동경천식품유한공사 (丹東京天食品有限公司)	정기창	丹東市黃海大街14號江臨工業區 2號樓 4樓	0415)622-5688	장뇌삼음료, 장뇌삼주, 인삼주, 참쌀동동주
대련				
파래사란김유한회사 (巴來斯飯店有限公司)	이승원	大連市中山區魯迅路74-2號 (郵: 116001)	0411)271-9893	
진미정 (珍味亭)	이영관	大連市中山區 民主廣場 2號 (郵: 1166001)	0411)263-2053	
이화원(개밭구)	이기백	大連市經濟技術開發區遼河西路99號 (郵: 116600)	0411)761-1862	
梨花園(이화원)	김강국	大連市 中山區修竹街 47號 (郵: 116001)	0411)264-3240	
鴨區亭(압구정)	이기변	大連市 中山區民意街18號 (郵: 116001)	0411)265-6422	
식품세계 (食品世界)	황인숙	大連市 中山區 港灣街8-2號 (郵: 116001)	0411)271-0910	
고구려	임 준	大連市中山區七一街 37號 (郵: 116001)	0411)280-5668	
고향해연 (故鄉海燕)	양종철	大連市 中山區益民街5號 (郵: 116001)	0411)280-9138	
대련중림수산식품유한공사 (大連中林水產食品有限公司)	문성민	大連市金州區福利街 75號 (郵: 116100)	0411)780-6855	
대련한일농업설비유한공사 (大連韓一農業設備有限公司)	이종갑	大連市開發區遼河西路31號 維也納大廈906室(郵: 116600) 공장: 大連市金州區登沙鎮北關村	0411)764-1006 0411)464-4646	비닐온실하우스 시공 및 분무기 제작, 판매

기업명칭	대표자	주소	연락처	취급품목
덕주시				
한강찬음유한공사	문용길	임읍현	0534)428-5998	
우성 사료 유한공사	차창호	덕주시개말구	0534)255-2103	사료 제조
덕진 농업종합개발 유한공사	김춘평	원현 개말구	0534)262-0553	농산물 가공
격림 식품 유한공사	이성재	덕주시개말구	0534)275-3516	사탕류 제조
경신 식품 유한공사	서병복	덕주시개말구	0534)275-4803	식품 제조
동관시				
동관구이세계 (東莞烤吧世界)	박상수	東莞市花園新村花園路8號	0769)226-2756	요식업
목단강				
신달집단 (神達集團)	한영석	요식업		공제품 가공
어머니 손맛 (媽媽的手藝)	최원석	牡丹江市長安街西五條路 (郵: 157000)	0453)6188018	
한풍식품유한공사 (韓豐食品有限公司)	이홍식	牡丹江市長安街西七條路	0453)617-5515~6	김치 장류
피라과라 (劈啦啲辣)	신중복	黑龍江省寧安市光明5號 A.P.T	0453)762-4981	
가야한국요리 (伽椰 莊園)	강신호	黑龍江省海林市海林鎮	0453)710-2999	
성민 농부산업 유한공사 (成民農副產品有限公司)	하청무	牡丹江市西安區六條路新星花園社區2 #5-511室(郵: 157000)	0453)617-0191	
무순시				
농표 푸리나 (무순) 사료유한공사 農標 푸리나 (撫順) 飼料有限公司	김영호	遼寧省撫順市順城區新城街1號 (郵: 113006)	0413)759-9302	
백록담 (撫順白鹿潭餐飲娛樂有限公司)	이양주	遼寧省撫順市順城區長春街成功家園A座 (郵: 113006)	0413)750-4011	한국요리
사천성				
신라성 한국요리점	인경식		028)8512-4222	
한국담배인삼공사	김범수		028)8620-0150/1	
향토콜 한국요리점	김호제		028)8692-2233	

기업명칭	대표자	주소	연락처	취급품목
농포보서남(성도)사료 (農標普瑞南(成都)飼料)	장원철		028)8420-4554	
한가란찬음문화 (韓嘉蘭餐飲文化)	노내정		028)8672-3377/ 5757	
상해시				
제일제당 상해사무소 (希杰香港有限公司上海代表處)	김장훈/ 신상엽	上海虹橋開發區興義路8号万都中心 710-712室 (郵: 200336)021	5208-0285	식품, 의약, 화장품 등
함지박 (函极博)	정석규	上海古北新區榮華東道里昂花園39-45号 (郵: 201103)	021)6295-7873	
한국담배인삼공사 상해대표처 (韓國烟草人參公社上海代表處)	허길길호	上海成都北路500号峻岭广场2504室 (郵: 200003)	021)6322-0165	담배, 인삼
중가 (上海宗家餐飲有限公司)	박재영	上海浦東芳甸路3072号聯洋商業中心三樓 (郵: 200135)	021)6854-4346/7	
제주도 (濟州島)	손일덕	上海延安西路65号國際貴都大飯店3樓 (郵: 200040)	021)6248-1688/ 2334	
상해은하한강식당유한공사 (上海銀河漢江餐館有限公司)	김정구	上海中山西路888号銀河賓館1樓 (郵: 200051)	021)6219-8883	
소주동아음료유한공사 (蘇州東亞飲料有限公司)	윤영섭	(사무소) 上海長寧區茅台路177号天山科技樓402 室 (郵: 200051) (공 장) 江蘇省吳江市汾湖經濟 開發區滬港路	021)6273-4400 /11/22	박카스 등 보건음료
맛사랑 (上愛之味)	우종삼	上海黃鵬路 392号	021)6449-5724	
동양제과(주)상해공장 (好麗友食品(上海)有限公司)		上海青浦工業園區外青松公路5151号 (郵: 201700)	021)6921-1888	오리온 초코파이, Custard 등 식품
농협중앙회 상해대표처 農協中央會上海代表處	이광재	上海長寧區延安西路2299号世貿商城 11樓B69室 (郵: 200336)	021)6236-2201	농산물 및 가공제품
상해농심식품유한공사 (上海農心食品有限公司)	김승희	上海閔行區虹橋鎮吳中路1388号 (郵: 201103)	021)6401-7680	라면 스펀

기업명칭	대표자	주소	연락처	취급품목
서안시				
한라산	방계봉		029)8539-3158	
세미바이오	정영화		029)8387-2484	
한촌	이진화		029)8533-6226	
진흥호민속촌	김희태		0910)551-0240	
소주				
한양관 (漢陽館)	정영환	蘇州市十全街579號	0512)6530-5134	
한식아리랑 (昆山阿裏郎)	김신만	昆山市亭林路321號	0512)5753-7459	
신라가든 (新羅庭園)	정인옥	蘇州市十全街67-69号	0512)6526-7718	
승주시				
승주시경회루한국로리 (擘州市慶會樓韓國料理)	박령석	浙江省擘州市城關擘州大道50号	0575)3017276	
심양시				
한성농업	김광림	024)6250-0509		
심양태평신식품유한공사 (沈陽太平禪食品有限公司)	김창래	沈陽市于洪區黃河北大街132号	024)2253-4373	식품가공
웅창식품유한공사 (熊昌食品有限公司)	이창환	瀋陽市蘇家屯區白楊路50號 (郵: 110141)	024)8910-7337	
간강식품중국침양영성식품유한공사 (中國沈陽永成食品有限公司)	림문혁	瀋陽市鐵西區興順街 50号	024)3104-1678	식품가공, 제조 찬음
심양신성식품유한공사 (沈陽信成食品有限公司)	장현석	沈陽市皇姑區長江街72號	024)8626-8082	패스트푸드
심양장사부고려삼결탕찬음유한공사 (沈陽張士傳高麗參鷄湯餐飲有限公司)	장현석	심양시화평구시부데고구려비관 606호	024)2346-8872	삼계탕
심양신라성찬음유한공사 (沈陽新羅城餐飲有限公司)	나순희	沈陽市和平區西塔街敦化1路40號 (郵: 110001)	024)2346-9856	

기업명칭	대표자	주소	연락처	취급품목
심양설악산찬음오락유희한공사 (瀋陽雪岳山餐飲娛樂有限公司)	홍순대	瀋陽市和平區太平北街1号 (郵: 110001)	024)2383-5305	
설악산	김영돈	沈陽市蘇家屯區白楊路50號	024)8913-3376	
심양서라벌찬음유희한공사 (沈陽薩拉伯爾餐飲有限公司)	조용훈	沈陽市沈河區小西路48号 (郵: 110013)	024)2274-0431	한국식당
백계원찬음유희한공사 (百帝園餐飲有限公司)	여태근		024)2347-3718	HOTEL, 종합외식 산업
심양두향식품유희한공사 (沈陽豆香食品有限公司)		沈陽市蘇家屯區林盛鎮	024)8948-3085	식품 제조
심양대한김치유희한공사 (沈陽大漢泡菜有限公司)	신태진	沈陽農業高新技術開發區三窪社區	024) 8804-3379	김치, 도라지, 보쌈김치
심양농심식품유희한공사 (瀋陽農心食品有限公司)	조인현	瀋陽市經濟技術開發區四號街3甲1號 (郵: 110141)	024)2536-7480 /101	라면 등 제조
기원농산품	이충호	024)2340-4743		
심양경회루찬음오락유희한공사 (瀋陽慶會樓餐飲娛樂有限公司)	봉태성	瀋陽市和平區西塔街60號 (郵: 110001)	024)2346-5933	
심천시				
아이미 식품	장진배	深圳市南山區粵海門廣A-2332	0755)2666-6394	식품류
안산시				
한국관 (韓柳大酒樓)	유남희	鞍山市鐵東區南中華路19號	0412)556-0908	
안산딜리피자하우스 (鞍山迪利比薩餐飲有限公司)		鞍山市鐵東區5道街6號 (郵: 114001)	0412)222-5222	피자, 스파케티, 서양요리 등
안산풍미식품유희한공사 (鞍山風味食品有限公司)	김형준	鞍山市騰鰲經濟開發區將軍街 (郵: 114225)	0412)891-5444	
보보찬음유희한공사 (勃勃餐飲有限公司)	장미애	鞍山市鐵西區人民路222號 (郵: 114011)	0412)842-3939	

기업명칭	대표자	주소	연락처	취급품목
연태시				
한우리회관 (韓宇利會館)	김대연	烟台市萊山區迎春大街133号	0535)671-9830	한국요리
한양회관 (滄陽會館)	송미순	烟台市北馬路光國巷13号	0535)628-9159	한식업
피자랜드찬음유한공사 (烟台比薩聯德餐飲有限公司)	이정희	烟台市開發區長江路188号C區789号	0535)693-3360	피자집
(연대농표)푸리나사료유한공사 (烟台農標)普瑞納飼料有限公司)	김정구	烟台市芝罘區环海路40号	0535)682-6584	사료
연대천양농산품유한공사 (煙臺天陽農產品有限公司)	전현배	烟台市芝罘區后海岸路8号	0535)674-1013	농산물, 무역
조선궁 (朝鮮宮)	황호연	烟台天馬大廈B座1102室	0535)639-1333	한국진통요리
장수촌 (長壽村)	이기암	烟台市萊山區初家綠色家園對面物資大廈2樓	0535)671-2985	한국음식
연대유미식품유한공사 (烟台由米食品有限公司)	윤병국	烟台福山高新産業區振中街316号	0535)630-1209	냉동면식품
신라가든 (新羅宮)	손영재	烟台市芝罘區口腔醫院對面	0535)660-5759	한국식 생갈비, 숯불갈비, 활어회
세영수산(주) (世映水産)	강중수	烟台市芝罘區南大街156号平安大廈1309号	0535)665-8463	수산업
연대실국식품유한공사 (烟台雪國食品有限公司)	최영일	烟台市芝罘區海港路23号	0535)674-5305	식품 단체 급식
사론농원유한공사 (沙論農園有限公司)	장기승	연대시문화로문화시장내	0535)668-1239	관엽수도 소매 조정공사
래주시부안부식품유한공사 (萊州市富恩赴食品有限公司)	이왕열	萊州市平里店鎮經濟園區	0535)261-5599	한국김치
귀빈가든 (貴賓園)	정병신	연대시개발구태산로37호	0535)638-7338	한식, 정통한국요리
경림숯불갈비 (慶林韓式燒烤)	조미자	烟台市北馬路31号漁業公司對面	0535)622-3791	등심, 소(돼지)갈비, 대구탕, 갈치줄임, 바다회류

기업명칭	대표자	주소	연락처	취급품목
연변				
연변하란실업유한회사 (延邊河蘭實業有限公司)	이상열	吉林省延吉市興安鄉 (郵: 133000)	0433)262-9765	비스켓생산, 봉제, 식품가공
연길대성수산물유한공사 (延吉大成水產有限公司)	성기운	吉林省延吉市長白路288號 (郵: 133000)	0433)288-1075	해산물
길림제유식품유한공사 (吉林宰佑食品有限公司)	김기태	吉林省延吉市新華路81號新華大廈2樓 (郵: 133000)	0433)256-2004	햄버거 제조판매 및 식품가공
연변경복궁만점유한회사 (延邊景福宮飯店有限公司)	도경주	吉林省延吉市局子街160-1號 (郵: 133000)	0433)253-9868	
해피나라음식유한회사	신주열	吉林省延吉市解放路81胡同 (郵: 133000)	0433)252-7756	외식업
위해				
동서식품유한공사 (東西食品有限公司)	정신득	산둥성 문둥시 송춘진	0631)889-8405	가공식품, 과자류
한류식품 유한회사 (韓流食品有限公司)	강남훈	문둥시 대수과 공업원	0631)864-6666~8	
이매농부산물 유한회사	허동문	등시	0631)856-8188	
영성남일수산물유한공사 (榮成南一水產有限公司)	남창용	榮成市俚島鎮	0631)766-7440	염장채소, 잣갈, 김치류
영성태영식품유한공사 (榮成太英食品有限公司)	박종동/ 김용희	榮成市成山大道52號	0631)755-6334	식품가공
영성동양식품유한공사 (榮成東陽食品有限公司)	손기산	榮成市崖頭鎮蔡家庄	0631)765-5933	수산물가공
위해친태음나다 (威海天泰飲樂多)	박태훈	威海市少年路80號101室	0631)528-3332	아구르트
위해위호텔 한국관 (威海衛大廈 韓國館)	최윤식	威海市海港路82號(A座1層)	0631)528-8188	한식당

기업명칭	대표자	주소	연락처	취급품목
위해송박사양족말 (威海宋博士豬蹄王)	송신현	威海市威勝大廈南門1054號	0631)520-3458	한식당
위해설악정 (威海雪岳亭)	박승자	威海市新威路36號	0631)521-7531	한식당
위해동해횃집	김태동	威海市文化西路147號	0631)568-0177	횃집
위해대성수산 (威海大成水產)	홍신원	威海市菊花頂	0631)523-5348	수산업
위해놀부식품 (威海諾伯食品)	오진권	威海市海濱北路44號	0631)520-4099	유황오리 전문점
위해남원골 (威海南園溝)	이영순	威海市光明路60-9	0631)528-0703	한식당
위해그곳에가면 (威海去那兒的話)	이미란	威海市黃冠小區	0631)598-6248	한식당
위해고려원 (威海高麗園)	김무준	威海市陽光大廈2樓	0631)528-6550	한식당
위해경부궁 (威海京富宮)	유종상	威海市海濱北路24號	0631)521-9099	한식당
위해남산일성식품유한공사 (威海南山一星食品有限公司)	이재근	威海市高科技區	0631)581-2881	참기름, 고추가루
위해대성과수산업유한공사 (威海大成果樹產業有限公司)	허운범	威海市經技區皇冠小區	0631)598-9565	과일봉지
위해신경식품유한공사 (威海信晶食品有限公司)	강신억	威海市環翠區張村鎮王家疃	0631)575-6528	농산물
위해대의식품유한공사 (威海大義食品有限公司)	신의기	威海市溫泉鎮前亭子	0631)536-7700	식품제조
위해영우식품유한공사 (威海英宇食品有限公司)	박종우	威海市經技區北葛粒村	0631)598-5783	농산물 및 기름
위해신우식품유한공사 (威海信宇食品有限公司)	손병용	威海市孫家疃鎮王家村	0631)526-2520	수산물 수출
위해한성관유한공사 (威海韓城館有限公司)	한경우	威海市經濟區皇冠小區魯東大廈	0631)599-0201	한식, 중식, 배추김치 외
유방시				
유방옥토미식품유한회사 (瀋坊玉土味食品有限公司)	이철수	壽光市侯鎮 (郵: 262724)	0536)536-1495	식품

기업명칭	대표자	주소	연락처	취급품목
청주홍일식품유한회사 (靑州鴻一食品有限公司)	김규홍	壽州市楊家庄工貿口 (郵: 257500)	0536)350-2388	식품
유방한강찬음오락유한회사 濼坊漢江餐飮娛樂有限公司	한기섭 (韓箕燮)	濼坊市濼城區福壽西街	0536)857-9820	한국요리
임구금태양유한회사 (臨陶金太陽有限公司)	김재골 (金在杓)	山東省臨陶縣楊善鎮政府駐地 (郵: 262600)	0536)337-2167	식품(도라지)가공
대연식품유한공사 (大延飾品有限公司)	최병원	城西路678號後門	0579)543-0941	식품제조
홍농숯불갈비	전계만	稠州西路110號1層	0579)532-9989	
장춘시				
백성시유일식품유한공사 (白城市有一食品有限公司)	정기연	白城市 洮北區河鄉 鄉府路 8號	0436)393-5248	농수산물 가공 수출
우리집 (屋里進)	배명근	朝陽區隆禮路與立信街交匯處	0431)566-9491	요식업(도시락 전문)
마산횃집 (馬山生拌魚館)	이만우	朝陽區 同光路 5-4號	0431)564-6177	요식업(회 전문)
안채 (安家)	손기모	朝陽區 同志街 3536號	0431)564-1797	요식업(한식)
장백산한성풍미찬정유한공사 (長白山漢城風味有限公司)	박광자	長春市 新民大街 長白山賓館	0431)562-6555	요식업(한식)
길림과파스식품유한공사 (吉林 과파 食品有限公司)	이기영	長春市 建設街 22號	0431)858-4884	레스토랑. 유통. 식품가공
용수산숯불갈비 (龍秀山韓式燒烤)	김현구	朝陽區 隆禮路 519號	0431)564-4876	요식업(한식)
제남시				
은행나무집	박주유		0531)655-8945	
삼락몽찬음 (三樂夢餐飮)	문삼진		0531)640-0006	
명가식부 (名家食府)	방지환		0531)292-9278	
경복궁	성용모		0531)722-7282	
합지박	손종희		0531)801-7860	
설악식당	양근섬		0531)811-6208	

기업명칭	대표자	주소	연락처	취급품목
북경시				
한국농협동조합중앙회 북경사무소 韓國農業協同組合中央會北京辦事處	이두섬	北京市朝陽區北辰東路8號 匯賓大廈 A-907號 (郵: 100101)	010)8498-4187/ 4188	한국농협 중국사무소
농수산물유통공사 베이징AT센터 (韓國農水產物流通公社)	조학형	北京市朝陽區東三環北路2號南銀大廈 1506	010)6410-6120/1	
한국농진속식회사 북경사무소 (韓國農心株式會社北京辦事處)	조인현	北京市朝陽區東三環北路17號恒安大廈 702, 704(郵: 100027)	010)585-7520	식품(라면, 스네)
왕징서라벌찬음유한공사 (望京薩立伯爾餐飲有限公司)	백금식	北京市朝陽區望京南湖東園201號 樓中福百貨5層	010)8471-2063	전통한국요리, 일본요리
북경효성찬음유한공사 (北京曉星餐飲有限公司)	여기동	北京市豐臺區西客站主樓東二樓1007分箱	010)5182-7467	찬음경영, 포장식품판매, 음료
북경향진찬음유한공사 (北京香田餐飲有限公司)	강외석	北京市朝陽區東三環北路3號幸福大廈 B座2層(郵: 100027)	010)6461-5720	
오리온식품유한공사 (好麗友食品有限公司)	김홍재	河北省廊坊經濟技術開發區全興路11號 (郵: 065001)	0316)607-7888	초코파이, 초코케익, 카스타드, 껌
북경한상식품유한공사 (北京韓爽食品有限公司)	이은숙	北京市大興區采育鎮沙窩店村東100米 (郵: 102608)	010)8020-1858	김치 및 절임류 제조업
북경음락다식품유한공사(한국아쿠르트) 北京飲樂多食品有限公司(韓國YAKULT)	박태훈	北京市東城區倉南胡同2號樓2-1乙首層 (郵: 100101)	010)8406-7043	음락다(飲樂多) 생산판매
북경연사서라벌찬음유한공사 (北京薩立伯爾(燕莎)餐廳有限公司)	조우제	北京朝陽區亮馬橋路50號 燕莎友誼商場地下一層(郵: 100016)	010)6465-1215/ 1845	정통 한국요리, 갈비, 등심, 국수전골 등
북경세농종묘유한공사 (北京世農種苗有限公司)	박상권	北京市大興區康庄路口福海大廈2樓 (郵: 102600)	010)6020-5822/ 5688	채소, 과채 종자
북경수목성찬음유한공사 (北京壽福城餐飲有限公司)	은대성	朝陽區霄雲路38號現代大廈地下一層 100027)	010)8453-9999	한식

기업명칭	대표자	주소	연락처	취급품목
북경미스터피자 (北京米斯德比薩餐飲有限公司)	허 준	北京市朝陽區農展南里12號 通廣大廈1501室	010)6538-9028/85	피자, 스파게티, 음료
북경랑마서라벌잔음유한공사 北京薩拉伯爾(亮馬河)餐廳有限公司	조우제	朝陽區東三環路8號亮馬河大廈2層 (郵: 100004)	010)6590-0630	전통 한식요리, 갈비, 등심, 국수전골 등
북경대일한일국제종묘유한공사 (北京大韓日國際種苗有限公司)	이숙순	朝陽區望京中環南路甲2號 佳境天城B-1808(郵: 100102)	010)8472-0305/6	
천진시				
(하림)미희궁 (夏林美希肯)	강수점	天津市南開區水上公園路7号	022) 2335-9777	한국요리
천진운산찬음유한공사 (天津雲山餐飲有限公司)	김운영	天津市和平區南京路189(津滙廣場6層)	022)8319-1866/7	한국요리
천진살람백이주점유한공사 (天津薩拉伯爾酒店有限公司)	조용훈	天津市河西區大沽南路873號 (郵: 300211)	022)2833-5588	요식업
천진독로식품유한공사 (天津獨路食品有限公司)	장금희	(사무소) 天津市南開區士英路翠泉公寓2棟306號 (공 장) 天津市寶坻區開元路88號	022)2392-2260	김치, 갈비
천진내고향식품유한공사 (天津內故鄉食品有限公司)	박복례	天津市東麗區子鳴庄村十七區后街南14號 (郵: 300300)	022)8479-1102	
천진가침식품유한공사 (天津嘉恬食品有限公司)	백종태	天津市北辰區高峰路華康食品廠院內 (郵: 300400)	022)2691-0997	아이스크림 등
칭도시				
칭도용산식품유한공사 (靑島龍山食品有限公司)	윤승식	平度市蟠桃鎮窩洛子村(郵: 266700)	0532)8559-9878	김치류, 절임류, 장류
칭도송덕식품, 화장품유한공사 (靑島松德食品, 化粧品有限公司)	정명호	山東省靑島平度市張戈庄工業園 (郵: 266700)	0532)8231-3303/ 1001	김치, 마늘 가공, 화장품
칭도선명식품유한공사 (靑島善明食品有限公司)	정선득	平度市郭莊鎮 (郵: 266737)	0532)8232-9032	땅콩, 초콜렛 가공
칭도대흥식품유한공사 (靑島大興食品有限公司)	조동자	靑島平度市古峴鎮土地(郵: 266742)	0532)8336-3000	절임식품류, 신선야채

기업명칭	대표자	주소	연락처	취급품목
청도대관식품유한공사 (靑島大冠食品有限公司)	이관수	中國山東省平度市蘭底鎮 (郵: 266734)	0532)8234-1152	예기스, 소스, 농산물 한약재 예기스
청도다원식품유한공사 (靑島多元食品有限公司)	오문선	中國山東省平度市蘭底鎮 (郵: 266734)	0532)8234-1168/ 1210	고추장, 된장, 간장, 액젓, 물엿, 고추기름, 고추가루, 쌈장, 짜장(춘장)
청도사랑식품유한공사 (靑島沙郎食品有限公司)	이승상	即墨市北安工業園	0532)8350-3870/1	각종 김치류, 반찬류, 고기류, 한국음식류
청도음락다식품유한공사 (靑島飲樂多食品有限公司)	이필직	靑島市遼寧路12號	0532)8383-2657	아쿠르트
금호식품유한공사 (錦湖食品有限公司)	류 군	靑島市嶗山區高科園株洲路	0532)8870-3409/ 3400	초코파이, 카스타드, 쿠키, 오징어땅콩과자, 슈빅(홍련불)
청도장성냉장식품청 (靑島長成冷藏食品廠)	김규태	靑島市城陽區 北部工業園 (郵編):266109)	0532)8796-6088	수산물 가공수출업 냉동수산물 가공 및 염장식품 가공수출
청도동원식품유한공사 (靑島東源食品有限公司)	박인구	靑島市城陽區流亭街道東藍家莊村 (郵: 266108)	0532)8493-7872/3	김치 외 식품가공 무역
청도광성원식품유한공사 (靑島光成源有限公司)	조대희	靑島市城陽區流亭街道趙村 (郵: 266108)	0532)8493-0609	무침과 조림제품
한우정식당 (韓友亭飯店)	황남기	靑島市城陽區流亭街道	0532)8771-1300	
김인식일식"어진" (金仁植日式"魚田")	김인석	靑島市城陽區大北曲村 (郵: 266109)	0532)8773-4806	일식요리
설악정식당 (雪岳亭飯店)	노광희	靑島市城陽區中成路(郵: 266109)	0532)8786-1659	
삼원가든 (三元가든)	민영수	靑島市城陽區東田村牧丹公園內 (郵: 266109)	0532)8775-4575	
김삿갓식당 (金草帽飯店)	최성산	靑島市城陽區流亭街道重慶北路 (郵: 266108)	0532)8481-2655	

기업명칭	대표자	주소	연락처	취급품목
청도백향목찬음유한공사 (靑島百香木餐飲有限公司)	최희수	靑島市市南區香港中路28號貴都大酒店 2層(郵: 266071)	0532)8578-5955	식품, 음식
청도동원참치유한공사 (靑島東遠吞拿餐館有限公司)	황정희	靑島市市南區香港中路65號華青食街 (郵: 266071)	0532)8576-6184	한국요리, 동원참치회 전문
동양세일식품점 (東洋世一食品店)	지민권	靑島市城陽區南疇村 (郵: 266108)	0532)8493-0610	
남강식당(쾌통호텔) (南江飯店(快通大酒店))	윤순례	靑島市城陽區民航路流亭機場入口 (郵: 266108)	0532)8471-5634	
청도돈오라침숯불갈비전문점 (靑島錢來了排骨燒肉專門店)	황석태	靑島市市南區上航路44號 (郵: 266071)	0532)8588-7365	각종 구이전문
C.J(칭도)식품유한공사 (希杰(靑島)食品有限公司)	신종균	山東省萊西市經濟技術開發區 (郵: 266600)	0532)8849-1140/1	조미료 원료, 다시다, 육류가공
공원회관 (公園會館)	정락성	靑島市城陽區興陽路8號 (郵編:266109)	0532)8776-1114	
청도청남대찬음유한공사 (靑島靑南台餐飲有限公司)	민병국	山東省萊西市龍水路任家疇村 (郵: 266600)	0532)8845-3411	한식
청도신원식품유한공사 (靑島申元食品有限公司)	이석연	山東省萊西市烟台路108號 (郵: 266600)	0532)8848-8134	긴 김치, 조미료, 양념조림류, 농수산물EX
청도생초당식품유한공사 (靑島生草堂食品有限公司)	김원욱	山東省萊西市姜山鎮工業園區 (郵: 266603)	0532)8646-3599	냉동식품, 만두류
청도대전농업개발유한공사 (靑島大田農業開發有限公司)	이채규	山東省萊西市南墅鎮 (郵: 266600)	0532)8540-9017	베 재배 및 가공
청도남남로유한공사 (靑島南南飲料有限公司)	임영수	山東省萊西市姜山鎮工業園區 (郵: 266603)	0532)8646-1233	과즙 농축액, 야채즙 농축액 등
청도청복식품유한공사 (靑島淸福食品有限公司)	곽재섭	膠州市營海鎮工業園(郵: 266318)	0532)8221-0447	식품제조업
청도신미종합식품유한공사 (靑島新味綜合食品有限公司)	박정석	膠州市南關北三里河村 (郵: 266300)	0532)8221-8020/6	김치, 고추가루, 다테기, 혼합양념

기업명칭	대표자	주소	연락처	취급품목
청도농심식품유한공사 (靑島農心食品有限公司)	류병돈	膠州市營海鎮盛福村工業團地 (郵: 266318)	0532)8527-0165/6	라면스프루, 스프반제품 류, 스프반제품 기타소재류(액기스)
청도청양식품유한공사 (靑島靑洋食品有限公司)	최진남	膠州市東環路鄒家畦工業園區 (郵: 266300)	0532)8229-1055/ 0204	각종 조미료, 수산품가공
홍양식품 (靑島興陽食品有限公司)	이남재	膠南市張家樓鎮 (郵: 266406)	0532)8413-0622	야채 및 농산품가공
혜천화웨이 (靑島惠泉花卉有限公司)	남지원	膠南市王臺鎮 (郵: 266425)	0532)8311-1645	화웨이, 분재, 정원수 선인 장 재배, 분재 재배, 판매
진안식품 (靑島進安食品有限公司)	한광웅	膠南市王臺鎮 (郵: 266425)	0532)8313-6477/8	절임, 무침 가공
동방식품 (靑島東邦食品有限公司)	김정현	膠南市王臺鎮 (郵: 266425)	0532)8311-3466	고춧가루(김치용, 고추장 용), 김치다데기, 고추장 다데기(건식, 습식) 염장 제품 일체
한일관 (靑島格林大酒店有限公司)	정 응	靑島市珠海灘臺東路9號	0532)8661-0088	요식, 식품가공업
고향산진 (靑島故鄉山川酒店有限公司)	서상택	膠南市海王路155號 (郵: 266400)	0532)8661-7171	한국전통 음식
청도동원고려인삼유한공사 (靑島東園高麗人蔘有限公司)	김해중	靑島市經濟技術開發區油港路2#	0532)8685-5232	인삼, 홍삼 계열 제품
청도개밭구고려정식당 (靑島開發區高麗亭飯店)	오재원	靑島市經濟技術開發區武夷市場119號 (郵: 266555)	0532)8688-1201	
합빈시				
치치하얼대성식품유한공사 (齊齊哈爾大成食品有限公司)	이규철	黑龍江省齊齊哈爾市龍沙區大民鎮壓三 合村(齊水公路三公里處) (郵: 161005)	0452)234-0052	메주, 된장, 고추장, 다데기 등
류가네 (柳家村)	류병규	哈爾濱市道里區經緯三道街3號	0451)8420-7758	요식업
명가유한공사 (名家有限公司)	최원진	哈爾濱市道里區經緯四道街28號	0451)8763-1818	한국전통요리
스카이식당 (九霄飯店)	김진열	哈爾濱市南崗區西大直街504號 哈克隆8號	0451)5391-2920	요식업

기업명칭	대표자	주소	연락처	취급품목
현가네(賢家韓國食品專賣)	박종현	哈爾濱市南崗區文興街4號師大 綜合商店內(賢家)	0451)8682-9287	식품, 유통
한국부산요리(韓國釜山料理)	구성하	哈爾濱市道里區紅專街3號	0451)8461-7966	
아지트(阿集地)	이봉린	哈爾濱市南崗區師院街331号	0451)8663-5998	
한국요리 민속촌(韓國料理 民俗村)	량주호	哈爾濱市 南崗區 和興3道街 29號	0451)8633-4242	
한해식품유한공사 (韓海食品有限公司)	임태호	哈爾濱市 道里區 北安街47號 (郵: 150010)	0451)8231-1524	식품기계제조 (김구이) 유통
헤주시				
고려정(高麗亭)	이홍화	陳江	0752)216-6680	
한성원(漢城苑)	지영근		0752)268-1127	
우보음식복무(宇普飲食服務)	이의식	仲愷高新技術園	0752)261-3920	
리화원(梨花苑)	송변호	陳江	0752)322-8377	
경포대(鏡浦台)	최승일	惠州	0752)228-5155	
명가(名家)	황종순		0752)239-7577	

연구자 소개

김 완 배 (서울대학교 농경제사회학부 교수)

송 정 환 (서울대학교 농경제사회학부 박사과정)

리 금 (서울대학교 농경제사회학부 박사과정)

중국지역 한민족 농업인 네트워크 구축 및 대중국 농식품수출 · 농업투자 활성화 방안

초판인쇄 / 2008년 12월 24일 인쇄

초판발행 / 2008년 12월 26일 발행

발행인 / 정태기

발행처 / 대산농촌문화재단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신설동 98-32

교보재단빌딩 9층 대산농촌문화재단

전화 (02)922-1600 팩스 (02)922-2100

제 작 / 이만근편집인쇄회사

전화 (02)2274-0332 팩스 (02)2274-0336
